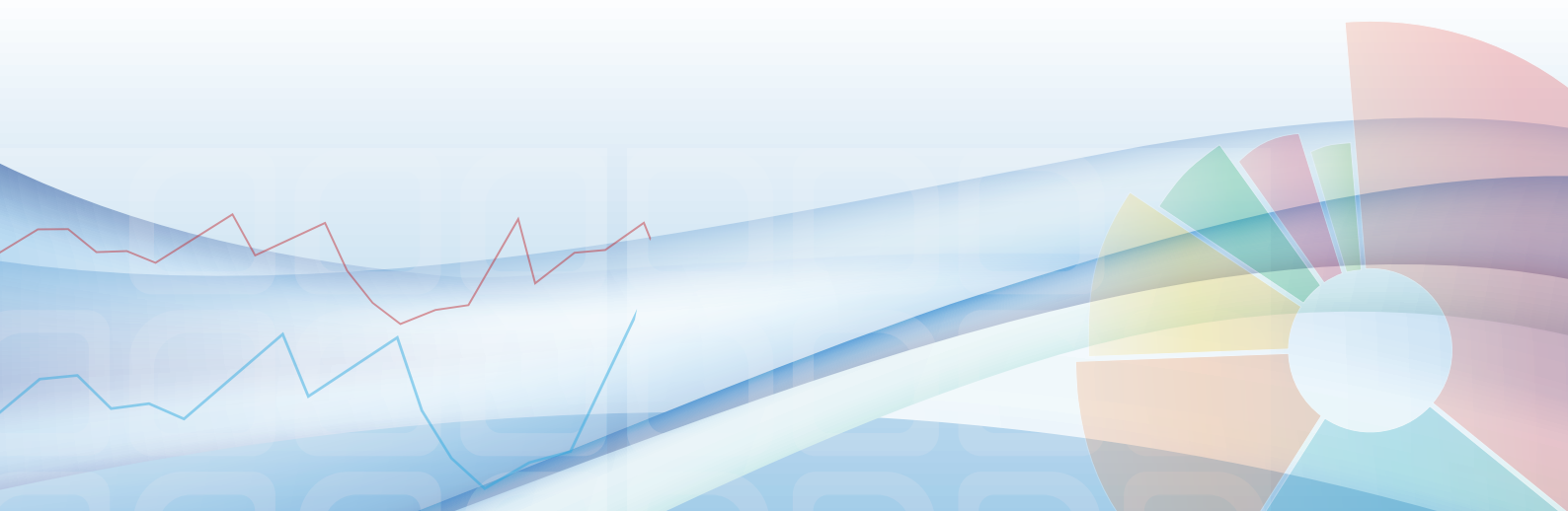


2012 한국 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이슈와 과제

일본국제교류기금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 본 조사연구는 일본국제교류기금이 실시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일본연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 일환입니다.

본 조사연구는 일본국제교류기금과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의 공동조사연구에 의한 것이며,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진창수 소장이 총괄하였습니다.

본 조사연구는 2005년 이후의 한국에서의 일본연구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단, 분야에 따라 그 조사대상의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05년 이전의 연구조사는 《한국 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진창수 역음, 2007, 한울아카데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집필자 |

- **진창수** \_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소장, 책임연구자
- **이면우** \_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김도형** \_ 동서대학교 객원교수
- **윤병남** \_ 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 일본문화전공교수
- **최 관** \_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교수
- **최재철** \_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대학 일본학부교수
- **이강민** \_ 한양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부교수
- **한영혜** \_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교수

# 목 차

## 연구 논문

제1장 한국에서 일본연구: 다양화와 전문화의 딜레마 .....	진창수 (세종연구소)	1
제2장 한국에서 일본 정치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	이면우 (세종연구소)	23
제3장 한국에서 일본 경제·경영 분야의 연구동향 .....	김도형 (동서대학교)	41
제4장 한국에서의 일본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	윤병남 (서강대학교)	79
제5장 한국에서 일본고전문학의 연구동향 .....	최 관 (고려대학교)	95
제6장 한국의 일본근·현대문학연구 현황과 과제 .....	최재철 (한국외국어대학교)	107
제7장 한국에서의 일본어 연구의 현황과 과제 .....	이강민 (한양대학교)	121
제8장 한국에서의 일본 사회문화 분야 연구 동향 .....	한영혜 (서울대학교)	133

## 부 록

1. 통계자료 .....	159
(1) 일본연구자 .....	161
(2) 연구기관 .....	172
(3) 일본연구자 학위논문 업적 .....	180
2. 일본학 조사 설문지 .....	199
(1) 일본연구자 조사표 .....	201
(2) 일본연구기관 조사표 .....	209
3. 일본연구기관 주소록 .....	219

## 제1장 한국에서 일본연구: 다양화와 전문화의 딜레마

진 창 수 (세종연구소)

### 1. 서론: 인문학적 취미에서 전문화로

본 연구는 일본 연구자와 기관의 통계 분석과 연구 분야별 쟁점의 변화를 분석하여 한국의 일본 연구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의 일본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1)연구자의 학문적인 영역, 2) 연령대, 3)충원 시기, 4) 학위 취득 국가, 5) 기관의 설립시기와 분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sup>1)</sup>. 보고는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의 2012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일본연구를 평가하고자 한다.

한국 일본연구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 전후부터 1980년까지의 일본연구는 인문학적인 지식에 의거한 특수론적이고 이상론적인 분석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 넓은 의미에서 일본에 대한 관심과 탐구는 대학 이외의 저널리즘이나 재야학자, 작가 등에서도 수행되어 왔지만, 한국의 역사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일본제국주의 비판이나 순수한 일본어, 일본문학을 제외하고는 일본 자체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기피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역사청산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였기 때문에 전후부터 1980년까지는 일본 자체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움직임은 현실적인 제약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1980년대 이후 일본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등장함에 따라 학계와 매스컴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인식이 변화하게 되었다. 즉 민간의 활발한 교류, 기업간의 협력, 그리고 일본의 경제성장에 따른 한국 내 일본 수요의 증가 등으로 실무적인 관심에서 일본을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1980년대에는 한국 특유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한편에서는 일본의 경제성장의 성공사례를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게 되었다. 이처럼 1980년대에는 서로 모순된 일본 인식이 표출되면서 일본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였다. 1980년대 일본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일본연구가 양적인 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당시 일반적인 일본에 대한 논의는 저널리즘에서 나타난 ‘일본은 있다’, ‘일본의 없다’의 논쟁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sup>2)</sup> 따라서 1980년대는 이전의 일본 제국주의로부터의 부정적인 인식에서

1)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는 일본연구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5년과 2012년에 1) 직접 설문 방법: 설문지 우편 발송, 질문지 전화 인터뷰, 연구기관의 방문조사, 2) 한국연구재단의 데이터베이스 자료 분석: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업적통합정보에 등록된 연구자들의 개인 프로필과 연구업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자수는 2005년에는 1019명, 2012년에는 1077명이었다. 보고에서는 2012년의 조사자료를 사용했다. 2012년 조사에서 설문에 응한 사람은 169명, 한국연구재단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분석의 대상 수는 908명이며, 함께 1077명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또한 2012년의 조사에서는 연구기관의 조사도 이루어졌다. 2005년의 조사는 진창수 편 『한국 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한울아카데미, 2006), 2012년도 조사는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2012) 「2012년 조사자료: 한국 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해 주십시오.

탈피하여 일본을 긍정적인 인식까지 이해할 수 있는 인식의 폭이 넓어진 시기였지만 여전히 일본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가 남아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일본에서 유학을 한 연구자들이 일본학계에 대거 유입됨으로써 일본연구가 비약적인 성장을 하는 시기였다. 1990년대는 이전보다 다양한 학문의 조류가 형성되어 일본 연구가 본격적으로 전문화 단계로 들어가는 시기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 한국의 일본연구는 이전의 거대 담론을 중심으로 한 특수론적인 일본 연구에서 벗어나서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영역으로 발전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학계에서도 일본이나 세계에서 인정받는 논문이나 연구성과물이 나타나면서 한국의 일본연구는 초창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일본 연구는 취미와 배척의 단계에서 이해의 단계를 거쳐 전문화의 단계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일본 연구는 1990년 이후 전문화의 단계로 변화되었지만, 현재 연구자의 연령층이 50대와 60대가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의 분포도 어문학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불균등한 발전을 하였다고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연구자의 양적 팽창은 제도적인 지원에 의해 형성된 부분이 많다는 것도 강조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는 한국의 일본 연구가 다양성과 전문화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은 한일관계의 갈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다든지, 어문학은 유학시기의 연구방법이 그대로 재생산되는 한국적인 특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할 것이다.

## 2. 연구자와 기관의 동향 및 변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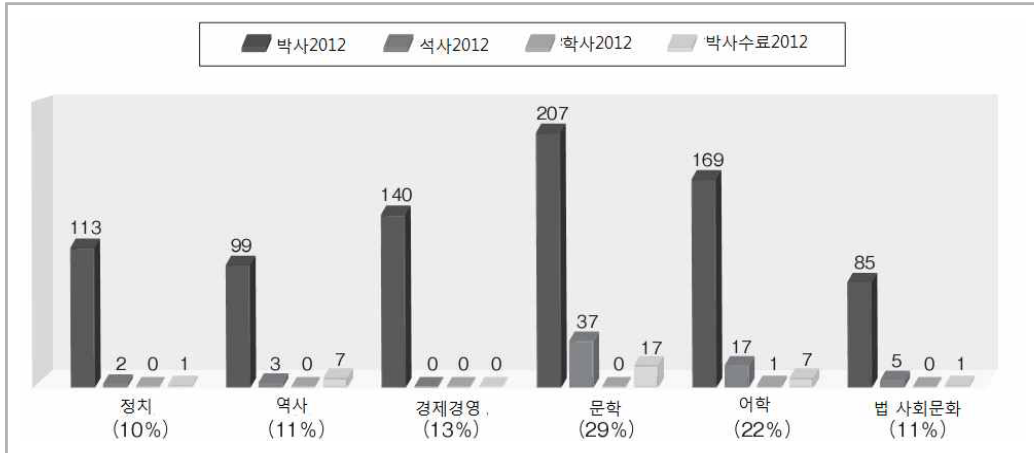
### 2.1. 연구자의 학문 분야별, 연령별 분포

연구자들의 분포를 <표 1-1>에서 보면 한국 교육 제도의 특성에 따라 문학과 어학에 여전히 많은 연구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3)</sup> 일본연구의 조사대상자 1077명 중에서 문학과 어학의 연구자는 548명을 차지하여 과반수 이상(51%)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일본연구자는 일본 관련 논문을 한편 이상 쓴 사람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한국연구재단에 개인연구자로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와 연구 논문의 정보를 비공개로 한 경우에는 일본연구자의 통계로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특히 어학과 문학의 특성상 박사 학위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석사와 박사수료만으로도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에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통계수치보다 더 많은 연구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최근까지도 한국의 대학 교육이 어문학을 중심으로 재생산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일본은 있다'는 일본으로부터 배울 교훈이 있다는 의미. '일본은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는 일본이 선진국이 된 경과를 중시하여 긍정적인 일본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일본은 없다'는 일본으로부터 배울 교훈이 없다는 의미. '일본은 없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는 일본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

3) 표1-6의 데이터는 설문에 응한 사람이 169명, 한국연구재단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분석 908명의 합계 107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는 박사학위 취득자뿐만 아니라, 석사, 학사를 포함하고 있다. 단, 연구자 중에서 석사와 학사 취득자는 연구기관과 대학에서 일본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표 1-1> 일본 연구자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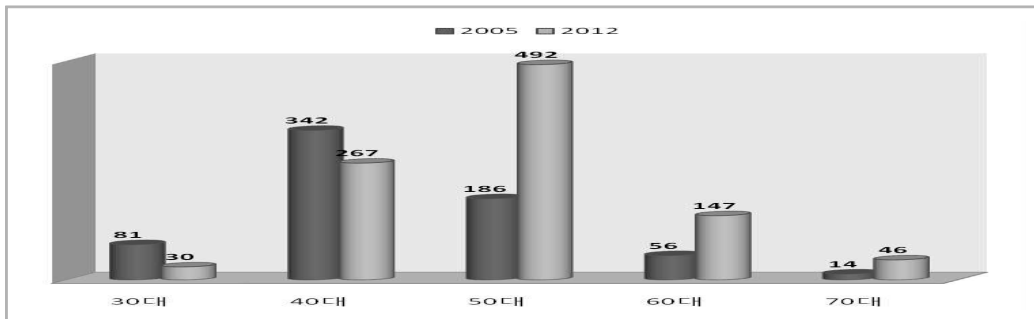


주) 2012년도 조사에서 설문에 응한 사람이 169명, 한국연구재단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분석의 대상 수가 908명으로, 한계 1077명이 분석대상이 되고 있음.

출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2012) 『2012년 조사자료: 한국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일본연구자들의 연령대를 조사해보면 <표 1-2>에서 보는 것처럼 50대 연구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30대의 연구자는 2005년도의 조사에서 81명인 것에 비해 2012년도의 조사에서는 30명으로 줄어들었다. 40대는 2005년도에는 342명이었는데, 2012년에는 267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30대와 40대의 연구자는 줄어들었는데 비해 50대 이후의 연구자는 늘어났다. 50대는 2005년도에 186명에서 492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리고 60대도 2005년도에 56명에서 147명으로 3배 정도 늘어났다. 70대도 2005년 14명에서 46명으로 3배 정도 늘어났다. 이는 한국의 일본연구자들이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젊은 연구자들이 학계에 유입되지 않아 연구자의 숫자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본사회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함께 한국사회에서도 일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한국의 일본학계는 새로운 연구자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

<표 1-2> 일본 연구자들의 연령대 분포



주) 2012년도 조사에서 설문에 응한 사람이 169명, 한국연구재단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분석의 대상 수가 908명으로, 한계 1077명이 분석대상이 되고 있음.

출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2012) 『2012년 조사자료: 한국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 2.2. 대학교육의 전공, 개설 시기, 일본인 교원의 수

한국의 일본연구자 배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 대학에서 일본연구와 관련된 전공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시기에 개설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일본연구와 관련된 학과와 전공은 <표 I-3>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주로 어학과 문학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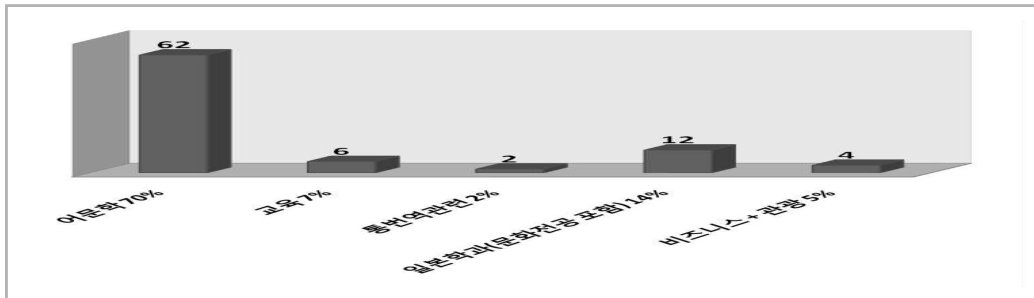
대학의 관련학과 개설시기를 살펴보면 70년대 이전부터 어문학 관련학과가 개설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에는 비약적으로 어문학 관련학과가 개설되었다. 1980년대 일본이 경제대국으로써 세계에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일본의 다양한 대중문화가 한국에 급속히 전파됨에 따라 한국사회 내에서도 일본 사회나 문화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되었다. 대학사회는 일본어와 문학관련 학과를 개설함으로써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기능적인 전문화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채 많은 대학들이 사회과학적 관심과는 상관없는 일본어와 문학을 중심으로 인문학적인 학과를 개설한 것이다. 일어일문학과와 교과목은 4년간 전체를 통해 어학과 문학을 기본으로 짜여져 있으며, 일본 경제 혹은 정치 등은 부수적 교양으로 일본사회 음미를 위한 조미료 역할에 그치고 있었다. 이는 한국의 대학이 처음부터 일본에 관련된 수요를 주로 어학과 문학이라는 인문학적인 학문 전통에서 대응한 것에 유래한다. 따라서 한국의 일본 연구와 관련된 교육은 주로 어문학을 중심으로 재생산되는 구조가 1980년대부터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한국 내에서 일본 경제와 정치, 사회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대학의 학과도 이러한 유행에 따른 일본학과를 개설하게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 교육에서 어문학 계열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의 일본학과도 기존의 일어일문학과가 단지 명칭만을 바꾼 경우가 많았고, 새롭게 일본학과를 형성하였다고 할지라도 일본 경제와 정치와 함께 어학과 문학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일본학과 설치의 효시는 1979년의 계명대학에서 시작되었지만, 계명대 일본학과 이후로는 한동안 신설 일본학과가 없다가 1990년대에 급격히 증가되었다. 예를 들면 강릉대(1996년), 대전대(1997년), 방송대(1997년), 배재대(1993년), 한림대(1992년), 한신대(1995년)등이 신생학과로서 개설되었다. 1990년대 당시에는 국제지역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국제대학원들이 지역연구의 교육(일본 지역 연구)을 표방하는 시기가 있었다<sup>4)</sup>. 결국 1990년대 국제대학원의 목표가 국제지역 전문가보다는 일반적으로 영어를 구사하면서 국제화된 인간을 육성하는 목표로 변화되면서 일본 교육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표 I-4>에서 보듯이 2000년 대에는 일본 관련 학과의 개설이 70년대 이전의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는 일본의 장기침체에 따른 일본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과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일본학과의 개설은 줄어들고, 일본에 대한 학과 신설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sup>5)</sup>.

4) 사회과학분야와 인문분야와 같은 기초 사회과학이 당장 대학의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안된다는 근시안적 생각은 대학의 인사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학문의 후속세대 양성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 통상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목적 하에 1997년도에 설립된 9개 국제대학원은 교원 충원에서 정치학자, 사회학자, 인류학자는 사실상 배제되었으며, 경제학, 경영학전문가들이 대세를 이루게 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5) 4년제 대학의 경우, 학과명으로서 일반적으로 일어일문학과, 일본어과, 일본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전공), 일어교육과, 일어일본학과, 일본어문학과 등의 명칭을 취하고 있으며, 2·3년제의 경우는 관광일어과, 일본어과, 관광통역과,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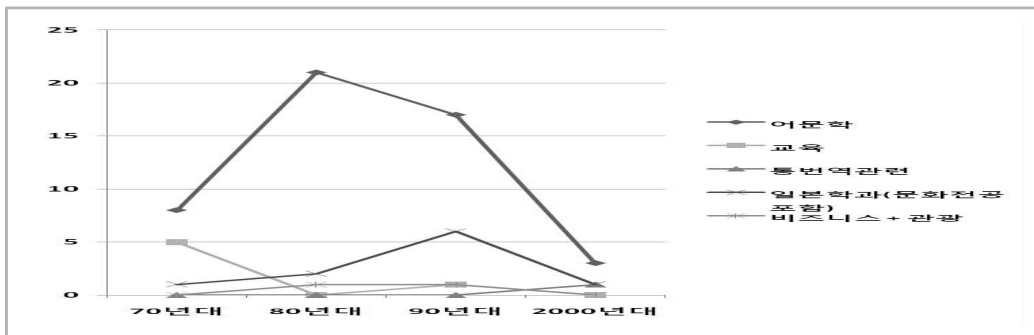
〈표 1-3〉 일본연구의 대학 전공 분포



주) 1)어문학: 일어전공, 일본어 전공, 일본어학과, 일본어어학부, 일어일문학과, 일본어문학과 포함 2)교육: 일어교육과, 3)통번역 관련: 일본어통역학과, 4)일본학과: 일어일본문화전공, 일본어일본문화학과, 일본학과, 등, 5)비즈니스, 관광: 관광일본어학과, 국제비즈니스어학부 일본어전공

출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2012) 『2012년 조사자료: 한국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표 1-4〉 일본연구 관련 대학의 학과 및 전공의 설립 년도



주) 일본학관련 폐과 혹은 통폐합된 학교는 계명대학교, 광운대학교, 대구대 교육대학원, 여수대학교, 천안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호원대학교 총 8개 학교이다.

출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2012) 『2012년 조사자료: 한국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80년대 이후 대학에서 일본관련 학과가 급속하게 증가되면서 흥미로운 점은 88개 대학의 일본학 관련 전임 강사급 이상의 교수진은 583명인데, 그 중에 일본인 교원은 157명으로 27%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인 교원은 비테뉴어인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주로 일본에 대한 교양 강좌나 어학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기초일본어나 교양일본어 과정을 담당하는 일본인 교원의 경우 연구 업적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을 전부 전문 연구자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 국내에서 연구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일본인 교원의 수는 전체의 1/3 정도에 해당하는 40명 안팎으로 추정될 뿐이다.<sup>6)</sup> 이를 보더라도 한국의 일본 교육이 얼마만큼 일본어와 교양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어통번역과, 호텔관광과, 산업일본어과, 국제통상일어과 등과 같이 일본어와 관광 및 통역을 연계시킨 학과명을 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의 수도권과 부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이 전체 개설 대학의 66%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의 일본 연구는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싶다.

6) 이강민(2008) 「한국의 일본어연구(2005-2006)」 『일본학보』 제74집. P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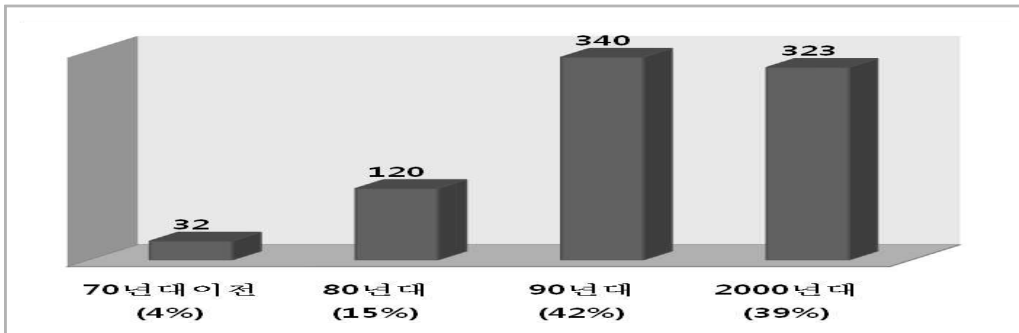


### 2.3. 일본 연구자들의 총원 시기 및 학위 취득 국가

한국의 일본연구를 시기별로 구분해보면 3 단계로 분석할 수 있다. 제1단계는 1945년 해방 시기부터 1980년까지로서 연구의 맹아기이며, 제2단계의 1980년대는 일본연구의 기반 형성기이며, 제3단계는 1990년대 전반부터 현재까지로 연구자의 양적 팽창에 기초하여 질적 변화가 모색되는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sup>7)</sup>

여기에서 한국의 일본학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를 분석해 보면 한국의 일본연구가 시기별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5>를 보면 1980년대의 박사학위의 취득 숫자는 120명으로 1970년대의 32명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는 1990년대의 양적 팽창을 생각하면 적은 규모라고 말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1980년대보다 3배 정도의 증가를 보였고, 일본연구자가 수적으로는 340명이라는 엄청난 규모로 팽창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비추어 볼 때 1990년대 한국의 일본연구가 1980년대와는 달리 양적 팽창을 실현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의 <표 1-2>에서 한국의 일본연구자들이 주로 50대에 집중된 이유이기도 하며, 1990년대에 일본관련 박사학위자가 많아진 것과 연동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00년대에는 일본학관련 박사학위 취득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일본연구자의 고령화와 관련있다.

<표 1-5> 박사학위 취득 연도



주) 한국에서의 일본연구자 중에서, 설문에 응한 연구자와 한국연구재단의 데이터베이스자료의 연구자를 합한 815명을 모집단으로 조사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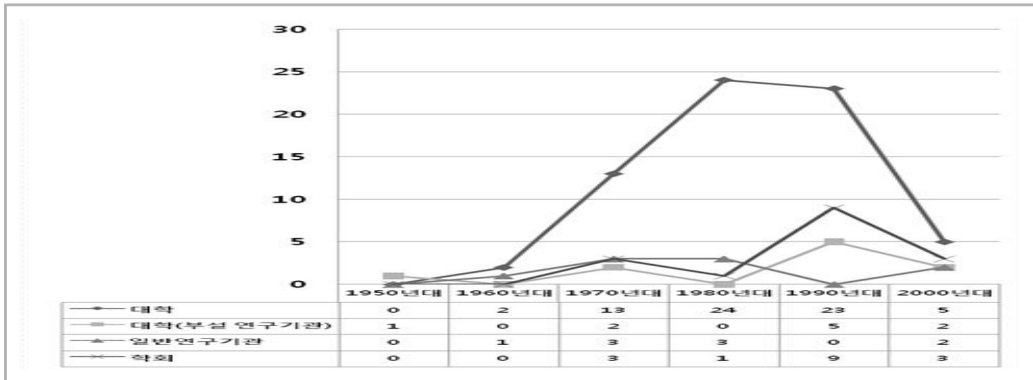
출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2012) 『2012년 조사자료: 한국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1990년대 연구자들의 양적 팽창은 그 당시 사회적인 요구와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다. 대학이나 일반연구기관, 학회의 신설시기를 살펴보면 연구자의 확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표 1-6>에서 보면 대학은 주로 1980년대에 일본관련 학과를 가장 많이 개설하였다. 이에 비해 학회는 1990년대에 많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연구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학회도 새롭게 신설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점에서 다음과 같은 연관고리를 논리적으로 추출해 볼 수 있다. 즉 1980년대에 일본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예비 연구자들을 많이 배출하게 되었고, 이 결과 1990년대 연구자가 대량으로 배출된 것이었다. 이와 함께 90년대 연구자들의 양적 확대와 함께 연구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학회도 그 만큼 많이 신설되게 되었던 것이다.<sup>8)</sup> 그러나 2000년대가 되면 일본에 대한 사회적 관심

7) 제3단계의 특징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1990년대의 연구자가 현재도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 쇠퇴로 인해 연구자의 숫자도 줄어들고 학회의 설립 움직임도 둔화될 수 밖에 없었다. 학회의 신설이 줄어든 이유는 연구자가 줄었다는 이유 이외에도 1990년대에 학회가 난립되어 설립되었기 때문에 연구자의 활동공간은 이미 충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줄어든 것과 연구자가 감소한 점도 학회 신설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표 1-6〉 일본연구 관련 대학, 연구기관, 학회의 설립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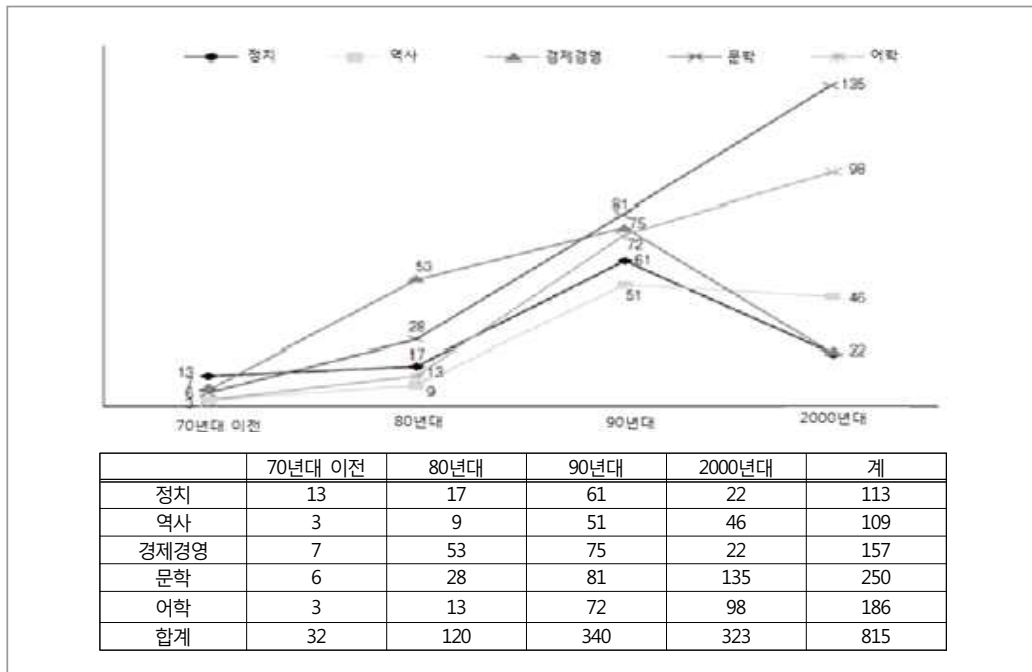
출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2012) 『2012년 조사자료: 한국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박사학위의 취득 시기를 살펴보면 분야별 특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정치학 분야에서는 1970년대에는 박사학위 취득자가 13명에 머물지만, 1980년대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17명이 되었다. 1990년대에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거의 3배에 가까운 61명이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이는 정치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1990년대 박사학위 취득자가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양적인 팽창을 보였다. 다만 특이한 점은 경제 경영 분야는 1980년대에도 어문학과 비슷하게 박사학위취득자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일본 경제 경영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해 다른 분야에 비해 한국사회에서 일본의 경제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박사학위 취득의 증감 현상에서 특이한 점은 어학과 문학 이외의 분야인 정치학이나 역사와 경제 경영학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박사학위를 받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줄어들면서 학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에 대한 관심이 저하됨에 따라 사회과학적 분야의 연구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표 1-7>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어학과 문학은 2000년대에 들어서도 박사학위 취득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로서는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일본 어문학 관련 전공 학과가 급격히 증설되면서, 2000년대의 일본 어문학 관련 연구자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즉, 1990년대부터는 일본 어문학의 박사과정에 진학할 수 있는 예비학생이 양산되어 학문의 재생산이 가능한 환경이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8) 일본연구관련 총 30개 학회 중 90년대 설립된 7개의 학회는 어문학관련 학회 4개, 교육관련 1개, 역사관련 1개, 정치관련 1개이다. 이를 보더라도 어문학관련 연구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문학 관련 학회는 대한일어일문학회, 일본어문학회, 한국일본어학회, 한국일본문화학회, 교육관련 학회는 한국일어교육학회, 역사관련 학회는 일본사학회, 정치관련 학회는 동아시아 일본학회가 있다.

〈표 1-7〉 분야별 박사학위 취득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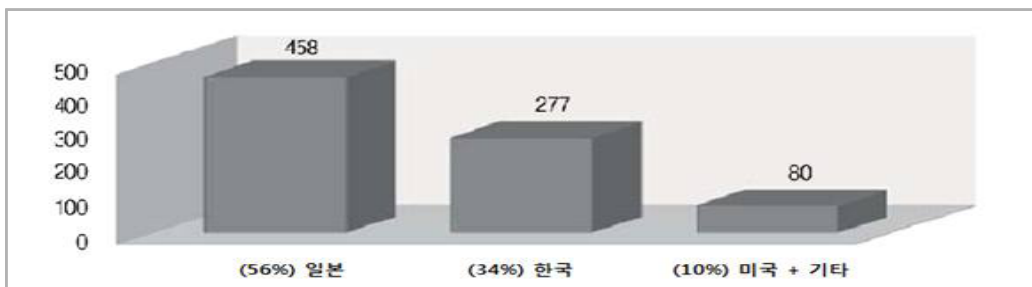


주) 한국에서의 일본연구자 중에서 설문에 응한 연구자와 한국연구재단의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연구자를 포함하여 815명을 모집단으로 조사한 수치.

출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2010) 『2012년 조사자료: 한국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의 일본연구자가 어느 국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는지를 보면, 표8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가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비율 역시 약 34%에 다다르면서 한국에서 일본학 연구가 일본의 학문풍토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박사학위 취득 국가는 10% 미만으로 「한국에서의 일본학 연구자」 들은 평균 90% 가 일본과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있다.

〈표 1-8〉 박사학위 취득 국가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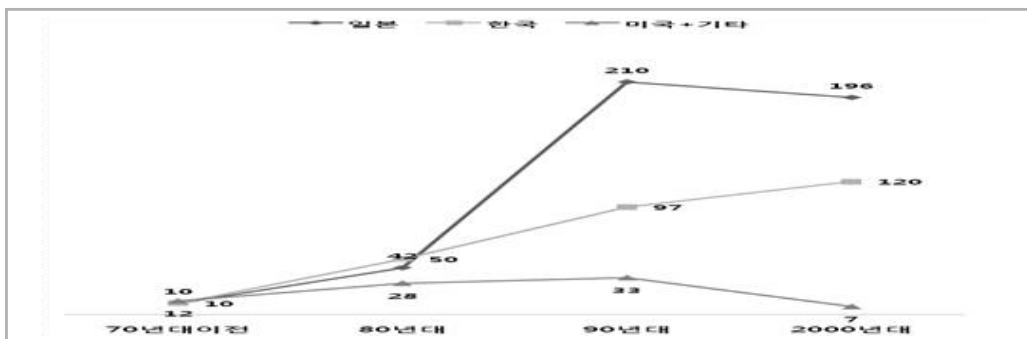


주) 한국에서의 일본연구자 중에서 설문에 응한 연구자와 한국연구재단의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연구자를 포함하여 815명을 모집단으로 조사한 수치.

출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2010) 『2012년 조사자료: 한국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표 1-9>에서 보면 70년대와 80년대에는 일본연구자들이 숫자가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학도 활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0년대에만 하더라도 해외에서 학위를 받는 경우와 국내에서 박사학위 취득한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80년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을 제외한 미국 및 기타 국가에 대한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였다. 그렇지만 90년대에 들어서면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가 80년대에 비해 5배로 증가하면서 압도적으로 일본 유학이 늘어나게 된다. 1990년대에 기타 국가에 비해 일본에서의 박사학위 취득자가 압도적으로 증가한 데 비해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연구자들은 80년대에 비해 2배 정도 늘어났지만, 전체 연구자의 박사학위 취득자에서 볼 때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압도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90년대까지는 미국에서 일본학 연구를 주제로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도 조금씩 증가했지만, 한국과 일본의 총원 현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특이한 점은 일본으로의 유학은 정체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비율은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2000년대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동시에 미국 및 기타 지역에서도 일본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는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표 1-9>에서 보면 80년대, 90년대에 적으나마 꾸준히 늘어났던 미국 및 기타지역의 연구자들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의 쇠퇴에 따른 한국내의 관심이 줄어든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1-9> 박사학위 취득 국가의 추이



주) 한국에서의 일본연구자 중에서, 설문에 응한 연구자와 한국연구재단의 데이터베이스자료의 연구자를 합한 815명을 모집단으로 조사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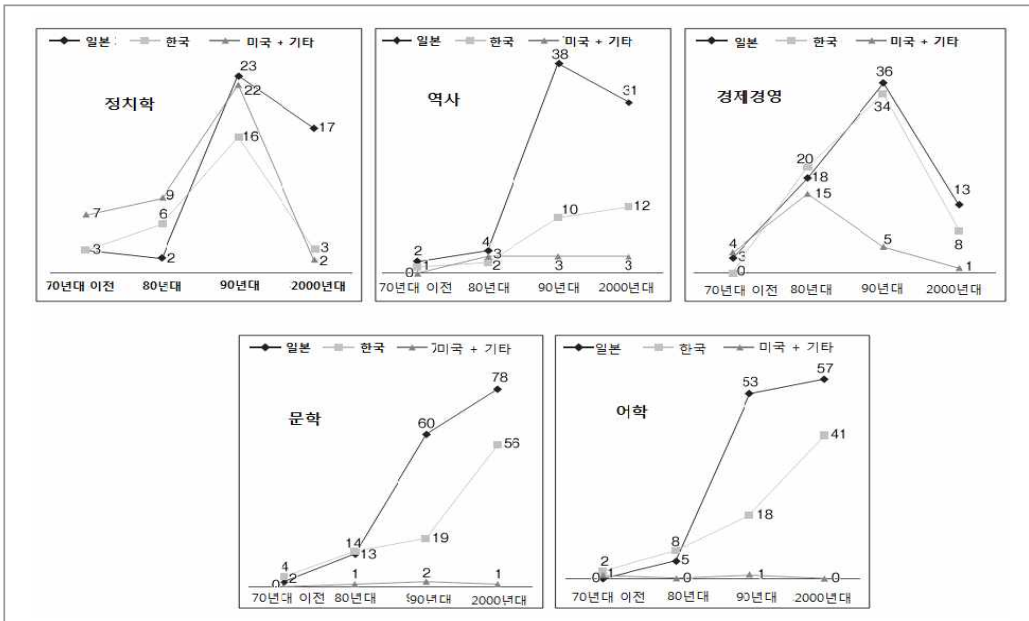
출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2012) 『2012년 조사자료: 한국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전공별 박사학위 취득 국가를 살펴보면(<표 1-10>참조) 다른 분야와는 달리 정치학 분야에서만 유독 한국보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가 많다는 점은 특이한 부분이다. 이에 비해 문학과 어학에서는 아직 미국 지역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연구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어문학 분야에서 일본 학위가 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경영분야의 특징은 1980년대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가 많았던 경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80년대부터 일본경제모델 혹은 일본식 경영모델에 대해 한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어 경제경영분야에서의 사회적 수요가 많았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면 정치학과 경제경영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박사학위를 받은 숫자가 1/3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역사 분야는 2000년대에 90년대와 비슷한 증감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어학과 문학은 90년대 연구자가 급속히 늘어남과 동시에 200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연구자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연구자가 문학분야에서는 19명에서 56명으로 3배 정도가 늘어났으며, 어학분야는 18명에서 41명으로 2배 정도 늘어났다. 이는 한국 내의 일본학 전공이 어문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학 관련 지적 네트워크, 전문연구와 대학교육 기반이 구축되어 가고 있음을 반영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어문학 이외의 분야는 한국 사회의 취업 수요에 따라 학문 시장의 자연적인 조율이 기능하고 있는데 비해 어문학은 학문 시장의 조절 기능이 되지 않을 만큼 과잉 공급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의 일본연구가 어문학에 편중되어 학문의 불균형 현상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표 1-10> 분야별 박사학위 취득 국가의 추이



주) 한국에서의 일본연구자 중에서, 설문에 응한 연구자와 한국연구재단의 데이터베이스자료의 연구자를 합한 815명을 모집단으로 조사한 수치임.

출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2012) 『2012년 조사자료: 한국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 3. 연구의 다양화와 전문화에 따른 한계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일본연구는 양적으로 팽창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법론적으로도 연구의 질적 비약이 모색되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일본연구의 제도적인 환경 변화가 한국의 일본연구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 제도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문 영역의 다양화’

1990년대의 연구자의 양적 팽창은 학문적 제도의 변화와 함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연구 영역 먼

에서의 다양화와 전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한국 대학 인사시스템의 변화, 연구기관의 확대, 그리고 연구지원의 확충이 이루어지면서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과 함께 경쟁 시스템이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첫째 한국연구재단에서 도입한 연구의 경쟁시스템은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인사정책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본연구의 다양성과 전문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1998년 한국연구재단(당시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은 학술잡지의 평가를 시작하면서부터 연구의 경쟁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자 하였다. 한국연구재단이 시도한 것은 학술지를 일반학술지, 등재후보지, 등재지,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로 분류하여 학술지에 대한 등급을 매겨 이를 연구자들의 평가기준으로 사용한 것이다. 즉 한국에서 최대의 학술지원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은 학술지 게재 논문 수로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학술연구의 경쟁 시스템을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결국 2000년 이후 한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도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 따른 학술지 게재 논문 수를 연구자들의 총월이나 인사 업적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연구재단이 시도한 경쟁시스템은 이제는 한국 학계에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정착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학술지에 얼마만큼 논문을 게재 하였는지가 중요하게 되었고, 경쟁적으로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였다. 한편, 순위가 높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도 평가의 기준이 되어 제도적인 변화는 연구의 질적 향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예로, 각 대학에서 2000년대 후반부터는 일본연구에서도 구미 각국의 SSCI학술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의무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2000년 이후 일본 연구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현상은 연구 논문의 수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인다는 점이다. 그리고 일본연구도 일본을 비롯한 구미에도 연구 논문을 게재하는 연구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윤병남 교수는 제도적인 변화로 2000년부터 일본사와 관련된 논문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논문의 주제도 다양성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sup>9)</sup>. <표 I-11>을 보면, 2005년 이후 한국의 일본사 분야에서의 저서 수는 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의 연구자 평가시스템이 저서보다 논문에 많은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2000년대 역사분야에서의 일본연구자의 총월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 게재수가 증가경향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자가 연구논문작성에 힘쓰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대학과 연구기관의

<표 I-11> 일본사 관련 논문 수와 저서 수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통사		3	1	2	1	2	2	11
고대	6	18	9	19	30	19	22	123
중세	3	5	4	8	7	12	13	52
근세	16	20	18	35	24	48	47	208
근현대	61	44	55	89	86	127	121	583
1. 논문소개	86	90	87	153	148	210	140	914
2. 저서	28	13	18	25	18	31	20	153
(1+2)합계	114	103	105	178	166	241	160	1067

출처) 윤병남(2012) 「한국의 일본사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일어일문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2012년 일본연구의 현황과 과제: 일본어학, 고전, 근현대문학, 역사』에서의 발표문(2012.06.15) p.2에서 인용.

9) 윤병남(2012) 「한국의 일본사 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일어일문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2012년 일본연구의 현황과 과제: 일본어학, 고전, 근현대문학, 역사』에서의 발표문(2012.06.16.) pp2-6.

인사시스템 변화에 의해 연구자가 자신이 소속된 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논문을 많이 양산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윤병남교수는 논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연구 주제의 다양성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면, 2000년대에는 소설과 역사를 비교, 문화와 역사의 관계 등 새로운 주제에 도전하는 연구자가 나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연구자들의 논문 게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학회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학회에서 다양한 학술지를 창간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학술지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 학회간의 경쟁도 심해졌다<sup>10)</sup>. 그 대표적인 예로 한국일어일문학회와 한국일본학회를 들 수 있는데 그 회원은 약 1000명 정도이지만, 대부분의 회원은 중복되고 있다. 단지 두 학회가 지속될 수 있는 하나의 이유로서는 경쟁적으로 학회지 발간회수를 늘이면서 연구자의 욕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일본관련 학회가 각 지역 또는 연고를 중심으로 제각기 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다. 특히 일본관련 학회지의 성격이 대개 일본어와 일본문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연구자가 여러 학회지에 비슷한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본관련 학회와 학술지의 난립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학술 주제의 상호 반복과 중복이라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sup>11)</sup>.

둘째 1980년대 이후 연구기관의 확대도 일본 연구의 양적인 팽창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일본 연구가 전문화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하였다. 정치분야와 경제경영분야에서의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은 사회적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형성되었고, 이 분야에서 연구를 특화시켜 나갔다.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과 국책연구소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산업연구원(KIET), 외교안보연구원(현재는 국립외교원) 및 정부관련단체(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등은 개인 연구자들이 할 수 없는 대규모 프로젝트와 새로운 아젠더의 발굴 및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즉 이들 기관들은 대학의 연구자와 대학의 부속 기관이 자체 연구인력과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만들 수 없었던 실시간 일본관련 정보와 기초자료를 제공했던 것이다. 또한 이들 연구기관들은 일본정치와 경제경영 연구에서 꼭 필요한 정책제안과 아젠더 발굴을 통하여 공동연구에 대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이로써 1990년대의 연구자의 팽창과 더불어 일본연구가 더욱더 다양해지고 전문화로 나아가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예로 세종연구소는 일본정치에 대한 기초자료의 제공과 한일관계에 대한 정책 제언을 통하여 일본 정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 또한 민간기업의 싱크탱크로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삼성경제연구소는 일본기업이 직면한 급속한 고령화, 글로벌라이제이션 및 일본 국내정국의 변화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많은 자료를 제공하였다. 최근에는 일본의 재정위기가 표면화 되지 않는 근거, 급속한 엔고 대응력 및 대지진 이후의 서플라이 체인 재구축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해 한국 기업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엔화 환율 변동분석은 기업전략 수립상 필수적이며 일본연구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sup>12)</sup> 또한 대외경제연구원(KIEP)은 주로 일본과의 대외 경제관

10) 예를 들면, 학술지의 사독심사(査読審査)를 엄격히 하여 학술지에 대한 평가를 높게 하려는 학회도 나왔다.

11) 최재철(2012) 「한국의 일본연구: 근현대문학」 한국일어일문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2012년 일본연구의 현황과 과제: 일본어학, 고전, 근현대문학, 역사』에서의 발표문(2012.06.16) pp.2-3. 현재 일본관련 논문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과연 연구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있다.

계에 관련된 정보 분석과 기초연구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면 일본의 차세대 산업기술, FTA 및 EPA 전략, 중소기업간 제휴 등 특정 분야에서 각각 특화를 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 기관들은 어젠더 개발과 소개, 그리고 쟁점에 대한 문제를 환기시키면서 일본 연구가 더욱더 전문성을 가지도록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sup>13)</sup>.

셋째 한국연구재단이 인문한국지원(HK사업: Humanities Korea Project)과 인문학분야를 장려하기 위한 연구지원사업의 확대와 한국과 동아시아사를 연구하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출현으로 인해 일본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연구 기반을 조성할 수 있었다. <표 1-12>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연구재단은 일본 지역연구에 대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조성하면서 일본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형성은 개인연구자들이 할 수 없는 공동연구와 기초적인 연구를 진행하게 됨으로써 일본연구를 더욱더 전문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동북아 역사재단의 형성으로 인해 많은 일본 연구자들이 한일관계의 정책적인 쟁점에 매달리는 한계는 있지만, 동북아역사재단 또한 풍부한 재원을 바탕으로 한일관계의 정책연구와 역사연구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많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세계 다른 지역의 일본연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면서 한국의 일본연구 성과가 다양해지고 전문화되었다는 것에는 부정할 수 없다.

<표 1-12> 각 대학의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 상황과 동북아역사재단

기관명	설립일	지원기관	수행 기간	사업내용	사업규모	연구자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1999.08.13	한국연구재단 HK 사업	2007.11 ~ 현재	인문학에 기반을 둔 종합적 일본연구	N/A	29
고려대학교 아시아재연구소	1957.06.17	한국연구재단 HK 사업	2008.11~2017.10	동북아시아의 초국가적 공간 - 사상, 사회문화, 제도의 교류와 재구성	100억원	26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02.09.16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2005.12.01~2008.11.30	한일회담 공개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	N/A	18
단국대 일본연구소	2002.10.28	한국연구재단 지원	2009.09~2012.08	일본근세회국의사극성과 역사인식	11억원	11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2001.03.01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기관	2009.11.01~2010.10.31	개항기 이후 일본계 종교의 국내유입 유형과 조직화 과정 및 분포에 관한 조사	N/A	8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04.11	한국연구재단 HK 사업	2009.08.01 ~	HK 아젠다 <현대일본 생활 세계의 연구의 세계적 거점>	N/A	31
한림대학교 일본학 연구소	1994.03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2008.12.01 ~ 2014.11.30	제국일본의 문화권력 : 학지(學知)와 문화매체	N/A	16
동북아역사재단	2004	재단		동북아시아 고대사연구/이웃나라의 한국관 연구와 대응/ 독도에 관한 학제적 연구/ 동해 명칭의 국제적 확산/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동아시아상' 모색/ 한중일 공동의 역사인식 지원/ 시민사회의 교류와 협력 강화		40

주: 각 대학부설 연구소 및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인용하여 정리

### 각 분야별 전문화의 한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일본연구가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양적인 팽창을 하면서 연구의

- 2005년에는 삼성경제연구소의 동경지소를 설립하여 동 연구소의 홈페이지를 일본어로 번역, 공개하고 있어 일본의 한국전문가는 물론 일본기업의 한국산업, 기업전략은 물론 정부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예산상의 문제로 삼성경제연구소의 동경지원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 그렇지만 이러한 기관들은 주로 단기정책연구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 장기적이고 학술적인 일본 연구로 발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하고 있다.



영역이 더욱더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는 흐름은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전문영역의 다양화 추세 속에서도 한국적인 특성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치분야는 한일관계의 변동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경제경영분야는 일본을 따라잡기 위한 전략적인 주제에 집중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어문학도 유학시기의 연구방법론이 그대로 반복 재생산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정치학은 한일관계의 진전과 부침에 의해 연구동향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 물론 사회과학적인 특성상 현실의 변화에 따라 쟁점도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한일관계의 대립과 갈등이 학문 내에도 영향을 미치기 쉬워 연구 주제가 쉽게 변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일본관련 정치학 분야의 쟁점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1990년 이후 한국정치학회보와 국제정치논총에 게재된 일본 관련 논문을 분석해 보았다. <표 I-13>을 보면 일본연구의 일반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 중반부터 논문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쟁점에 대한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2011년에는 예외적으로 많은 논문이 나왔지만, 대체적으로는 2000년대 중반부터 논문이 줄어들고 있다.

<표 I-13> 1990년 이후 한국정치학회보와 국제정치논총에서의 일본관련논문편수

연도	총논문 (편수)	일본관련논문(편수)							총계(%)
		한일관계	일본경제	대외관계	일본정치	비교정치	국제정치경제	사상	
1990	54	0	0	0	0	0	0	0	0(0)
1991	34	0	0	2	0	0	0	0	2(6)
1992	75	1	0	1	0	2	1	0	5(7)
1993	68	0	0	2	1	0	1	0	4(6)
1994	93	0	0	1	1	0	0	0	2(2)
1995	130	0	2	0	1	0	2	0	5(4)
1996	119	0	2	2	1	1	0	1	7(6)
1997	100	0	4	1	2	0	0	1	8(8)
1998	116	1	1	5	2	0	1	1	11(9)
1999	137	1	0	4	4	0	1	0	10(7)
2000	144	0	1	1	1	0	1	2	6(4)
2001	153	1	0	1	3	3	2	2	12(8)
2002	134	2	0	1	4	0	3	1	11(8)
2003	191	2	3	2	7	3	0	1	18(9)
2004	164	0	1	4	1	0	0	3	9(5)
2005	116	3	1	0	3	0	1	0	8(7)
2006	120	0	0	0	3	2	0	0	5(4)
2007	94	0	0	0	0	1	0	0	1(1)
2008	126	2	0	0	1	0	0	0	3(2)
2009	122	0	0	1	1	1	0	0	3(2)
2010	92	0	0	0	1	1	1	1	4(4)
2011	102	1	0	4	5	0	0	0	10(10)
총계	2484	14	15	32	42	14	14	13	144(6)

주: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정치학회보』와 『국제정치논총』에서 일본관련 논문을 주제별로 분류

<표 I-1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치 분야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일본의 국내 정치와 관련된 논문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1993년 이후 호소카와 내각의 연립정권이 형성되면서 일본의

연립정치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1년 이후 2003년까지 일본 국내정치에 대한 분석이 증가한 것은 고이즈미 정권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1년에 국내정치의 분석이 많은 것은 일본 정권 교체 이후의 민주당 정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일본 정치의 분석은 이전의 문화론적인 접근법과 달리 정치과정, 정치경제, 지방자치 등에 대한 분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보더라도 관심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4)</sup>. 이것은 학자들의 수적인 충원에 따라 관심 영역의 다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일본 국내정치의 분석 이외에 정치학 분야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대외관계와 관련된 논문이다. 대외관계에 관련된 논문은 핵 정책(원자력정책)과 북일 관계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일본의 안보정책에 대한 논문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는 탈냉전이후 일본이 새로운 안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안보정책의 변화를 시도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학계에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안보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일부의 논자를 제외하고는 일본의 의식적 국방력의 강화(‘군사대국화’)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도 이전과는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가령 80년대 이전에는 일본의 안보정책에 대해 패권주의적 군사대국화(hegemonic military power)의 이미지로 묘사하곤 하였으나, 9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일본의 방위정책에 대한 이미지를 미일동맹하의 군사대국화 또는 미일동맹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점차 연구의 방법론도 안보정책을 둘러싼 국내정치과정분석으로 옮겨가면서 군사대국화의 필연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전에는 한일관계의 갈등과 일본의 안보문제를 연결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던 반면에 최근에는 국내정치과정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한일관계와 관련된 논문들은 생각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한국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1990년대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한일관계와 관련된 주제는 주로 한일협정, 과거사 청산, 그리고 경제관계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이들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본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sup>15)</sup>.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현재 시사적인 관심이 많은 영토문제(독도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단 하나의 논문도 없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 이유는 1990년대만 하더라도 독도문제가 현재만큼 정치적인 쟁점이 되지 못했으며, 그와 더불어 학문적으로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2001년 고이즈미 총리의 등장 이후 한일관계에 관한 논문은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한일갈등에 집중하는 특징이 나타났다<sup>16)</sup>. 이는 한일관계의 쟁점이 되고 있는 과거사 문제와 독도문제가 정치학계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일관계에 대한 논문들이 한일양국의 과거

14) 이면우(2012) 「한국의 일본연구: 정치학 분야」 한국일본연구단체 제1회 국제학술대회 『기획: 한국에서의 일본연구: 일본사회, 정치, 경제』의 발표문(2012.08.24) pp.13-15

15) 이것은 일본의 불충분한 과거청산의 태도와 과거 경험에 의한 한국인들의 대일경계론 등이 상호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16) 예를 들어 김영수, "한일회담과 독도 영유권" 『한국정치학회보』 42(4), 2008.12, pp. 113-130, 박창진, "독도 영유권문제를 둘러싼 한일갈등의 규범 확산" 『국제정치논총』 48(4), 2007.12, pp. 357-380을 들 수 있다.

사 문제에서 탈피하여 한일 교류의 측면이나, 새로운 한일관계의 변화를 분석한 논문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한국적 현실을 대변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윤병남 교수가 분석한 역사연구에서도 한일 관계에 대한 논문이 가장 많다는 점에서도 한국적 일본연구의 특성을 알 수 있다.(<표 I-14>를 참조)

<표 I-14> 일본사 관련 6개 학술지의 시대별 논문 게재 수

학술지명	고대	중세	근세	근·현대	합계	한일관계사
일본역사연구	20	9	15	49	93	35
동양사학연구	2	2	6	11	21	5
역사학보	0	0	3	6	9	3
한일관계사연구	24	23	54	51	152	152
일본사상	6	1	15	9	31	12
한일민족문제연구	0	0	0	13	13	13
합계	52	35	93	139	319	220

출처: 윤병남(2012)의 발표문, p.5에서 인용.

둘째 경제경영 분야에서도 한국과 경제적인 연관성이 많은 분야에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김도형 교수에 의하면 경제경영의 연구분야를 추적하여 알아낸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내의 분석보다는 한국에 영향을 주는 주제에 많은 연구를 했다는 점이었다. 김교수는 2005~2011년간 국내 6개 주요 학술지에 등재된 총 260편을 35개 주제별로 나누어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일본기업시스템, 한일비교, 그리고 대외 통상 분야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sup>17)</sup>. 그 이유는 한국의 경제경영 연구가 새로운 학문적인 지평을 여는 이론적인 작업에 몰두하기 보다는 일본을 따라 잡으려는(Catch-up) 전략적 차원에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이었다<sup>18)</sup>. <표 I-15>에서 보듯이 한국이 한일기업 비교나 일본 기업시스템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이유는 일본의 장기불황이 시작되면서 90년대 중반 이후 지주회사의 解禁 논의와 함께 기존의 일본기업시스템이 서서히 변용되기 시작한 것에 대해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sup>19)</sup>. 이는 지금까지 폐쇄적 일본시장의 실질적 개방 가능성에 대한 한국측의 기대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학계가 일본의 노사관계와 노무, 인사관리 등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최근까지 노사간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한 한국이 일본형 노사관계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구체적인 노무인사관리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한일 FTA협상이 2004년 이후 중단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거시 경제적 영향을 제외한 산업(특히 부품소재 업종)별 영향에 관한 분석이 많은 것도 한일의 경제적인 쟁점이 학문분야의 관심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가 진

17) 김도형(2012) 「국내의 일본경제, 경영 연구동향」 한국일본연구단체 제1회 국제학술대회 「기획: 한국의 일본연구: 일본사회, 정치, 경제」의 발표문(2012.08.24) pp.112-114.

18) 일본에 대한 분석은 구미 및 일본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던 인식을 그대로 가져와 한국 학계에서 반복되는 현상 मात्र 나타났었다.

19) 종래의 종업원 중심에서 주주중심으로의 거버넌스의 이동, 은행 중심에서 주식시장 중심의 자본조달, 계열구조의 유연성, 주식상호보유하의 대기업의 창구였던 종래의 종합상사를 주식상호보유구조의 이완 속에서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재평가하는 등 변화된 환경하에서 일본기업시스템을 재점검하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행되면서 일본의 저출산·고령화가 거시경제와 가계행동에 미치는 분석에 관한 연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도 이미 출산율이 급속하게 하락하고 고령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의 중장기 사회보장시스템의 구축 방안과 안정적 운영에 관한 정책적 특징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연유로 연금, 요양보험의 개혁시나리오 분석, 기업퇴직금 운용, 고령자, 여성, 청년층의 고용정책에 관한 연구는 경제경영 분야의 중요한 흐름으로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경제경영 연구에서 1990년대 이전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중장기적인 엔화 환율변동 요인, 미일 통상이슈, 한일의 기술발전요인 등 거시경제변동 요인과 관련된 분석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글로벌라이제이션 진전과 더불어 한일기업의 투자에 대한 연구, 한중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업간 협력 연구, 한일 및 한중일 무역불균형에 대한 연구, 동아시아 경제권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를 보면 일본 경제경영에 대한 연구는 이전과 달리 일본 국내경제에 한정되지 않고, 주변국과의 관계까지 확대됨으로써 다양한 영역으로 전문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일본 경제경영에서 일본의 거시경제, 금융, 환율, 통상관련 연구는 일본 전문가의 고유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구보다 많지 않은 것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일본경제는 미금융위기의 리먼쇼크로 인해 경기침체가 재현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본격적 분석이 많지 않은 것은 극복해야 과제로 생각할 수 있다. .

〈표 1-15〉 경제경영관련 주요학술지 논문발표 건수

주제	05	06	07	08	09	10	11	소계
일본거시경제, 동아시아경제	(3)	1(2)	1	0	2(2)	2(1)	1(1)	7(9)
통상, ODA원조	2(1)	(3)	(1)	1(2)	(2)	2(1)	(3)	5(13)
금융, 환율	(1)	0	1	(1)	1	1	(2)	3(4)
고령화	0	1	1 (1)	1(1)	2	0	1(1)	6(3)
규제개혁, 구조개혁	0	(2)	0	2	0	0	0	2(2)
한일 FTA	5(4)	1	8(3)	4(2)	2(2)	1	(4)	21(15)
지재권,개인정보,특허	0	0	2	0	1	0	0	3
한일기업비교	6(1)	5(2)	2(1)	2	0	5	4(1)	24(5)
일본기업시스템	2(1)	4(1)	2(1)	5(3)	1(3)	(4)	1(1)	15(14)
노무관계	4	2	0	2	3(2)	3(3)	1	15(5)
유통, 재무관리	2	1	2	1	1	1	2	10
경영, 기업회계	(1)	2	2	0	0	2	1 (1)	7(2)
해외투자	4	1(1)	0	1	0	1(1)	0	7(2)
마케팅	0	4	0	2	1	0	0	7
한일 해외투자	1(1)	1(1)	0	4	5(1)	0	3(4)	14(7)
일본경제, 기업사	1	1	0	(1)	1(2)	1	2(3)	6(6)
합계	27(13)	24(12)	21(7)	25(10)	20(14)	19(10)	16(21)	152(87)

주 1) 주요학술지는 韓日經商論集(한일경상학회), 日本研究論叢(현대일본학회), 日本學報(한국일본학회) 일본연구(고려대 일본연구센터), 일본연구(외국어대 일본연구소), 일본공간(국민대 일본학연구소)

2) ( )은 한일경상논집 외 5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수.

출처) 김도형(2012) 「국내에서의 일본경제 경영 연구동향」 한국일본연구단체 제1회 국제학술대회 『기획: 한국의 일본연구: 일본 사회, 정치, 경제』의 발표문 (2012.08.24) pp.112에서 인용한 표를 필자가 새롭게 구성하여 작성.

셋째 현실의 시기적인 쟁점과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는 어문학은 전문화와 다양성이 증가하였지만, 그 내용은 유학시기의 학문적인 특성으로부터 그다지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표 1-16>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본 문학 분야는 2005년도까지 거의 1000편에 달하도록 계속 양적인 팽창을 해왔다. 2007년도 이후가 되면 비교적 일정수의 논문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안정적 정체기’에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내용을 본다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동안만 하더라도 919편(연 평균 131편)의 고전 논문이 양산된 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등재후보지의 학술지를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최관 교수에 의하면 고전문학분야에서 이토록 많은 성과물이 솟아져 나온다는 것은 높이 평가될 수 있지만, 한편에서는 한국의 일본연구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보고 있다.

<표 1-16> 어문학분야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연구논문 현황

연도	고전문학	근현대문학	총
2000	94	12	466
2001	92	135	552
2002	116	203	662
2003	137	183	783
2004	165	216	915
2005	152	235	1017
2006	128	237	954
2007	111	240	1019
2008	135	267	1106
2009	130	258	1088
2010	133	261	1131
2011	130	238	1123

주) 일본 문학관련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는 일본학보(한국일본학회), 일본어문학(한국일본어학회), 일어일본학연구(일어일본학회), 일본문화학보(한국일본문화학회), 일본어문학(일본어학회), 일본어학연구(한국일본어학회), 일본문화연구(동아시아일본학회), 일어일본학(대한일어일본학회), 일본어교육(한국일본어교육학회), 일본학연구(단국대 일본연구소), 일본언어문화(한국일본어문화학회), 일본근대학연구(아시아문제연구소), 일본연구(고려대 일본연구센터), 일본연구(중앙대 일본연구소)

출처) 최관(2012) 「한국의 일본연구: 고대문학, 한국일어일본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2012년 일본연구의 현황과 과제: 일본어학, 고전, 근현대문학, 역사』에서의 발표문(2012.06.16) p.4에서 인용

최재철 교수에 의하면 현대문학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난다고 한다. 그는 일본문학에 대한 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일본문학연구는 소오세키·아쿠타가와·오오가이(鷗外)·토오송(藤村)·다자이·카와바타 등에 관한 연구 논문이 많았다고 평가하고 있다<sup>20)</sup>. 즉 국내 주요 6개 학회의 일본근대문학 논문 총 280편중, 위 상위 6명의 작가와 관련된 논문이 40%를 차지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 문학사에서 지명도가 높은 작가에 대한 연구가 많다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많은 연구자가 특정부분에 집중한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말까지 소오세키를 주제로 한 연구논문은 260 여 편 중 논문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집필자가

20) 최재철(2012) 「한국의 일본연구: 근현대문학」 한국일어일본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2012년 일본연구의 현황과 과제: 일본어학, 고전, 근현대문학, 역사』에서의 발표문(2012.06.16) p.2-3. 특이한 점은 카와바타에 비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였던 오에겐자부로의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것은 현재도 생존하고 있는 작가라는 점과 오에의 번역문과 같은 난해한 문장을 연구자가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최교수는 분석하고 있다.

130 여명에 이르고 있고, 단행본은 11권이다. 카와바타 연구는 일반논문이 150 여 편, 석사논문은 65 편으로, 작품론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오오가이 연구의 경우 연구논문은 50 여 편, 연구자는 20 명이 될 정도로 많다<sup>21)</sup>. 이처럼 몇 작가에 편중되어 문학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유학 당시의 연구방법론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최재철 교수는 설명한다.

#### 4. 결론: 일본연구의 과제

현재 한국의 일본연구의 발전은 놀랄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의 일본 연구는 90년대의 비약적인 발전기를 거쳐 연구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전문화를 이루었다. 이러한 성과는 1990년대의 연구자의 양적인 성장에 기인하는 부분이 많다. 1990년대 이후 일본과 미국 등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들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일본연구는 일본, 한국, 그리고 미국 등에서 다양한 연구방법이 도입되었고, 2000년대에 이르면 일본연구는 ‘전문영역의 다양화’로 발전될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발전과 함께 연구환경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은 한국의 일본연구를 더욱더 전문화의 방향으로 이끌었다. 즉 대학의 인사시스템의 변화, 연구기관의 확대에 따른 연구의 특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과 경쟁시스템의 정비 등은 연구자들이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어문학 분야에서는 2000년 당시만하더라도 400편의 논문 발표가 2005년도에는 거의 1000편에 달하도록 계속 증가하였다. 2005년 이후가 되면 이강민 교수가 평가한 것처럼 일본연구는 대체적으로 ‘안정된 정체기’에 들어설 만큼 발전하였다.<sup>22)</sup>

그렇지만, 한국의 일본연구의 발전 과정에서 문제점과 한계도 있다. 첫째 연구자의 연령대를 보면 30대와 40대가 줄어들고 있으며, 50대와 60대가 늘어나는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본학계에 신진연구자들의 유입이 줄어들는데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학계는 신진 연구자들을 어떻게 육성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

둘째 일본 연구자 중 과반수 이상이 어문학에 편중되는 불균등 현상은 90년대 일단 그 경향이 약해졌지만, 2000년대 이후 재차 그런 경향이 강해졌다<sup>23)</sup>. 이는 1980년 이후 한국 대학이 한국사회의 일본 수요에 대해 기능적인 전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어문학과를 집중으로 신설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1990년대에는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한 일본학과와 개설도 일부 나타났지만, 한국의 일본 교육이 균형을 찾기에 늦어 버렸다. 이 결과 2000년대 이후 일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문학 분야만이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연구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21) 그렇지만 일본 문학연구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근대 문학 분야에서 타쿠보쿠 이외에도 하기와라 사쿠타로(萩原朔太郎)·타카무라 코오타로(高村光太郎)·미요시 타즈지(三好達治)·미야자와 켄지(宮澤賢治)·마사오카 시키(正岡子規) 등의 시문학 관련 논문이 서서히 늘어가고 있는 다양한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2) 이강민(2012) 「한국의 일본어학의 연구」 한국어어일본학회 하계 국제학술회 『2012년 일본연구의 현황과 과제: 일본어학, 고전, 근현대문학, 역사』에서의 발표문(2012.08.24.) p.6.

23) 이점에서 1980년대까지 한국의 일본연구는 일어일문학과 중심의 좁은 범위의 일본학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일반론적인 일본연구가 발전되기 보다는 특수성에 치우치는 문화론과 한일관계의 연구에 편중되었다.

셋째 한국의 일본연구는 전문화의 추세 속에서도 한국적인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학은 한일관계의 갈등에 따라 연구 동향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한일관계의 쟁점이 되고 있는 과거사 문제와 독도문제에 치우친 나머지 새로운 한일관계의 변화에는 둔감한 측면이 있다. 또한 경제경영의 분야에서도 한국과 경제적인 연관성이 많은 분야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일반적인 거시경제와 금융, 환율 등에 대한 연구가 적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게다가 어문학은 유학시기의 학문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한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자료와 정보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유학시기에 적합한 주제와 방법론을 사용하여 간단히 연구 할당량(논문 수)을 채우게 된다. 예를 들면 고전문학에 대한 연구가 지나치게 많다든지, 근현대 문학에서도 몇몇 작가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한국의 일본 문학연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한국 일본학회가 현재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일본연구자에 대한 교육의 방향을 재검토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일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어문학과나 혹은 국제대학원내의 일본 지역연구프로그램의 목표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의 일본 교육은 사회과학적이고 인문과학적이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본지역에 대한 지식만 암기한다든지, 또는 사회과학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어학이나 일본에 이해가 부족한 절름발이식 교육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어문학에 편중되지 않고 연계 전공을 확대하여 균형 잡힌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차세대 연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분야의 일본연구자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일본연구가 자신만의 폐쇄적인 공간에 머물지 않고 타 학문과 경쟁하고 공존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일본연구는 일본 특유의 논리와 방법에 매몰된 채 일반적인 학문의 이론이나 논리로 발전되지는 못하였다. 이는 1990년대이후 일본에서 유학한 연구자들이 압도적인 많은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그 예로 어문학 분야에서는 일본의 작가의 분석에만 한정되어 미국 또는 유럽의 작가와 비교하는 연구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일본연구가 일본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론을 개발하여 타 학문과 경쟁하는 ‘열린 학문’의 자세가 요구된다.

셋째 새로운 내용과 방법론으로 일본을 소개하고 이해시키는 작업이 더욱더 필요하다. 특히 현재의 정치나 경제경영분야에서는 일본연구의 대한 학문적인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시사적인 조류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대일관련 논의도 학문적인 담론의 토대 위에 서있지 않기 때문에 논의 수준이 대중적인 여론과 쉽게 타협함으로써 기존의 논의를 되풀이 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는 학문의 관심이 대중적인 관심에 휩쓸리면서 학문적인 차원에서의 이론과 방법을 개발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계 내에서 일본에 대한 새로운 담론의 형성,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 그리고 일본연구의 어젠더 개발 등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도형(2012) 「국내의 일본경제·경영연구동향」 한국일본연구단체 제1회 국제학술대회 『기획: 한국의 일본연구: 일본사회, 정치, 경제』의 발표문, 한국일본학회(2012. 08.24)
- 권혁건(1994) 「한국의 일본문학연구의 현상」 『일본학연보』 (6)한국일어일문학회
-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2012) 『2012년 조사자료: 한국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데이터베이스)
- 진창수 편(2007) 『한국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한울. 아카데미
- 이강민(2002) 「한국의 일본어연구(1999-2000)」 『일본학보』 제52집, 한국일본학회
- 이강민(2003) 「한국의 일본어연구(2001-2002)」 『일본학보』 제55집, 한국일본학회
- 이강민(2005) 「한국의 일본어연구(2003-2004)」 『일본학보』 제64집, 한국일본학회
- 이강민(2008) 「한국의 일본어연구(2005-2006)」 『일본학보』 제74집, 한국일본학회
- 이강민(2012) 「한국의 일본어학의 연구」 한국일어일문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2012년 일본연구의현황과 과제: 일본어학, 고전, 근현대문학, 역사』에서의 발표문, 한국일어일문학회(2012.08.24)
- 이면우(2012) 「한국의 일본연구: 정치학 분야」 한국일본연구단체 제1회 국제학술대회 『기획: 한국의 일본연구: 일본사회, 정치, 경제』의 발표문, 한국일어일문학회(2012.08.24.)
- 이봉희(1988) 「한국에서의 일본연구(일본어학): 회고와 전망」 『일본학보』 제20집, 한국일본학회.
- 윤병남(2012) 「한국의 일본사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일어일문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2012년일본연구의 현황과 과제: 일본어학, 고전, 근현대문학, 역사』에서의 발표문, 한국일어일문학회(2012. 06.16)
- 유옥희 외 「한국에서의 일본문학연구의 성과와 과제의 조명」 『2004년도 한국일본학회 산학학회 합동학술대회 Proceeding』 발표문, 한국일본학회(2004.11.4)
- 배준호(2007) 「국내 일본경제경영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일경상논집』 한일경상학회(2007.10)
- 최관(2012) 「한국의 일본연구: 고대문학」 한국일어일문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2012년 일본연구의 현황과 과제: 일본어학, 고전, 근현대문학, 역사』에서의 발표문, 한국일어일문학회(2012.06.16)
- 최재철(2005) 「한국의 일본문학연구의 현황과 전망」 『논구일본문학』 (81), 리츠메이칸대학일본학회(2005.2)
- 최재철(2012) 「한국의 일본연구: 근현대문학」 한국일어일문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2012년 일본연구의 현황과 과제: 일본어학, 고전, 근현대문학, 역사』에서의 발표문, 한국일어일문학회(2012. 06.16)
- 한국일어일문학회 『한국의 일본어교육의 실태 - 일본어교육기관의 조사보고서 1998, 1999년』 (1999.02)
-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http://www.kaja.or.kr/>(검색일: 2012. 06.04)
- 현대일본학회, 『일본연구논총』 <http://www.kacjs.org/>(검색일: 2012.07.02)
- 한일경상학회, 『한일경상논집』 <http://www.kjem.or.kr/>(검색일: 2012.06.03)
-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일본공간』 <http://www.ijs.or.kr/>(검색일: 2012.5.05)
- 고려대 일본연구센터, 『일본연구』 <http://www.kujc.kr/>(검색일: 2012. 5.08)
- 한국외국어대학 일본연구소, 『일본연구』 <http://hufsjapan.com/> (검색일: 2012.6.08)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검색일: 2012. 6.04)
-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검색일: 2012. 6.03)
- 현대경제연구원, <http://hri.co.kr/>(검색일: 2012. 06.12)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http://kjc.or.kr/>(검색일: 2012. 06.15)



## 제2장 한국에서 일본 정치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 면 우 (세종연구소)

본 논문은 2011년 1월부터 5월에 걸친 제1차 자료조사와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추진된 제2차 자료조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내에서 지난 5년간 진행된 일본연구, 그 중에서도 정치학 분야에서 나타나는 동향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내의 일본연구에 대한 조사는 2005년에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에서 시도된 바 있는데, 이번의 조사는 그에 이은 두 번째의 시도로서 자료 수집의 대상은 크게 연구자와 연구기관으로 나뉘어 조사가 진행됐다.

제1차 자료조사에서, 연구자에 대한 자료는 두 단계에 걸쳐 수집되었다. 첫 단계는 각 전공별 학회 등의 주소록들을 중심으로 연구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확인해서 조사표(설문지)를 보낼 최종 주소록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최초로 수집된 연구자 수는 2000명을 넘는 것이었으나, 확인 작업 등을 통해 설문지를 보낼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1055명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설문지 회수 및 그에 따른 정보를 통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설문지 회수율이 16% 정도로 저조하여, 학진정보 등을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정보분석의 대상이 된 것은 777명이었다. 이 수치는 2005년의 그것(732명) 보다는 큰 것이지만 여전히 미진하다고 판단되어 진행된 것이 제2차 자료조사였고, 학진정보의 활용 등을 최대한 발휘하여 최종적으로 확보한 수치는 제1차 설문지의 배포대상수인 1,055명을 상회하는 1,114명이 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자료조사에 기초하여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상기한 자료조사에 의해 모아진 자료를 주요 아이টে별로, 예를 들어 정치학과 관련된 연구자의 연령이나 취득학위, 학위 취득지, 학위취득연도 등으로 분류하여 그것에서 나타나는 경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연구기관들에 대한 검토도 포함된다. 두 번째는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 또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하나는 연구자들의 취득학위에서 나타나는 전공 및 논문주제가 시대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지를 검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5년간 출판된 논문들을 통해서 어떠한 연구경향이 중심으로 또는 새롭게 나타나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후자를 위해서는 일본정치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학회인 ‘현대일본학회’의 학술지인 ‘일본연구논총’과 보다 포괄적인 한국일본학회의 학술지인 ‘일본학보’에 실린 정치학관련 논문들을 검토한다. 또한 이들 학술지가 일본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정치학회인 한국정치학회의 학술지 ‘한국정치학논총’과 세종연구소의 ‘국가전략’에 실린 일본관련 논문들과의 비교도 함께 진행한다.

### 1. 연구자 분석

연구자에 대한 분석은 크게 일곱 개의 아이টে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첫째는 성별에 의한 변화양상을 살펴보는 것인데, 본 절에서 이와 관련해서는 제1차 자료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한다.

제1차 자료조사에서 정치학 분야가 차지한 비율이 2005년도의 조사에 비해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sup>24)</sup> 2005년도의 경우, 총 732명의 일본연구자 중 105명(14.3%)이 정치학 분야 연구자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총 777명중 86명(11.1%)만이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표 II-1>에서 보듯이 성별과 관련해서는 2005년과 2011년이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고 하겠다. 즉, 정치학의 경우, 남녀간의 성별 비율은 2005년과 2011년 공히 9 대 1 정도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 비율은 경제경영 분야 보다는 좋은 편이라고 하겠지만, 역사학이나 어문학에 비해서는 ‘남성중심적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 II-1> 성별 분석

	정치학		경제,경영학	역사학	문학	어학
	2005		2011		2011	
남	95	<b>78</b>	101	66	133	109
	90.5%	<b>90.7%</b>	96.2%	79.5%	51.0%	64.1%
여	7	<b>7</b>	4	16	128	61
	6.7%	<b>8.1%</b>	3.8%	19.3%	69.0%	35.9%
N/A	3	<b>1</b>	0	1	0	0
합계	105	<b>86</b>	105	83	261	170

두 번째 아이টে은 직종으로, 이 역시 제1차 자료조사에 의한 결과에 기초해 분석한다. <표 II-2>에서 직종을 중심으로 연구자를 구분했는데, 2011년 조사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정치학의 경우 연구원의 비중이 2005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도에 함께 조사한 경제경영이나 역사 및 어문학 분야와 비교해도 눈에 띄는 특징으로 나타난다.

<표 II-2> 직종 분석

	정치		경제경영	역사	문학	어학
	2005	2011	2011			
교수	101	<b>66</b>	97	70	269	166
	96.2%	<b>76.7%</b>	92.4%	84.3%	99.6%	97.6%
번역가	0	<b>0</b>	0	0	0	0
	0	0	0	0	0	0
연구원	1	<b>18</b>	5	7	1	3
	0.95%	<b>20.9%</b>	4.8%	8.4%	0.4%	1.8%
기타	1	<b>0</b>	0	2	0	0
N/A	2	<b>2</b>	3	4	0	1
합계	105	<b>86</b>	105	83	270	170

주: 직종의 구분에 있어서는 2005년도의 것이 좀더 세부화되어 있어서 - 교수에 연구원이 포함되고, 연구원 항목에는 그 외의 다양한 형태를 포함 - 여기서는 이번의 2011년도 조사의 구분에 따름

세 번째 아이টে은 직위로, 역시 제1차 자료조사의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직위를 분석한 <표

24) 제2차 자료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즉, 총 1,114명의 대상자 중에서 정치학관련 연구자는 제1차 조사에서의 수치 보다 늘어난 132명이었지만 모집단이 늘어난 관계로 11.8%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3>에서 보듯이 정치학의 경우 2005년에 비해 2011년에는 정교수의 비중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부교수 및 조교수의 비중이 제일 큰 38.1%를 차지했지만, 2011년에는 정교수의 비중이 37.2%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다른 전공분야와 비교할 때 정치학의 정교수 비중은 낮은 편인데, 연령대를 분석한 <표 II-5>에서 보듯이 정치학의 경우 더 젊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표 II-2>에서 제시된 연구원의 비중이 큰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3> 직위 분석

	정치		경제경영	역사	문학	여학
	2005	2011				
교수	35	<b>32</b>	62	32	122	89
	33.3%	<b>37.2%</b>	59.0%	38.6%	45.2%	52.4%
부/조교수	40	<b>24</b>	29	24	65	65
	38.1%	<b>27.9%</b>	27.6%	28.9%	24.1%	38.2%
강사	7	<b>4</b>	1	10	49	6
	6.7%	<b>4.7%</b>	0.9%	12.0%	18.1%	3.5%
기타	22	<b>26</b>	13	17	25	10
	21.0%	<b>30.2%</b>	12.4%	20.5%	9.3%	5.9%
N/A	1	<b>0</b>	0	0	9	0
합계	105	<b>86</b>	105	83	270	170

주: 직위의 구분은 2011년의 것이 좀더 세분화되어서 2005년의 구분에 준하여 비교함

네 번째 아이템은 학위로서, 이와 관련해서는 제2차 자료조사의 결과에 기초해서 2005년의 수치를 2012년의 그것과 비교한다. <표 II-4>에서 보듯이, 정치학의 경우, 2012년의 조사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박사학위 소지자의 비중이 2005년에 비해 낮아졌다는 점이라고 하겠고, 이는 경제경영 분야와 함께 정치학 분야가 사회과학계열로서 역사 등의 인문학 분야와 다른 특징으로 2005년에는 제시된 특징이었다. 2005년에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97.1%로 나타났지만, 2012년에는 85.6%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무응답자의 비중(12.1%)이 높아진 때문이라고 하겠다. 2011년의 제1차 조사에서는 98.8%로 나타나 2005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II-4> 학위 분석

	정치		경제경영	역사	문학	여학
	2005	2012				
박사	102	<b>113</b>	167	99	207	169
	97.1%	<b>85.6%</b>	84.7%	83.8%	66.3%	71.6%
석사	1	<b>2</b>	6	3	37	17
	0.9%	<b>1.5%</b>	3.0%	2.5%	11.8%	7.2%
학사	0	<b>0</b>	0	0	0	1
	0	0	0	0	0	0.4%
박사수료	0	<b>1</b>	1	7(5.9%)	17(5.4%)	8(3.3%)
N/A	2	<b>16(12.1%)</b>	23(11.6%)	9(7.6%)	51(16.3%)	0
합계	105	<b>132</b>	197	118	312	236

다섯 번째 아이템은 연령이다. 연령과 관련해서는 정치학을 포함한 대부분의 분야들이 50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정규분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학의 경우가 경제경영의 분야와 함께 역사학 등과 같은 인문학 분야 보다는 좀더 고른 분포를 보인다고 하겠다. 역사학이나 문학과 같은 인문학 분야의 경우는 40대의 비중이 좀더 높은 모습을 보인다. 정치학의 경우, <표 II-5>에서 보듯이, 70대 이상의 연구자들이 다른 전공분야와는 달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겠다. 2005년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정치학의 경우, 연구자의 연령대가 좀더 완속해졌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2005년의 경우에는 40대의 비중이 가장 많은 34.3%였지만, 2012년의 조사에서는 50대가 44%대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II-5> 연령대 분석

	정치		경제경영	역사	문학	어학
	2005	2012	2012			
30대	6	1	1	3	6	11
	5.7%	<b>0.7%</b>	0.5%	2.5%	1.9%	4.6%
40대	57	<b>32</b>	42	49	99	60
	34.3%	<b>24.2%</b>	21.3%	41.5%	31.7%	25.4%
50대	15	<b>59</b>	79	50	132	126
	14.3%	<b>44.6%</b>	40.1%	42.3%	42.3%	53.3%
60대	13	<b>14</b>	50	10	37	20
	12.4%	<b>10.6%</b>	25.3%	8.4%	11.8%	8.4%
70대	6	<b>14</b>	13	1	9	3
	5.7%	<b>10.6%</b>	6.5%	0.8%	2.8%	1.2%
80대	1	<b>3</b>	2	0	6	0
	0.9%	<b>2.2%</b>	1.0%	0%	1.9%	0%
N/A	7	<b>9(6.8%)</b>	10(5.0%)	5(4.2%)	23(7.3%)	16(6.7%)
합계	105	<b>132</b>	197	118	312	236

주: 박사학위 소지자만이 아닌 모두를 대상으로 포함

여섯 번째 아이템은 최종학위의 취득년도이다. 정치학의 경우, 최종학위의 취득년도와 관련해서는 2012년의 조사에서도 90년대의 취득자들이 2005년도와 마찬가지로 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5년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은 2000년대의 학위 취득자들이 좀더 늘었다는 점이다. 2005년의 조사에서는 80년대의 취득자들이 2000년대의 취득자 보다 더 많았는데, 그것이 역전된 것이다. 이는 이번 조사가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행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90년대와 비교하여 최근에는 일본연구자의 출현이 별로 없다는 우려를 다소 해소시켜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또한 2000년대 취득자들이 의외로 큰 비중을 보이는 역사학 및 어문학 분야에 비해서는 고른 분포를 보인다고 하겠다고 하겠는데, 이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치학의 경우 연령대가 골고루 분포된 것과는 연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1-6〉 최종학위 취득년도 분석

	정치		경제경영	역사	문학	어학
	2005	2012				
5/60s	1	<b>1</b>	0	3	0	0
	0.95%	<b>0.7%</b>	0%	2.5%	0%	0%
70s	14	<b>12</b>	7	0	1	1
	13.3%	<b>9.0%</b>	3.5%	0	0.3%	0.4%
80s	16	<b>18</b>	53	9	4	14
	15.2%	<b>13.6%</b>	26.9%	7.6%	1.2%	5.9%
90s	56	<b>60</b>	79	51	72	77
	53.3%	<b>45.4%</b>	40.1%	43.2%	23.0%	32.6%
00s	15	<b>23</b>	32	46	139	97
	14.3%	<b>17.4%</b>	16.2%	38.9%	44.5%	41.1%
N/A	2	<b>18(13.6%)</b>	26(13.1%)	9(7.6%)	96(30.7%)	46(19.4%)
합계	104	<b>132</b>	197	118	312	236

주: 박사학위 소지자의 취득년도만을 대상으로 함

일곱 번째의 아이템은 최종학위의 취득지이다. 정치학의 경우, 최종학위 취득국가와 관련해서는 2005년과 마찬가지로 일본출신 연구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학의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박사학위 취득자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다른 학문분야와 차별성을 갖는다. 특히 문학과 어학에서는 미국에서의 학위취득이 거의 전무한데 반해서, 정치학의 경우에는 미국출신이 27%에 다다른다.

흥미로운 것은 2012년의 시점에서 일본출신자와 미국출신자의 비중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점이라고 하겠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일본출신자들이 2005년 이후 점차 감소세를 보인 것에 따른 상대적 비율 상승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또한 숫자상으로는 한국에서의 일본전공자 배출이 그동안 가장 많았다. 한국출신자들은 2005년의 23명에서 2012년 6월 현재의 29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7〉 최종학위 취득국가 분석

	정치		경제경영	역사	문학	어학
	2005	2012				
일본	43	<b>44</b>	83	76	157	118
	41.3%	<b>33.3%</b>	42.1%	64.4%	50.3%	50%
미국	35	<b>36</b>	22	9	1	1
	33.7%	<b>27.2%</b>	11.1%	7.6%	0.3%	0.4%
한국	23	<b>29</b>	62	25	99	70
	22.1%	<b>21.9%</b>	31.4%	21.1%	31.7%	29.6%
기타	1	<b>4</b>	3	0	1	0
	0.96%	<b>3.0%</b>	1.5%	0%	0.3%	0%
N/A	2	<b>3(2.2%)</b>	27(13.7%)	8(6.7%)	54(17.3%)	47(19.9%)
합계	104	<b>132</b>	197	118	312	236

주: 박사학위 소지자의 취득국가만을 대상으로 함

## 2. 연구기관 분석

2011년의 제1차 자료조사에서 연구기관은 총 137개가 설문지 배포의 대상이었고, 설문지 회수(전화문의 및 홈페이지방문 포함)를 통해 분석의 대상이 된 것은 <표 II-8>에서 보듯이 총 109개이다. 이는 2005년도의 114개에서 줄어든 수치인데, 무엇보다도 기타로 분류된 것들이 대폭 줄어든 때문이라고 하겠다.

<표 II-8> 연구기관의 위상 분류

분류	2005	2011
독립된 연구소	0	2
대학 부속연구소	10	11
대학의 학부 및 학과	75	74
대학원 연구과	1	0
학부 및 학과 부속연구소	0	4
미술관/박물관/도서관	0	0
정부기관	0	0
기타	28	18
N/A	0	0
총계	114	109

<표 II-9>에서 보듯이, 2005년과 비교할 때, 연구기관의 연구수행 내용은 연구만 수행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한 대신 어학중심의 교육 수행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표 II-9> 연구기관의 수행내용 분석

분류	2005	2011
연구만 수행	37/32.5%	23/21.1%
연구와 대학원 교육 수행	26/22.8%	6/5.5%
연구와 학부교육 - 어학 중심 - 수행	39/34.2%	75/68.8%
연구와 학부교육 - 어학 외 - 수행	6/5.2%	5/4.6%
N/A	6	0
총계	114	109

<표 II-10>은 연구기관의 연구분야를 분석하고 있다. 2011년도의 조사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첫째, 정치학관련 연구기관이 2005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이고, 둘째, 이에 반하여 문학관련 연구기관은 크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연구기관의 중심을 차지하는 88개 4년제 대학의 전공분야를 분석한 <표 II-13>에서 보듯이 종전에는 일본문학 위주였던 기관들이 문학만이 아닌 사회과학분야를 포함하는 일본학으로 분야를 확장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10〉 연구기관의 연구분야 분석

분류		2005		2011	
연구분야	세분화				
정치	정치학	5/2.3%	0	14/7.1%	4
	국제정치		0		10
	법학		5		0
경제경영	경영학	11/5.0%	3	6/3.0%	1
	경제학		8		3
	인문지리학		0		2
사회과학(기타)	사회학	29/13.1%	6	26/13.2%	1
	문화인류학 등		8		19
	심리학		0		0
	교육학		1		3
	젠더스터디		14		0
	기타		0		3
역사	역사일반	16/7.2%	5	14/7.1%	6
	고대사		1		1
	중세사		2		2
	근세사		2		3
	근현대사		6		2
문학	고대문학	71/32.4%	4	43/21.8%	27
	중세문학		9		5
	근세문학		11		4
	근현대문학		47		7
도서관학, 정보학		0	0	1/0.5%	1
언어학, 일본어학, 일본어교육학		95/42.8%	95	91/46.2%	91
인문학(기타)	철학, 사상, 윤리	4/1.8%	2	2/1.0%	2
	종교		2		0
	고고학		0		0
예술	미술, 공예	1/0.5%	1	0	0
	음악, 영화 등		0		0
공학 및 자연과학	건축 등	0	0	0	0
	생물학, 농학 등		0		0
	의학, 약학		0		0
	가정학		0		0
	공학		0		0
	기타		0		0
총계		222		197	

주: 중복회답

이들 기관들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05년과 비교할 때 2011년에는 첫째, 정기간행물들의 발행은 크게 감소한 대신에, 둘째, 강연이나 영화상영 등과 같은 활동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이는 연구기관들의 활동이 연구 보다는 일본 소개에 좀더 치중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일본 연구와 소개는 공히 중요한 것이지만, 연구 보다 소개에 치중된다는 것은 일본에 대한 보

다 깊은 이해의 필요성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겠다.

〈표 II-11〉 정기간행물 및 학술교류 여부 - 연구기관

	발행함		발행하지 않음		총계	
	2005	2011	2005	2011	2005	2011
뉴스레터	84	7	30	102	114	109
연구잡지	65	7	49	102	114	109
논문시리즈	83	34	31	73	114	107
	실시		실시하지 않음		총계	
강연	9	14	105	95	114	109
영화상영 등	3	12	111	97	114	109
교원 워크숍	3	5	111	104	114	109
일본방문자 워크숍	3	1	111	104	114	105
전시회	3	0	111	104	114	104

〈표 II-12〉 학위수여 및 대중교육실시 여부

		2005	2011
학위수여	예	39	36
	아니오	75	64
대중교육	예	90	90
	아니오	24	18

<표 II-13>은 분석대상이 된 109개의 연구기관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88개의 4년제 대학교의 일본 관련 분야를 정리한 것이다. 일본관련 분야들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어문학 중심의 명칭들인데, ‘일어일문학과’, ‘일어교육과’ 등이 그 예이다. 다른 하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과학을 포괄하는 명칭들인데, ‘일본학과’가 대표적이지만 ‘일본언어문화학과’ 등도 이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2005년의 자료가 없어서 비교할 수 없지만, 포괄적인 일본학과의 비중은 21.6%로 결코 적지 않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문학관련 학과의 감소와 연관있다고 하겠다.

〈표 II-13〉 88개 4년제 대학교 내의 일본관련 학과 분석

지역	일본관련 학과	일본학관련	지역	일본관련 학과	일본학관련
서울	19	5	전남	3	1
경기	13	4	광주	4	-
인천	2	1	경북	8	1
강원	3	2	대구	3	1
충북	4	-	울산	1	1
충남	7	2	경남	4	-
대전	3	1	부산	7	-
전북	-	-	제주	1	-



### 3. 논문주제 분석

이번의 조사에 있어서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지난 번의 조사에서도 그렇지만 일본연구의 동향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서두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지난 6여년동안 일본전공자들의 연구동향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검토하는 이번 절에서는 크게 학위논문과 일반논문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 3.1. 학위논문 분석

학위논문과 관련해서는 70년대 이후를 5년간 단위로 검토했는데, 앞서 취득연도와 연관해서 90년대에 가장 많은 일본전공자의 배출이 있었다는 지적처럼, <표 II-14>에서 보듯이 90년대에 가장 많은 학위논문들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90년대 중에서도 후반부인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의 학위논문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4> 학위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정치학 분야

	일본국내정치	국제정치	외교사, 안보	한일관계	지역연구	북한	기타	계
1970-75	2	1	0	0	0	0	0	3
1976-80	0	1	1	0	0	0	0	2
1981-85	3	0	0	1	2	1	0	7
1986-90	4	0	1	0	0	0	1	6
1991-95	14 (36.8%)	7	5	4	4	2	2	38
1996-2000	24 (45.2%)	7	5	7	5	3	2	53
2001-05	5	3	2	0	1	0	1	12
2006-10	3	0	1	1	2	0	0	7
계	55	19	15	13	14	6	6	128

세부전공별로 살펴보면 역시 일본국내정치를 전공으로 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위논문이 가장 많이 제출된 90년대의 경우 총 91건 중에서 38건(41.7%; 전체적으로는 42.9%)이 국내정치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고, 국제정치 및 한일관계가 각기 14건과 11건으로 그 다음을 이어갔다. 일본 국내정치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에 들어서서도 높게 나타나, 총 19건의 논문중에서 국내정치관련 논문이 8건으로 42.1%를 차지했다. 2000년대에 나타난 특징으로는, 일본국내정치에 대한 단연 높은 관심 외에도, 한일관계 보다는 지역연구의 하나로서 일본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 3.2. 학술논문 분석

본 절에서는 일본연구의 동향을 검토하기 위해서 우선 ‘일본연구논총’에 실린 논문들의 주제를 분석의 대상으로 했다. ‘일본연구논총’은 일본정치연구의 대표적인 학회인 ‘현대일본학회’의 기관지로서

일본정치연구의 대표적인 학술지라고 할 수 있다.

<표 II-15>에서는 ‘일본연구논총’에 실린 논문들의 주제를 먼저 10개의 유형으로 분류해 보았다. 특별한 패턴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일본의 국내정치 및 정책에 대한 논문들과 한일관계를 다룬 논문들이 꾸준하고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일본의 대외정책 중에서도 안보와 관련된 논문들도 주된 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직 시기적으로 이른 때문인지는 몰라도, 최근 관심을 모으는 중국의 부상과 관련하여 일중관계에 대한 논문이 많지 않은 것은 의외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의 등장으로 새롭게 조명을 받은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별도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것도 의외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표 II-15> 논문주제 분석 1- 일본연구논총, 2005-2011

논문주제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a. 일본국내정치, 정책	5	13	14	10	14	14	7	77 (40.1)
b. 일본 역사	3	1	2	5	3	3	3	20 (10.6)
c. 일본대외정책-안보	3	3	8	4	5	3	4	30 (15.6)
d. 일본대외정책-경제	3	3	1	2	3	0	0	12 (6.2)
e. 한일관계	7	7	2	4	1	1	10	32 (16.6)
f. 미일관계	1	1	1	3	0	2	0	8 (4.1)
g. 일중관계	2	1	0	1	0	0	1	5 (2.6)
h. 국제관계, 동아시아	1	0	1	0	0	0	0	2 (1.0)
i. 한국의 대일정책	0	0	0	0	0	0	3	3 (1.5)
j. 기타	1	1	1	0	0	0	0	3 (1.5)
총계	26	30	30	29	26	23	28	192

\*: 중복 표기에 의함

또한 한국의 대일정책에 대한 논문들이 전무에 가깝다는 것도 의외라고 하겠다. 이는 여러 이슈들과 관련하여 한국의 대응을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일정책을 좀더 직접적으로 다루는 논문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고 하겠다.

<표 II-16>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의 국내정치 및 정책에 대해서 좀더 세분화하여 검토했다.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사회문화정책과 관련된 논문들이 다수 생산된 2007년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정치경제 부분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국내정치 부분과 사회문화정책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정치경제나 사회문화정책 분야와 관련해서는 정책결정과 관련된 것들을 포함해서 검토했다. 이러한 세부적 주제분포는 결국 국내정치 분야라고 하더라도 정당이나 선거와 같은 전통적인 국내정치 분야 보다는 정책결정과정을 포함하는 정치경제 분야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보여준다.

〈표 II-16〉 논문주제 분석 2- 일본국내정치 및 정책의 세분화, 2005-2011

논문주제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a. 정당, 선거 등	0	4	3	4	3	4	2	20
b. 정치경제 부분	3	4	1	3	6	5	3	25
c. 사회문화정책	0	1	8	3	2	3	1	18
d. 행정 및 지방자치	2	4	2	0	3	1	0	12
e. 그 외 정책 관련	0	0	0	0	0	1	1	2
총계	5	13	14	10	14	14	7	77

<표 II-17>은 다양한 전공을 망라해서, 많은 일본전공자들이 참여하는 한국일본학회의 기관지인 ‘일본학보’에 실린 정치학관련 논문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는 ‘일본연구논총’이 정치학 위주의 ‘현대일본학회’에 의한 학술지여서 혹은 연구주제에 있어서도 편향된 경향을 가질 수도 있기에 보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학보’에서 정치학관련 논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8%대를 전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학보’의 모체인 ‘한국일본학회’가 어문학계열의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하지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좀 미비한 비중이라고 하겠다. 2012년의 제2차 자료조사를 기준으로 한 <표 II-4>를 중심으로 하더라도 정치학은 전체(995명)에서 13.2%(132명)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표 II-17〉 논문주제분석3 - 일본학보, 2005-201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전체	97	115	107	123	89	92	82	705
정치학관련	10	15	8	13	6	7	8	67

<표 II-18>은 일본학보에 실린 정치학관련 논문들의 주제를 <표 II-16>처럼 세부적으로 구분,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국내정치 분야로, 전체(67건)에서 44.7%(30건)를 차지했다. 역사관련 논문들이 제2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앞서 검토한 ‘일본학회논총’과의 차이점이라고 하겠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일본학회가 역사학을 포함한 다양한 일본전공자들이 참여하기에 정치적 이슈를 역사학적으로 접근한 것을 포함한 때문이기도 하고, 현재 정치학 전공자들이 역사적인 이슈, 즉 전전까지의 일본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높힌 때문이기도 하다고 제시할 수 있다.

〈표 II-18〉 논문주제분석4 - 일본학보의 정치학관련 세분화, 2005-021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국내정치	8	6	4	5	1	2	4	30
역사	0	4	1	3	3	0	2	13
대외-안보	0	2	1	2	0	1	0	6
대외-경제	1	1	0	2	1	1	1	7
한일관계	1	1	1	1	1	2	1	8
미일관계	0	0	0	0	0	0	0	0
일중관계	0	1	0	0	0	0	0	1
국제관계	0	0	0	0	0	0	0	0
대일정책	0	0	0	0	0	0	0	0
기타	0	0	1	0	0	1	0	2
(계)	10	15	8	13	6	7	8	67

다음으로는 정치학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학술단체인 ‘한국정치학회’의 기관지인 ‘한국정치학회보’와 세종연구소의 ‘국가전략’지에 실린 논문들을 검토한다. 이는 앞서 검토한 두 개의 단체 및 기관지가 일본과 관련된 것이기에 게재논문의 주제가 다소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표 II-19> 논문 주제분석5 - 한국정치학논총, 2005-201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정치 사상	동양	2	1	2	0	2	2	1	10
	서양	11	8	10	8	11	8	13	69
한국 정치	선거	3	13	0	5	4	5	9	39
	정당	4	0	2	4	0	1	1	12
	정치경제	5	8	2	1	0	3	0	19
	역사	2	4	1	2	2	2	3	16
	기타	5	2	5	15	14	9	14	64
	소계	19	27	10	27	20	20	27	140
북한연구		2	1	0	1	2	2	4	12
지역 연구	일본	6	1	0	1	4	2	4	16 (4.0%)
	중국	1	1	2	1	6	1	1	13
	미국	2	4	5	5	3	1	0	20
	유럽	5	5	3	6	5	2	2	28
	비교	0	2	5	7	2	2	1	19
	동남아	0	2	0	0	1	0	0	3
	기타	4	2	3	2	4	2	0	17
소계	18	17	18	22	25	10	8	118	
국제정치		4	5	0	14	3	3	5	34
기타		0	0	2	4	0	0	0	6
(계)		56	59	42	76	63	45	58	399

<표 II-19>는 지난 7년간 ‘한국정치학논총’에 실린 논문들을 중심적인 주제별로 정리한 것이다. 일본과 관련된 논문들은 총 16건으로 전체에서 약 4.0%를 차지했는데, 여기에는 일본이 포함된 한일 비교와 같은 비교연구는 제외된 것이다. 아직은 중국연구 보다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지역연구에 국한하여 미국이나 유럽 연구 보다도 더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일본전 공자들이 ‘일본연구논총’이라는 독자적 게재창구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도 다소 의외이고, 결국 좀더 노력해야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II-20〉 논문주제분석6 - 한국정치학회보 일본관련논문, 2005-201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국내정치	1	1	0	1	3	1	2	9
역사	4	0	0	0	0	1	0	5
대외-안보	1	0	0	0	0	0	1	2
대외-경제	0	0	0	0	1	0	0	1
한일관계	0	2	1	2	0	0	1	6
미일관계	0	0	0	0	0	0	0	0
일중관계	0	0	0	0	0	0	0	0
대일정책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계)	6	3	1	3	4	2	5	23

〈표 II-20〉은 〈표 II-19〉의 일본 부분을 세분화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도 국내정치에 대한 관심 및 그 비중이 가장 높게 나왔다. 또한 제2 순위에는 ‘일본연구논총’과 같이, 따라서 ‘일본학보’와는 달리, 한일관계가 부상했는데, 역사학 부분도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미일관계나 일중관계에 대한 논문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의 관심으로 볼 때, 일중관계에 대한 논문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직 학문적으로는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21〉 논문주제분석7 - 국가전략지, 2005-201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24	25	23	27	25	26	26
일본	2	1	3	2	1	3	2
중국	4	2	4	3	5	2	3

〈표 II-21〉은 세종연구소가 발행하는 ‘국가전략’지에 실린 논문들을 수치적으로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본 표에서는 특히 일본관련 논문들과 중국관련 논문의 게재 수를 비교했는데, 여기서는 전자 보다는 후자가 더 많은 비중을 나타냈다. ‘국가전략’지가 학술지를 지향함에도 정책적 함의를 포함하기에 이를 중심으로 최근 연구동향 및 연구관심동향을 보고자 했던 것인데, 역시 ‘국가전략’지에서는 중국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연구의 경우는, 그럼에도, 약 10%를 전후한 비중을 보여서 ‘한국정치학회논총’의 그것 보다는 더 높게 나타났다. 여전히 정책적으로는 일본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 3.3. 주제별 논의심화 양상

전 절에서는 지난 7년간 정치학 분야에서 일본과 관련되어 진행된 연구들을 주요 주제들로 분류하여 그 수치를 검토했다. 본 절에서는 이에 이어서 이들 주제들을 전 절에서 언급한 ‘일본연구논총’의 논문들을 중심으로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위논문을 분석한 〈표 II-14〉에서나 지난 7년간 ‘일본연구논총’에 실린 논문들을 검토한 〈표 II-15〉에서도 일본국내정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II-16〉에서는 〈표 II-15〉에서 언급된 국내정치 부분을 좀더 세분화해서 선거나 정당 등과 같은 전통적인 국내정치의 부

분, 정치경제 부분, 사회문화정책의 부분, 행정 및 지방자치 부분, 그리고 그 외의 부분(기타) 등의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표 II-16>은 지난 7년간 정치경제 분야에서 가장 많은 논문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경제 분야에서는 박성빈 교수의 “금융행정개혁을 통해 본 일본형 금융시스템의 변용”(2005), “장기금융위기와 일본 금융정책 변화”(2009), 그리고 “민주당 정권의 탄생후 일본 금융규제정책결정의 변화”(2011) 등과 같은 금융관련 연구와 김용열 교수의 “일본적 경영의 효용과 한계”(2006), 박경열 교수의 “일본기업의 성과주의 인사관리와 노사관계의 변화”(2009), 그리고 문언주 교수의 “종업원 중심형 기업지배구조의 형성과 사회통념에 관한 연구”(2011) 등과 같은 일본기업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는 오태현 교수의 “일본인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연구”(2009)와 전영수 교수의 “일본의 신자유주의 도입과정과 그 특징 - 경제적 관점을 중심으로”(2010)에서 보듯이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정치경제 분야에서 특징적인 것은 위에서 언급한 금융관련 연구나 기업관련 연구가 몇 명의 국한된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었음에도 매우 생산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인적 과소 현상은 정치경제 분야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2000년대에도 불황이 지속되는 요인들이나 2000년대의 산업정책에서 나타난 변화 등과 같이 중요한 주제들이 폭넓게 다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준다고 하겠다.

국내정치 분야에서 정치경제 다음으로 많은 논문을 생산한 부분은 선거나 정당과 같은 전통적인 국내정치 분야이다. 정치학 일반에 있어서, 일본의 국내정치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선거 및 투표행태는 중심적인 테마라고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가장 진전을 보였기 때문인데, 지난 7년간 한국에서의 일본연구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선거 및 투표행태 관련 논문들이 나왔다. 고선규 교수의 “일본 고령자의 정치참여 분석”(2006)이나 이이범 교수의 “제22회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2010)을 위시한 여섯 편의 논문이 그것이다. 인터넷 선거운동과 전자투표, 지방선거와 매니페스토 등과 같이 다양한 주제로 넓혀진 측면도 있지만, 국내정치 관련 논문 총 20편 중 6편은 적지 않지만 총 192편(정치학 관련 일본연구논문의 총수)에서 6편의 논문은 앞서 언급한 선거 및 투표행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매우 적은 수치라고 하겠다. 이는 이 분야전공의 학자가 많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또한 한국에서 이와 관련된 분석을 추진하기에는 데이터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 외에도 진창수 박사의 “일본 정당정치의 변동과 정책변화”(2006)이나 박철희 교수의 “정치제도 개혁아이디어의 발흥, 확산, 그리고 제도화” 등과 같은 정책결정에 대한 연구와 이이범 교수의 “포퓰리즘적 현상의 한일비교 -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수상의 지지형태 분석”(2006)이나 김영수 교수의 “1990년대 일본형 시스템의 변화와 정치리더십”(2006)과 같은 정치리더십과 관련된 연구 등이 진행됐다.

국내정치 분야와 연관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정당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90년대 이후의 일본정치는 연립정권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연립정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떻게 운용되는지, 그리고 왜 붕괴되는지와 같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찾아 볼 수 없다. 정당의 분열 및 통합도 90년대 이후에는 그 전과 비교해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인데 이에 대한 논의 역시 찾아 볼 수 없다. 일본정치를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에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대외정책 분야는 크게 안보 및 경제와 관련된 지역주의적 정책과 한국이나 중국 등과의 이국간 관계 등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했다. 지역주의적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원덕 교수의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정책 형성의 전개와 특징”(2005), 박용관 교수의 “동북아공동체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2005), 김호섭 교수의 “냉전종결 이후 일본의 동아시아 다자외교”(2006), 조양현 교수의 “전후 일본의 아시아 외교에서의 미국 요인”(일어, 2007), 최희식 교수의 “60년대 일본의 아시아 지역정책 - 미일동맹과 자주외교의 협곡”(2008), 이승주 교수의 “일본 FTA 네트워크 전략의 형성과 변화”(2011), 박장건 교수의 “동북아 3국 정상회의에서의 일본의 대외경제전략 - 상황적 하부지역주의”(2011) 등에서 보듯이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고 분석이 좀더 세밀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장인성 교수의 “일본의 국제책임과 국제공헌 - 국제체제와 일본의 정체성”(2006)이나 손열 교수의 “일본의 국제정치 인식”(2007), 그리고 박영준 교수의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대외정책론 - 야마가타의 전략론과 대항론”(2008) 등과 같이 일본이 국제질서 및 지역내의 국제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난 것은 특징적이라고 하겠다. 일본의 ODA 정책과 관련해서는 손기섭 교수의 “일본의 대중원조 정책 변화와 특징”(2005)이나 김호섭 교수의 “일본의 대중국 ODA 정책결정 - 엔차관을 중심으로”(2008), 그리고 박홍영 교수의 “전후 대외원조이념의 회고와 전망 - 남북문제의 시점에서”(2009) “전후 일본의 ODA 정책의 변화상”(2010) 등이 나왔는데, 최근 한국에서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많은 연구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한국을 비롯한 일본의 이국간 관계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역시 한일관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제도 양기웅 교수의 “외압과 국내정치의 한일관계”(2005), 김동명 교수의 “한일 역사인식 공유 가능한가”(2005), 남기정 교수의 “한국 민족주의의 전개와 한일관계”(2006), 김기석 교수의 “한일관계의 구조변화”(2007), 양기호 교수의 “환동해권 한일지방정부간 국제협력”(2008), 류상영 교수의 “박정희 시대 한일경제관계와 포항제철”(2011) 등에서 보듯이 다양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 외에도 신장철 교수의 “한일해저터널 건설과 동북아물류시스템”(2005), 김용희 교수의 “한중일 물류협력과 물류레짐 구상”(2007), 그리고 오태현 교수의 “한국 드라마의 일본 유입 연구”(2011) 등의 주제분석은 이러한 다양성을 잘 나타내준다고 하겠다.

한일관계에 이어서 일북관계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은 논문이 생산되었다. 양기웅 교수의 “북일수교 교섭의 결렬과 재개의 조건”(2006), 이종국 교수의 “일본의 대북정책 변화 - 중의원 납치자위위원회의 논의를 중심으로”(2008), 신정화 교수의 “일본의 대북정책 지속과 변화”(2009) 등에서 보듯이 최근의 일북관계가 소원한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다양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비해 일중관계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논문이 제출됐다. 손열 교수의 “일본의 과거와 중국의 미래”(2005)나 남기정 교수의 “중일국교정상화와 한일관계”(2011) 정도가 눈에 띈다. 미일관계에 대한 관심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영근 교수의 “미일 통상마찰의 정치경제학”(일어, 2007)이나 전진호 교수의 “미일 원자력 국제협력”(2008) 정도가 제출됐다.

이상에서 주요 주제별로 지난 7년간 ‘일본연구총론’에 실린 논문들을 간략히 검토했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위에서도 거듭 지적했지만 주제들이 다각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김상준 교수의 “일본의 전쟁기억과 공동체 상상 - 기억의 사회적 재생산을 중심으로”(2009)와 “애니메이션과 전후 일본의 아이덴티

티”(2007), 그리고 고희탁 교수의 “신국 일본의 정치사상 - 예외주의 및 보수주의의 내면화를 통한 ‘국가’와 ‘국민’형성 전략” 등은 이러한 다양성의 좋은 예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둘째,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주제들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국내정치 분야에서는 연립정권의 운용이나 정당들의 생멸 등과 같은 것이고 대외정책 분야에서는 미일관계나 일중관계가 그것인데 이들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셋째는 주제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또는 개념적 성과를 보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고, 이를 위해서는 이론적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정치학과 관련된 일본연구에 있어서 최근의 논쟁적 이슈는 냉전이후, 또는 자민당에 의한 일당우위체제의 붕괴 이후 어떠한 변화가 정책내용상, 그리고 정책결정 메카니즘상 나타나는가 하는 점이라고 하겠다. 이와 함께, 뽀뽀이 지적인 것처럼, 전후 일본의 정치경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일본의 특유성을 지적하는 논조가 많았는데, 과연 냉전 이후의 일본은 이러한 특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혹은 서구 일반과 유사한 체제로 변화하는가 하는 점이라고 하겠다. 또한 2009년의 정권교체 이후에는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하는 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이러한 점들을 직간접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다양한 주제에의 확산과 함께 연구의 심화를 위해서는 상기한 이론적 맥락을 길잡이로 하는 좀더 많은 관심과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4. 전체 요약: 결론을 대신해서

이상에서 2005년 이후 지난 7년간 한국 내에서 진행된, 일본연구와 관련된 활동 및 담당자들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자, 연구기관, 그리고 논문의 세 가지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본 논문은 이 중에서도 정치학 분야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우선 연구자들에 대한 자료분석에 관련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연령적으로는 볼 때, 다른 전공분야들 보다 좀더 고르게 연령대가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남녀간의 성별에 있어서 경제경영 분야와 함께 남성우위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2005년과의 비교에서도 나타나는 지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문학과 비교할 때 특히 그 남성편향적인 경향이 두드러진다. 셋째는 정치학의 경우 역시 경제경영 분야와 함께 박사학위소지자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는데 이 역시 2005년과 지속성을 가지는 측면이다.

또한 연구기관들에 대한 자료분석과 관련해서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정치학관련 연구기관이 2005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을 2011년도의 조사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제시할 수 있다. 둘째로는 이에 반하여 문학관련 연구기관은 크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연구기관의 중심을 차지하는 88개 4년제 대학의 전공분야를 분석한 <표 II-13>에서 보듯이 종전에는 일본문학 위주였던 기관들이 문학만이 아닌 사회과학분야를 포함하는 일본학으로 분야를 확장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는 이들 기관의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정기간행물들의 발행은 크게 감소한 대신에, 강연이나 영화상영 등과 같은 활동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이는 연구기관들의 활동이 연구 보다는 일본 소개에 좀더 치중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논문의 주제와 관련해서도 역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측면에서 요약할 수 있다. ‘일본연구논총’에 실린 논문들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첫째는 일본의 국내정치 및 정책에 대한 논문들과 한일 관계를 다룬 논문들이 꾸준하고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선거와 정책결정과정, 그리고 정치경제 등의 주제들에서는 몇몇 연구자들의 특별한 노력에 힘입어 논의가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90년대 이후 진행된 연립정권의 양상이나 정당의 이합집산 및 생멸에 대한 연구 등과 같이 정당에 대한 연구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국내정치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연구해야 분야가 많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른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와는 대조적으로 최근 관심을 모으는 중국의 부상과 관련하여 일중관계에 대한 논문이 많지 않은 것은 의외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하도야마 민주당 정권의 등장으로 새롭게 조명을 받은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별도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것도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대일정책에 대한 논문들이 전무에 가깝다는 것도 의외다. 이는 여러 이슈들과 관련하여 한국의 대응을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일정책을 좀더 직접적으로 다루는 논문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들은 일본의 대외정책 및 대외관계가 국내정치 분야에 이어서 많은 관심을 받아 적지 않은 논문들이 제출됨에도 나타난 결과여서, 이 역시 앞으로의 과제로서 연구해야 될 대상을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가 주제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루어야 할 분야가 많이 존재함을 제시한 것이라면, 셋째는 이제까지의 ‘확산’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또는 개념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정치학과 관련된 일본연구에 있어서 최근의 논쟁적 이슈는 냉전이후, 또는 자민당에 의한 일당우위체제의 붕괴 이후 어떠한 변화가 정책내용상, 그리고 정책결정 메카니즘상 나타나는가 하는 점이라고 하겠다. 이와 함께, 펴펠이 지적한 것처럼, 전후 일본의 정치경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일본의 특유성을 지적하는 논조가 많았는데, 과연 냉전 이후의 일본은 이러한 특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혹은 서구 일반과 유사한 체제로 변화하는가 하는 점이라고 하겠다. 또한 2009년의 정권교체 이후에는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하는 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검토한 논문들이 다양한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이러한 점들을 직간접적으로 논의하고는 있지만, 다양한 주제로의 확산과 함께 연구의 심화 및 이론적으로나 개념적으로 일정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기한 이론적 맥락을 길잡이로 하는 좀더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론적 또는 개념적 성과는 일본을 이해하고 한국과의 직간접적인 비교 하에서 한국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일본연구 본연의 의의를 보다 충실히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 제3장 한국에서 일본 경제·경영 분야의 연구동향

김도형 (동서대학교)

2000년 초반 10년간은 사상 유례없는 일본경제경영 환경의 격변기에 해당된다. 장기불황 이후 구조 개혁 과정을 거쳐 경기회복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이른바 신자유주의식 개혁으로 인한 격차사회 도래와 함께 2008년 리먼 쇼크로 인해 선진국 중에서는 실질성장률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분배 우선의 민주당 정권의 등장했으며 미증유의 3.11 동일본 대지진 피해를 겪게 된다.

이미 일본적 경제 경영을 규율해 오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일본정부, 일본기업, 일본인의 행동양식도 구조적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한국경제와 기업 역시 일부 업종에서 일본과의 기술격차를 좁히면서 산업내 분업이 진전되고 있으며 중국의 부상으로 한일양국의 대중의존도도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일본경제경영 연구자들이 일본문제에 대한 인식, 어젠더와 가설 설정, 검증을 위한 이론적 실증적 방법론, 일본문제와 한국경제 경영 문제해결을 향한 정보 발신력, 일본 캐치 업 모델과는 차별화된 선진경제 운영과 창조적 경영 모델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본고는 첫째, 일본경제경영관련 주요 학회를 통한 연구동향을 분야별로 살펴보고, 둘째, 국내 주요 연구기관의 연구실적을 통해 일본의 경제경영 환경변화를 어느 정도로 커버하고 있으며, 셋째, 일본의 학계와 관계에서 전개된 거시경제와 미시적 기업관련 정책이슈를 개관하고 국내 일본연구가 이러한 이슈를 여하히 추적하고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가미해 왔는가를 살펴본다.

### 1. 일본경제경영 연구자 동향

세종연구소(2012)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국내 일본경제경영 분야 연구자라고 회신한 연구자수는 2012년 4월 현재 197명으로서 2005년 시점(140명) 대비 33.5%, 연간 약 5% 정도씩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는 80년대 중반~90년대 중반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편이다. 이들 연구자들의 속성(연령, 직위, 학위, 학위 취득 연도와 국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대를 보면 40대~50대 연구자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점차 고령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연령cohort 이동과 신규 학위취득자 진입의 두 가지 요인에 의한 것이다. 즉 조사시점에 관계없이 일본에서의 학위취득은 일본의 학위과정과 학위취득 절차의 특성상 영미에 비해 전 반적으로 유학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30대 후반 혹은 40대 초반이 박사학위 취득적령기라 볼 수 있다. 따라서 2012년의 경우 2005년 시점에서의 30~40대 학위취득자 연령층이 7년 이상 경과 되면서 각각 40~50대 연령cohort로 이동한 것과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분석기간 중의 신규취득자 신장률이 80~90년대 비해 현저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여기에서 이른바 일본연구자 특히 경제경영 연구자 층의

고령화는 불가피하다.

둘째, 연구자 직급은 교수직이 절반 이상이며 그 비중은 2012년 시점에서는 더 늘어나고 있다. 국내 대학 교수직에 국내 및 일본주재 한국인 일본연구자들이 직접 채용되기 보다 2005년 당시 부/조교수 이하 연구자의 직급 상승에 의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표 III-1〉 일본학 연구자-경제경영분야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연 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N/A		총 계
2005	0	8	48	51	20	2	0	11		140
2012	0	1	42	79	50	13	2	10		197
직 위	교 수	부/조교수	강 사	기 타						
2005	73	42	6	18						139
2012	109	39	9	25						182
학 위	박 사	석 사	학 사	박사수료				N/A		
2005	130	2	2	0				6		140
2012	167	6	0	1				23		197
학위취득연도	50s	60s	70s	80s	90s	00s		N/A		
2005	0	0	9(6)	45(44)	60(60)	18(18)		8(8)		140(136)
2012	0	0	7(5)	53(50)	79(78)	32(32)		26(2)		197(167)
학위취득국가		일본	한국	미국	기타			N/A	계	
2005	학 사	0	2	0	0			0	2	140
	석/박사 수료	1	1	0	0			0	2	
	박 사	74	36	15	5			6	136	
2012	석/박사 수료	5	1	1	0			23	30	197
	박 사	78	61	21	3			4	167	

주: 1) 2012년도 강사직종의 경우 강의교수, 시간강사, 전임강사를 포함, 기타의 경우 명예/겸임/객원/기금/연구/석좌/초빙교수, 연구위원, 연구원, 전문/전임/책임연구원, 공무원, 이사장, 총장, 회원, 박사수료, Post-Doctor 등을 포함.

2) 학위취득연도의 경우 ( )안은 박사학위 취득자 수, 학위취득 국가의 기타는 영국과 독일.

자료: 『2012년 한국일본학의 현황과 과제-2005년과 2012년 비교분석』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2012. 4. 24.

다른 한편 한국연구재단의 학위논문 등재(총 600편) 조사(세종연구소, 2012)에 따르면 2012년 4월 현재 국내 경제경영 연구자로서 한국연구재단 등록 총수는 102명이다. 이를 학위 박사 학위 취득국가 별로 보면 일본이 60명, 미국이 12명, 국내가 28명, 기타 영국 및 독일이 각각 2명으로 일본 비중은 60%로 과반수 이상이다.

한편 미국 소재 대학에서 일본관련 주제로 학위를 취득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귀국 후 일본학 관련 학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 비중은 10%를 상회하고 있으며 국내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연구자 비중은 27.4%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일본유학 후 학부 혹은 석사과정 수료 후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며 일본에서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들이 국내대학에 진출하여 일본학 관련 학위과정을 개설 운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1990년대 중반 일본에서 박사학위 취득자 수가 급증한 것을 계기로 이후 일본학 관련 지적 네트워크, 전문연구와 대학교육 기반이

구축되어 가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금후 확산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중에서 2005~2011년간 박사학위를 신규 취득, 국내 일본경제 경영분야 연구자 그룹에 진입한 연구자는 5명(이 중 일본 3명, 국내 2명)에 불과하다.

〈표 III-2〉 한국연구재단 등재 연구자 특성

(단위: 명)

학위취득 연 도	합계	박사학위 취득국가				전공분야					
		일본	미국	국내	기타	경제	경영	회계	노무	생산	재무
~2005	98	57	12	27	2						
2005~	5	3	-	2	-	3	1				
합계	103	60	12	29	2						

주: 1) 전공분야: 박사학위 논문 기준.

2) 2005년 이전 학위취득자 전공분야에 관해서는 자료 부족으로 생략.

## 2. 국내 일본경제경영 연구 동향

일본 경제경영 이슈에 관해 국내에서는 통상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 오고 있다. 그 하나는 비교적 신속하게 국내에 이를 전달, 전반적 이해와 동시에 국내경제정책과 기업전략 수립에 기여할 목적으로 전개되는 단기적 정책적 접근, 다른 하나는 이슈에 관련된 기본 메커니즘 해명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적 구조적 접근이다. 이른바 국내외 매스컴 등에 의한 뉴스 혹은 특집 등은 전자에 속한다. 본고에서 적시하는 국내 국책 및 민간 연구소의 일본관련 전문가 집단은 주로 이를 기본업무로 하고 있다. 그에 비하면 후자는 주로 국내대학 경상계통 교원들이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종 세미나와 학술지 발표를 통해 일반에 공개, 활용되고 있다.

### 2.1. 연도별 분야별 연구동향- 6개 학술지 중심-

우선 국내 일본경제경영 관련 대표적 학술단체인 한일경상학회의 『韓日經商論集』을 비롯하여 『日本研究論叢』(현대일본학회), 『日本學報』(한국일본학회) 『일본연구』(고려대 일본연구센터), 『일본연구』(한국외국어대 일본연구소), 『일본공간』(국민대 일본학연구소) 등 6개 학술지에 2005~2011년간 게재된 경제경영 관련 학술논문은 총 260편에 이른다. 이들의 35개 세부분야별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표 III-3> 참조).

첫째, 한국경제, 산업, 기업분야(한국기업의 혁신과 재무분야 포함) 최대 다수이며 한일기업간 비교가 뒤를 잇고 있다. 한일경상논집의 게재대상 논문은 일본만이 아니고 한일간 비교연구를 대상을 하기 때문에 이 분야 논문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당연할지 모르나 그 중에서도 한국경제, 산업, 기업 그 자체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그 동안 대일 비교연구 영역을 넘어 한국경제, 산업 및 기업 분야가 국내일본연구자의 독자적 연구영역이 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간의 기존 국내 일본연구자들의 연구역량 확충, 전문성 확보 및 신규연구자 진입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본 기업시스템과 종합상사를 포함하는 대기업 관련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장기불황이 시작되면서 90년대 중반 이후 지주회사 解禁 논의와 함께 기존의 일본기업시스템이 서서히 변용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한국 재계와 학계에서도 일본형 시스템 변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즉 종래의 종업원 중심에서 주주중심으로의 거버넌스의 이동, 은행 중심에서 주식시장 중심의 자본조달, 계열구조의 유연성, 주식상호보유 하의 대기업의 창구였던 종래의 종합상사를 주식상호 보유 구조의 이완과 함께 국제편집력 측면에서의 재평가 등 변화된 환경하에서 일본기업시스템을 재점검하려는 움직임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표 III-3〉 연구분야별 논문발표 건수 - 주요학술지

(단위: 편수)

주제	05	06	07	08	09	10	11	소계
일본거시, 시스템, 지역경제	(3)	1(2)	1		2(2)	2(1)	1(1)	7(9)
통상, ODA, 원조	2(1)	(3)	(1)	1(2)	(2)	2(1)	(3)	5(13)
금융, 환율	(1)		1	(1)	1	1	(2)	3(4)
연금, 퇴직금, 요양, 복지		1	(1)	1				2(1)
고령화			1	(1)			1(1)	2(2)
여성, 고령자, 청년					2			2
규제개혁, 구조개혁		(2)		2				2(2)
한일FTA, 무역	4(1)	1	1(1)	1	1(1)			8(3)
한중일FTA, 교류, 협력	1		4(1)	1(1)			(2)	6(4)
동아시아경제권	(3)		3(1)	2(1)	1(1)	1	(2)	7(8)
지재권, 개인정보, 특허			2		1			3
한국경제, 산업, 기업	5	2				2	8	17
한일경제비교	(1)	(1)				2	1	3(2)
일본기업시스템, 기업집단	2	4(1)	2	3(2)		(1)	1	12(4)
일본산업경쟁력, 경영전략	(1)		(1)	2(1)	1(3)	(3)	(1)	3(10)
생산시장, 생산관리	2	1		1	1	2(1)		7(2)
노동시장, 노사, 노무인사관리	2	1		2	2(2)	2(2)	1	9(4)
유통, 물류				1	1	1		3
은행, 주식, 재무관리	1	1	2				2	6
부동산, 지가	1							1
경영자			2				(1)	2(1)
거버넌스	(1)					1	1	2(1)
기업회계		2				1		3
해외투자, 조달	4	(1)		1				5(1)
M&A, 전략적 제휴		1				1(1)		2(1)
마케팅		4		2	1			7
한국시장진출, 외국인투자	1(1)	1(1)		2	(1)		2(1)	6(4)
일본시장진출, 경쟁력				2	5		1(3)	8(3)
전전의 일본경제, 기업사	1	1		(1)	1(1)	1		4(2)
전후의 일본경제, 기업사					(1)		2(3)	2(4)
한일기업비교	2	5(1)	(1)	2		3	1(1)	13(3)
한국기업혁신, 재무	2		2				2	6
합 계	32(13)	26(12)	21(7)	25(10)	20(14)	24(10)	25(21)	173(87)

주: 1) 주요학술지는 韓日經商論集(한일경상학회), 日本研究論叢(현대일본학회), 日本學報(한국일본학회), 일본연구(고려대 일본연구센터), 일본연구(한국외국어대 일본연구소), 일본공간(국민대 일본학연구소)

2) ( ) 한일경상논집 외 5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수.

자료: 대상 학술지 홈페이지에서 필자 작성.

폐쇄적 일본시장의 실질적 개방 가능성에 대한 한국측의 기대도 반영된 것이다.

셋째, 일본형 시스템의 변용과 관련하여 노동, 생산, 유통, 거버넌스 등 기업시스템의 세부 분야별 변화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일본의 노사관계와 노무, 인사관리 등에서 일관되게 학술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노사 갈등구조에 직면해 온 한국이 일본형 노사관계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구체적 노무인사관리의 특징을 천착해 보려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동시에 캐논과 도요타 등 일본생산현장에 대한 연구에서 보듯이 도요타 시스템으로 대변되는 일본형 생산시스템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대한 평가와 동시에 한국 현대자동차의 생산시스템과의 비교라고 하는 새로운 연구 수요의 발현을 예고하는 의미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다. 동시에 기존의 일본 마케팅 분석에 더하여 유통 물류시스템 개혁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기 시작했다.

넷째, 일본형 기업시스템 중 은행, 주식시장의 특성과 이들의 성과를 반영하는 주가, 부동산 가격, 재무관리 등에 관한 연구는 비록 수적으로는 적지만 계량모델에 의한 여타 선진국과의 비교분석이 주류를 이루었다. 예컨대 주가의 경우 주식매매거래에 관한 통계 패키지의 이용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커지는 등 연구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의 경영인 승계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는 크게 주목을 받았으며 장기불황하의 일본기업의 지배구조와 시가주의 기업회계 기준 채용에 따른 영향에 관한 고찰도 시의 적절했다.

다섯째, 글로벌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와 함께 일본기업의 해외진출과 아웃 소싱, 상시적인 M&A를 통한 전략적 제휴 등 일본기업의 글로벌 전략, 그 일환으로서의 대한진출, 한국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에 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사례분석이 일본 주요산업의 경쟁력 비교 분석과 함께 의욕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후자는 한국기업의 일본현지 진출 시 대일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규명할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한일FTA협상이 2004년 이후 중단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전반의 한일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한 거시경제적 영향분석과는 달리 산업(특히 부품소재 업종)별 영향에 관한 분석이 주류를 이루었다. 나아가 글로벌라이제이션 진전과 동아시아 FTA 망 확충 속에서 한일기업의 활동 영역이 한중일 및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한중일FTA를 위한 무역원활화, 투자활성화,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업간 협력사례, IO를 이용한 한일 및 한중일 무역불균형의 구조적 요인과 동아시아 경제권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일부가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일곱째, 일본의 거시경제, 금융, 환율, 통상관련 어젠더는 일본지역 전문가의 고유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상외로 지속적인 추적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2005년 이후는 일본경제가 장기불황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었고 재정적자 누적으로 거시경제운영의 경직성이 높아가고 리먼 쇼크로 인해 경기침체가 재현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본격적 분석은 없었다. 단지 양극화에 주목한 新自由主義식 구조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엔화환율변동 요인, 미일 통상이슈, 한일지방경제권의 기술발전요인 등 거시경제변동 요인과 관련된 분석이 일부 이루어졌다.

여덟째, 일본에서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재정건전성과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 의료, 요양보험 개혁이 불가피해 지면서 저출산·고령화가 거시경제와 가계행동에 미치는 영향분석이 다수 등장한다. 한국도 이미 출산율이 급속하게 하락하고 고령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본의 증장

기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방안과 안정적 운영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연금, 요양보험 개혁시나리오 분석, 기업퇴직금 운영과 고령자, 여성, 청년층의 고용정책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동 분야 연구의 시대적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아홉째, 日本研究論叢, 일본연구, 日本學報, 일본공간 등에 게재된 일본경제경영 관련 논문(<표 III-3>의 ( ) 부분)을 보는 한 전시기의 항공기산업과 철강배급통제정책, 자민당 경제성장정책의 정착과정, 복수노조 형성, 전후 금융행정, 행정개혁과 政官 관계 및 ODA 정책과 동 개혁, 90년대 장기불황하에서의 종합상사 역할, 일본인 전문경영인과 재일교포기업인 역할, 일본고령화의 경제적 효과 및 동 북아협력인프라 구축 등 실로 다양한 분야가 연구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에니메이션, 중소기업 및 U-Japan 정책 등 뉴비즈니스 관련 연구가 지속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상, 2005~2011년간 주제별 연구동향을 통해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일본 연구가 소위 Japan Problem<sup>25)</sup>에 대해 첫째, 이를 학술적으로 해명하거나 재해석하고, 둘째, 자국의 국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며, 셋째, 이를 통해 새로운 일본연구 어젠더를 발굴하며, 넷째, 이들 과제를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이론가설-통계 검증-실행-대안제시의 과정을<sup>26)</sup> 밟아 오고 있는 가라는 차원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 아니 할 수 없다.

## 2.2. 일본경제경영 연구 심화와 확장

다음으로 이들 국내 일본연구자들이 2005~2011년간 학위취득 당시의 전공분야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일본연구를 심화(deepening)하고 확장(widening)해<sup>27)</sup> 왔는가를 살펴보자.

연구자들은 최종학위 취득 후 통상 일정기간 자신의 학위논문 분야를 중심으로 이를 심화하는 한편 일본 및 한국의 경제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연구수요를 개발, 신규 어젠더를 개발,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방법론의 개선, 개량, 신규방법론을 습득하는 동시에 여타분야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여기에 기존의 혹은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 경제사회 문제 해결에 도전해 오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당초 학위취득 당시의 전공분야에 전념하는 이상으로 연구영역 확장을 통해 다시 자신의 전문분야를 일층 심화해 가는 동태적 프로세스야말로 일본경제경영분야 연구의 전문성 제고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sup>28)</sup>

이런 의미에서 국내 일본경제경영 연구자들이 평소 일본경제경영이라고 하는 동일한 어젠더에 접하고 상호 정보지식을 교류하는 동질적 지적 네트워크로서 韓日經商學會를 상정하고, 동 학회회원으로서 한일경상논집에 3회 이상 기고한 연구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일본연구의 심화와 확장 상황을 살펴

25) 여기에는 일본과 여타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국경 문제만이 아니고 국내문제라고 하더라도 각종 국경초치 해제, 규제철폐,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진전으로 실시간으로 여타국으로 파급되어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6) 그러나 최근 일본의 일부 대학과 미국대학 학위취득자로서 일본연구에 종사하게 된 일부 연구자 중심으로 산업조직론, 계량경제사 및 실증경영학적 접근방법이 도입되고 있어 일본연구의 방법론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는 것은 특기할만하다.

27) 여기서 심화는 일본 및 관련 연구, 확장은 한국 및 관련연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28) 일본연구자들 중 최종 학위취득 이후 반드시 일본연구를 지속하지 않고 국내 혹은 여타지역 혹은 전공분야를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러한 경우에도 이를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연구의 심화와정도로 간주한다. 단 연구자 명은 익명처리.

보고자 한다. 따라서 한일경상논집 이외 여타학회지 기고, 개별 및 공동연구 등을 포함한 전체 연구실적(경제분야 385편, 경영분야 199편, 여기에는 여타 학회지)을 대상으로 한다.

〈표 Ⅲ-4〉 일본연구 유형 심화와 확산(경제분야)

연구자명	최종학위 분야	일본, 전공	일본, 관련	한국, 전공	한국, 관련	여타국, 전공	여타국, 관련	일반 (한일)	국제 비교	최근 관심분야
<b>경제학</b>										
A	노사관계	2.735	1.459	1.179	0.876			0.324		전후 일본노조
B	지역경제		1.003	1.081	3.613	1.003		0.668	0.752	동아시아경협
C	국제경제	2.579	3.439		0.688			0.509	1.719	종합상사,해저터널
D	국제경제			0.665		2.469		1.645	2.777	국제경제관계
E	국제경제			0.541	3.613	1.003		1.337	0.752	지역경제
F	국제경제			0.763				1.049	6.371	한중일 산업연관
G	통화화폐	1.203		1.730	3.854					통화정책, 부동산
H	국제경제	1.504	4.013	2.163						일본의 대중진출
I	일본통상	6.017								일본통상정책
J	응용경제	0.287		3.295					2.292	외국인투자기업
K	노사관계	3.008		1.730				0.357		전전 노동문제
L	산업경제	3.008		1.081				0.891		일본 주요업종
M	재정연급	0.546		1.966	0.876	2.918		0.324	1.094	사회보장
N	미시경제	0.262		0.752				2.635	0.523	산업조직,수리경제
O	경제사	2.735	2.189	0.589	0.876			0.648		전전국철등기간산업
P	국제경제	1.641	2.918				8.741	0.648	3.282	일본통상, 물류
Q	경제정책			3.089				1.019		지역개발
R	개발경제			1.248		4.630	3.698	1.166	0.694	동아시아기술추적
S	경제사	2.632	4.013			1.003		0.891		식민지 한국방직업
T	농업경제			2.163	2.408			0.891		한국농정
U	경제학사	2.579	4.586					1.019		일본의 전전재벌
V	공공경제			1.331	4.446	1.235	7.396	0.274		재정, 지역경제
W	미일통상	2.735	2.918		2.627			0.324		미일통상
X	금융행정	2.735	7.290						1.094	일본금융행정
Y	미시경제			0.154	2.408	0.573		2.419		한국경제,지역경제
Z	경제발전	0.501		2.523				0.891	1.003	동북아경제
₩	공공경제	0.930						2.468	1.835	한일FTA,동북아경제
합계	385 편	64	24	89	40	24	4	108	32	
비율		0.1662	0.0623	0.2312	0.1038	0.0623	0.0104	0.2805	0.0831	

주: 수치는 顯示選好指數. 연구자가 분석기간(2005-2011)중 어느 분야에 관심을 갖고 기존의 전공분야를 활용하고 신규 방법론을 개선 개량하려고 했는가를 익명의 연구자별로 비교하기 위해 발표논문 절대수의 영향을 제거하여 상대화한 것임.

자료: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DB에서 필자 작성.

여기서는 분야를 크게 경제와 경영으로 구분하고 개별연구자들의 전공심화와 확장과정을 전공과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8개 유형으로 세분한다. 즉 ① 학위 취득 시 전공과 주제로부터 한 발 더 나아가 ② 일본관련 주제를 전공과 연관된 분야에서 다루는 경우, ③ 한국관련 연구주제에 전공분야를 적용하는 경우, ④ 한국관련 주제를 전공과 연관된 분야에서 다루는 경우, ⑤ 일본과 한국 이외 여타지역 관련 주제에 전공분야를 적용하는 경우, ⑥ 여타지역 관련 주제에 전공과 연관된 분야를 적용, ⑦ 지역 구분 없이 경제경영의 일반 주제(한일 비교를 포함)에 주력하는 경우, ⑧ 지역범위를 확대한 국제비교 연구로 연구영역을 확산해 가는 경우 등이다.



<표 III-4>에서 보듯이 경제분야의 경우 2005~2011년간 국내 일본학 연구자들의 총 385편의 논문(대부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게재)을 유형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⑦ 일반(한일비교 포함)이 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일 주요산업의 경쟁력 비교, FTA 관련 의제의 영향 분석 등을 포함하여 거시경제와 지역경제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N 연구자는 일본형 시스템의 특징을 산업조직이론을 적용하여 이론적으로 정치하게 분석하는 등 많은 연구업적을 집적해 가고 있고 Y 연구자는 거시경제와 지역경제의 현안문제에 관한 수량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둘째, 국제비교연구의 경우 F 연구자는 국제산업연관표(IO)를 이용하여 한중일 및 동아시아와 한국 간 무역, 투자면에서의 상호의존관계를 시계열적으로 분석, 동아시아FTA의 경제적 영향 분석이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한계를 극복하여 산업구조적 차원에서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한국경제 관련 주제 연구가 연구자의 전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경우가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과 유사한 問題群에 대해 자신의 전공을 활용하여 자국 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적 실증적 기초연구에 대한 의욕이 그만큼 높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이 경우 관련 연구 결과는 한국경제학회, 한국국제경제학회, 한국경제학연구학회, 한국국제통상학회 등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학술세미나에 참가, 상호 토론을 거쳐 동 학술지에 게재함으로써 보다 설득력 있는 논지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학술대회의 장이 제공되는 경우에도 개별 학회 내부 행사에 그치고 있어 여타 지역이나 한국경제 전문가와의 학문적 교류와 절차탁마의 기회를 스스로 제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sup>2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통화, 지역경제, 외국인투자, 해외투자 관련 연구에서 이론적 실증적 연구가 축적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

넷째, 일본지역 연구비중은 전체의 23% 정도로 제3위에 있지만 일본의 노동시장, 일본형 노조, 戰前의 특정 업종(방직, 국철, 기간산업), 종합상사, 중국진출, 미일통상, 금융행정 등 몇 개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연구성과가 집적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인 학회 활동과 학회지 기고에 그치고 있어 일본의 현안 정책 이슈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체계적 연구는 적극적으로 전개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표 III-5>에서 보듯이 일본의 경영분야에 관해서는 총 199편의 학술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연구자별로 상기 8개 유형으로 이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일반(한일 비교 포함)적인 경영관련 주제 연구비중이 40%나 된다. 경제분야 전문가들과는 달리 최근 중업권 조직몰입, 경영정보관리, 한국제품의 브랜드, 경영자승계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한일 비교 연구에 관심이 높다. 나아가 O, S, H 연구자는 각각 중소기업의 국제화, 기업가의 문화인식, 사회자본의 역할에 관한 국제비교에도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둘째, 연구자들의 관심이 한일 이외 여타지역에 대한 연구로 점차 이행 중이다. 이는 기업의 글로벌 라이제이션의 급진전과 이를 염두에 둔 경영전략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서 주요한 요소로 등장 하고

29) 국내 여타분야 전문가와의 상호 학문적 교류와 공동연구 등을 통해 연구방법론을 개선·개량하고 독자적인 방법론을 개발 함으로서 일본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마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있다는 점에서 당연하다. 특히 한일 양국기업은 volume zone 시장인 중국을 동시에 겨냥, 현지 진출하  
 되 현지에서의 다양한 기업간 제휴가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 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Q 연구자에 의  
 한 최근 중국 현지진출 한일기업 행태 비교분석, B 연구자의 중국식 비즈니스의 상관행 등과 전자업  
 종 등에 관한 품목분석 및 C 연구자의 외국기업가의 회계사상사연구는 독보적이다.

〈표 III-5〉 일본연구 심화와 확산(경영분야)

연구 항목	최종학위 취득분야	일본 전공	일본 관련	한국 전공	한국 관련	여타국 전공	여타국 관련	일반(한 일포함)	국제 비교	최근 관심분야
A	국제투자			2,033				1,229		기업국제화
B	국제경영		4,444	0,271	5,490	5,000		0,164		한국의 창업자
C	관리/마케팅							2,457		토요타 방식
D	재무회계	2,208		1,355	1,961		33,333			회계 사상사
E	기술경영	2,208		1,355	2,614			0,273		산학연계정책
F	재무관리			3,127				0,567		한국기업재무
G	재무관리			2,439	2,353			0,491		해외투자전략
H	중소기업	1,104		2,033	1,961				8,333	중소기업정책
I	기술경영			1,626	3,529			0,737		지역혁신
J	조직이론	0,993		0,407				1,843		조직물임,CEO승계
K	정보기술관리	1,242		2,033				0,768		대일수출경쟁력
L	경영과학							2,457		R&D 계획
M	조직인사관리							2,457		조직물임
N	경영정보			4,065						소프트웨어 산업
O	기업집단	5,795							6,250	일본기업집단
P	인사조직			2,032				1,229		인적관리
Q	국제경영		2,020		1,069	11,364		0,893		중국진출기업
R	경영전략	2,547	3,419	0,625				0,756		한일기업간협력
S	경영전략	0,662	3,333	0,610	0,588			1,106	5,000	한일경영전략 비교
T	경영관리	2,207		1,016				1,024		마케팅
합계	199편	30	9	49	17	8	1	81	4	
비율		0.151	0.045	0.246	0.085	0.040	0.005	0.407	0.020	

주: <표 III-4>와 동일.

자료: <표 III-4>와 동일.

셋째, 한국관련 연구비중은 33% 정도로 비교적 높다. 한국기업의 자금조달, 해외투자전략, 중소기업 지원금융, 사외이사의 유효성, 지역혁신체제 등에 관한 연구는 각각 일상적인 일본경영에 관한 전문연구 기법을 국내기업에 활용한 연구업적으로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동시에 한국상품, 쇼핑몰과 소프트웨어 등 신규업종의 경쟁력 비교 등은 금후 업종비교 분석에서 범위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연구영역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일본연구는 연구자의 전공과 전공관련을 합쳐서 전체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연구자 O의 종합상사를 포함한 기업집단의 주식상호보유구조 변화를 요인을 규명한 연구가 돋보이며 이밖에 연구자 R에 의한 한일기업간 협력에 관한 현장조사에 의거한 정책연구, 연구자 D의 기업회계사상사, 연구자 E의 산학연계 기술개발, 연구자 B에 의한 도요타 생산방식 연구, 연구자 T에 의한 도요타 렉서스를 비롯하여 패션, 드럭 스토어 등 新業態 마케팅에 관한 연구 등이 2005~2011년간 경영 분야 일본연구를 주도해 왔다.

### 2.3. 민간기업 및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동향

국내 민간기업 연구소 및 국책연구기관은 일본경제경영 관련 정보와 이를 가공 분석한 2차 정보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내대학 연구자에 피드 백하는 한편 후자는 이를 토대로

〈표 Ⅲ-6〉 국내주요 민간연구소 일본연구(2005~2011) 사례

삼성경제연구소	LG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일본의 서플라이체인 재구조화 시사점 2011.09.27	-일본의 TPP 참가 선언, 동아시아 FTA 환경의 새 변수 2011.11.22	-독일 및 일본사례로 본 서비스 개선방안 2010.10.9
-東일본 대지진의 경제적 영향과 전망 2011.03.30	-일본 글로벌기업의 불륜 존 전략 2011	-한국제품, 일본제품의 벽을 넘었다: 한중일 제품의 소비자인식조사 2010.10.7
-일본의 엔화 대응력 2011.01.04	-일본 대지진, 경제적 충격파는 어디까지? 2011.03.21	-한·독·일 제조업의 현황 비교와 시사점 2010. 1.6
-일본의 재정위기, 왜 표면화되지 않나? 2010.05.04	-일본 전자 기업, 감량 후 성장엔진 가동 2010.07.05	-중·일의 희금속자원 확보전략과 시사점 2009.10.6
-일본경제의 버팀목, 부품·소재 산업 2009.09.29	-미국의 경제적 주도력의 약화와 세계경제의 트렌드2009	-수출산업의 한 중 일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2009
-정권 교체와 '새로운 일본'의 도래 가능성 2009. 08.31	-과거와 달라진 일본 전자기업의 구조조정 2009. 06.02	-최근 수출 산업 낮은 외화가득률로 실익 적다 2009
-엔화와 일본 제조기업의 위기 2009.03.24	-고유가 시대의 자원쟁탈전의 방향과 비즈니스 포인트 2008	-엔고-원저 활용방안 2009. 2. 24
-일본 고용대책의 변화와 시사점 2009.03.19	-차세대 라이프 솔루션 비즈니스의 의미와 전개 방향2007	-한일간 외국인 직접투자 비교와 시사점-서비스업 분야 외국인 직접투자유치가 필요하다 2008.12.16
-일본의 환경강국 전략과 시사점 2008.08.25	-글로벌 금융 쇼크와 세계경제의 향방 2007.09.21	-일본의 에너지 혁명-선사인 및 문라이트 정책 2008.8.19
-일본경제, 여전히 건재한가? 2008.03.10	-일본기업의 Family Friendly 전략 I. II. 2006.11. 16	-일본경제 10 대 문제점과 시사점 2005
-일본기업의 적대적 M&A 공방과 시사점 2007.10. 22	-우려되는 미국경제 둔화 영향 2006.11.16	
-일본의 금리와 엔 캐리 트레이드 2007.04.30	-내년도 국제유가 안심해도 되나 2006.09.22	
-일본경제와엔화환율 2006.10.23	-일본 반도체 사업 부진 계속된다 2006.01.11	
-일본기업의 해외투자 전략 변화 2006.05.29	-미국 발 금융 불안 오나 2005.05.27	
-일본의 개혁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2005.11.02	-세계전자기업의 중국전략 분석과 시사점 2005	
-적대적 M&A 방어를 서두르는 일본기업 2005.06. 27	-저출산 시대의 경제 트렌드와 극복 방안 2005	
-「교토식 경영」의 특징과 시사점 2005.05.18.		
-일본의 디지털 경기 현황과 전망 2005.01.11		

주: 민간연구소 일본관련 연구보고서, 정보자료, 정책제언, 동향분석 등의 작성자명은 익명처리

자료: 해당 연구소 홈페이지 및 일부 개별연구자가 통보해 준 연구실적자료 중에서 필자 작성.

일본경제경영의 구조적 요인 상호간 인과관계를 해명하고 관련된 새로운 이슈를 전자에 피드백함으로써 고차원의 정보를 국내외로 발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경제경영관련 연구소의 경우 실제 이들 양자의 접점의 장인 각종 대학, 연구기관, 업계단체, 정부, 미디어 등에 의한 세미나 등을 통해 이슈별로 일본기업, 일본인, 일본정부, 일본국가의 행동, 구조, 성과에 관한 효율성과 공정성을 함께 논의하는 등 국내일본연구를 위한 고도의 지적 네트워크 구축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05~2011년간 국내 민간연구소(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국책연구소(KIEP, KIET) 및 정부유관 단체(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정보센터)의 일본경제경영 연구(연구보고서, 정책제안, 동향분석 포함)를 중심으로 대학연구자의 학술지 중심 연구를 어느 정도 보완해 왔는가. 우선 주요 민간연구소의 경우를 살펴보자.

첫째, 민간기업 싱크 탱크로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삼성경제연구소는 이우광, 구본관 연구위원을 중심으로 일본기업이 직면해 온 급속한 고령화, 글로벌라이제이션, 중진국의 급속한 케치 업은 물론 국내정국 변화 등 다양한 이슈와 이러한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해 가는 일본기업의 양태를 자사는 물론 한국과 한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실시간 추적하고 있다.

특히 분석기간 중에는 종래 일본기업의 의사결정과 기술혁신 프로세스와는 상이한 일군의 교토 소재 벤처 기업의 경영전략 사례를 “교토식 경영”으로 소개하고 일본의 개혁과 고령화에 따른 고용대책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 오고 있다. 동시에 2007년 상반기에는 일본의 금리변화와 엔 케리 트레이드의 존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일본 기업의 경쟁력 원천으로서의 부품소재 기업과는 달리 제조기업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요인을 다각도로 조망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의 재정위기가 표면화 되지 않는 근거, 급속한 엔고 대응력 및 대지진 이후의 서플라이 체인 재 구축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해 한국 기업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엔화 환율 변동분석은 기업전략 수립상 필수적이며 일본연구의 기초가 되고 있다.

둘째, LG경제연구원은 이지평 연구위원을 중심으로 그룹의 주력업종인 전자부문에 특화, 일본만이 아니고 세계 대기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환경 분석에 주력하는 한편 차세대 성장업종인 라이프솔루션 분야를 포함한 성장엔진과 전세계 업계동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동시에 저출산,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인상, 미국발 금융위기 등 경쟁환경 변화가 일본은 물론 세계적 파급을 통해 국내 경제와 기업에 피드백되는 이른바 직간접 영향을 종합 분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2011년도 이후에는 대지진 이후 전개되는 일본의 대외경제 정책 중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TPP(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와 volume zone 전략의 국내외 파급효과를 집중 연구하고 있다.

셋째, 현대경제연구원은 2005년 일본경제 10대 문제점과 시사점을 통해 일본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 분석하는 등 매우 유의미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sup>30)</sup> 이후 일본연구는 그룹사 경영전략 수립 차원에서 주로 국내경제문제 분석에 주력해 오다 2008년 하반기부터 일본의 에너지정

30) 2005년 당시 연구원 VIP 보고서에서 적시한 일본경제 10대 문제점(현황, 문제점, 대응)은 다음과 같다. ① 인구감소와 고령화, ② 국제경쟁력하락과 대응미비, ③ 관주도 금융시스템, ④ 고질적 재정적자, ⑤ 계층간 격차확대와 고용문제, ⑥ 수요지향적 인재육성 미흡, ⑦ 흔들리는 사회보장제도, ⑧ FTA 낙오자, ⑨ 미진한 온실가스감축대책 등이다. 당시는 고이즈미 개혁이 본궤도에 올라 경기회복 기미를 감지하기 시작한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자로서는 일본경제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책, 한일 서비스분야 외국투자 유치 문제점 등을 2009년부터는 엔고-엔저 활용방안과 함께 한국의 수출산업 외화가득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한중일 수출산업, 한독일 제조업 경쟁력 비교 등에 연구역량을 집중한다. 따라서 일본연구는 업종에 관한 한 일본 자체보다는 여타국과의 비교에 특화하고 있다. 특히 2010년도 일본시장을 대상으로 한 한중일 제품 인식도 조사를 통해 한국제품이 일본제품의 벽을 넘고 있다는 매우 시사적이고 대담한 가설을 입증하고 있어 한일간기술 경쟁력 격차가 일부 축소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한 바 있다.

다음, 국책연구기관과 정부유관단체를 통한 2005~2011년간 일본의 경제 통상 산업 관련 정책 관련 정보분석과 제안활동을 살펴보자(<부표> 참조).

첫째, 산업연구원(KIET)은 유관영, 사공 목 연구위원을 중심으로 일본의 산업기술동향을 추적하고 일본정부의 관련업종 비전과 전략을 폭넓게 수집,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해 오고 있다. 동시에 최근 중국의 부상과 함께 한국 주요산업의 경쟁우위가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하에 연구원 차원에서의 한중일 관련 경쟁력 비교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⑥

2005~2007년간에는 주로 한일FTA, 한중일FTA에 따른 업종별 영향분석, 일본 국내 입지와 환경규제 완화, 해외투자, M&A 지원제도 등 기업구조조정 정책과 설비투자촉진 대책 등 경제활성화 대책 동향에 이어 자민당 정부에 의한 21세기 신성장전략 비전 소개와 국내 시사점 제시에 역점을 두었다. 2008년 초 일본의 재 부상과 한국산업의 위상 점검에 관한 공동연구를 통해 중국의 부상과 구조개혁 이후 일본 산업의 재 부상 속에서 한국산업의 경쟁력을 재 점검하고 일본 소재부품업종의 경쟁우위가 일본제조업 경쟁력의 원천이며 한중일 경쟁력 격차 축소와 산업내 분업의 진전을 입증한 바 있다. 동시에 일본기업을 둘러싼 불안요인으로서의 자원 에너지 대책과 세계 금융 위기 속에서 정책 대응과 신성장 분야 하나인 의약 산업 동향을 추적하는 등 일본 기업의 명암을 균형있게 살피고 있으며 대일역조 문제도 한일양국간 경쟁력 격차 변화 차원에서 다루고 있어 주목된다.

2009년 9월 민주당 정부 등장 이후에는 신정부의 정책방향, 신성장 전략 비전, 신흥시장 진출전략을 소개하고 연구원내 한중 전문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한중일 국제분업구조 변화 속에서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일본제조업의 근간으로서의 모노즈쿠리 업종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향이라고 하는 공동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충실한 연구 실적으로 평가된다. 이어 3.11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산업피해 상황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한일 산업협력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둘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김양희, 정성춘 연구위원을 중심으로 정부의 무역투자통상 정책 수립을 위한 일본의 관련정보 수집 분석해 주력하고 있다. 도하 신라운드 등 다자협상이 정제되고 양자간 및 지역간 협정이 주류를 이루며 협상범위도 공산품에서 농업과 각종 서비스로 확대되고 에너지 환경 등이 협력이슈로 등장하고 함에 따라 관세인하 위주의 FTA보다는 국가간 지역간 경제연대협정(EPA)에 따른 거시경제 영향 분석에 연구중심을 옮겨가고 있다.

그에 따라 일본연구도 일본의 농업, 환경에너지,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 구축, 여타국과의 FTA 정책 동향으로 대상이 확대되는 한편 일본의 장기불황의 원인과 구조개혁의 방향 등에 관해서는 관련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있다.

2005~2007년간에는 연구원내 공동작업으로 한중일FTA협상 전략으로 제조업 민감품목을 대상으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일본과 말레이시아 FTA 협상타결 내용을 기초로 한국의 대ASEAN FTA 추진전략 수립에 이바지 한다. 그 밖에 일본의 전기전자 대기업 특허전략, M&A 시장동향과 21세기비전을 통해 대외경제전략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 중에서 한일FTA 협상이 중단(2004.11)된 상황에서 동 분야 연구자의 최대관심 영역은 일본의 FTA 정책 동향이었으며 미일경제관계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 일련의 일본FTA 관련연구는 정부의 동시다발FTA전략 하에 한미FTA협상을 추진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동시에 일본국내 거시경제동향과 관련하여 제로금리정책 해제 등 금융정책 변화, 적대적 M&A에 대한 일본정부 입장과 대응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07년에는 일본기업의 해외사업 추진 전략,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한일기업의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 비교는 한국의 대ASEAN FTA 추진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의 기초를 제공하게 된다. 동년 일본의 농업개혁 현황에 관한 분석은 한일FTA 협상의 걸림돌이 된 일본농업에 대한 일본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관련협상전략을 수립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한 것이다. 일본농업에 관한 정보와 이에 의거한 한일FTA 정책연구는 2008년도에도 이어진다. 나아가 일본의 기 체결 EPA 및 대ASEANFTA 전략, 한중FTA 및 한일FTA 와의 비교연구는 한국의 FTA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의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8년 중일정상회담 성과를 평가하기도 했다.

기후변화 협상과 관련하여 2007년 발리 로드 맵에 이어 2008~2009년 일본의 저탄소사회 전략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일본민주당 정부 출범직후의 온실가스 25% 감축(1990년 대비) 목표에 대한 평가와 제1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대한 평가와 전망은 국내 여타 일본연구와는 달리 동분야 학술 연구를 선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본의 EPA의 산업별 상품양허 실태분석은 한국의 FTA 협상 시 상품분야 양허 수준 제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인다. 2010년에 들어서는 일본의 대외통상전략의 핵심과제인 TPP참가 여부에 주목하고 민주당정권의 신성장전략, 공적연금, 도요타 리콜 사태 등 현안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본의 환경분야 대외협력과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나고야) 의정서 분석 등 국내 여타연구기관과는 달리 동 분야에서의 차별적 연구가 돋보였다.

셋째,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일본지식정보센터 중심으로 2007년부터 자체 연구원에 의한 일본산업기술 및 시장관련 정보, 외부연구자에 의한 관련 정보분석 결과를 제공해 왔다. 2007년도는 일본의 EPA 전략, 한국중소기업의 일본진출, 한국진출 일계기업과의 제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 주로 우리 중소기업의 일본시장 진출과 일본기술자 활용 등에 관한 제안에 역점을 두었다. 2008~2009년도도 중소기업의 일본시장진출 방안에 이어 자동차부품, 소프트웨어 등 한국의 비교우위 업종의 일본진출과 신규시장으로서의 일본의 통신판매시장 진출과 일본중소기업의 M&A의 가능성과 관련기업정보 및 과제를 제시한다. 일본의 모노크루리 중소기업의 육성사례와 일본기업의 엔고대응 방안에 관한 리포트는 실제 회원기업은 물론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수립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일본의 모노크루리 사고와 사례를 한일 전문가 세미나 등을 통해 국내업계와 연구자에 최초로 전파한 역할은 주목할 만하다.

2010년도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위한 한중일 FTA와 경제협력방안, 일본의 신성장 전략에 의거한 첨단연구개발 지원프로그램, 일본의 차세대자동차 전략과 산업 현황, 기존 제조업의 생산판매전략 변화 등 일본의 산업기술구조 변화와 전략에 관한 일관된 정보수집과 분석에 이어 한국벤처기업의 일본진출, 한식, 향만 등 인프라 및 공동코일 센터 등 구체적 기업간 협력방안 및 대일 역조문제를 둘러

싼 한일전문가 진단 등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2011년에도 최근 주목받는 업종인 태양광산업의 한일 연구협력, 일본 드리그스토어 시장현황에 관한 분석과 한일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 비교 연구 등 한국의 신산업기술 개발과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정책과 기업전략 수립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KIET, KIEP 및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일본의 장기불황 이후의 구조적 문제와 정권교체, 금융위기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비교적 실시간 추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2개 연구소와 1개 단체는 2005~2011년간 일본지역 관련 정보분석과 기초연구에 관한 한 각각 일본의 차세대 산업기술, FTA 및 EPA 전략, 한일중소기업간 제휴 등 특정 분야에 각각 특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민간기업연구소와 국책연구기관은 현 상황에서는 대학 부설연구소는 물론 자체 연구인력과 예산부족 등으로 실시간 일본관련 정보의 신속한 입수, 체계적 분석과 가공, 광범한 유통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만큼 적어도 이들 상호간의 기능 보완과 일본전문가 혹은 여타지역 연구자와의 공동연구가 필요하지만 매우 드물다. 그런 만큼 연구소의 단기정책연구를 통해 발굴된 연구 어젠더를 대학 등 외부 전문가가 수용, 학술연구 대상으로 다루거나 중장기대책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그 역의 경우도 거의 동일하다.<sup>31)</sup>

### 3. 일본경제·경영 관련 問題群과 국내 일본 연구의 대응

여기에서 우리는 2005~2011년 간의 일본의 경제경영 환경 변화와 이에 대한 일본기업과 정부의 대응과정에서 야기된 다양한 問題群을 분야별로 식별하고 이에 대해 국내 일본경제경영 연구자(주로 한일경상학회, 한국일본학회, 현대일본학회 회원 및 KIET, KIEP,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등 연구기관과 단체 및 삼성, LG, 현대 등 민간경제연구소의 일본관련 연구자) 등이 연구 어젠더와 방법론 개발 차원에서 여하히 대응해 왔으며<sup>32)</sup> 그 한계점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일본연구자들이 한국고유의 경제와 경영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일본연구 결과를 여하히 활용해 왔는가 라는 보다 흥미 있는 과제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sup>33)</sup>

#### 3.1. 기업 경영과 시스템 개혁

실제 일본의 경제경영학계 대부분은 1991년부터 시작된 장기불황을 1995년까지만 해도 제대로 인식하지는 못했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실질적으로 자국의 은행과 기업부실로 이어질 공산이 커지자 90년

31) 이 결과 국내 일본지역 연구를 자극하고 이를 통해 일본문제에 대한 해법이나 방법론이 일본국내 학계로 퍼드 백되어 양국 학계의 발전을 선도하고 양국간 현안문제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선순환 구도를 구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32) 여기서는 <표 III-4>, <표 III-5>의 일본연구 심화 연구자의 연구실적을 대상으로 하되 민간 및 국책연구소와 주요 학술대회 실적도 포함하며 연구실적 연도는 ( )에 명기하되 명칭은 지면관계로 생략.

33) 이를 위해서는 <표 III-4> 및 <표 III-5>의 한국관련 이슈를 대상으로 연구자의 전공 및 전공관련 분석시각에서 다른 각각 138개, 63개, 도합 201개 논문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대 증반부터 순수 학계와 관련 일부에서 규제개혁과 일본형 기업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대안 관련 연구가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얻어진 일본적 시스템이<sup>34)</sup> 직면한 새로운 환경과 시스템의 한계 그리고 개혁의 방향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상품시장에서는 창조적인 신규분야 창출, 비교열위 업종의 해외이전과 수입증대, 단기지향 과당경쟁 회피, 장기 계속 거래와 수직계열 관행의 투명성 확보와 개방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일본경제경영 시스템의 미시적 특징으로서 팀워크 중시, 조직내 정보공유, 수평적 이해조정, 종업원 주권 중시, 과당경쟁적 투자행동, 거래관계의 탄력성·유연성 보유 등 캐치 업 과정에 있는 기업·경제의 규모확대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매우 합리적이었던 제반 특성은 수정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김종걸(2007), 권혁기(2008), 신장철(2008,2009), 김영래(2009, 2010)은 도요타를 공동체 기업의 사례로 혹은 일본형 생산시스템의 전형으로서 최근 혁신시스템과 글로벌 전략을 소개, 분석하고 김현철(2006,2008)은 렉서스의 마케팅 전략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김종걸(2007), 이형오(2010)은 캐논을 공동체 기업의 모델로서 혹은 그 셀 생산방식의 진화과정을 소개 분석하고 있다.

도요타 리콜사태 이후 도요타 모델이 비판의 대상될 시점에서 이태왕(2010)은 도요타 비즈니스모델의 한계를 적시했으며,<sup>35)</sup> 권혁기(2006)은 도요타와 현대자동차의 완성차 물류시스템을 비교한데 이어 권혁기(2009)는 일본자동차산업의 구조개혁과 계열시스템의 붕괴론의 관련성을 논했다. 나아가 김광희(2006), 김창남(2006)은 이른바 일본형 서플라이어 시스템 전반의 생성과 경쟁력의 원천에 주목하고 최강식(2008) 일본의 하청관계, 사업부제를 상호에이전시 이론 틀에 의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부조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 근(2010)은 미국의 특허정보를 사용하여 삼성의 소니 추적과정을 실증 분석한 바 있다.

둘째, 금융자본시장에서 금융의 증권화·국제화, 국민금융자산 축적, 기업재무체질 강화·자금조달수단의 다양화, 거품붕괴, 금융기관의 체력 약화, 수익의식 고조 등의 변화 속에서 투자가의 수익보장, 다양한 경영전략평가 시스템 정비, 주식상호보유율 하락, 주거대출행제도의 변용, 정보공시제도 정비 등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박성빈(2005, 2011)은 주로 일본의 금융개혁과 규제정책 결정과정의 변화와 금융행정의 특성에 관한 분석을 통해 주거대출행제도의 변용과정을 추적하고 있으며 차일근(2008, 2011)은 기업집단의 주식상호보유구조가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과정을 통해 그간의 장기지속적 거래관행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검증하고 있다.

셋째, 고용시스템의 경우 과거와 같이 기업모형이 강한 숙련노동자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장기고용시스템을 존속시키되 노동의 부분유동화를 통해 이분야 융합·통합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자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려면 기업내 인센티브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존 인사관리와 보수체계를 이원화하자는 것이다. 동시에 고령자와 여성의 사회진출 욕구 증가,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의 가치관 변화 요구에 대응하여 외부노동시장 확대가 가능하도록 기존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34) 여기서는 기업시스템을 단순한 주주나 종업원만이 아니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 관점에서 주주와 경영자간, 기업과 은행간, 기업과 종업원간, 기업과 기업간, 기업과 정부간 관계로 정의하기로 한다.

35) 일본공간(2010. 10)의 기획좌담 및 기획특집 참조.



입장을 보였다.

한국 노동시장의 경우 한편에서는 복수노조 도입, 시행시기, 노동의 유연성 제고가 오랜 정책과제로 제기되고 있었다. 복수노조는 1997년 개정법에 의해 허용되었으나 교섭창구 단일화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대립되면서 시행은 오랫동안 유예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김삼수(2005, 2010)는 일본의 복수노조 병존의 배경과 노사관계 구조에 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전개해 왔다. 박성빈(2009, 2010)과 신장철(2009)는 각각 일본적 고용시스템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최근의 고용관계의 변화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는 오랜 노사갈등으로 인해 노동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노동시장의 효율성 향상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높았다. 선재원(2007)은 사회적합의 과정을 통해 1920~80년간 일본의 고용조정제도를 바라보았고, 배준호(2009)는 일본적 고용관행으로서의 출향을 통해 고용조정 동향을 살펴본 바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고용조정 등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는 부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임달호(2008)는 중국진출 한일기업의 현지종업원의 조직몰입도에 관한 실증분석으로 돋보였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경기침체로 한국에서도 청년실업과 여성, 고령자 인력활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형오·오태현(2007, 2008), 김환일(2009) 및 김삼수(2009)는 각각 일본의 고령자 정년연장, 고용확대를 비롯하여 기업내 활용방안과 장기불황기 일본의 젊은 층 노동정책에 관한 연구성과를 축적했다.

넷째, 주주와 경영자와의 관계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기업의 불상사가 다발하면서 기업운영을 감독하고 감사할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기 시작했다. 그 이전까지는 기업지배구조는 주식상호보유 주주 중심이었기 때문에 주주총회에 의한 경영체크기능이 形骸化되고 감사역이 해당기업의 OB 였기 때문에 감시가 불충분, 경영에 대한 과보호 경향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2003년 4월 시행된 상법개정으로 기업은 위원회설치회사 도입이 가능해짐으로써 미국형 기업통치로 전환이 가능해지고 새로운 기업지배구조가 주목받기 시작한다. 한국에서는 IMF 구제금융의 조건으로서 재벌개혁이 거론되고 그 수단으로서 대기업내부의 상호주식보유 축소가 주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면서 일본기업의 주식상호보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주식상호보유 구조를 비롯한 기업의 거버넌스에 관해 차일근(2008)은 일본의 주식상호보유 구조가 일본 대기업의 직접금융방식의 증가는 물론 기업구조개혁과 함께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즉 시가주의 회계제도 도입, 은행등보유주식취득기구와 일본은행에 의한 은행주식 매수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변화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대기업간의 계속거래관행의 변화는 일본시장 개방화를 촉진할 것이지만 그 자체가 거래의 합리성을 지닌 거래관행인 만큼 단기간에 급속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재벌개혁에 대한 종래의 관심은 기업지배구조의 국제적 비교라고 하는 글로벌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일본 이외 지역 유학경험자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실증분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김상현(2011)은 한국상장기업의 지배구조와 공시품질 수준이 내부회계와 공시전문인력 보유에 의해 어느 정도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체계적인 실증분석을 시도했다.

다섯째, 정부와 기업간 관계이다. 일본의 산업정책의 유효성에 관한 논의는 이미 오래된 것이지만 신산업의 경우 정부의 절도 있는 시장 규제는 그것이 한시적일 경우 더욱 유효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라이제이션과 IT혁명이 진행될 수록 진입과 퇴출규제는 근본적으로 경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동시에 규제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적 규제는 물론 민간에 대한 민간의 규제 역시 완화 철폐하는 것이 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이 이론적 실증적으로 검증되기에 이르렀다.

일본정부와 기업간 관계를 직접 취급한 연구로는 유태수(2007)의 일본형 산학연계정책에 관한 연구가 유일하지만 서정해(2005, 2006)은 한국의 지역혁신시스템 분석을 통해 일본의 정책경험을 한국에 적용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경제경영학계에서 논의가 집중되어 온 일본형 기업시스템과 정부의 역할에 관한 주제들은 한국의 관련학계에서 부분적으로 소개, 논의된 것은 사실이나 기업과 정부의 새로운 역할로서 본격적으로 조명되지 못한 채 한국기업은 양적확대·점유율 중시경영 하에서는 행태출과다 의존으로 IMF 외압에 의한 대대적인 리스트럭처링이 불가피하게 된다.

한국의 일본연구에서는 90년대 중반부터 김용열(1996), 이형오(2005)는 일본형 기업시스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이 근 서울대 교수 등과 함께 青木昌彦·岡崎哲二 등의 比較制度分析의 방법론에 의거한 기업제도연구회를 통해 일본시스템의 비교분석을 주도해 왔다. 배준호(2002) 등은 재정정책 등 거시경제 차원에서 일본적 시스템의 개혁을, 김현철(2006)은 기업거버넌스에 관해 한일비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일본형 시스템을 보완할 교토식 경영이 주목을 받게 된 것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구본관, 2005). 삼성경제연구소(이우광·구본관), LG경제연구원(이지평) 및 현대경제연구원(이부형)은 개별기업그룹과 계열기업의 경영전략 수립 차원에서 일본의 개별기업 혹은 대기업의 경영전략을 개관하고 일본경제경영의 현황분석에 주력해 오고 있다. 이우광(2006)은 한일기업지배구조(일본어판), 이우광(2010)은 일본 시스템의 위기적 상황보다는 일본기업의 장점을 분야별로 발굴 소개함으로써 양국내 비즈니스맨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 3.2. 고이즈미 구조개혁

일본 학계의 대부분은 버블형성과 붕괴의 구조적 요인이 실은 「円高不況」이 아니고 「不況円高」 즉 내수부족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그 결과 일본정치와 정책당국은 내수부족을 자초하는 정책실패를 거듭했다.<sup>36) 37)</sup>

이와 같은 정책실패를 거듭해 온 구체제를 타파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통경제학과 통념적 지식들이 내놓을 수 있는 정책대안은 고작해야 금융의 양적 완화, 財政出動 그리고 구조개혁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들 정책수단은 이미 지난 10년 간 단일로 혹은 복수로 채택, 실행에 옮겨왔지만 유동성 함정 탈

36) 버블이 팽창하자 뒤늦게 긴축에 나섰으나 3년 연속 금리인상으로 급속한 자산디플레이션을 야기(제1 정책실패), 95-96년간의 경기회복을 장기화할 것을 착각한 정책당국이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소비세율 인상, 세출삭감, 영구감세 취소(제2 정책실패), 이어서 찾아온 엔화약세 기조와 BIS 비율 규제 하에서 달러매입·엔매각 조작 혹은 대미엔화환을 약세를 방임하면서 급속한 신용경색과 신용회수(제3 정책실패)를 자초하여 내수를 위축시켰다

37) 이러한 10년 장기불황의 근본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버블경제의 실체에 관해서는 村松岐夫·奥野正寛(2002)가 버블의 발생과 배경구조(『平成バブルの研究・上』) 및 붕괴 후 불황과 부실채권처리(『平成バブルの研究・下』)를 통해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출에는 거의 쓸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계는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실제 2001년 6월 고이즈미 정권은 구조개혁의 청사진(① 민영화·규제개혁, ② 챌린저 지원, ③ 보험기능 강화 ④ 지식자산배중, ⑤ 생활유신, ⑥ 지방자립·활성화, ⑦ 재정개혁)도 포괄적이고 망라적 성격이 강했으며 재정출동론과 양적금융 완화론을 반복할 가능성이 컸다.

이후 고이즈미 정권은 소위 「개혁없이 성장없다」는 슬로건 하에 첫째, 개혁가속을 위한 종합대책(2002. 10. 30)에 의거하여 4대 개혁(금융시스템 개혁, 세계개혁, 규제개혁, 세출개혁)을 지속했다. 금융 재생프로그램으로 2004 년도 말까지 주요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을 절반 정도로 줄이기 위해 엄격한 資産査正, 자기자본 확충, 지배구조 강화 등에 필요한 행정지침 시달, 기업 시험연구비 총액(혹은 증가액 중 선택) 세액공제, 상속·증여세 통합과 세율인하, 금융증권세제 경감·간소화, 토지이용 촉진을 위한 등록면허세 경감, 배우자특별공제 폐지, 소비세 면세점 제도 개선, 외형표준과세 도입 등 세수증립적 세계개혁을 추진했다. 규제개혁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전국 차원의 개혁과 구조개혁 特區 중심의 지역단위 개혁을 병행하고 규제특례 대상 확대, 「국채발행 30조엔 이내」 원칙 하에 2002~2003년도 세출예산 전반을 「관에서 민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라는 시각에서 재점검하고 절약한 예산은 4대 중점분야에 집중 배분하기로 했다.

이 결과 사회보장관련, 과학기술진흥, ODA 관련예산이 삭감되기 시작했다. 특히 ODA예산의 경우 일본은 1989년 100억 달러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위의 원조대국으로 부상, 2001년까지 지속된다. 그러나 장기불황 속에서 예산은 축소일로, 미국에 제1위 자리를 내어 준 뒤 2005년 131억 달러에 달했지만 2007년 77억 달러까지 감소한다.<sup>38)</sup>

한국은 이미 ODA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국내일본전문가들(특히 국제정치학 분야)은 ODA공여국으로서의 일본의 경험, 특히 ODA 정책결정과정, 수혜국 중심의 효과적 대개도국 지원을 위한ODA 개혁과NGO의 역할, 나아가 대개도국 외교전략에 관심이 집중해 왔다. 손기섭(2005)은 대중원조정책을 동남아와 대한원조와 비교하고 김호섭(2008)은 일본의 대중 엔차관 결정과정, 박홍용(2009, 2010)은 전후 대외원조이념과 일본 ODA 정책의 변화상을 각각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 분야에서는 ODA정책을 직접 연구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둘째, 엔화 약세 유도에 의한 디플레 억제와 수출확대 효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결국 인플레이 정책을 구상하게 된다. 물가상승률 목표권(연간 2~3%)을 설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초 저금리하의 유동성 함정에 함몰된 상황임을 감안하여 국채매입액과 동일 규모의 재정지출을 통해 확실하게 인플레이를 유도하자 것이었다. 더욱이 이러한 정부의 추가 재정지출이 국채매입액 범위 내에서 그것도 중장기 신규세원 발굴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에 집중된다면 신규로 국채잔고는 증가하지 않는 대신 실질금리는 인하, 민간투자와 소비 진작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sup>39)</sup>

38) 2008년부터 점차 증가하여 2011년 현재 106억 달러까지 회복하고 있다. 미국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지만 2011년 현재 300억 달러로 일본의 3배에 달하고 있다.

39) 정부와 일본은행은 2001년 3월부터 2006년 전만 전년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제로 이상을 유지할 할 때까지 끈질기게 밀고 나갔다. 결국 2004년도에 들면서 부실채권 비율은 약속한 반감 목표를 향해 가고 있었으며 과잉채무 유통업 최대업체인 다이에의 주력은행인 UFJ 등이 다이에를 경제산업성 보호막에서 빼내 산업재생기구를 통해 재생하도록 공식 결정한 시점에서 일본의 부실채권 처리는 종결되었다.

셋째, 구조개혁형 공공투자와 官制市場 개혁이다. 구조개혁과 양립할 수 있는 공공투자 분야 즉 공적규제 장벽이 높아 규제철폐, 국내 개방하면 공공투자 1차 파급효과와 2차 세수증대 효과 큰 官制시장 개혁은 이른바 부실채권 최종 정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경제활성화와 생활자·소비자 본위 시스템 구축 목표를 상호 조화시킴으로써 민간주도 안정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다.<sup>40)</sup> 이와 함께 관민경쟁입찰 제도 즉 시장테스트화 사업을 확대하여 「민간이 가능한 것은 민간으로」라는 기본원칙 아래 소위 관제시장의 민간 개방을 통해 신규사업 창출, 官의 입찰 참가를 통한 의식개혁을 통해 불투명한 행정서비스 내용과 코스트 구조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다.

넷째, 특수법인 개혁이다. 민간은행 부실채권 문제와 함께 일본경제의 가장 큰 병폐로 지적되어 온 것이 바로 공적 금융의 비대현상이었다.<sup>41)</sup> 2001. 12 특수법인(인가법인 포함)합리화 계획에 의거하여 개혁 대상 163 특수법인 중 148 특수법인을 대상으로 폐지(17개), 통합(4개), 민영화 (43개), 독립행정 법인화(39개), 공제조합으로 정리(45개) 등으로 재정지출 2조엔(2001~2008)절감, 임원축소(164명), 보수 삭감(15%), 퇴직금 1/3 삭감했다.<sup>42)</sup>

실제 2005. 10. 1 日本도로, 首都고속도로, 阪神고속도로, 本州四国連絡橋공단의 4개 특수법인은 주식회사 중 일본도로공단은 東일본, 中일본, 西일본의 3개 고속도로주식회사로,<sup>43)</sup> 나머지 3개 공단은 각각 같은 명칭의 주식회사로 변경되어 기존 공단의 업무와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었다. 일본 도로공단 개혁에 관해서는 이상훈(2006)은 행정개혁 과정에서의 政官관계 변화라는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뿐 도로공단 개혁 그 자체를 분석한 것은 아니었다.

한편 郵政민영화는 야당은 물론 서비스 질적 저하와 「民業壓迫」을 명분으로 내건 자민당내 우정사업 간담회와 관련업계로부터도 격렬한 저항에 부딪치자 중의원 해산(郵政解職), 총선을 통해 찬성과 압승 후 2005. 10 특별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로 맞섰다. 이후 2007. 10. 1 일본우정공사는 우편사업, 우편저금, 우편보험의 3개 사업주식회사와 창구업무 전담의 우편국 주식회사로 분사화되고 우편사업과 우편국 회사의 주식보유, 경영지원을 전담하는 일본우정주식회사와 기존 저금·보험계약의 승계관리를 담당하는 독립행정기구 등 6개 조직의 우정그룹으로 출범했다. 이 중 우편저금과 생명보험회사는 2009~2010년간 주식상장 이후 2017. 9월 말 完全民營化를 목표로 잡았다.<sup>44)</sup>

40) 이를 위해 기존 규제개혁 조치를 마무리하고 규제개혁·민간개방 추진3개년(2004~2006) 계획에 의해 약 900개 규제를 추가로 완화·철폐했다.

41) 우체국 저축·보험을 통해 저금리와 국가신용으로 집적인 방대한 자금이 특수법인과 재정투융자기관으로 흘러가 재정 비대화, 비효율을 조장해 온 질곡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부실채권 정리 뒤 경기회복, 금리상승이 현실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이들의 비효율은 막대한 자산손실이 되어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산관학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따라서 인위적 저금리로 공적자금을 조성해 온 곳(자금의 入口)은 물론 코스트 의식 없이 자금을 利權增殖用으로 투입하고 있는 곳(자금의 出口)을 동시에 개혁하지 않으면 생존을 건 사업개혁에 임하는 민간기업은 공공부문의 경쟁에서 불공평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특수법인 개혁은 역대정권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본격적인 개혁은 기득권 저항으로 미완에 그쳤다.

42) 민영화가 특수법인개혁의 최적수단은 아니지만 경제 활성화 시책, 구조개혁과의 정합성 유지, 공공서비스 이용자 편의 극대화라고 하는 국가목표에서 본다면 설득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특수법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는 지배구조와 수익성 개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43) 일본의 도로공단 민영화 방식은 하부인 인프라 관리와 상부인 운행·운영 조직을 분리하는 소위 上下분리방식을 채용하여 도로시설과 채무 보유는 신설된 독립행정법인인 日本高速道路保有債務償還機構로 일괄 양도하고 보유·채무상환 자금은 민영화 회사에 대한 도로 임대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다섯째, 지방분권을 위한 3위1체 개혁이다. 이는 국고보조·부담금 폐지·축소, 세원이양, 지방교부세 전면개혁을 지칭하는 바 「지방에서 가능한 것은 지방으로」 「민간이 가능한 것은 민간에」라는 소위 작은 정부론을 구현하려는 고이즈미 개혁정책의 근간이었다.<sup>45)</sup> 3위1체 개혁은 중앙관료와 부처에 의한 국고보조금 삭감 반대, 국고보조·부담금(의무교육비 국고부담) 삭감 대상 확정 문제, 세원이양에 따른 교부세 교부단체와 不交付團體간 세원편제, 중·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 부담 불공평, 지방의 과세권 확보와 분권육구간의 불협화음 등 다양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경제재정자문회의의 場을 통해 일본의 지방분권개혁 목표(지역자립)와 과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여섯째,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시스템 구축하기 위해 연금·의료보험 제도를 개혁하고 개호보험을 도입했다. 절대인구 감소연도가 당초 예상했던 2007년 보다 2년 앞당겨지면서 사회 보장시스템의 효율성, 공정성,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면 지금까지 정치적 논리로 지연되어 온 보험료 인상, 급여 삭감, 보험기능 강화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2004년 연금개혁에서는 무엇보다 과거와 같이 급여수준은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인상을 지속해 온 기존방식을 포기했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sup>46)</sup> 2006년 건강보험관련법 개정은 의료의 고비용·저효율 구조와 세대간 급여·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철저한 생활 습관성병 예방, 평균입원 일수 단축을 위한 5개년 중장기 수치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지자체 및 의료 보험자에 대한 부담경감, 진료수가 재검토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의료급여비 신장률을 2025년도 56조 엔(GDP 대비 7.7%)에서 49조 엔(GDP 대비 6.7%)으로 억제하고 진료수가도 억제하기로 했다.<sup>47)</sup>

2008년 4월 74세 이상의 후기고령자만을 별도 관리하는 長壽醫療制度(현재의 고령자의료 제도)에 의해 후기고령자 전원을 대상으로(자기부담 10%를 연금에서 공제. 나머지는 공비 50%, 현역세대 각출에 의한 보험자 40% 부담) 안정적인 고령자 의료비와 생활의료서비스를 조달·공급하고 동일한 광역자치체내에서 동일 소득일 경우 보험료도 균일하게 함으로써 현역과 고령자간, 동일한 고령자 세대내 부담 공정성을 제고하려고 한다. 2006년 개호보험<sup>48)</sup> 개혁으로 要支援·要介護 상태를 미연에 방지

44) 이러한 민영화는 80년대 3公社 민영화를 상회하는 전후 최대규모의 개혁을 통해 첫째, 재정부용자제도 폐지, 공무원 낙하산 인사 근절, 약 340조 엔의 유력한 우편자금의 민간 용자, 세수확보, 주식매각수입 확보, 공무원 민간신분 전환, 인건비 삭감 등의 행정개혁과 재정재건, 둘째, 분사화를 통해 과소지 등 채산성이 낮은 지역 특정우체국 폐지·통폐합, 집배업무 생산성 향상, 이업종과의 제휴, 市町村 합병에 따른 자치단체의 유후시설 활용, 임대수입 등 사업 합리화, 셋째, 서비스(ATM 수수료 무료, 심야우편 서비스 등) 수준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민영화로 공급 단절이 우려되던 전국 균일 서비스 논란은 완전민영화 전에도 24,000여 개 전국 우체국 네트워크 유지, 과소지 서비스 수준 유지 의무화, 유조銀行과 간포生命의 우체국회사와의 장기대리점 계약을 통한 업무위탁 유지 조치를 통해 일단 해결했다.

45) 2004-06년간 국고지출금 4.7조엔, 지방교부세 5.1조 엔을 각각 삭감하는 대신 약 3조 엔 상당의 세원을 이양했다. 개혁 초년도에는 당연히 세원 이양액보다 보조금 삭감액이 컸기 때문에 기금전용, 관리직 공무원 봉급 삭감이 불가피했던 지자체도 다수였지만 이후 국세인 소득세로부터 지방세인 개인주민세로 세원을 이양하고 그 폭을 확대해 나갔다.

46) 동시에 전업주부의 연금권 분할, 노령후생연금의 20% 일률 삭감 조치 폐지, 육아휴업 및 이에 준하는 휴업 시 보험료 면제 대상 확대 및 연금액 감액 조치를 완화하여 고령자 취업과 차세대 육성 등 저출산 대책에도 배려했다.

47) 의료비를 적정수준으로 억제하고 미승인 의약품, 선진기술, 제한회수를 초과하는 의료행위 등(이른바 혼합진료)은 안전성도 고려하면서 새로운 룰을 설정하여 보험진료와 보험의 진료를 병행하도록 했다.

48) 2000년에 도입한 개호보험제도는 40세 이상~65세 이상과 40-64세 중 의료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재원은 자기부담 10%(시설의 경우 식비 부담), 나머지 90% 중 제1호와 제2호 피보험자가 각각 17%, 32%씩 상호부조, 나머지 50%는 국가(전체의 25%), 광역단체(12.5%), 기초자치체(12.5%)의 公費로 분담하는 이른바 自助·共助·公助 시스템이다.

하는 豫防重視型 시스템으로 전환, 在宅과 施設 이용시간 부담 공평성 확보와 개호보험과 연금급여 조정 차원에서 시설 住居費와 食費는 부담하도록 하고 認知症 고령자와 독거노인이 해당지역에서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지자체 관할의 공정 중립적인 지역포괄지원센터 중심의 개호예방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보험자 기능을 강화했다.

한국의 일본경제경영분야 연구자 중 일본의 연금, 의료, 양호보험, 사회복지 등 사회보장 관련 연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배준호(2005, 2009)는 주요국 연금체계와 개혁 및 공무원연금에 관한 비교연구를 통해 일본의 사회보장시스템 개혁과정과 특징을 고찰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 기초연금 도입 논의에 적극 참여해 왔다. 김도형(2008)은 일본의 연금개혁과정과 시나리오별 특성을 분석하고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sup>49)</sup>이 도입된 지 4년에 불과하지만 금후 급속한 고령화와 동시에 일본과 같이 재정과 전달체계에서 다양한 문제에 봉착할 것을 예상, 김도형(2006, 2008)은 일본의 개호보험급여의 결정요인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일곱째, 기업재편·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 시책을 강구했다. 정부부문 및 사회보장 분야 구조개혁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일본기업이 기존의 護送船團型 시스템을 신제품개발능력을 갖춘 새로운 창의적 시스템으로 개혁이라고 보았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2000년대 들면서 일본기업은 ROE 중시 경영, 선택과 집중의 슬로건을 내거는 한편 글로벌라이제이션과 IT 혁명에 따른 외부시장압력에 의해 새로운 지배구조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미 수많은 은행과 기업이 도산, 재편되고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대기업 집단간 은행 및 사업별 통폐합을 위한 M&A가 일상화되기 시작했다. 당연히 이런 과정에서 이사회개혁, 경영자교체 시 업적과의 연동성 강화, 持株會社제도 解禁(1995년)과 활용 증가, 전략경영을 통해 과거와 같은 동질적 경쟁구도를 탈피하기 시작했다. 김효선(2007)은 일본대기업 CEO 교체와 승계에 관한 실증연구로서 종업원주권의 일본기업 거버넌스의 변화과정에 관한 추후연구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따라서 일본기업은 재계와 업종단체를 통해 독창적 신규시장 개척, 신속한 경쟁우위 창출, 열위분야 해외이전·수입증대, 장기계속거래 관행의 글로벌화, 국내외 기업간 전략적 제휴·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국제사업네트워크 효율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를 강력하게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리스트랙처링 관련제도(기업합병·회사분할·순수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정비, 지적재산권의 적절한 보호강화, 기초·독창적 연구개발 및 공동연구개발·교류 촉진, 벤처기업 진흥, 정보공시 및 경쟁정책 강화, 경쟁력 설정자로서의 철저한 행정 변신을 시도한다. 이에 이어 과잉설비·인력 조정에 따른 손실을 극소화할 있도록 기업조직 재편(자회사 혹은 공동회사 설립 등) 시 세제혜택 조건 완화, 부담 경감, 영업권 양도에 따른 부동산 이전 원활화 조치, 시험연구세제 강화,

기존의 노인복지제도(소득에 비례하여 부담:應能원칙)와 노인보건제도(서비스이용도에 비례하여 부담:應益원칙)간 이용자부담 불균형 해소, 저소득층 배려 외에도 의료보험과 가족부담 경감, 사회적 입원 시정, 다양한 민간사업자 진입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선진적인 양호보험제도로 평가 받아 왔다. 그러나 개호보험 실시 초기부터 요게호 인정자수 급증으로 개호보험 특별회계의 재정안정화기금과 조정교부금에 대한 의존도 급증, 보험료 추가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49)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은 제5의 사회보험으로서 수발보험이라고도 하며 2008. 7 도입되었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되며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 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대상이 된다.

정보기반용 설비투자 세제와 조기감가 상각제도 도입, 내발적 지역발전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산업 클러스터 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같이 일본정부는 고이즈미 개혁 후 경기회복 국면을 활용하여 일본 고유의 統合型 기술력 (Integral Architecture), 동태적인 동아시아 시장과의 新結合과 일본의 지방과 동아시아를 통합한 新市場을 성장 축으로 하는 ASEAN+6 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한 공정표를 제시함으로써 장기불황 극복을 위한 민간의 요구에 응함으로써 자율성장궤도 진입을 시도했다.

고이즈미 개혁 어젠더에 관해서는 일본 학계는 구조개혁과 경기대책간의 相衝性, 부실채권 처리와 공적개입, 각종 사회보장의 수익과 부담의 공평성과 효율성 측정에 관련된 연구가 정부의 각종심의회 부회와 학회를 통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고이즈미 정권의 개혁의 과정에 관해서는 당시 정권의 개혁전도사 역할을 자임했던 竹中平蔵(2006) 『構造改革の真実——竹中平蔵大臣日誌』 (日本經濟新聞社)에 소상히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 일본학계에서는 고이즈미 개혁과정에 관해서는 그 다양한 주제와 정책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sup>50)</sup> 그런 가운데서도 국내에서는 예컨대 일본의 지주회사제도 解禁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전경련을 중심으로 도입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일본도로 공단과 우정공사 등 특수법인의 민영화 이행도 한국 공사조직의 개편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효율적 운영에 압력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부실은행 처리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의 경우 한국은 시중은행에 대한 정부지분이 큰 만큼 공적자금 투입이 신속했지만 일본은 2000년 초엽까지도 비록 부실은행의 경우에도 신청기준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결과 정책을 失機하는 경우가 많았다. 양국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의 특징과 공적자금 투입의 효과를 검증하지 않은 채 투입의 시기만을 단순 비교하는 등의 문제점도 노정되었다.

그러나 한일의 경우 기업과 금융기관의 도산, 흡수, 통폐합 등을 통한 대형화와 특수법인 민영화가 중장기 기업경쟁력 강화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공적자금 투입의 효과에 관한 결정적인 결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체계적인 이론적 실증적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동시에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일본을 능가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동시에 그 지속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2008)은 전자에 속하는 것이지만 후자에 관해서는 일본의 사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국 일부에서는 고이즈미식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신자유주의적 약자 제거라는 비난도 있지만 현재의 적립방식이 부가방식으로 전환될 것에 대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진지한 검토가 요청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변화하는 일본을 심층 분석한 월간조선 World Village(2004) 및 일본기업과 정부의 구조개혁과 그 최종목표로서의 글로벌 경쟁력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김도형(2005), 일본개혁이 주는 함의에 관해서는 구분관(2005)이 유효하다. 김기석(2005)은 일본형 경제시스템 개혁 이슈를 중심으로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宮島英昭(2006)는 직접 고이즈미 기의 경제 개혁을 평가, 전망한 바 있다.

90년대 중반의 한국일본연구도 이러한 일본적 경영의 변화를 예측하고 있었지만 2000년대 중반에

50) 고이즈미 개혁과 동시에 진행된 사상최장의 경기회복국면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그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지나치게 부각된 나머지 학문적, 정책적 연구대상이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들면서 정부의 조직변화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에 힘입어 이와 같이 구체적인 기업행동의 변화로 확산 되기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 기업 거버넌스면에서도 주식상호보유해소, 기업의 은행 이탈 등의 요인도 가세하여 기업통치에서 주주역할이 증대하는 등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재무면에서도 時價主義 기업회계제도 개정의 영향을 받아 지금까지와 같은 규모확대 일변도 경영에서 현금흐름 중시의 감량경영으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보였다. 고용면에서도 종업원의 평균연령이 고령화되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연공서열제 임금제도가 수정되고 성과주의를 다수 채용하게 된다.

이 시기에 일본의 변화를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의 한상일·김영작(2005)은 「일본시스템-위기와 변화」로, 한상일·김영작(2008)은 「변용하는 일본형시스템」으로서 문제 제기, 서구 캐치업 이후 不尙症에 함몰되어 가는 일본형 시스템을 정치경제적 측면만이 아니고 국가, 사회문화적 측면까지를 총괄하는 공동연구 성과를 축적하게 된다. 동시에 세종연구소 진창수(2009)은 일본국내정치 개혁의 일환으로서 90년대 장기불황 하의 정치경제, 2001년 省廳 개혁 및 금융개혁 이후의 일본정치경제시스템의 연속과 단절의 측면에 포커스를 집중하고 있다.

고이즈미 정권부터 본격화된 일본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일본의 자본주의 대안 모색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했지만 고이즈미 수상 집권 전반에 걸친 개혁, 성과, 한계 즉 고이즈미 식 구조개혁형 경기회복을 주도한 개혁의 공과를 총괄하는 본격적인 연구는 국내에서는 적어도 2009년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한국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구조개혁과 경기부양간의 相衝性 문제는 학계의 진지한 논의가 전무한 가운데 소모적인 논쟁이 오래 지속되었던 것은 특기할 만하다. 그런 의미에서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개혁형 경기부양 정책과 이후의 전후 최장의 경기회복 과정과 문제점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급후 이론적 실증적 한일비교 연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전영수(2010. 11)는 신자유주의 이후 일본의 대안모델 담론분석에서 세가지 대안 즉 시장우선주의(신자유주의 수정·유지), 일본전통주의(일본모델의 수정·부활), 복지조합주의(유럽모델 벤치마킹)의 특징과 도입 전망을 검토하고 여전히 일본은 이들 대안을 암중 모색중임을 밝히고 있다.

고이즈미 개혁의 특징은 다음 네 가지다. 첫째, 초기에는 단년도 예산 균형원칙 아래 재정적자 축소와 부실채권 축소 일변도의 개혁으로 디플레이션 초래, 둘째, 「개혁없는 성장 없다」라는 일관된 목표를 지향함과 동시에 기 발행 국채매입으로 마련된 재원을 전략적인 공공분야에 투입하면서 예산균형 기간을 단년도에서 다년도로 변경하는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유동성과 공공수요를 유발, 셋째, 금융·산업재생 관련 제반 시책을 약 2년 반 동안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주요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당초 8.4%에서 2005년 3월 결산기에 2.9%로 하락하여 부실채권문제가 정상화되었고 2007년 3월 결산기에는 1.5%로 하락함으로써 당초 절반 목표를 1.4% 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넷째, 엔화약세 유도과 민간부문 사업개편·구조개혁 지원을 통해 수출과 투자가 확대되면서 3개 과잉을 축소, 기업의 고용, 설비, 채무를 1986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

이를 우리는 構造改革型 경기회복이라 부르지만 그 명칭보다는 이러한 회복의 장기화와 호황의 배경이 중요하다. 즉 기업이 과잉고용·설비·채무라고 하는 3개 과잉을 해소, 체력강화에 성공함으로써 기업수익력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일과성의 리스트락처링의 성과가 아니고 효율성을 중시한 기업행동의 구조변화도 반영된 결과였다.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글로벌화 진전, 법·제



도·관행 등이 크게 변화했고 이에 대응하여 「일본적 경영」이라 일컬어져 온 기업행동양식에도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 3.3. 격차 사회 등 개혁의 후유증

확실히 고이즈미 구조개혁이 진행되는 동안 계층간, 세대간, 직종간 임금은 물론 생애소득과 순편의 격차 해소여부가 불투명했을 뿐만 아니라 고이즈미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온 전인미답의 수많은 독립행정법인 통폐합 등 특수법인 개혁, 도로공단과 우정민영화, 官制시장 개혁에도 불구하고 우선 최근 민영화된 고속도로 6개사 이익은 감소했고 민영화된 우편사업회사와 우편국회사의 수익기반은 약화되기 시작했다.

고속도로 건설비와 차입금 상환 후 永久무료화라는 목표만으로 고속도로 사유 재산화와 통행료 징수에 의한 이윤 동기는 무시하는 조직을 민영화하기는 어렵다. 또한 약 350조 엔의 자금을 자랑하는 유초銀行·간포生命에 대한 외국계 기업매수 펀드의 매수위협, 과거 국철과 유사한 지역별 분할 권고, 특정금융 그룹과의 유착 가능성 등에 대응하지 않으면 민영화 이점을 상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수많은 금융기관과 기업 구조조정으로 외면당한 지방중소·중견기업과 이들이 밀집한 지방은 구조개혁 피해를 그대로 안게 되면서 당장의 리스크 수용력에는 한계가 있다. 단독으로는 지방경제 피해를 막지 못해 스스로 자치체간 합병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지자체도 다수이다. 지방공공사업 축소, 복지·공공서비스의 양적 축소와 질적 저하, 3대 도시권과 여타 지방경제권과의 경제력 격차 확대, 중산층의 계층하락에 따른 소위 下流社會 탄생을 보고 있다.

특히 15~24세 청년 실업률 증가와 함께 2004년도 勞動經濟白書와 정부유관기관 조사에서 보듯이 무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217만 명 FREETER와 학업에서 직업으로 이행이 어려운 50~90만 명의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가 존재하고 있다. 이외도 일본적 고용관행 하에 기업 내 머물고 있는 기업내 실업과 추가적 구조조정에 따른 추가실업 등 신산업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한 대량 실업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시장원리에 입각한 사회보장분야 개혁에 따른 負의 유산이 두드러지고 있다. 장애인 자립지원법 때문에 장애인 자기부담이 늘고 의료제도개혁 결과 환자 자기부담 증가, 고액의료는 경원 시 되었고 의료비 억제는 의사의 근로환경 악화, 의사·간호사 공급부족, 지역의료시스템 피해를 불러왔다. 구조개혁 特區가 해당 지방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경기회복과 신규고용 확보에는 일조했지만 국내역 차별은 물론 지방교부세와 공공사업 축소로 유망성장 업종 특화사업이 어려운 많은 자치체는 재정적자, 공공서비스 축소, 3섹터와 병원 등의 부실경영이 속출했다. 노동 분야에서도 노동수급 부조화로 노동환경은 오히려 열악해 졌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시스템 리스크, 부조화 현상과 격차사회의 모순 모두가 新自由主義式 개혁에 따른 負의 遺産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며 당시의 정치리더십과 시스템운영 방식하의 노동·인력대책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弱者保護가 아닌 弱者救濟 차원에서 제도전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社會安全網 구축과 함께 다음과 같은 과제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책임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첫째, 경기회복 이후에도 지속되는 多就業·비정규직의 저생산성 부문과 소수 정예의 고생산성 부

문과의 대립을 조기에 완화해야 한다. 여전히 다수의 공적규제로 보호받고 있는 서비스 부문과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시작한 제조업 부문간의 생산성 격차가 크며 전자로 인해 후자의 추가적 생산성 향상이 저해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서비스업종의 1인당 및 시간당 생산성은 미국의 7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서비스 산업의 지식노동 투입량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서비스분야 신규진입을 가로 막는 공적규제 외에 수많은 民規制를 조기 철폐해야 한다. 이러한 과잉·중복규제는 고비용·저효율과 내외가격차를 낳고 유효수요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장철(2005, 2006)은 일본의 내외가격차의 실태, 그 요인으로서의 일본경제의 고비용 구조와 그 결과로서의 산업공동화에 대한 연구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09년 연금개혁을 앞둔 고이즈미 내각은 기초연금재원 확보 차원에서 연금목적세 도입과 소득비례연금의 민영화 등 개혁관련 논의에 불을 지폈고 2011년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부담률을 인하하려면 연금재원으로서 소비세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연금보험료 납부기록 상실과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제도 불신이 깊어진 가운데 과연 조기에 국민적 컨센서스를 형성해 갈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었다.

셋째, 2008. 2 공포·시행된 총인건비에 관한 국가공무원제도개혁기본법(2005년 말 현재 총 94.6만 명, 8.6조엔)을 일정대로 2006-2010년간 총 정원(우정그룹 26.2만 명 제외)의 5% 삭감, 10년 내 GDP 대비 총인건비 비중을 절반으로 축소하려면 행정기관만이 아니고 특정독립행정법인, 국회·법관, 自衛官을 성역화해서는 안되며 인력재배치, 급여제도 개혁과 함께 지자체도 인건비 개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개혁성고를 글로벌 시각에서 재평가하고 그 바탕 위에서 동아시아연대를 구축하는데 이니셔티브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와 같은 엔화약세 유도 하에 低실업·低해외투자·高서비스가격 체제 유지·강화라고 하는 특이한 민관주도의 경제운영에서 과감히 벗어나 엔화 강세 하에 高실업·高해외투자·低서비스가격 체계로 이행하면서 시장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공헌도를 높이는 일류국가로의 정상화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분명 실업 증대는 일본만이 부담하기는 힘겨운 큰 리스크이지만 주변국과 상생의 수익모델을 창출함으로써 리스크 수용능력은 배가시켜야 한다. 그만큼 개혁성고가 대내외로 확산됨으로써 개혁 이니셔티브도 강력하게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와 같이 일본의 신자유주의 식 구조개혁을 격차사회 원인 제공이라는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양현호(2009)는 일본의 소득불평등 확대의 원인으로서는 세가지지를 들고 있다. 즉 정리해소에 의한 고실업,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에 따른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격차 확대, 사회보장관련 예산삭감과 기업감세·개인증세, 소비세율 인상(3%에서 5%로), 고령화 진전 등을 거론하고 있다. 한국도 IMF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신자유주의식 구조개혁이 불가피했던 결과 양극화가 진행 중인 바 시장실패에 대한 보정, 사회적 약자보호, 중산층 복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3.4. 구미금융위기, 3.11 동일본 대지진 후 글로벌 경쟁력과 서플라이 체인 문제

2002. 1~2008. 2 까지 만 73개월 경기상승국면이 이어짐으로써 전후 최장의 회복기인 이자나기 경기(1965년 7월부터 57개월)를 능가하는 한편 하강기간은 13개월로 후자의 17개월보다 짧았을 정도로 일본경제는 경기회복국면이 장기화되고 장기불황의 질곡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듯이 보였다(<부도> 참조). 그러나 2007년 서브 프라임 론 문제가 발단이 된 주택거품 붕괴를 계기로 자산가격이 폭락하고 그 결과 리만 브러더스도 예외 없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2008년 9월 15일 파산하게 된다. 미국경제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면서 세계적 금융위기로 이어진다. 일본의 주가도 대폭락(日経平均株価 9. 12일 종가 12,214엔, 10.28일 6,000엔), 경제는 급전 직하하게 된다. 일본은 서브 프라임 론과는 직접 관계는 미약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금융회사로서는 다이와 생명보험사 도산 외 직접적인 영향을 경미했지만 세계경기 부진과 금융불안 에 따른 超연高의 결과 직전까지 경기상승 주역이었던 수출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일본은 리먼 쇼크 이후 선진국 중 경기 둔화 폭이 가장 큰 국가가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당시 아소 내각은 양적 금융완화를 비롯한 3단계 경기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1단계 경기부양을 최우선시하여 08년 8~12월 기간 세 차례(3단 로켓에 비유)에 걸쳐 2개월 간격으로 총 사업규모 75조엔(이중 재정조치 12조엔, 2009년도 1% 성장률 인상 기대)를 투입(동시에 일본은행의 사채매입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화 시책 실시)하기로 하고 예산관련입법 조치를 마쳤다. 이어 2단계에서는 재정재건과 동시에 세계적 경제금융정세를 감안하여 기동적 탄력적 재정정책을 추진(「경제재정 중장기 방침과 10년 전망」(09. 1. 19)에 의거)함으로써 수요부진을 타개하면 이듬해 4월 총사업비 56.8조(이 중 국비 15.8 조엔)규모의 경제위기 대책(2010년도 실질 GDP 2% 기대)을 연이어 구사할 계획이었다.

이러한 미국발 금융위기에 관해 일본공간(2009.5)은 한일양국의 대응방향에 관한 기획좌담을 마련하고 동시에 미국발 금융위기와 일본경제 전망 특집(경제패러다임, 일본경제, 한일FTA 등에 미치는 영향)을 내놓는 등 발 빠르게 학계 전문가들의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경제는 전후 사상초유의 대형경기부양책과 함께 미국 FRB의 공격적인 금융완화, 은행권 부실자산정리와 자본확충 등 일본식 量的金融緩和 수법에 유사한 정책, G20의 정책공조, 중국의 8% 이상 고성장과 한국의 건전성장 등 대외환경 개선에 힘입어 2009년 8월 시점에서 수출, 생산이 회복 되는 등 최악기를 탈출 중이었다. 기업 수익, 설비투자, 고용정세는 여전히 개선기미를 보이지 않고 완전실업률은 5.4%(09. 6월), 유효구인배율 0.43에 머물렀고 夏季보너스는 과거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으나 新規求人이 증가하고 내수회복의 관건인 개인소비는 5월 후반부터 회복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당연히 이러한 경기동향을 보아가면서 최대 정책과제인 대규모 경기부양대책에 따른 재정적자 누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했다. 따라서 2단계 「경제재정 중장기 방침과 10년 전망」(09. 1. 19)에 의거한 재정 건전화(소비세율 인상, 사회보장지출 삭감 등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개편, 세출삭감과 동시에 세계적 경제금융정세 변화를 감안한 과감하고 기동적, 탄력적 재정정책 추진)시와 3단계 신경제성장전략(08. 9. 19)에 의거한 신성장전략을 수립해 두고 있었다.

그러나 2009년 8월 국회의원 총선에서 민주당은 국내적으로는 관료 주도정치 탈피, 국가 거버넌스 개혁,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을 위해 제1의 길(공공사업과 높은 재정의존도), 제2의 길(과도한 시장원리 중심)에서 벗어나 제3의 길 즉 새로운 수요·고용창출을 위한 성장전략을, 대외적으로는 대미는 전략적·대등관계, 대아시아는 일본주도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2009년도 추경예산, 2010~2011 본예산 편성과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장래세수 확보보다는 명확한 재원조달의 뒷받침이 없는 채 자녀수당 지급, 호별농가소득 보상, 고교수업료 지원, 고속도로 요금 무료 등 소위 4K 복지프로그램 집행을 우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년 연속 국채발행액이 세수를 초과하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하면서 자신들의 메니페스토 공약의 실행가능성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동시에 의문시되고 납세대중의 장래불안은 증폭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관해서는 김도형(2010)이 민주당정권의 메니페스토와 경제정책 전반의 특징과 문제점을 검토한 바 있다.

여기에 리먼 쇼크와 이에 대한 임시처방 이후의 2차 손실 발생과 같은 미국금융경제 불안, 유럽발 재정금융위기 발생, 중국 등 아시아 인근국의 대일 캐치 업 속에서 일본의 고용흡수력을 견인해 온 자동차, 전자전기 등 주력업종의 수출경쟁력은 약화되기 시작했다. 대외정책면에서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상도 구체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실현가능성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일본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관해서는 진창수·이면우·김도형·최운도(2010)가 그 실현가능성을 국제정치 및 경제적 측면에서 종합 검토한 바 있다.

동시에 일본민주당은 2009년 정권교체를 위한 메니페스토에서 온실효과 가스를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삭감을 내걸었고 하토야마 수상은 이를 UN 기후변동 서밋에서 국제 공약하고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 대량배출 개도국에 자금과 기술이전을 하겠다고 선언한다. 이는 자민당 아소 정권이 동년 6월, 90년 대비 8% 삭감(05년 대비 15% 삭감)의 중기목표를 결정했을 당시 만약 25% 삭감하면 국내삭감분만을 달성할 경우에도 가구당 연간 36만 엔의 추가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시산결과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당시 국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오는 동시에 일본의 세계적 환경 리더십을 국내외에 천명하는 것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국내에서는 CO2삭감으로 인한 가계당 소득감소와 광열비 연간 부담이 91 만 엔으로 증가한다는 산업계 반발이 거세게 일고 동시에 여타 선진국의 삭감 폭표 합의달성에도 실패했다. 뒤 이어 3.11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脫原電 움직임과 중장기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인해 원전의존도도 단계적으로 하락하고 온실가스 배출삭감효과도 줄어들어 25% CO2 삭감 목표연도도 2030년도로 연기되기에 이르렀다.<sup>51)</sup>

이러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국제국가 일본의 국제공헌은 1997년12월 제3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에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해 법적 구속력을 지닌 목표연도(2008~2012)와 국가별 삭감수치목표 설정 및 이를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배출량거래, CDM, 공동 실시 등)에 관한 국제적 협조를 담은 의정서에 합의한 교토 프로토콜에서 빛을 보게 된다. 동시에 70년대 말부터 시작된 공해방지기술 개발을 선도해 온 환경선진국으로서의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옹변하는 것이었고 이후 한국 국내 환경관련 학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51) 2012. 6. 29 에너지環境會議에 의하면 2030년 원전의존도 0%와 15%일 경우 CO2는 90년 대비 23%, 20% ~ 25% 일 경우 25% 각각 삭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후자의 경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직접매립을 병용할 것으로 전제.

이러한 일본의 환경에너지정책과 관련하여 정성춘(2008, 2009)이 구체적인 이행과정을 성실히 추적하고 기후변화협상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녹색성장전략을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일본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적시해 왔으며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일본의 에너지 선택 동향을 추적하고 있다.

2010. 10 미국에서 글로벌기업 도요타 자동차 리콜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도요타 이미지와 생산방식(TPM)에 대한 비판이 가열되기 시작했다. 1년 후 미국 운수성·NHTSA 중간보고에서 액셀 페달과 실내 매트 결함은 일부 존재하지만 운전자 오류가 사고의 주요인이며 電子系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도요타 생산방식을 벤치마크, 무결점의 모노즈쿠리의 원점으로 인식해 온 전세계인들의 Made-in Japan에 대한 실망은 매우 컸으며 일본의 안전신화와 일본적 시스템의 불안이 증폭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공간(2010) 주관으로 일본적 시스템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특집(이지평·김용열·이태왕)과 좌담회(高杉陽也·百本和夫·김도형·이지평·구본관·오태헌)를 개최한 바 있다.

민주당 정권하에서도 재정적자 누적에서 오는 긴축예산 기조와 분배위주 경제정책운영 때문에 환경, 의료, 차세대 제조업, 관광 등 신성장전략 분야는 신산업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했고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FTA/EPA 등 양자간 협정, TPP 등 광역협정 혹은 다자간 통상산업협력 추진, 환경 에너지 등 대외협력분야 등에서도 선제적 대응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樹種業種으로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일본 기업의 대외경쟁력은 더욱 약화된다.

이러한 국가 및 기업의 위기적 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리더십의 위기 속에서 3.11 동일본대지진이라는 가공할만한 재난을 맞이하게 된다. 지진, 스나미, 원전사고의 복합재난으로 2차 대전 직후 처참한 폐허 속에서나 사용했던 復興이라는 용어가 65년이 지난 21세기 일본의 상투어가 되고 있다. 그만큼 스나미와 원전방사능 피해지 복구와 부흥이 국가경제의 최우선과제로 등장했을 만큼 절박한 상황임을 웅변해 주고 있다(구본관 등, 2011).

여기에서 일본은 極限에 이르기까지 원가 및 제품 경쟁력을 추구하고 구축해온 일본기업의 SCM(Supply Chain Management)기법과 일본을 기점으로 하는 Global Supply Chain Network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원가부담이 가중되더라도 이를 複線化하여 不測의 사태에 대비할 것인지 라고 하는 글로벌경쟁력과 서플라이 체인망의 強靱性을 여하히 조화시켜야 할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다.<sup>52)</sup> 김광희(2006)는 일본형 서플라이어 시스템의 생성과정을 논술하고 있어 일본의 서플라이어 시스템의 기본을 이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제는 기업의 해외진출과 산업공동화 논의도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서플라이 체인 재구축 차원에서 전개되기 시작했다(구본관, 2011). 정부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글로벌라이제이션, IT 등 첨단융합기술 혁신 속에서 정권과 이념에 관계없이 經濟強靱性, 財政健全性, 社會保障의 持續可能性을 상호 조화할 수 있는 비전-정책-전략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

2010년 현재 정부의 구제대상자는 1천 만 명에 육박한다.<sup>53)</sup> 여기에 Baby Boomer 700만 명이 2012년

52) 3.11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일본의 글로벌 서플라이어 시스템의 변용에 관한 연구로는 2012년 초 한일산업기술협력 재단, 삼성경제연구소, KIET 및 김도형, “동일본대지진 사태로 본 일본 서플라이 체인의 특징과 한계,” 현대일본학회(근간), 일본이 직면한 복합위기와 리스크 관리에 관해서는 竹中·船橋(2011) 著·김영근 訳 (2012), 『일본 대재해의 교훈』(도서출판 문) 등을 들 수 있다.

은퇴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노동시장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老壯靑年間 구직마찰, 사회보장비 부담(매년 2.5조엔=소비세 1% 분)을 둘러싼 은퇴세대와 차세대 갈등, 차세대의 3重苦(부모부양, 자신의 현재와 장래 대비)에 대해 기존의 老壯年 중심 대의민주주의는<sup>54)</sup> 문제해결의 실마리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대다수 납세대중이 그렇게 불신하고 있다. 고령세대의 풍부한 여유자금만으로는 막대한 국가부채를 더 이상 떠 안기 어려운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이상에서 본 플로우(flow) 차원의 논의와는 별도로 일본의 첨단기술과 특히, 연금과 대외자산, 숙련노동과 조직력, 글로벌 네트워크와 운영노하우 등 스톡(Stock) 차원에서의 국가경쟁력에 관한 논의는 별개이지만 후자는 전자의 지속적인 미스매치에 의해 장기적으로는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재정적자누적 문제는 국채의 90% 이상이 국내소화이며 저축률이 높고 대외자산규모가 크며 경상수지흑자기조를 유지하는 한 국가신용도 하락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다(구본관, 2011). 그러나 최근 31년만의 무역수지흑자 감소가 하나의 추세로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점과 고령자도 연금자산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3.5. 한일 FTA /EPA, 무역불균형, 산업경쟁력 비교

한일 경제관계는 9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일방적 대일 의존에서 벗어나 경쟁과 협력관계로 이행하면서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협력채널과 협력내용도 다양해졌다. 동시에 양국이 21세기 글로벌시대를 맞아 대등하고 전략적인 협력시스템을 제도화함으로써 상호 국제경쟁자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은 WTO의 협상기동력 하락, APEC의 기능저하, 구미경제권의 전략적 FTA증대로 인한 양국기업의 무역전환효과 방지, 한일양국 업종간 경합성 증대와 마찰요인 제거, 국내법·제도·관행의 선진화를 위한 국내개혁과 다자협상에서의 협력 필요성 등 협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상대국을 FTA 우선 협상국으로 지정했고 공동연구를 거쳐 교섭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간 협상은 2004년 11월 제6차 협상을 끝으로 7년 이상 중단 상태에 있다.

한일 FTA 협상 이후의 양국경제관계는 과거와 같은 정치적 논리보다는 산관학 레벨 공히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경제적 논리가 지배되면서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 양국 모두 양자간·다자간 협정에 의해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완화, 부품소재 표준화·공통화, 기준·인증, 환경·신재생 에너지, 의료·복지, 글로벌 물류, 지적권, 문화콘텐츠, 식량안전 등 협력메뉴가 다양해지고 3국 공동진출 등 협력의 장도 확장되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양국간에는 구태여 기능적 시장통합 없이도 상대국 시장진출이 용이해 졌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신규기업의 진출을 가로막아 기존진출기업의 독과점 허용, 기술혁신 저해, 소비자이익 나아가 생산자이익까지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할

53) 완전실업자 363만 명, 15~34세(재학생 제외) 젊은 층 part-timer, 아르바이트, NEET 포함한 freeter 250만 명, 비노동인구 중 취업희망자 461만 명, 고용정지·해고 비정규직 24.3만 명 등이다.

54) 이를 속칭 senior democracy라 부른다.

필요가 있다. 동시에 중국의 부상과 양국의 대중의존도를 높임으로써 한일무역은 축소되고 한국 부품소재의 대일의존도 심화, 무역수지 불균형 확대 등 縮小不均衡이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재협상의 접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각각 여타국 혹은 지역과의 독자적인 FTA/ EPA 전략을 구사하면서 평행선을 긋고 있다. 문제는 일본측의 농수산물과 서비스시장 개방과 한국측 중소제조업 개방 수준이다. 정승연(2005, 2007)은 일본 통상정책에 있어서의 농업문제와 일본 쌀 생산과 유통구조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는 특히 한국 일본연구에서 저조한 일본의 농업 분야에 대한 이해와 대일FTA 교섭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일FTA 정책은 양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우려마저 나오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한중일FTA를 겨냥한 前단계로서의 한중일 투자협정이 체결되고 일본이 TPP(환태평양경제 연대 협정) 협상에 참가하는 한편, 한국은 한중FTA를 개시하면서 ASEAN가맹국, 터키, 러시아, 중남미 제국 등 신흥 개별국으로의 FTA망 확산에 역점을 두는 등 상대국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형국이다.<sup>55)</sup> 그러나 실질적으로 양국은 상호 견제를 통해 자국에 유리한 협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외각 두드리기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에 한일FTA는 양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는 상위권을 여전히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일FTA 초기 협상재개를 위한 각급 레벨의 사전 접촉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협상준비 및 본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이해대립 구도와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정책개입으로 인한 새로운 조정코스트의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대국 및 동북아 국제정치경제 정세 변화를 포함하는 변화된 협상환경을 토대로 국내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방피해 관련 산업피해구제 및 무역조정지원 제도 정비 등 FTA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일본연구는 한일FTA 협상 직전에는 FTA 경제적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가 중심이었지만 협상 중단 이후에는 대일적자 확대가 우려되는 부품소재 업종 중심의 양국간 상호의존 및 협력, 중소기업의 대일진출전략, 한일지방간 협력, 일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M&A 랙, 국제물류협력, 환경·재생에너지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신장철(2005, 2007)의 한일해저터널의 건설관련 연구는 한일은 물론 동북아시아 광역협력의 어젠더 설정에 이바지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홍배(2005)는 부품소재 업종을 중심으로 국제산업연관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양국간 혹은 한중일 3국간 분업특성과 한일FTA의 경제적 효과 등에 관한 실증연구를 정력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으며 이우광(2004, 2005)(일본어판)은 한중일 3개국 경쟁력 비교, 한중일ASEAN광역협력과 FTA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김도형(2007)은 한일FTA 재교섭의 조건을, 최낙균·정형근·김한성(2008)은 국제경제와 통상 전문가로서 동북아 경제통합 차원에서 90년대 말 계측모형을 개선하고 통계자료를 추가 입수하여 한중일3국의 FTA전략을 비교하고 동북아역내 국가간 FTA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奥田 聡(2010)은 미국, EU 등 주요선진국과의FTA를 완성하는 등 한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FTA 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과를 점검, 일본이 받게 될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한일FTA 교

55) 2012. 5월부터 한국은 한중FTA 협상을 개시함으로써 일본의 TPP 협상참가를 견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한걸음 더 나아가 한중FTA 교섭과 동시에 한일FTA 재협상을 조기 가시화함으로써 일본의 한중일FTA 참여를 유도하는 이른바 NAFTA 방식의 유효성이 재차 거론되고 있다.

섭 재개안을 제시하고 있다.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한일 지방자치체간 교류가 2000년대 들면서 초광역경제권간의 빈번한 교류 협력으로 발전하면서 전현중(2007), 금성근(2008), 강상목·이근재(2011)은 각각 한일FTA가 부산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부산-후쿠오카의 동북아핵심경제권 구축전략, 동남권-규슈권간 및 경제권내의 기술 격차를 상호 비교하고 있다.

한편 한일간 무역불균형에 관해서는 80년대 중반 3低 호황 속에서 엔고에 따른 대일수출 보다는 대일수입이 급증하면서 대일무역 적자가 확대된 이래 양국 통상현안 중 핵심이슈로 자리했다. 이후 한국의 전반적인 수출경쟁력 제고와 전체 무역수지 흑자 기조 하에서 대일수입선 다변화 품목 조기 해제와 日本大衆文化 개방을 계기로 대일무역불균형을 GDP 혹은 양국간 무역규모와의 상대비중으로서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일FTA 교섭을 계기로 무역역조의 추가적 악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다시 공론의 장으로 부각되었고 현재도 이러한 경향에는 변함이 없다.

최근 水野順子(2011)는 「韓國の輸出戰略と技術ネットワーク-家電・情報産業にみる対日赤字問題-」(アジア經濟研究所)를 통해 양국 통상현안인 대일무역적자 누적은 한국 대기업의 전략적 기술선택의 결과라고 주장, 이를 대표적 업종, 즉 전기전자, 반도체, LCD 패널, 휴대전화 등 품목별로 실증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공동연구자인 藤田徹는 대일수입은 한국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불가피한 것이라는 종래 일본측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일 산업기술협력의 경우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휴대전화 분야에서 한국의 대일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분야 일본기술의 對韓 이전의 필요성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지던 과거와는 달리 대부분의 정책연구는 산업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등 정부 유관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국가간(특히 한중일) 산업경쟁력 비교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동안 양적 확장형 기업전략에 의해 제품구축능력을 구축해 온 우수한 일본업체가 장기불황 속에서 동종의 한국기업에 비해 수익력이 저조하고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일본 학계는 동일 업종내 과당경쟁으로 인해 규모경제를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쟁력에 관한 정의자체가 모호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경쟁력은 기술력과 동의어가 아니며 수익력에 관한 정확한 인식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藤本隆宏 교수가 모노즈쿠리 이론을 통해 일본기업의 현실을 「강한 現場-약한 本社」로 요약한 것은 타견이라 할 수 있으며 강한 현장-강한 본사를 지향하는 것이 글로벌 기업의 전략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정규(2005)는 藤本隆宏의 모노즈쿠리 이론을 최초로 한국에 소개하고 이어 박정규(2006), 『모노즈쿠리』(월간조선) 한국어판은 일본제조업 경쟁력의 본질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했으며 藤本・東京大学世紀21 COE모노즈쿠리경영연구센터 著・고기영·이형오 등 譯 『모노즈쿠리경영학』(2009)이 한국의 중소기업 현장교육과 생산성 향상에 활용되고 있다. 사공목·주대영·박광순·김도훈(2009)은 이러한 일본의 모노즈쿠리 경쟁력 강화전략을 분야별로 소개하고 이에 한국 관련업종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4. 맺음말

본고는 2005~2011년간 일본이 고이즈미 구조개혁형 경기회복 이후 양극화 문제를 잉태하면서 세계적 금융위기, 민주당 정권교체에 이어 3.11 대지진과 유럽발 금융위기가 발생함으로써 경기가 다시 침체국면으로 빠져드는 실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전개되어 온 국내 6대 학술지 기고자와 민간연구소 및 정부유관 연구기관 소속의 일본경제경영 전문가들의 일본연구동향과 특징을 살펴 보고자 한 것이다.

첫째, 일본경제경영 연구자는 40대~50대가 중심이며 고령화 추세가 나타나고 국내대학 소속 연구자 직위는 교수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최근 경제경영분야 일본연구 및 유학지망자수가 줄고 기존의 학위취득자도 그 동안 일본 국내 취업을 선호한 결과 국내유입이 줄어든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2012년 4월 현재 국내 경제경영 연구자로서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연구자 총수는 102명(세종연구소에서 일본연구종사자 회신자수 197명)이며 박사 학위 취득국가별로는 일본이 60명,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미국 소재 대학에서 일본관련 주제로 학위를 취득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귀국 후 일본학 관련 학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 비중은 10%를 상회하고 있으며 국내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 비중은 27.4%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일본에서 박사학위 취득자 수가 급증한 것을 계기로 이후 일본학 관련 지적 네트워크, 전문연구와 고등교육 기반이 구축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2005~2011년간 국내 6개 주요학술지에 등재된 총 260편(이중 한일경상논집 게재논문 173편, 여타 5개 학술지 87편)을 35개 주제별로 나누어 연구동향을 보면 대외통상, 동아시아, 일본기업시스템 및 한일비교 분야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일본연구는 일본경제경영환경 변화와 함께 제기되어 온 소위 Japan Problem에 대해 학술적 해명 혹은 재해석, 한국 국내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시사점 발굴, 신규의 일본연구 어젠더 개발-가설-통계 검증-실행-대안제시라고 하는 연구사이클 차원에서 본다면 여전히 미흡하다.

넷째, 한일경상학회 회원 중 핵심회원(2005~2011년간 3회 이상 한일경상논집 기고자)의 연구실적(경제분야 385편, 경영분야 199편, 여기에는 여타 학회지 기고 및 자체/공동연구도 포함)을 대상으로 연구자별·연구유형별(8개 유형)별로 보면 일본 및 관련 연구의 경우(심화) 경제분야 22.8%, 경영분야 20.6%, 한국 및 관련연구의 경우(확장으로 규정) 경제분야 33.3%, 경영분야 33.0

%로 나타났다. 즉 경제전문가들은 경영전문가들에 비해 자신의 전공을 일본문제에, 경영전문가들은 한국문제에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후자의 경우 국내 및 여타지역 연구자들과의 교류의 장인 여타 관련 학회 활동을 통해 그 만큼 이론적 실증적 체계적 연구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영미 유학한 일본전문가의 국내일본 연구자 시장진입은 전반적으로 다양한 어젠더 개발, 일본연구 방법론의 精緻化 및 상호 지적교류네트워크 확충을 통해 국내일본연구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의미에서 기술추적, 지역입지, 산업조직, 국제산업연관, 금융행정, 환율, 재정통화정책, 농업 분야는 물론 기업재무, 조직몰입, CEO 승계, 중국진출, 기업집단 분야에서 이

론적 실증적 체계적 연구가 기대되고 있다.

여섯째, 2005~2011년간 3대 민간연구소, 2대 국책연구소 및 정부유관 단체의 일본경제경영 연구는 전반적으로 일본경제경영 정보 수집과 분석이라는 공통업무 외에 민간기업 소속 연구소는 각기 소속 기업그룹 전략수립 목적, 국책연구소 중 KIET는 일본의 신산업비전과 전략 및 업종경쟁력 비교분석에, KIEP는 대외통상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과 관련정보 분석에 각각 특화하고 있다.

동시에 이들 민간연구소와 국책연구기관의 일본연구는 상기 대학의 학술연구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도요타 리콜 사태, 3.11 동일본대지진 등 이슈발생 시 일부 학회의 기획특집을 제외한다면 2000년대 초반 한일FTA 협상 추진 당시와 같은 산관학 공동연구는 미진했다.

일곱째, 고이즈미 구조개혁형 경기회복 국면 전후의 일본경제 경영 패러다임 전환기에 나타난 다양한 問題群을 식별하고 이에 국내 일본경제경영 연구자들이 대응해 왔는가를 살펴 보면 고이즈미 구조개혁에 관한 일관된 학술적 연구(특히 공공부문 개혁)가 부재한 반면 일본기업시스템 변용과 한일 및 한중일 업종경쟁력 비교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우선 대상분야가 다양하고 한일간 금융경제발전 단계와 고령화 추세상의 차이로 보아 이들 이슈는 시차를 두고 연구대상이 될 것이며, 후자의 경우 중국의 부상과 한중의 일본추격으로 보아 일본연구의 지평은 이제 일본 국내만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주변국과의 네트워크형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증좌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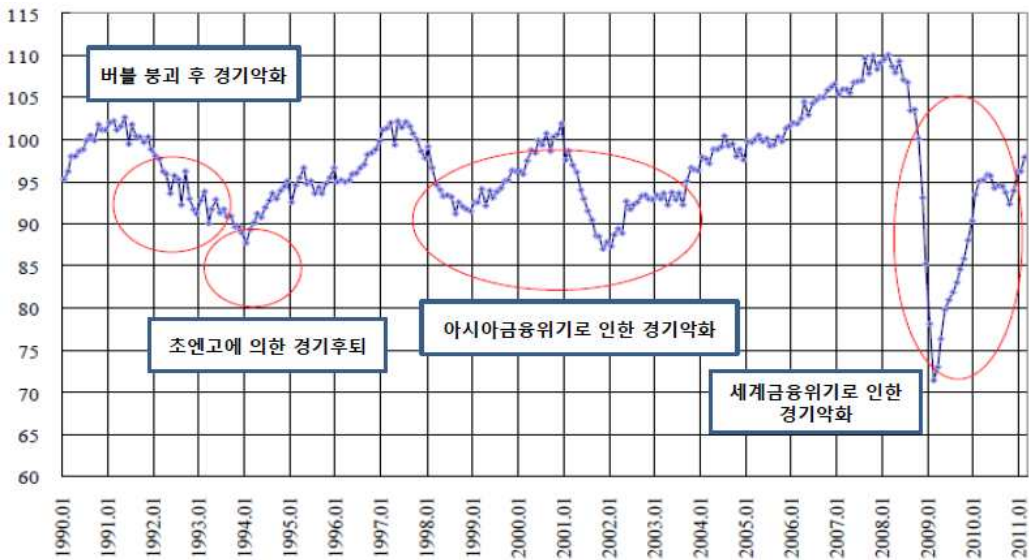
이런 의미에서 국내 일본연구의 대상인 일본기업과 파트너의 활동범위가 글로벌라이제이션과 급속한 기술혁신 속에서 탈국경-무국경화하고 있어 지금 이상으로 보다 정치한 분석모델 구축과 실증분석이 요청되고 있으며 동시에 국내일본연구자와 기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금후 한일양국이 정책실패를 줄이기 위해서도 한국의 일본연구가 본고의 분석대상기간 중 결락된 고이즈미 구조개혁의 功過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일본문제가 이윽고 한국문제로 비화되기 이전에 적어도 글로벌 시각에서 Japan Problem을 둘러싼 양국 전문가간의 진지하고 도발적 격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김도형(2012). 「동일본 대지진 사태로 본 일본 서플라이 체인의 특징과 한계」, 현대일본학회(근간).
- 박정규(2006), 『모노즈쿠리』, 월간조선.
-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2012. 4. 24), 「2012년 한국일본학의 현황과 과제-2005년과 2012년 비교분석」 (DB).
-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국제교류기금(2007). 『한국 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한올아카데미.
- 배준호(2007.10). 「국내 일본 경제경영 연구 동향과 전망」, 『한일경상논집』, 한일경상학회.
- 한상일·김영작 외(2005). 『일본시스템-위기와 변화』, 일조각.
- 한상일·김영작(2008). 『변용하는 일본형 시스템-현장보고』, 국민대출판부.
- 青木昌彦·奥野正寛(1996). 『経済システムの比較制度分析』.
- 竹中平蔵(2006). 『構造改革の真実——竹中平蔵大臣日誌』 日本経済新聞社.
- 水野順子(2011). 「韓国の輸出戦略と技術ネットワーク—家電・情報産業にみる対日赤字問題—」, 아시아경제연구소.
- 中村久人(2007). 「日本企業の国内回帰現象と企業競争力に関する考察」, 『経営論集』.

村松岐夫・奥野正寛(2002). 『平成バブルの研究(上), (下)』 東洋経済新報社.  
 藤本・東京大学 2 1 世紀COE모노즈추리경영연구소 著・고기영・이형오 등 譯(2009). 『모노즈추리경영학』.  
 竹中・船橋(2011) 著김영근(2012) 訳 『일본 대재해의 교훈』 (도서출판 문)  
 한국일본학회, 『日本學報』 <http://www.kaja.or.kr/> 학술논문검색.  
 현대일본학회, 『日本研究論叢』 <http://www.kacjs.org/> 학술논문검색.  
 한일경제학회 『韓日經濟論集』 <http://www.kjem.or.kr/> 학술논문검색.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일본공간』 <http://www.ijs.or.kr/> 학술논문검색.  
 고려대 일본연구센터, 『日本研究』 <http://www.kujc.kr/> 학술논문검색.  
 외국어대 일본연구소, 『일본연구』 <http://hufs-japan.com/> 학술논문검색.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연구자 실적.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연구자 실적.  
 현대경제연구원, <http://hri.co.kr/> 연구자 실적.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http://kjc.or.kr/> 일본연구자료.

<부도> 1990. 1/4~2011. 1/4 광공업생산지수(2005=100)



## &lt;부표&gt; 주요 국책연구소와 정부유관단체 일본연구

산업연구원(KIET)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선진권 경기 불안이 국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11.10.05	-제 10 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의 주요 내용 : 「나고야 의정서」를 중심으로 2010.	-일본 통상정책의 새로운 전개와 한국의 대응 2011.12.23
-일본 대지진의 산업피해 여파와 시사점 2011. 06.01	-일본의「포괄적 EPA 기본방침」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일본의 환태평양 파트너십(TPP) 참가는 실현 될 것인가? 2010.	-한일 양국의 고령화와 고령화 고용정책 2011.12.21
-Japan's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and its Implication 2011. 01.18	-일본 참의원 선거의 평가와 전망 2010.	-일본 모바일시장의 특성과 한일 협력방안 2011.12.21
-한·중·일 국제분업 구조 분석과 협력증진 방향 2010. 12.30	-일본의 정권교체 반년의 평가와 참의원 선거 전망 2010.	-일본 유통시장의 이해와 우리기업의 대응 2011.12.21
-일본산업구조 비전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2010.08.18	-일본 민중당 신체제 출범의 의미와 과제 2010.	-외투기업의 기술혁신과 한일 산업기술 협력 : 정책과 사례 2011.12.14
-일본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강화 동향과 시사점 2010.04.22	-도요타 리콜사태의 발생 원인과 교훈 2010.	-일본기업의 환경경영 사례와 시사점 2011.12.13
-일본의 모노즈쿠리 경쟁력 강화 전략과 우리의 대응 2009.12.17	-일본과 EU 의 환경 분야 대외협력 전략과 시사점, 2010.	-한중일 FTA 교섭, 투자협정은 연내 체결 2011.12.13
-글로벌 금융위기 하 일본산업 동향과 기업전략 및 시사점 2009.11.25	-고령화·저성장 시대 일본공적연금의 현안과 개혁과제 2010.	-일본의 TV 홈쇼핑시장 이해 2011.11.21
-일본 하토야마 내각의 출범과 한일산업협력 2009.10.27	-일본 신성장전략의 주요 내용과 평가 2010.	-일본의 에너지·자원 전략 2011.10.17
-일본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과 시사점 2009.04.21	-장기불황 이후 일본경제의 구조 변화와 글로벌 경제 위기 2009.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전략 2011. 10.10
-일본 의약품산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2008.10.16	-기후변화협상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2009.	-국내 모바일 산업 동향 및 모바일 이용형태 실증분석 2011.09.19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 대책과 시사점 2008. 05.20	-일본의 저탄소사회 전략에 관한 연구 :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 종합연구 2009.	-노다 내각 특징과 향후 과제 2011.09.05
-일본의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소재부문의 경쟁력 요인과 시사점 2008.02.20	-제 14 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에 대한 평가와 전망 2009.	-일본 물류기업의 중국진출 전략과 대응 2011.08.23
-일본경제의 재 부상과 한국의 산업 2008.01.30	-일본의 온실가스 중기감축 목표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2009.	-2011 년도 과학기술백서 주요내용과 시사점 2011.08.22
-최근 대일 역조 확대의 원인과 전망 2007.11.06	-일본 EPA 의 산업별 상품양허 실태와 시사점 2009.	-2011 년판 일본 통상백서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2011. 08.16
-일본 기술전략 맵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2007.06.25	-최근 일본경제의 디스플레이 실태와 전망 2009.	-한국기업과의 비교시점에서 본 일본의 모노즈쿠리觀 2011. 08. 08 78
-일본 소재산업 경쟁력 원천과 시사점 2007.05.31	-일본 농업의 경쟁력과 한·일 FTA 에의 시사점 2008.	-한일 M&A 촉진을 위한 공적기관의 역할 2011.07.11
-미·일 대학의 산학 연계 메커니즘과 시사점 2007. 04.30	-일본의 기계결 EPA 의 분석과 한·일 FTA 에의 정책 시사점 2008.	-한중일 철강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산업협력 2011.07.04
-국제 M&A 동향과 시사점 2007.06.25	-일본농업의 경쟁력과 한일 FTA 에의 시사점 2008.	-일본기업은 왜 한국에 투자하는가? 2011.06.27
-일본의 M&A 관련대책과 시사점	-중·일 정상회담의 성과와 시사점 2008.	-한국기업의 일본시장진출 애로사항과 대응과제 2011.06.20
	-일본의 대 ASEAN FTA 추진 동향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상품무역을 중심으로 2008.	-일본기업의 對韓 투자입지 2011.05.27
	-저탄소사회 전략의 현황과 시사점 2008.	-최근 일본의 산업조직재편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2011. 05.23
	-한·일 양국의 에너지 분야 대응실태와 협력방안 2008.	-日·EU 통상·경제관계에 관한 퍼블릭·컨설팅이션의 결과 2011.05.23 3426
	-한·일, 한·중 FTA 어떻게 볼 것인가? 2008.	-일본의 상생협력이 우리기업에게 주는 시사점 2011.04.15
	-일본기업의 해외사업 전개 동향과 시사점, 2007.	-일본 정부조달시장 참여확대 방안 연구 2011.04.04
	-한·일 기업의 동아시아생산네트워크 비교연구: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2007.	-일본유통시장 진출방안 및 한일 유통협력사업 발굴 연구 2011.04.04
	-일본의 고용관련 법률 개정의 최근 동향과 의미 2007.	-한국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및 정부역할에 관한 연구 2011.03.28
		-동북 대지진이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일본기업 피해 상황 2011.03.16
		-일본 도호쿠지역의 경제현황 2011.03.14
		-한국기업의 일본시장진출 성공 및 실패요인 조사연구 2011.03.11

<p>2007. 03.23</p> <p>-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지원제도와 시사점 2006. 12.15</p> <p>-일본의 공장설립제도와 시사점- 입지와 환경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2006. 11</p> <p>-일본의 신경제성장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06.08.24</p> <p>-주요국의 잠재경쟁력 순위와 시사점 2006.04.24</p> <p>-일본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와 시사점 2005. 12.30</p> <p>-일본 제조기업의 글로벌진개와 '국내회귀' 2005. 09.27</p> <p>-한.일 FTA 의 영향 분석과 산업구조조정 2005.06.01</p> <p>-한일 종합상사의 행태 비교 2005.03.28</p> <p>-일본 신 산업 창조전략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2004.07.26</p> <p>-한·중·일 FTA 체결의 산업별 영향과 타당성 검토 2004.12.27</p>	<p>-일본 농업개혁의 현황과 시사점 2007.</p> <p>-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와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전망 2007.</p> <p>-발리 로드맵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2007.</p> <p>-한-일기업의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비교연구 2007.</p> <p>-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 총괄보고서 2007.</p> <p>-적대적 M&amp;A 에 대한 일본 정부 및 기업의 대응 2006.</p> <p>-일본 금융정책 변화의 영향 및 대응과제 2006.</p> <p>-일본 제로금리정책 해제의 배경과 의미 2006.</p> <p>-대외통상전략을 활용한 일본의 가치분소득 성장전략 2006.</p> <p>-미·일 경제관계가 한·미 FTA 협상에 주는 시사점 2006.</p> <p>-일본경제 구조개혁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2006.</p> <p>-일본 FTA 정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2006.</p> <p>-일본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2006.</p> <p>-"일본 21 세기 비전"을 통해 본 일본의 대외경제전략 2005.</p> <p>-일본 M&amp;A 시장의 최근 동향과 과제 2005.</p> <p>-일본정부 및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2005.</p> <p>-일본의 전기 전자 대기업의 특허전략과 시사점 2005.</p> <p>-일본-말레이시아 FTA 협상 타결 2005.</p> <p>-한·일 경제 관계의 특징과 협력방향 2005.</p> <p>-한·중·일 FTA :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 민감품목 분석을 중심으로 2005.</p>	<p>-일본 드러그스토어 시장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성 2011.03.11</p> <p>-간 내각 개각과 향후 과제 2011.01.18</p> <p>-태양광 산업의 한일 연구 협력 방안 2011.01.13</p> <p>-한국과 일본의 자동차산업 노사관계 비교 2011.01.05</p> <p>-일본의 직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화이트칼라의 심리적 적응 프로... 2010.12.30</p> <p>-한일 철강메이커 공동 코일센터 제안 2010.12.30</p> <p>-한·일 양국기업 협업에 의한 일본 와이맥스시장 진출 2010.12.30</p> <p>-한일 항만서비스품질 만족조사를 통한 양국의 항만협력과 발전... 2010.12.30</p> <p>-한국 벤처기업의 일본 시장진출과정 및 성공요인의 탐색적 연구 2010.12.30</p> <p>-한식(韓食)세계화에 따른 일본인의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2010.12.28</p> <p>-대한국수출 일본기업의 규모, 역사, 기술축적에 관한 연구 2010.12.17</p> <p>-일본 정(政)관(官)재(財) 삼각관계의 협력과 갈등 2010.12.06</p> <p>-일본 민주당 대표선거 결과와 향후 영향 2010.09.15</p> <p>-일본 참의원선거 결과와 영향 2010.07.13</p> <p>-대일무역 역조 진단에 대한 고찰 -미즈노 준코판「한국의 대일무역 적자 문... 2010.07.12</p> <p>-간 내각 출범과 향후 과제 2010.06.09</p> <p>-일본 제조업의 생산·판매전략 전환이 주는 시사점 2010.04.30</p> <p>-일본 차세대자동차전략 2010.04.26</p> <p>-최강 한국, 일본은 왜 계속 패배하는가? 2010.04.09</p> <p>-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한중일의 전략 및 협력방안 2010.03.26</p> <p>-일본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최첨단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2010.03.18</p> <p>-도요타 리콜 사태가 남긴 영향과 과제 2010.03.04</p> <p>-일본의 전기자동차산업 동향과 시사점 2010.02.19</p> <p>-일본 신성장전략 (기본방침) 요지 2010.01.20</p> <p>-일본의 환아세안 경제협력 모델 2010.01.19</p> <p>-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위한 FTA 논의 현황 및 대응방안 2010.01.19</p> <p>-일본기업은 어떻게 연구에 대응하였는가? 2009.10.09</p> <p>-일본의 모노즈쿠리 중소기업 육성정책 사례를 통한 시사점 2009.10.01</p> <p>-일본 중견기업의 성장이 주는 시사점</p>
--	--	---

		<p>2009.06.04 -국내자동차부품기업의 진출방안 연구 2008.10.30 -일본 통신판매 시장 진출을 위한 모델 개발 연구 2008.10.20 -일본시장 진출의 성공비결, 비즈니스 신뢰 2008.10.10 -일본 중소기업의 해외사업 전개 [성장전략의 측면에서] 2008.10.08 -일본 신흥증시 상장기업의 특징 및 시사점 2008.09.18 -한국 소프트웨어 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을 위한 성공전략 2008.06.27 -일본 중소기업의 M&amp;A 현상과 과제 2008.03.10 -중소기업 주력업종의 실태 및 제조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2007.12.20 -한국진출 일본계기업의 특징 및 시사점 2007.11.01 -21 세기 신일본 경영 및 일본시장 특집기획 2007.10.30 -한미 FTA 가 한일 기업협력 관계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2007.10.02 -일본의 신경제성장전략이 주는 시사점 2007.05.11 -일본시장에서의 성공조건 2007.03.15 -한국중소기업의 일본 Outsourcing 시장 진출 전략 2007. 02. 22 -일본기술자 고문매칭사업 수요조사 및 실효성 진단 2007.02.22 -일본의 동아시아 경제연대협정(EPA) 전략과 시사점 2007.02.21 -한-중-일 협력강화를 위한 지역협력사업의 평가와 새로운 구상 2007.01.02 -미래지향적 한일 기업간 협력방향과 대응전략 2007.01.02</p>
--	--	--

- 주: 1) KIET와 KIEP의 일본연구는 1~2명의 해당 연구위원 명의의 것이지만 연구원의 결과물이므로 연구자명은 익명으로 처리  
2)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2007년부터 일본정보센터에서 외부전문가에 의한 일본산업기술관련 연구결과 와 자체 인력에 의한 관련 정보 수집, 정리한 자료를 배포해 오고 있음.

자료: KIET, KIEP, 한국산업기술협력재단 홈페이지의 일본관련 연구보고서, 정보자료, 동향분석 등에서 임의로 선정, 정리.

## 제4장 한국에서의 일본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윤 병 남 (서강대학교)

1980년대 초에 시작된 한국에서의 일본사연구는 30년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수 명에 지나지 않았던 연구자가 100명 수준에 도달하였고 이들이 주로 연구 활동을 펼치는 일본사 관련 전문 학회도 다수 출현하였다. 이들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를 비롯한 다양한 학술지에서 매년 200편에 육박하는 논문이 발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동안 발표된 논문의 수가 1,000편에 육박하게 되었고 발간된 저서도 150권을 넘어섰다. 이러한 연구 업적의 급격한 증대는 비단 일본사 분야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짧은 일본사 연구의 역사를 고려할 때 괄목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개별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sup>56)</sup> 대신에 지난 7년간의 일본사 연구의 전체적 상황을 개관하고 아울러 연구의 흐름과 경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의 전체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도별로 연구자의 수, 발표 논문과 저서의 수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연구 주제의 분포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최근의 연구에 어떤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이러한 현상파악을 토대로 향후 일본사 연구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전망해 보고자 한다.

### 1. 한국에서의 일본사 연구 회고 - 1980년대부터 2004년까지를 중심으로<sup>57)</sup>

#### 1.1. 1980년대 이후 1세대 일본사 연구자의 등장과 일본사 연구의 시작

한국에서의 일본사 연구는 198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시기에 미국, 일본 등지에서 일본사를 전공하여 학위를 취득한 후 귀국하여 주요 대학에서 일본사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연구자가 비록 소수이지만 등장하여 일본사 연구의 막을 열었다. 이들 1세대 연구자의 등장 전에는 일본사 연구자가 매우 희소했고 또한 사학과와 같은 관련학과에서 일본사 담당 교수직이 거의 설치되지 못하였다. 이 시기의 연구자 수는 5명 내외에 지나지 않았고 따라서 이들에 의한 독자적인 학회활동은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역사학회나 동양사학회 등이 이들 연구자의 주된 활동 무대였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들이 다루는 일본사의 전공 분야와 주제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

56) 역사학회에서 발간하는 『역사학보』에서는 매년 한국 역사학계의 연구 업적을 검토하는 “회고와 전망”을 싣고 있는데, 한국사, 동양사·서양사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을 격년으로 다루고 있다. 일본사의 경우는 동양사에 포함되는데, 전근대와 근현대로 나누어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57) 김선민, 「한국의 일본사 연구 현황과 과제」 진창수 편 『한국 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한울, 2007)을 참조할 것.

었다. 이들의 연구는 각각 한일관계사의 쟁점인 임나일본부 문제, 메이지유신의 지조개정, 메이지시대의 대외관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각각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여 한국의 역사학계에 일본사 연구의 존재감과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1세대 연구자들의 의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1세대 연구자의 더 중요한 기여는 2세대 연구자 양성의 토대를 구축한 점이었다. 일본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학에서 관련 강의 수강 기회를 거의 가질 수 없었던 학생들이 일본사를 본격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의 영향력은 출강 등을 통해서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의 범위를 넘어서기도 하였다. 이들의 강의를 수강한 학생 중에서 2세대의 일본사 연구자가 다수 배출되었음은 물론이다.

## 1.2. 1990년대 초중반이후 일본사 연구자의 확대와 연구의 활성화

### 1.2.1. 연구자수의 증가와 전문학회 및 전문학술지의 등장

1980년대 초중반부터 1세대 연구자들에게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국내외의 대학원에 진학하여 일본사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 숫자가 1980년대 말까지 약 30명 수준에 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에는 국내의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하는 경우가 있었고 학부 졸업 후 곧바로 외국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었다. 유학생의 압도적인 다수가 일본의 대학에 진학하였고 일부가 미국의 대학을 선택하였다. 국내의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도 소수이지만 존재하였다. 이들이 2세대의 일본사 연구자로 성장하였는데, 1990년대 초중반부터 이들이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기 시작하여 1세대 연구자들과 함께 한국에서 일본사 연구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2세대 연구자들의 증가의 가장 가시적인 성과로 일본사 관련 학회의 설립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관여한 대표적인 학회로는 한일관계사학회(1992), 일본사학회(1994), 한국일본사상사학회(1997), 한일민족문제학회(2000) 등을 들 수 있다. 학회의 성격에 따라 회원의 수에 차이가 있지만, 한 사람이 다수의 학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들 학회에서 잇따라 『한일관계사연구』(1993), 『일본역사연구』(1995), 『일본사상』(1999), 『한일민족문제연구』(2001) 등의 전문 학술지를 발간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사 연구가 역사학계에서 독자적인 분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일본사 연구가 학계에서 독자적인 분야로 자리 잡으면서 일본사 전공자들의 역사학회, 동양사학회, 일본학회 등의 대규모 기존 학회의 참여도 계속되었고 이들 학회의 활동에서 일본사 분야는 필수불가결한 분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들 학회가 각각 발행하는 『역사학보』, 『동양사학연구』, 『일본학보』 등에서 일본사 관련 논문이 지속적으로 게재되었음은 물론이다.

### 1.2.2. 연구자의 수와 전공 시대별 분포의 특징

누가 일본사 연구자인가를 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자 수나 연구 논문의 수를 다룸에 있어서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석사나 박사의 대학원 과정에서 일본사 또는 인접 분야의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융합과 통섭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실의 학문 상황을 고려할 때 인접 분야를



포함하는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정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후자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일본사 연구자는 1990년대 말에 60명을 넘어섰고, 2004년까지 80명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00년을 전후로 하여 매년 5명 내외의 박사학위자가 국내외에서 배출되었고, 이에 따라 전체 연구자 수도 완만한 증가를 보여주었다.

연구자의 전공시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근현대사 연구자가 다수를 점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고대사와 근세사가 뒤를 잇고 있다. 2000년 이전에는 고대사 전공자의 숫자가 많았지만, 2000년 이후에는 근세사 전공자의 수가 고대사 전공자의 수를 약간 상회하게 되었다. 근현대사와 고대사 분야의 연구자 수가 강세를 나타내는 것은 이들 분야가 한일관계사의 쟁점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세사 분야는 연구자가 계속해서 매우 희소한 분야로 남아 있다. 이 분야는 연구자 수는 적지만,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연구자가 다수를 점하여 한국의 일본 중세사 수요에 나름대로 잘 대응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논문 수의 시대별 분포는 연구자 수의 시대별 분포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한일관계사 관련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중에는 한국사의 관점에서 바라 본 한일관계사 연구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일부 공동연구가 없지 않았지만, 개별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연구 초창기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 2. 2005년~2011년 일본사 연구의 현황 개관

### 2.1. 일본사 연구자 수의 완만한 증가와 취업 기회의 확대

〈표 IV-1〉 일본사 연구자의 수와 전공시대별 분포(2011년)

시대	고대	중세	근세	근·현대	합계
연구자수	24	8	28	58	118

2004년에 약 80명에 달한 일본사 연구자가 2011년에는 약 120명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표 IV-1>. 2000년경부터 매년 국내외에서 5명 전후의 박사학위자가 배출되어 연구자수가 완만한 증가를 보인 결과이다. 일본 및 미국의 해외 대학의 학위 이수자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일본의 비중은 70%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05년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일본의 대학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가 일본사 연구자 양성의 주된 경로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이수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1990년대 초반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일본사 박사학위 소지자의 국내 대학 등 연구기관에의 취업 기회의 확대는 국내 일본사 연구의 기반을 견고한 토대 위에 올려놓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첫째 경로로 대학의 사학과에서 일본사 전공 교수직이 신설되어 충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주요 대학에서 순차적으로 충원이 이루어져 왔는데, 소수이지만 복수의 일본사 연구자가

한 학과에 재직하는 경우도 존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충원이 교수직의 신설과 새로운 교과과정 신설을 통해 이루어진 점을 높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요 대학 중에서도 여전히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다수 존재하고 충원의 전망도 밝지 않은 것은 남겨진 과제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취업 경로로 들 수 있는 것이 199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일어난 지역학과 개설 붐 속에서 이루어진 일본학과에 채용되는 경우이다.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의 학제적 교육과정을 지닌 일본학과에서 일본사 전공자는 필수적인 존재라 할 수 있다. 다음의 경로는 기존의 일본어문학과에서 일본사 전공자를 채용하는 경우인데, 일본사 전공자들이 기존의 어문학 중심의 교육과정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사 연구자가 대학의 학과가 아니라 일본관련 연구소 등에 소속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비전임 신분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연구자들에게 연구와 강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 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대학이 아닌 국책 또는 민간 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한 인문한국사업(HK사업)의 실시에 따라 연구전담 교수직이 증가하여 일본사 전공자들도 그 혜택을 입게 되었다. 인문학 분야와 해외지역연구 분야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는 이 사업에서 고려대학교의 일본연구센터와 서울대학교의 일본연구소가 해외지역연구의 일본연구 분야에 선정되어 다수의 일본사 연구자가 연구교수로 채용되어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역사 갈등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의 주도로 2006년 설립된 동북아역사재단과 그 산하에 설치된 독도연구소가 다수의 일본사 전공자를 연구위원으로 충원한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일본사 전공자의 대학 및 연구기관 취업 기회의 확대와 더불어 언급해야 할 점이 일본사 연구의 인프라 확충이다. 전신인 학술진흥재단 시대를 포함한 한국연구재단의 제반 연구지원사업의 확충 속에서 일본사 연구자도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었다. 스터디 지원을 통해 학회 내의 소규모 연구팀이 지속적으로 연구 모임을 수행할 수 있었다. 독자적인 학회와 학술지를 보유한 일본사 관련 학회들이 학술지 발간비 지원이나 학술대회개최 지원을 받아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이 모든 지원 분야가 비교적 경쟁이 치열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일본사 분야의 발전이 연구재단의 지원에 도움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대형 지원사업으로 HK사업이 출범하여 해외지역연구로서 일본연구 분야에서 2개의 연구소가 지원을 받게 되었다. HK사업은 다수의 일본사 연구자를 전임 연구원 또는 연구교수로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중장기적 연구계획의 수립, 대규모적인 학술대회 개최, 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확대, 다양한 DB 및 자료 구축 등을 통해 일본사 연구의 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06년 9월에 출범한 동북아역사재단은 위에서 한국연구재단이 수행한 지원기능을 역사학계에 집중시켰다는 점에서 일본사 연구의 인프라 확충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초대 이사장으로 일본사 연구자가 취임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단의 지원사업이 일본사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수의 일본사 연구인력이 연구위원으로 채용되어 국내의 단일 연구기관 중에 일본사 연구자를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되었다. 개별 및 공동 연구 지원, 소규모 연구모임 지원, 학술대회개최 지원 등에서 일본사 연구자나 학회가 크게 도움을 받았

다. 재단이 운영하는 자료센터의 일본사 관련 자료는 자료의 양에서나 질에서나 국내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장서가 두 개층으로 분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지만, 단시간 내에 구축한 자료가 일본사 연구자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등 다양한 관련 정부 위원회의 출현도 일본사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대부분 이들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것이긴 하지만, 다수의 일본사 연구자들이 연구 인력으로 채용되었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이 수행한 연구는 먼저 보고서로 작성되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연구자의 연구 논문 등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 2.2. 연구논문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시대별 및 주제별 분포

아래의 <표 IV-2>는 지난 7년간의 일본사 관련 논문의 양적 확대를 잘 보여주고 있다.<sup>58)</sup> 2007년까지 90편 내외의 논문이 산출되었지만, 2008년을 기점으로 거의 배증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2010년대에 들어서 1년에 200편을 상회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논문 수의 비약적 증가에 비해 저서의 수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표 IV-2> 일본사 관련 논문 및 저서의 연도별 분포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논문	86	90	87	153	148	210	140	914
저서	28	13	18	25	18	31	20	153

<표 IV-2>는 2008년 이후에 논문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이러한 변화가 연구자 수의 변화에 의해 초래된 것이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 일본사 연구자의 박사학위 취득 연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연도별 변화가 크지 않고, 매년 5명 전후의 연구자가 배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에서의 채용 및 승진을 위한 연구업적평가의 지속적인 강화 추세에 따라서 연구자 일인당 논문 산출량이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설명이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개별 연구자가 한 해에 4-5편의 논문을 발표한 경우도 보인다.

본 연구에서 일본사 연구자로 규정한 사람 이외의 인접 분야의 연구자가 산출한 일본사 관련 논문의 증가가 논문수의 증가에 기여한 점도 주목해 볼 사항이다. 첫째, 한국사 전공자 중에서 한일관계 관련 논문을 발표한 경우가 다수 포함되었다. 둘째,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등의 사회과학 분야에서 역사적 성격이 강한 연구를 수행하여 <역사와 사회>, <일본연구논총>, <경제사학>, <일본비평>, <일본공간> 등의 사회과학적 성격이 강한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아울러 연구자의 수가 많은 일본어문학 분야의 연구자가 역사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위의 세 가지 경우에 논문의 발표자들은 대체로 일본사 연구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의 연구가 일본사 관련 논문으로 간주되어 논문 수의 증가에 기여한 바는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58) 동양사학회가 발간하는 『동양사학연구』에 매년 게재되는 “국내 동양사관계 논문목록”를 토대로 논문수를 파악하였다.

일본사 논문의 연도별·주제별 분포를 일본사 연구자들의 주된 활동 무대인 일본사 관련 주요 6개 학술지를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표 IV-3>은 『일본역사연구』, 『동양사학연구』, 『역사학보』, 『한일관계사연구』, 『일본사상』, 『한일민족문제연구』의 6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수의 연도별 분포를 보여준다.

<표 IV-3> 6개 학술지 일본사 관련 논문 수의 연도별 분포

학술지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일본역사연구	11	12	14	14	11	17	14	93
동양사학연구	3	1	1	4	3	6	3	21
역사학보	2	4			2	1		9
한일관계사연구	12	20	25	26	21	21	27	152
일본사상	4	6	4	4	7	4	2	31
한일민족문제연구	1	1	2	1		3	5	13
합계	33	44	46	49	44	52	51	319

다른 5개 학술지에서는 발표 논문수가 완만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에 비해서 『한일관계사연구』에서는 논문 수가, 특별히 2006년부터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문 수의 증가에 따라 『한일관계사연구』가 2007년부터 연 2회에서 3회로 발간 주기를 변경하였다. 물론 『동양사학연구』와 『역사학보』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여 오래 전부터 연 4회 발간체제를 이루어 왔지만, 나머지 일본사 관련 학술지는 현재까지 반년간의 간기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사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학술지의 등장에 따라서 기존의 『역사학보』와 『동양사학연구』에 게재되는 일본사 관련 논문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일본사 관련 4개 학술지가 일본사 연구자의 논문 발표의 주된 학술지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일본사 관련 학술지 발표 논문의 시대적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 <표 IV-4>와 <표 IV-5>이다. 전자는 6개 역사관련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후자는 모든 학술지 발표 논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6개 주요 학술지 발표 논문의 수가 전체 수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사 관련 논문의 발표의 장이 매우 다양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논문의 시대별 분포는 <표 IV-4>와 <표 IV-5>에서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근현대 관련 논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근세, 고대, 중세의 순으로 되어 있는데, 중세를 다룬 논문의 비중이 다른 시대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4>에서 한일관계사 관련 논문의 비중이 어떠한지를 알아 보았는데, 전체 발표 논문 중 약 2/3를 차지하여 매우 비중이 높음을 보여준다. 6개 학술지 중 발표 논문 수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일관계사연구』 발표 논문이 대부분 한일관계사를 다룬 논문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표 IV-4〉 6개 역사관련 학술지 게재 논문의 시대별 분포 및 한일관계사 관련 논문 수

학술지명	고대	중세	근세	근·현대	합계	한일관계사
일본역사연구	20	9	15	49	93	35
동양사학연구	2	2	6	11	21	5
역사학보	0	0	3	6	9	3
한일관계사연구	24	23	54	51	152	152
일본사상	6	1	15	9	31	12
한일민족문제연구				13	13	13
합계	52	35	93	139	319	220

〈표 IV-5〉 일본사 관련 논문의 연도별 시대 분포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b>통사</b>		3	1	2	1	2	5	14
고대	6	18	9	19	30	19	20	121
중세	3	5	4	8	7	12	6	45
근세	16	20	18	35	24	48	27	188
근·현대	61	44	55	89	86	127	82	544
<b>합계</b>	86	90	87	153	148	208	140	912

약 1,000편에 육박하는 일본사 논문의 주제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 <표 IV-6>이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일반적인 주제 분류에 더하여 한일관계, 역사인식, 영토·영유권 등의 특수 주제를 더하였다. 대주제와 소주제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적용한 것은 주제 분포의 대체적 추세를 알기 위한 편의적 조치일 뿐이다. 대주제에도 주기한 바와 같이 소주제들이 일부 포함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한 논문이 불가피하게 2가지 이상의 주제에 동시에 분류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제별 분류에서 나타난 수치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 논문이 복수의 주제로 분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 IV-6>의 논문 수 합계가 <표 IV-5>의 논문 수 합계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점도 특별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표 IV-6〉 일본사 관련 논문의 연도별 주제 분포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정치(1)	10	11	11	9	18	22	14	95
경제	3	3	2	5	3	4	6	26
사회(2)	10	12	9	21	18	26	16	112
문화(3)	7	8	26	36	28	36	37	201
대외관계(4)	9	6	11	15	9	21	15	126
한일관계(5)	32	23	22	47	48	84	36	292
역사인식(6)		1	1	12	21	9	13	57
영토·영유권		2	5	4	5	12	3	31
기타(비평논문 등)		2		2		2		6
<b>합계</b>	86	90	87	153	148	216	140	979*

- (1) 군사·법 포함 (2) 종교 포함 (3) 사상 포함 (4) 대외관 포함, 한일관계 제외  
 (5) 재일동포 문제 포함, 한일 비교 포함 (6) 교과서 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종군 위안부 문제 포함

<표 IV-6>이 보여주는 일본사 논문의 주제별 분포의 주된 특징은 <표 IV-5>에서와 같이 다른 주제에 비해 한일관계 관련 논문의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이다. 또한 경제 분야 논문수가 현저하게 적은 것을 제외하면 비교적 고른 주제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의 일본사 연구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하겠다. 일본사 연구자 수의 증가가 다루는 주제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시대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주제의 발굴이 일본사학계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IV-4>와 <표 IV-6>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한일관계를 다룬 논문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점이다. <표 IV-6>의 연도별 발표 논문의 주제별 분포에서 한일관계를 다룬 논문이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주로 한·일간의 문제와 관련된 연구라 할 수 있는 역사인식이나 영토·영유권 관련 논문 수를 더하면 그 비중은 훨씬 커지게 된다.

### 2.3. 일본사 관련 단행본 출간의 현황

<표 IV-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05년 이후 매년 대략 30권 내외의 저서가 발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서 수의 산출에 있어서 번역이 제외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저서는 저자 수에 따라 개인의 단독 저서와 공동 저서로 나눌 수 있고, 저서의 성격에 따라 전문 연구서와 개설적 성격의 저서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표 IV-7>은 저서의 시대별, 연도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연도별 증감은 비교적 적은 편이고 시대별 분포는 근현대를 다룬 저서의 수가 전체 저서 수의 절반을 상회하는 가운데, 고대와 근세를 다룬 저서 수가 20권 내외로 비슷하고, 중세를 다룬 저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이미 살펴본 대로, 2008년을 기점으로 논문 수가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저서의 상당수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개설적 성격의 저서인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한국의 일본사 연구가 다른 인문학 분야 연구와 마찬가지로 주로 논문 발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도 자주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논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의 연구업적 평가 경향과 맞물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표 IV-7> 저서의 시대별 분포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통사	5	2	2	12	8	4	5	38
고대	5		2	4	1	5	3	20
중세								
근세	5	1	5		1	3	2	17
근현대	13	10	9	9	8	19	10	78
합계	28	13	18	25	18	31	20	153

저서의 주제별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 <표 IV-8>인데, 논문의 주제 분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류의 기준은 편의상 대주제와 소주제를 병용하여 사용하였다. 이 표는 한일관계를 다룬 저서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을 제외한 다른 주제들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어서 다양한 주제의 저서가 출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서에는 개인 단독 저서 뿐 아니라 공동연구의 결과물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별히 2006년 동북아역사재단의 출범 이후 동 재단의 지원을 받은 공동연구가 저서로 출간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들 저서의 다수는 역사교과서, 역사인식, 전후처리, 영토문제 등의 주제를 다룬 것이었다. 위의 공동연구를 학회가 수주하여 주도한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그러한 경우 연구의 결과물을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 먼저 발표하고 나중에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수행 패턴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연구의 성과물이 학술지의 기획 특집 논문으로 먼저 게재되기도 하였다.

〈표 IV-8〉 저서의 주제별 분포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개설	3	3	1	8	5	4	4	28
정치(1)	3	3	3	5	4	4	2	24
경제	1		1					2
사회(2)	1	2	3		1			7
문화(3)	12	1	1		1	1	2	18
대외관계(4)	1		2	1	2	1	3	10
한일관계(5)	5	2	7	4	3	15	7	43
역사인식(6)	1	2		6	2	3	1	15
영토				1			1	2
기타	1					3		4
합계	28	13	18	25	18	31	20	153

- (1) 군사·법 포함 (2) 종교 포함 (3) 사상 포함 (4) 대외관 포함, 한일관계 제외  
 (5) 재일동포 문제 포함, 한일 비교 포함 (6) 교과서 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종군 위안부 문제 포함

저서의 발간에서 일본사의 대중적 보급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일본사 개설서 및 대중 교양서의 간행의 확대이다. 개설서의 경우 대학에서 일본사 수업의 교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비교적 최근까지 대학에서 주로 사용된 일본사 개설서는 일본이나 미국에서 간행된 개설서의 번역본이었다. 한국의 저자들이 쓴 개설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개설서에 대한 학계 내의 바람이 적지 않았다. 일본사학회가 공동 작업을 통해 내놓은 『아틀라스 일본사』(사계절, 2011)는 이러한 학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개설서라 할 수 있겠다. 한일관계사의 개설서는 일본사 개설서에 비해 형편이 나은 편이지만, 이 기간 동안 『한일관계 2천년』(경인문화사, 2006), 『한일교류의 역사』(혜안, 2007), 『마주 보는 한일사』 2권(사계절, 2006) 등이 잇따라 출간되었다.

저서의 발간과 관련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이 번역서의 출간이다. 저서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번역된 것은 제외하였지만, 일본사 관련 주요 사료의 번역 및 사료집의 간행에 대해 약간 언급해 두고자 한다. 고대사의 대표적 사료의 하나인 『속일본기』 전2권(지식을만드는지식(지만지), 2009-11)

과 증세사의 『신황정통기』(소명출판, 2008), 근대사의 『특명전권대사미구회람실기』 전5권(소명출판, 2011)가 잇따라 번역·출간되었다. 상세한 역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관련 연구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대한 사료집의 간행도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일관계사료집성』 32권(경인문화사, 2004)과 『일본 고증세 문헌 속의 한일관계사료집성』(혜안, 2005)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사료의 번역과 사료집의 간행은 일본사 연구의 토대를 든든하게 구축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2.4. 공동연구의 확대와 일본사 연구의 심화

일본사 연구의 경향 중 2000년대에 들어와서 가장 드러난 특징 중의 하나가 공동연구의 확대라 할 수 있다. 연구자의 수가 증가하여 공동 관심사를 지닌 연구자가 증가한 것과 연구지원 기관의 공동연구 지원의 확대가 결합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연구의 증대는 개인 연구로 충족할 수 없는 심층적이고 다면적인 연구를 가능케 하여 일본사 연구의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공동연구는 일본사 연구자 사이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역사 분야나 다른 학문 분야의 연구자 사이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사학회나 한일관계사학회 등이 학회 설립 초창기부터 특별 주제 하에 자신의 학술대회나 워크숍을 개최해 왔는데, 본격적인 공동연구와는 거리가 있었지만, 특정 주제나 측면을 여러 시대의 전공자가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공동연구의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학술행사에서 왕권, 도시, 전쟁, 대외관계 등과 같은 역사학의 기본 주제들이 다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주제의 선택이 다양해져서 여가와 오락, 여행, 이주와 이민, 재해 등과 같이 새롭게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한 주제들이 다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학술행사의 발표가 논문으로 정리되어 학회지에 발표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학술행사는 연구 내용의 다양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본사 연구자가 매년 개최되는 전국역사학대회나 동양사학회 동계연구토론회 등에서 공동주제발표자의 일원으로서 참가하는 것도 거의 정례화되었다. 이러한 참여는 일본사의 다양한 측면을 다른 연구자들에게 소개할 기회를 제공하고 일본사 연구자에게도 일본사의 양상을 다른 역사의 양상과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위의 두 대회뿐 아니라 다양한 학술대회에서 일본사 분야의 발표는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연구재단이나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통해서 한일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 일본 정치 지도자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역사인식, 전몰자 추모 등의 주제를 다루는 학술대회가 최근 자주 개최되고 있는데, 일본사 연구자가 이러한 학술대회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동연구의 확대는 학술지의 기획특집 논문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사 관련 학술지는 주로 개별 논문의 모음집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 기획특집 논문이 실리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학회 주도의 학술대회나 학회나 회원이 수주한 공동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주목할 만한 기획특집의 대표적



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일본역사연구』: 역사교과서 문제(27집, 2008. 6), 이토 히로부미와 조선침략(32집, 2010. 12)

『한일관계사연구』: 『해동제국기』(27집, 2007) 등 주요 사료에 대한 종합적 검토, 경계인식(39집, 2011), 역사교과서 문제(40집, 2011)

## 2.5. 시대별 연구의 특징과 주제별 특징

위에서 제시된 <표 IV-4> 및 <표 IV-6>에서 일본사 연구의 시대별 주제별 분포를 살펴본 바 있다. 한일관계사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은 한일관계의 중요성과 사회적 수요에 비추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논문 수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05년에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6권과 『한일관계사연구논집』 10권(경인문화사)이 간행되어 100여 편이 넘는 한일관계사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이 논문들을 포함한다면 한일관계사의 비중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근현대사 분야는 논문이나 저서에 있어서나 전체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서 대략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사의 관점에서 행해지는 연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19-20세기의 한일관계 및 식민지시기 관련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근세사 분야는 한일관계사 분야인 임진왜란, 조선통신사, 왜관 등 조선후기의 한일관계사 관련 연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고대사 분야는 1990년대 중반까지 근세사 분야를 능가하였는데 지금은 과거에 비해 비중이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구의 주제도 고대 한일관계의 최대 쟁점인 ‘임나일본부’ 문제에서 보다 확대된 일본의 고대국가와 한반도의 관계에 관련된 주제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중세사 분야는 여전히 연구자 수가 부족하여 연구의 양이 제일 적은 편이다. 비록 소수의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다루는 주제가 공통성을 띠고 있어서 무가정권의 지배와 왜구 문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연구수준도 높은 편이라 주목할 만한 연구를 산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역사학회가 발간하는 『역사학보』의 “한국 역사학계의 회고와 전망”에서 매2년마다 전근대와 근현대대로 나누어 2편의 비평논문이 간행되고 있어서 국내의 일본사 연구의 동향 파악이 가능하다. 1985년에 일본사 분야가 최초로 설정된 이후 약 5년 주기로 일본사 연구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1997년에 1994-1996년 3년간의 연구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시대구분 없이 전체를 다루는 작업이었다. 1998년에 1997년 1년간의 연구를 시대구분 없이 검토한 바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2000년부터 매 2년마다 전근대와 근대로 나누어 일본사 연구를 검토하기로 정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평가들이 다음과 같은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즉, 연구자의 수가 증대되고 연구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연구의 대상과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이 자주 언급되었다. 물론 역사학의 전통적인 분야라 할 수 있는 정치사, 제도사, 사상사, 대외관계사 관련 논문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분야의 연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들 분야에 대한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회고와 전망’에 미루고 최근의 주목할 만한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하겠다.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결코 아니며 제한된 지면에 따른 집필자의 판단에 따른 것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 2.6. 주목할 만한 새로운 연구경향

위에서 언급한 일본사 연구의 반적 범주에 속하거나 아니면 속하지 않거나 지난 7년간의 연구 중에서 주목할 만한 새로운 연구 경향의 대표적인 예를 소개하려고 한다. 아래에 소개하는 연구들은 그 다루는 주제에 있어서 새롭고 연구의 새로운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선택된 것으로 아래의 연구들이 기존의 범주에 속하는 연구에 비해서 반드시 연구 수준이 높거나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다.

### 1) 여행

“에도(江戸)시대의 여행환경: 이세(伊勢)참공과 관련하여” 『일본역사연구』 23(2006) 이계황

“에도시대 상층농민의 여가와 여행” 『역사학보』 189(2006) 박진한

“일본의 한국병합을 즈음한 ‘일본관광단’과 그 성격” 『동양학』 37(2005) 박양신

### 2) 표착·표류

“『朝鮮物語』에 나타난 표류민의 越境과 송환” 『일어일문학』 41(2009) 정하미

“해남 대문사 승려의 일본 표착과 체험(1817~1818)” 『한일관계사연구』 32(2009) 정성일

### 3) 이동·이민

“근대 일본의 국내식민과 해외이민” 『동양사학연구』 103(2008) 임성모

### 4) 정보의 수집과 유통·선전전 등

“정보·통신과 임진왜란” 『한일관계사연구』 22(2005) 김문자

“平賀源内の 초빙과 秋田藩의 동광산 개발: 근세 일본의 지식과 기술의 전파의 일 사례의 관점에서” 『역사학보』 192(2006) 윤병남

“근세 초슈(長州)·사즈마(薩摩)의 朝鮮語通詞와 조선정보수집“ 『동양사학연구』 109(2009) 허지은

“근세 쓰시마 조선어통사의 정보수집 경로와 내용“ 『한일관계사연구』 32(2009) 허지은

“근세 쓰시마의 바쿠후로의 정보보고와 유통“ 『한일관계사연구』 37(2010) 허지은

“조선 후기 倭館의 정보수집에 관한 연구: 『分類紀事大綱 25』 「風說之事」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29(2008) 김강일

“조선 후기 東萊府와 倭館의 의사소통: 兩譯 관련 「實務文書」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27(2007) 이훈

“일본의 대소전파전과 조선의 라디오” 『일본연구논총』 26(2007) 박순애

“태평양전쟁기 일본의 대외 선전: 대외 선전 잡지와 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24(2006) 김영숙

“태평양전쟁기 일본 지도층의 인종전쟁에 대한 공포가 전쟁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일본역사연구』 28(2008) 장희식

### 5) 출판 및 음악·만화·영화 등의 미디어

“일본 근세초/중기의 출판업과 출판 통제령, 동아시아 전통 사회의 매체와 지식정보”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이계황

“江戸時代の貸本屋について” 『일본학보』 67(2006) 이윤석

“중일전쟁 전후 일본의 음반검열에 관한 연구” 『일본문화학보』 43(2009) 이지선

“일제의 영화통제정책과 만주영화협회: 순회영사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43(2008) 이준식

“1930년대 일본영화 속의 여성담론 『新しき土』와 천황제 내셔널리즘의 대중화” 『일본문화학보』 37(2008)

## 신하경

“국가, 전쟁 그리고 ‘일본영화’: 진주만 공습1주년 기념영화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25(2007) 강태웅

『일본, 만화로 제국을 그리다: 조선병탄과 시선의 정치』 (일조각, 2006) 한상일 · 한 정선

“한일합병과 시선의 정치학: 근대일본제국의 시각문화와 만화매체” 『동양사학연구』 93(2005) 한정선

## 6) 여성 · 여성사

“聖스러운과 女王: 善德과 皇極(齊明)의 즉위” 『일본역사연구』 32(2010) 김선민

“한일 고대의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 『일본연구』 11(2009) 김영

“고대 律令法에 기술된 離婚規定과 平安朝의 이혼: 『今昔物語集』의 서민실태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42(2009) 감영희

“일본 중세의 여성과 성: 규제와 의식을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14(2004) 김영

“일본 중세 성매매에 대한 고찰” 『동북아문화연구』 10(2006) 김영

“일본 중세 일기문학을 통해 본 여성상: 阿仏尼와 二条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42(2009) 김분숙

“강호시대 처 재산권에 대한 검토: 이혼시 재산의 귀속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60(2006) 장미숙

“근대 초기 일본의 ‘여성’ 형성에 관한 연구” 『일본어문학』 38(2008) 이은주

“‘여성’을 말하는 의학(醫學) 학지(學知: )제국 일본과 산과학(産科學)” 『일본역사연구』 28(2008) 가나즈 히데미

“다이쇼기 일본 여성운동의 조직화와 노선갈등: 『女性同盟』을 통해 보는 <新婦人協會>(1919-1922)의 역사와 의의” 『동양사학연구』 116(2011) 이은경

“전쟁기(戰間期) 일본의 산파와 출산정치” 『일본역사연구』 34(2011) 이수진

“총력전체제기 일본의 여성노동정책과 전신노무관리에 관한 연구” 『일본역사연구』 34(2011) 김경옥

“전후 일본 여성의 대외인식: 일본 YMCA의 『女性新聞』(1946-1950) 기사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31(2010) 이은경

## 7) 여가 · 오락

“근대 일본에서의 노동과 오락의 문제: 明治末期에서 大正期까지” 『일본역사연구』 33(2011) 김영미

## 8) (일상)생활사

“17세기 후반 하급무사의 일상생활과 시정(時政) 인식: 아사히 분자에몬(朝日文左衛門)의 『앵무롱중기(鸚鵡籠中記)』(1691-1717)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34(2011)

박진한

## 9) 도시사

“일본 근세의 도시사회와 도시지배” 『동양사학연구』 102(2008) 박진한

“일본 근세 도시사 연구의 전개와 과제” 『동방학지』 139(2007) 박진한

“근세 후기 관동지역 소도시의 사회집단에 관하여: 무사시노 쿠니 코시가야(武藏國越谷)의 본백성(本百姓)을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27(2008) 최은석

## 10) 재해

“豊臣政權 末期의 자연재해와 정치적 상황: 文祿 5년(1596)의 지진발생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99(2007)

김문자

## 11) 번역 · 개념사 관련 연구

## 12) 천황 · 천황제 관련 연구

## 13) 만주 · 만주국 관련 연구

- 14) 식민지 시기 및 전후 연구의 세분화  
강제동원, 위안부, 특공대, 원폭피해, 전쟁과 기억, 전후보상, 추도시설  
재일조선인, 전후 귀환 등
- 15) 탈민족주의적 연구
- 16) 동아시아론: 동아시아 인식, 동아시아공동체 관련 연구  
한일간의 공동연구 기회 확대

### 3. 일본사 연구의 전망과 과제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지난 30년 간 일본사 연구는 짧은 기간 동안 연구자 수나 연구업적 수에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일본사 연구자들의 80% 이상이 일본 또는 구미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였고 비교적 균질적이고 높은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최근에는 국제교류도 비교적 활발하여 연구 주제, 방향, 방법론, 연구 수준 등에 있어서 일본이나 구미의 영향 하에 그에 비견할 만한 연구결과를 산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한국의 연구 수준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일본사 연구자는 한국의 일본사 연구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일본사 연구의 특징과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역사학보』의 ‘회고와 전망’ 일본사 부문 집필자들에게 의해 자주 언급된 바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편이고 그 방향성에 대한 학계의 공감대가 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의 일본사 연구가 일본에서의 연구나 구미에서의 연구와 비교하여 어떻게 차별성과 방향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자 개인뿐 아니라 학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일본사 연구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개별 연구자가 어떻게 자신의 연구 주제 및 영역을 확장해 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다수의 일본사 연구자들은 박사학위취득 후 귀국하여 일정 기간 박사과정 중 수행한 연구주제나 또는 그것에서 확장된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후속 과제에서 학위과정에서 다룬 주제와 같은 심도를 지닌 새로운 주제를 개발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를 낸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내 학계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일본이나 구미 학계의 연구에도 의미를 지닌 연구 주제를 개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일본사 연구자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주제나 관심사를 가진 국내의 연구자를 발견하는 일은 아직도 쉽지 않다. 비약적인 국내 연구 인프라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관련 학술지, 저서, 자료의 부족 등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가 만족스러운 정도로 해결된 것도 아니다. 일본이 지리적으로 가깝게 위치하여 시간에 있어서나 비용에 있어서 현지조사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이 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뿌리를 내린 연구자가 박사학위 논문 이상의 의미와 심도를 지닌 새로운 연구 주제를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는 개인의 과제를 넘어서 일본사학계 전체가 고민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주제가 적어도 일련의 논문을 통해서 또는 저서의 발간을 통해서 체계적인 성과물로 결실을 맺는 연구자를 다수 배출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주제의 개발이 개별 연구자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보다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주제에 대한 성과는 공동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난 10년 간 공동 연구가 비약적인 증가를 보인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일본사의 주제는 시대 내에서 또는 시대를 횡단해서 연구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접 분야와의 협력을 통한 학제적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목할 만한 성과를 올린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체계적인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공동연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공동연구에 있어서 또 하나의 당면한 과제는 국제적 공동연구의 확대라 할 수 있다. 주로 일본학계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연구의 범위를 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본을 넘어서 미국, 중국, 동남아, 유럽 등의 국가나 지역과의 국제적 연구협력 및 공동연구를 점차적으로 증대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논문을 발표하고 학회지를 간행하는 일을 넘어서 위에서 언급한 국제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학회 기능의 활성화가 요청되고 있다.

문학 등 다른 인문학 분야와의 협력뿐 아니라 사회과학 분야와의 협력도 요구되고 있다. 여전히 제한된 일본사 연구자의 수를 고려할 때 국내의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과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문학이나 철학 분야뿐 아니라 정치학이나 사회학 전공자들이 역사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다루는 주제나 자료의 공통성이 높은 경우가 많아서 진정한 의미의 학제적 연구를 위해 이들 타 분야 전공자들과의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동연구야말로 전문화와 세분화의 경향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일본에서의 일본사 연구와 차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한국연구재단이나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지원이 일본사 연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관의 지원확대는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연구의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연구를 활성화한 측면이 존재한다. 일본사 연구자들이 이들 기관의 지원 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특별히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 등의 주제에서 국가·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측면이 존재한다. 아울러 이러한 지원이 연구의 양적 팽창에 기여한 바도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연구 방향 모색을 담보할 수 있는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개별 연구자들에게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선민, 「한국의 일본사 연구 현황과 과제」 진창수 편, 『한국 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한울, 2007)  
 임성모, 「일본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광복60년 한국역사학의 성과와 과제』 (역사학회, 2005)  
 김보한, 「일본전 근대사 연구의 과제와 전망」 『역사학보』 191집(2006.9)  
 박진우, 「2004-2005년의 일본근현대사 연구의 동향: 일본근현대사 연구의 새로운 동향」 『역사학보』 191집(2006.9)  
 박진한, 「일본 전근대사 연구의 과제와 전망」 『역사학보』 199집(2008.9)  
 원지연, 「일본근현대사 연구의 동향」 『역사학보』 199집(2008.9)  
 이재석, 「일본 전근대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역사학보』 207집(2010.9)

- 최석완, 「일본근현대사 연구의 동향」 『역사학보』 207집(2010.9)
- 이희복, 「역사학의 비평정신을 위하여: 일본전근대사의 회고와 전망」 『역사학보』 215집(2012.9)
- 박 훈, 「일본근현대사 연구동향」 『역사학보』 215집(2012.9)
- 일본사학회, 『아틀라스 일본사』 (사계절, 2011)
-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 2천년: 보이는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 (경인문화사, 2006)
- 한국역사교과서연구회·일본역사교육연구회, 『한일공동역사교재 한일 교류의 역사(선사부터 현대까지)』 (혜안, 2007)
- 전국역사교사모임·역사교육자협의회(일본), 『마주 보는 한일사: 화해와 공존을 위한 첫걸음1, 2』 (사계절, 2006)
- 스가노노 마미치, 이근우 역, 『속일본기』 전5권 (지식을만드는지식(지만지), 2009-12)
- 기타바타케 치카후사, 남기학 역, 『신황정통기』 (소명출판, 2008)
- 구메 구니타케, 정애영·방광석·박삼현·서민교·정선태 역, 『특명전권대사미구회람실기』 전5권(소명출판, 2011)
- 손승철 편, 『한일관계사료집성』 32권 (경인문화사, 2004)
- 김기섭 외, 『일본 고증세 문헌 속의 한일관계사료집성』 (혜안, 2005)
-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편,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전6권 (2005)
-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 『한일관계사연구논집』 전21권 (경인문화사)

## 제5장 한국에서 일본고전문학의 연구동향

최 관 (고려대학교)

### 1. 개관

상대국 이해의 본질은 상대국 고전에 대한 이해에 있다. 상대국 고전에 대한 이해 정도가 그 나라의 상대국 이해 수준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에서 일본 고전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한다는 것은 한국에서 일본 이해의 수준이 어느 정도 깊이로 진행되어 왔는가를 알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처럼, 고전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는 언어 이외에 해당 시대의 고전어를 습득해야 하고, 1차 자료인 고문헌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일본고전연구는 다른 학문 분야보다 실증적이고 치밀한 연구방법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 연구자라고 하더라도 일본인 연구자처럼 고전문법 이해나 변체가나(変体仮名)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즉 고전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과정 이수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는 일본에 유학하여 일본 특유의 방식으로 정립되어온 고전자료를 정리, 해독, 분석하는 습득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처럼 고전연구는 근현대문학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호도가 낮을 뿐더러 일반적으로 난해하다는 인식이 퍼져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일본고전연구는 근현대문학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자 수가 적다. 그럼 이러한 일본고전연구의 특징을 염두에 두고서 한국에서 일본고전연구의 대략적인 흐름을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 최초의 일본연구 학회지인 『일본학보』 제1집(1973년)에서부터 「靜과 動-芭蕉 俳句의 哲學的 解明」이라는 논문이 실려있으므로 한국에서 일본고전연구는 그 뿌리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점차 일본과의 교류가 긴밀해지는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걸쳐 일본에 유학한 연구자(일본유학 제1세대)들 중에 소수의 고전연구자가 있었고, 이들이 귀국하고 나서 한국에서 일본고전연구가 본격적으로 태동하게 된다. 일본에서 일본고전문학은 시대별로 상대(上代, 奈良시대문학), 중고(中古, 平安시대문학), 중세(中世, 鎌倉·室町시대문학), 근세(近世, 江戸시대문학) 등으로 명확히 구별되어 있고<sup>59)</sup>, 산문, 운문, 극문학 등의 구별이 엄격한 풍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본에서 행해지는 연구를 몸에 익힌 일본유학 세대가 중심을 이루면서 한국에서 일본고전연구는 일본에서 행해지는 고전문학 연구방식이 그대로 유입, 적용되게 되었다. 특정한 시대 안에서조차 본인이 전공하는 작품, 작가, 혹은 장르에만 모든 연구관심을 집중하였고 그 외는 비전문가로서 관계없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당연시하였다. 내용상으로도 일본의 연구방법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매우 실증주의적인 연구태도로 한정된 특수한 분야

59) 필자는 일본문학의 시대구분 중에서 상대(上代), 중고(中古)라는 용어보다는, 상대문학은 고대전기문학 혹은 나라(奈良)시대문학, 중고문학은 고대후기문학 혹은 헤이안(平安)시대문학으로 하는 편이 보편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고에서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상대문학, 중고문학으로 한다.

를 깊이 천착(穿鑿)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서지학적이고 주석학적인 연구가 중시되었으며, 이러한 문헌학적인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한 본문 해석과 관련 작자나 관련 작품과의 관계 연구가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이 정착되는 가운데, 1980년대말부터 1990년대에는 일본유학생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들 중에는 일본유학 제1세대로부터 배웠거나 유학을 계기로 전공을 바꾸거나 하여 고전연구를 지망하는 자들도 늘어났다. 이른바 일본유학 제2세대 연구자들의 확충으로 인하여 고전연구의 전 분야에 고전연구자층이 형성되기에 이른다. 2012년 현재는 이미 정년을 했거나 정년을 눈앞에 둔 일본유학 제1세대와 제2세대 연구자, 그리고 그들의 제자 그룹들이 혼재한 상태에 있다. 이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혹은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하였고, 고전연구의 양적인 팽창과 발전을 이루어왔다. 아직도 고전의 특정분야에는 연구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경우도 있지만, 각 시대별로 보면 대략 2,30명씩, 전체적으로는 약 100명에 가까운 고전연구자가 활약하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제2세대 연구자들도 일본 국문학에서의 연구방법론을 답습하는 경향 속에 있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본과 다른 연구 환경, 즉 고전연구의 1차 자료가 거의 없고 연구서적이 부족한 열악한 상황에서 일본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연구를 지속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일본고전연구를 어떻게 해나갈까라는 문제의식을 안은 채로 본인의 소장 도서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한국형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일본고전연구방법론이 창출된 것은 아니지만, 텍스트 해석을 중심에 둔 연구 혹은 역사적으로 한국과 연관이 있는 분야에 대한 비교연구를 시도하는 등, 한국적인 특색을 갖는 연구가 일찍부터 자리잡게 되었다.

현재는 가장 가까운 인접국으로 왕래가 자유롭고 인터넷 등을 통해 학술정보와 자료 입수가 용이해지면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전연구 환경이 개선되었다. 일본고전연구자와의 교류도 더욱 긴밀해져 각종 강연회나 심포지엄이 수시로 열리고 있고, 2011년에는 일본근세문화회 추계학술대회가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되는 등 일본의 권위있는 학회가 정기학술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경우가 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일본고전연구의 최신 경향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일본고전연구 위상이 제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시대, 동아시아 중심시대라는 새로운 시대상황의 도래는 고전연구 분야에도 변화를 초래하였다. 연구경향에 있어서도 종래의 일본형 연구방법론에 입각한 연구 이외에도, 한일양국의 비교는 물론이고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일본고전 연구를 시도하는 등, 한국에서 일본고전연구가 새로운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21세기에 들어서서 제2세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일본고전을 한국사회에 번역 소개하는 작업이 나타났다. 특히 최근 수년 동안에 그 동안 등한시되었던 본격적인 고전 번역 출판도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5. 고전번역의 현황에서 상술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본고전연구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 몇 주요 대학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들의 낮은 선호도에 따라 고전강좌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고전연구자는 본인의 전공과 동떨어진 강의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차세대 고전연구자마저 급감하는 상황에서, 향후 고전연구의 미래를 위한 일대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 2. 일본고전연구의 현황

현재 한국에서 일본관련 학회는 30여개가 있는데, 그 중 일본의 정치, 경제, 역사, 사상 등을 전문으로 하는 몇 학회를 제외하고는, 일어일문학 연구자가 중심이 되어있는 한국 대학의 현실을 반영하듯, 주로 일본어문학 관련 학회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들 학회를 중심으로 고전연구자가 활동하여 왔다. 2012년 4월 3일자로 게시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는 일본어문학 분야에서 15개가 있고, 또 등재후보지도 5개가 있으므로, 총 20개의 일본어문학 관련 학술지에 주로 고전연구 논문을 발표해왔다.<sup>60)</sup>

이와 같이 많은 학술지에 고전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데, 먼저 고전연구의 전체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15개 등재지에 실린 고전논문을 2000년에서 2011년까지 연도순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고전, 근현대문학, 어학 및 교육, 기타(어문학을 제외한 일본학)로 크게 4분류하였고, 그 중에서 고전문학만을 총량과 함께 제시한 것이다.

<표 V-1> 고전논문 현황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고전문학	93	92	127	147	156	138
총계	466	554	664	806	918	1010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고전문학	128	111	139	136	132	132
총계	951	1021	1089	1090	1138	1239

\*상기 논문편수는 필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분류 기준에 따라 논문편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표 V-1>은 일본어문학분야를 주로 하는 15개 등재지에 한정된 수치이지만, 전체적으로 논문양이 얼마나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2000년 466편에서 2005년에는 1010편으로 두 배를 넘어섰고, 현재까지 매년 1000편 이상의 논문이 양산되고 있다. 여기에 등재후보지, 비교문학이나 문화 관련 학술지까지 확대하여 고려한다면 매년 엄청난 양의 논문이 한국에서 양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관련 논문의 양산 경향은 고전분야에서도 나타난다. 고전분야도 2000년 93편에서 2004년 156편으로 연구논문수가 급속도로 팽창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대략 130편을 전후한 논문이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단계로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 동안에 총 1531편의 고전논문이 양산되었는데, 이는 총논문 10946편의 14%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2005년에서 2011년까지 7년 동안을 한정해서 보면, 고전분야가 총 916편으로 매년 평균 약 131편이며,

60) 등재지 현황: 일본학보(한국일본학회), 일어일문학연구(한국일어일문학회), 일본어문학(한국일본어문학회), 일본문화학보(한국일본문화학회), 일본어문학(일본어문학회), 일본어교육(한국일본어교육학회), 일어일문학(대한일어일문학회), 일본문화연구(동아시아일본학회), 일본어학연구(한국일본어학회), 일본언어문화(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일본근대학연구(한국일본근대학회), 일본연구(고려대 일본연구센터), 일본학연구(단국대 일본연구소), 일본연구(한국외대 일본연구소), 일본연구(중앙대 일본연구소)

\* 등재후보지 현황: 일본어교육연구(한국일어교육학회), 한일어문논집(한일일어일문학회), 일본학(동국대 일본학연구소), 한립일본학(한립대 일본학연구소), 비교일본학(한양대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전체 7538편의 약 12%를 점하고 있다.

그럼 좀더 범위를 고전문학 분야로 좁혀서 실질적으로 고전연구자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8개 학회 학술지를 분석해보기로 하자. 8개 학술지를 등재지가 된 순서대로 명기하면, 일본학보(한국일본학회), 일본어문학(한국일본어문학회), 일어일문학연구(한국일어일문학회), 일본문화학보(한국일본문화학회), 일본어문학(일본어문학회), 일본문화연구(동아시아일본학회), 일어일문학(대한일어일문학회), 일본언어문화(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이다. 이밖에 대학 연구소의 학술지에도 고전논문이 실리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V-2〉 8개 학술지 고전논문 현황

학술지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일본학보	19	16	16	9	10	10	13	93
일본어문학	6	14	15	13	10	10	11	79
일어일문학연구	26	21	16	32	41	23	23	182
일본문화학보	16	14	11	15	12	11	8	87
일본어문학	15	9	11	12	6	6	16	75
일본문화연구	2	8	5	10	9	7	8	49
일어일문학	11	3	4	7	7	3	2	37
일본언어문화	4	9	7	3	6	8	10	47
합계	99	94	85	101	101	78	91	649

각 학회지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어일문학연구』에 가장 많은 고전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그 뒤를 이어서 『일본학보』와 『일본문화학보』 순으로 논문이 게재되었다. 매년 논문수도 78편에서 101편 사이로, 적지 않은 논문이 일정하게 생산되는 궤도에 올라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시대별, 연구분야별로 분류한 것이 <표 V-3>이다.

〈표 V-3〉 8개 학술지의 시대별, 연구분야별 분류

	상대	중고	중세	근세	계	비고
논문수	90	258	100	200	649	통시대 1 포함
운문	38	30	22	52	142	
산문	47	218	52	111	428	
극문학	0	1	20	19	40	
기타	5	9	6	18	38	

시대별 구분을 중시하는 일본고전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대별로 8개 학술지의 논문양을 분류해 보면, 중고(平安시대문학)가 258편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근세가 200편이고, 중세 100편, 상대 90편의 순으로 나타나있다. 중고가 가장 많은 이유는 일본고전의 백미로 일컬어지는 『겐지이야기』(源氏

物語』를 비롯하여 각종 모노가타리(物語)와 일기, 수필 등에 뛰어난 작품이 대거 나타난 시대였기 때문에 보인다. 그 다음의 근세에는 이하라 사이카쿠(井原西鶴)나 우에다 아키나리(上田秋成) 등의 각종 근세소설과 마쓰오 바쇼(松尾芭蕉)의 하이카이(俳諧)가 인기를 끌었고, 다양한 장르의 수많은 작품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장르별로 분류해보면, 산문 논문이 428편으로, 운문 142편이나 극문학 40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문은 상대(奈良시대문학)의 『고사기(古事記)』, 『일본서기(日本書紀)』, 중고(平安시대문학)의 『겐지이야기』와 『마쿠라노소시(枕草子)』, 중세의 『헤이케이이야기(平家物語)』나 『쓰레즈레구사(徒然草)』, 근세의 이하라 사이카쿠나 우에다 아키나리의 근세소설 등, 전시대에 걸쳐 중요작품이 있고 이에 대한 논문이 나오기 때문으로 보인다. 운문에는 상대의 『만요슈(万葉集)』, 중고의 와카(和歌), 중세의 렌가(連歌), 근세의 하이카이(俳諧)에 논문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중세의 노(能), 근세의 분라쿠(文樂)와 가부키(歌舞伎) 등의 극문학은 해당 몇 전공자들에 의존하고 있다.

이를 좀더 시대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상대 논문 총 90편 중, 산문이 47편인데 『고사기』, 『일본서기』에 관한 논문이 40편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운문도 총 38편 중에 『만요슈』가 33편이다. 중고는 총 258편 중, 산문이 218편인데, 그 중 『겐지이야기』가 99편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의 『마쿠라노소시』가 13편이다. 운문 30편 중에는 와카 관련 논문이 25편이다. 중세는 총 100편 중, 산문이 52편인데, 『헤이케이이야기』, 『쓰레즈레구사』 관련 논문이 15편이고, 그 외 수필이나 설화 관련 논문도 적지 않다. 운문 22편 중에 와카가 16편이고, 그 외 렌가 연구 등이 보인다. 극문학 20편 중에는 노(能)관련이 16편이고 그 안에 제아미(世阿弥)가 5편이다. 근세는 총 200편 중, 산문은 111편으로 그 중 우에다 아키나리 17편, 이하라 사이카쿠 13편이 있고, 이외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비교적 근세는 특정 작가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근세소설의 특성상 작가나 작품수가 많고 장르와 소재별로 매우 다양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운문 52편 중에는 하이카이 관련이 48편인데, 그 중에서도 바쇼(芭蕉) 관련 논문이 33편을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극문학 19편 중에는, 분라쿠가 11편, 가부키가 7편인데, 지카마쓰 문자에몬(近松門左衛門) 관련 논문이 9편이다.

### 3. 연구경향 및 특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5년 이후 7년간의 고전연구 흐름은, 그 전까지 논문양의 기하급수적 팽창 시기를 지나 130여편의 논문을 일정하게 양산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모색을 해온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양적 팽창 후의 질적 모색기였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모색의 일환으로 2005년도에는 한국에서 인문학분야의 일본연구를 대표하는 양대 학회인 한국일본학회와 한국일어일문학회에서 그 동안의 일본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기획테마 특집 논문을 게재하였는데, 그 안에는 고전문학분야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일본학회에서는 「한국에서 기기(記紀) 신화연구의 성과와 과제조명」, 「한국에서 만요슈(万葉集) 연구 성과와 과제 조명」, 「한국에서 『源氏物語』 연구성과와 과제조명」, 「한국에서 일본중세 극문학연구의 성과와 전망」, 「한국에서의 하이쿠(俳句)문학 연구성과와 과제」, 「한국

에 있어서 일본근세소설의 성과와 과제」, 「일본고전문학연구의 현황과 과제」 등이 나왔다. 한국일어 일문학회에서는 「한국에 있어서 한일신화 비교연구의 현황과 전망」, 「한국에서의 일본 상대문학연구에 관하여」, 「한국에서의 일본 헤이안시대문학의 연구현황과 전망」, 「한국에서의 일본중세문학 연구의 현황 및 그 비판적 점검」, 「한국에서의 일본근세문학연구」 등이 나왔다. 이러한 시도는 21 세기에 들어서서 한국에서 일본문학연구 전반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2011년까지 이러한 전체적인 기획특집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으로는 한일양국의 긴 관계사가 낳은 특수성은 문학 연구의 영역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고, 초창기부터 일본고전문학연구자의 관심이 많은 분야로 주목을 받아왔다. 한일신화나 설화, 그리고 임진왜란, 조선통신사 관련 비교논문 등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논문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해왔다. 매년 한일 관계의 비교논문이 나타나는 가운데, 중국까지 시야에 넣은 동아시아적 관점의 논문도 보이고 있다. 다음은 그 일례로 연도별로 논문제목만을 명기하였다.

- \*2005년: 「한일양국의 궁중문학에 나타난 여성상연구」, 「한일전통시가의 리듬에 대한 고찰」, 「한일 국민문학의 가공문화와 유통: 춘향전과 겐지이야기를 중심으로」,
- \*2006년: 「『朝鮮物語』에 그려진 임진왜란」, 「중국 호랑이설화의 한일 수용양상 비교연구」, 「근현대일본에서 임진왜란의 문학화」
- \*2007년: 「한일고전 여성소설 비교연구 가능성에 대하여」, 「동아시아에서 하이쿠 전개양상과 번역」, 「춘향전과 후기 샤레본의 희극구조 비교연구」
- \*2008년: 「고대 동아시아의 칠석문화연구」, 「『日藏夢記』를 둘러싼 동아시아」, 「정성공과 동아시아」, 「한일궁중문학의 본질과 미의식의 표출양상-『한중록』과 『마쿠라노소시』를 중심으로」
- \*2009년: 「신라왕자 히보코의 이주전승에 관한 연구」, 「시조와 『万葉集』의 자연관」, 「논개와 로쿠스케」
- \*2010년: 「한일 고전여류시가 비교연구」, 「한일 고전 여성소설의 여성적 글쓰기 비교연구」, 「중국 유희도(乳虎圖)의 한일양국의 수용양상」
- \*2011년: 「중국에서 『万葉集』의 전파와 그 번역상황에 대해서」, 「일본에서 춘향전 수용 연구」, 「근세 초기 일본의 임진왜란 담론 형성과정」, 「『전등신화』의 전래와 동아시아」

한편 고전문학연구의 성과를 단행본으로 출판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그 동안은 몇 연구자들에 의한 일본에서 저서출판이 있었고, 국내에서는 일본문학사 관련 교양서의 일환으로 고전을 개관하는 정도의 저술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국내에서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춘 일본고전 관련 저서가 단독 혹은 공저 형태로 간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종래의 고전문학연구에 집착한 것에서, 고전문학연구를 문화연구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것까지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서명만을 예를 들면, 『일본의 요괴 문화』, 『일본고전문학비평』, 『격조와 풍류』, 『일본고전문학의 배경과 흐름』, 『겐지 모노가타리 문화론』, 『환상과 괴담』, 『일본문학 속 도쿄 에도 표상연구』 등이 있다.

또 다른 경향으로는 고전문학연구 분야에서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한국 학술대회에 초대된 일본고전문학연구자나 한국대학에 재직중인 일본인연구자가 각종 학술지에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중국이나 유럽과 같은 제3국의 일본고전문학연구자가 한국에서 발표하는 경우도 나타나는 등 점차 한국에서 일본고전문학연구도 국제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이 분야

에 대한 조사는 차후 과제로 넘기고자 한다.

#### 4. 고전연구의 과제

흔히 이야기되는 바처럼, 인문학 특히 고전의 위기, 중국의 부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일본에 대한 관심 저하, 그리고 일본 고전문학의 기피상황 속에서 한국의 일본고전문학연구자가 종래의 연구방식만을 유지한 채로 그대로 있을 수는 없게 되었다. 특히 3.11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한국에서 일본연구가 더욱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일본고전문학 연구풍토를 일신하고,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창출하는 작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고전연구자들이 새로운 변혁이 필요하다는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면서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길로 나서야 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향후 고전문학 전반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텍스트 중심의 논문 작성이다.

연구의 기본이 텍스트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와 분석에 있다고 한다면, 텍스트 자체를 철저히 파고 들어 연구자 차원에서 분석하고 재구축하여 텍스트 이해의 폭을 확장시켜갈 수 있다. 이는 연구 자료가 부족한 한국의 현실에서 원전연구나 서지학적인 연구는 일본 연구자의 성과를 활용하고, 한국 연구자는 텍스트 분석의 힘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문학연구의 기본은 문장 해석에 있으므로, 이러한 텍스트 중심의 연구는 한국에서 일본고전을 연구하는 연구자나 학생 모두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실질적으로 모든 외국문학연구의 일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연구 영역에 대한 개척이 필요하다.

일본에서 행해온 시대별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의 가장 큰 문제점이 각 시대의 틀 안에 가두어진 연구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근세문학 연구자가 본인이 전공하는 시대를 넘어 중세나 근대를 연구한다는 것은 터부에 가까울 정도이며, 논문에서 다루는 내용도 다른 시대나 다른 장르로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범주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하나의 테마를 정하여 이를 여러 시대를 통하여 통시적으로 고찰하거나 혹은 동시대의 다른 장르나 사회, 문화 등과의 공시적인 연구를 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로는 드러나지 않은 특질을 포착할 수 있다. 최근에는 비교문학적 연구의 활성화, 학제간 연구의 장려 등으로 연구풍토가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류는 시대별 실증주의적인 연구를 고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비해 한국의 연구자는 상대적으로 자유스러운 입장에 놓여있다. 그동안 일본연구방식을 답습하는 경향에 따라 한국에서도 세밀한 본인의 전공분야에 집착하는 경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언제라도 연구자 스스로가 결심한다면 기존의 시대와 장르 구분을 뛰어넘어 새로운 연구 분야나 테마를 개척할 수 길이 열려있다. 이렇게 종적으로도 횡적으로도 열린 연구는 실증주의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될 뿐만 아니라 소수의 일본고전연구자가 앞으로 취해야 할 주된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조선시대 성리학처럼 독자적이며 체계적인 세계를 구축해온 인문학 전통을 지닌 한국의 연구자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비교연구 및 동아시아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인접국으로 한일관계사가 낳은 양국의 특수한 관련양상은 문학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쳐왔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이나 조선통신사에 관한 수많은 작품이 근세에서 오늘날까지 창작되어 왔다. 그 속에는 여러 조선인이 등장하고 조선에 대한 인식이 투영되어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양국의 역사적 사건이 낳은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작품 외에도 판소리와 조루리, 선비정신과 무사도처럼 비교를 통하여 양국의 특질을 더욱 잘 알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비교문화적 비교문화적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일본인 연구자가 혹은 제3국의 연구자가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고, 한국의 일본고전연구자가 해야 할 연구라 할 수 있다. 나아가 한일양국의 비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중심시대라는 새로운 시대상황에 걸맞은 일본고전연구로 나아가야 한다. 즉 특정 테마를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보는 연구로, 특히 전근대 동아시아세계의 교류 관계를 고려하면 향후 이러한 입장의 연구는 중요시될 것이다.

넷째, 고전의 대중화 작업이 필요하다.

근자에 미국에서 일본연구 수준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근간을 이루는 일본고전이 상당수 번역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외국연구의 기본이 번역에 있음은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또한 일본이해의 본질이 고전이해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한국에서 일본고전연구가 축소화 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일차적으로 제대로 된 고전번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작품해설과 주석을 단 고전번역을 학위로 인정하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고전의 대중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적 교류를 확대해가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해야 함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항이 되었다.

이상의 네 가지는 연구자들의 공동인식과 실행의지만 있다면 언제라도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이다. 나아가 일본고전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정기적인 모임과 토론의 장이 지속적인 추진력을 갖게 할 것이다. 인문학의 위기, 고전의 위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다른 나라 혹은 다른 외국연구 분야가 취해가는 대응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지혜도 요구된다. 이와는 달리 일본의 학회와 관련을 맺어 한국의 연구자나 우수한 대학원생이 일본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술 교류 추진 혹은 제삼국의 일본연구자와의 공동연구 추진 등 국제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새로운 연구풍토 조성도 필요하다. 그러나 수많은 방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미 기득권층에 속한 연구자 스스로의 인식전환에 의해서 실행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고전 수업, 고전의 대중화도 고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을 때 가능한 것이고, 한국 상황에 맞는 고전연구방법론 창출도 철저한 자기 성찰 위에서 형성되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3.11 이후 한국에서 일본 고전연구는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연구논문의 양과 질을 따지는 태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페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고전연구가 글로벌시대, 동아시아중심시대에 걸맞은 형태로 전환될 때, 일본학계에도 자극이 되고 한국에서 일본이해의 기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5. 일본 고전의 번역 현황

주지하는 바처럼, 한일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수 천년 동안 인적 물적으로 밀접한 교류관계

를 맺어왔다. 양국이 한자를 통해 서로 지식을 공유하던 전근대에는 서로 상대국의 문헌을 통해 많은 지적 문화적 자극을 받았음은 여러 사례가 증명해주고 있다. 왕인 박사의 경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근세의 임진왜란은 한편으로는 서적전쟁으로도 일컬어질 만큼, 비록 약탈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조선의 서적이 일본에 대량으로 유입되어 근세일본문화의 성립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또한 역으로 조선통신사를 통한 일본서적의 유입도 행해졌는데, 예를 들어 1764년 조선통신사가 구입하여온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図会)』는 당시 유행하던 조선의 유사(類書) 편찬에 영향을 주는 등 서적을 통한 쌍방향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의 일제강점기에는 주로 일본어 및 일본어 번역을 통해 서구문물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광복 후 20년 만에 체결된 한일국교정상화에 의해 다시 새로운 한일교류가 재개되었다. 한국사회의 한글 전용 사용이라는 흐름 속에서 양국의 새로운 교류는, 일본어와 한글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전근대까지의 한문서적 공유와는 달리, 양국의 교류에 번역이 필요하고 중요시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88올림픽 이후 해외여행자유화 조치에 따른 여행객의 증가, 더구나 1998년 일본대중문화 개방 조치 이후 양국 간의 교류는 제반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일본에서 한류(韓流), 한국에서 일류(日流)를 낳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광복 후 미국을 비롯한 서양문화의 유입 중심에서 점차 일본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었다. 문학 분야를 보면, 2006년도부터 한국에서 일본작품의 번역 출판은 출판종수와 발행부수 양면에서 그 동안 부동의 1위였던 미국을 추월하게 되었으며 갈수록 늘어나 현재는 번역문학 출판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up>61)</sup>.

이와 같이 일본문학이 한국의 번역출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인 현 상황에서, 그 동안 연구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일본고전에 초점을 맞추어 과연 일본고전작품은 얼마나 번역되었고 그 특징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 동안 일본문학 작품 번역의 폭발적인 증가는 어디까지나 근현대문학의 범주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고전번역은 전문가에 의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며, 상대국 이해의 기저를 이룬다는 관점에서 서서 보면, 한국에서 일본 고전 번역이 갖는 의미를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동안 일본고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매우 한정된 범위에 머물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고전번역 분야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미진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일본고전이 한국어로 얼마나 번역 간행되었는지를 조사한 것이 <표 V-4>이다.

번역 현황을 파악하려는 취지에서, 번역 수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국내에서 처음 번역 간행된 작품만을 선정하였고, 부분 초역이라도 차후에 완역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였다. 산문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발췌역은 제외하였지만, 운문의 경우에는 대표 작가의 중요 작품 다수를 처음으로 번역한 경우는 인정하고 하나의 작품으로 간주하였다.

61)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6년 국내에 소개된 일본 문학작품은 509종·153만부로, 455종·123만부를 기록한 미국문학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일본문학작품이 국내 번역문학 출판물 총수에서 29%, 발행부수에서 32%를 점하게 된 것이다. 10년 전인 1996년만 하더라도 번역 출판된 종수·부수에서 미국은 물론 영국 중국 문학에도 크게 뒤졌던 일본 문학작품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적어도 10년 만에 처음 있는 현상이다. 2009년 출판통계(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의 외국도서 번역출판현황을 언어권별로 보면, 일본(4,403종), 미국(3,746종), 영국(996종), 프랑스(542종), 독일(500종), 중국(376종), 이태리(155종)순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표 V-4〉 일본고전번역 현황

	번역서명	원제, ( )는 주된 작가	번역자	간행년	출판사, 비교
1	겐지이야기	源氏物語	유정	1973	을유문화사
2	徒然草	徒然草	송숙경	1975	을유문화사,
3	일본서기	日本書紀	성은구	1987	고려원,
4	고사기(상)	古事記(上)	노성환	1987	예전사, 1990년 고사기(중) 간행
5	능의 고전 風姿花傳	風姿花傳	김학현	1991	열화당
6	風姿花傳, 花鏡, 申樂談儀	風姿花傳, 花鏡, 申樂談儀	김효자	1993	시사일본어사
7	남방록 고금집가명서 외	南方錄, 古今集假名序等	박전열	1993	시사일본어사
8	마츠오 바쇼오의 하이쿠	(松尾芭蕉)	유옥희	1998	민음사, 발체역
9	호색일대남	好色一代男	손정섭	1998	현실과 미래사
10	오쿠로 가는 작은 길	奥の細道	김정례	1998	바다출판사
11	주신구라	假名手本忠臣蔵	최관	2001	민음사, 2007년 개역, 47인의 사무라이(고려대출판부)
12	이세모노가타리	伊勢物語	구정호	2003	제이앤씨, 2005년 개역, 아무도 모를 내 다니던 사랑길
13	도연초, 호조키	徒然草, 方丈記	정장식	2004	을유문화사
14	마쿠라노소시	枕草子	정순분	2004	갑인공방
15	오륜서	五輪書	안수경	2004	사과나무
16	춘색 매화 달력	春色梅兒誉美	최관	2005	소명/학진 학술명저번역총서
17	헤이케이이야기 1,2	平家物語	오찬욱	2006	문화과지성사, 대신세계문학총서
18	소네자키슌의 정사	曾根崎心中	최관	2007	고려대출판부
19	하이쿠, 요사 부손의 봄여름가을겨울	(与謝蕪村)	최충희	2007	제이앤씨, 발체역
20	풍토기	風土記	강용자	2008	지만지
21	오토기보코	御伽婢子	황소연	2008	강원대출판부
22	백인일수	百人一首	임찬수	2008	문예원
23	바쇼의 하이쿠 기행 1,2,3	奥の細道, 野ざらし紀行等	김정례	2008	바다출판사
24	류큐설화집 유로설전	遺老説傳	김현선	2008	보고사
25	삼보에	三宝絵	김태광	2008	제이앤씨
26	우게쓰 이야기	雨月物語	이한창	2008	문화과지성사, 대신세계문학총서
27	모래와 돌 상하	砂石集	정천구	2008	소명출판
28	탄이초	歎異抄	오영은	2008	지만지
29	밥에 핀 벚꽃- 고바야시 잇사 하이쿠 선집	(小林一茶)	최충희	2008	태학사
30	쓰쓰미치나곤 모노가타리	堤中納言物語	유인숙 외	2008	도서출판 문
31	신황정통기	神皇正統記	남기학	2008	소명출판, 학진 학술명저번역총서
32	속일본기1	続日本記	이근우	2009	지만지(부분번역)
33	양생훈	養生訓	강용자	2009	지만지
34	일본영대장	日本永代蔵	정형	2009	소명출판, 학진 학술명저번역총서
35	청명일기	蜻蛉日記	정순분	2009	지만지
36	하루사메 모노가타리	春雨物語	조영렬	2009	도서출판 문
37	오토기소시슈	御伽草子集	이용미	2010	제이앤씨
38	오차쿠보 이야기	落窪物語	박은희 외	2010	도서출판 문
39	잇텐샤 잇쿠 작품선집	東海道中膝栗毛等	강지현	2010	소명출판
40	기노 쓰라유키 산문집	紀貫之散文集	강용자	2010	지만지
41	깎다양생기 주해	喫茶養生記	류건집	2011	이른 아침
42	무라사키 시키부 일기	紫式部日記	정순분	2011	지만지
43	고금와카집	古今和歌集	최충희	2011	지만지

\* 『万葉集』의 경우는 고 김사엽선생이 일본에서 간행한 『韓譯 万葉集』(成申書房 1984)과 그 외 부분적인 번역이 있고, 『今昔物語集』은 문명재 『今昔物語集의 세계』(제이앤씨, 2006)와 같은 발체역은 있지만 아직 완역이 되지 않았기에 제외하였



다. 작품에 따라서는 차후에 보완 개역한 경우도 있고 여러 번역자에 의해 중복 번역된 경우도 있지만<sup>62)</sup>, 본고에서는 모두 제외하였다.

이상 현재까지 한국에서 번역된 고전작품은 43종이며, 이들 작품을 류큐설화집을 제외하고 일본에서 행해지는 시대별 분류에 따라 살펴보면, 근세작품 18편, 중고(中古)작품 11편, 중세작품 9편, 상대(上代)작품 3편 순으로 번역되었다. 연구자수에 비해, 다른 시대보다 근세작품이 많이 번역된 이유는 그 전시대에 비해 장르가 다양하고 작품수도 많고 근대의 직전 시대로서 이해하기 쉬운 측면 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합계 42종이라는 수치는 인기있는 현대 작가 1인에 대한 번역 편수보다도 적다고 할 수 있지만, 번역된 작품 대부분이 일본문학사의 대표 작품인 점과 고전 작품 번역에 투입되는 번역자의 노력과 시간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까지는 번역된 작품도 적고 초기 첫 번역자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번역을 해낸 업적은 인정되어야 하겠지만, 이들이 해당작품에 대한 전문연구자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도 1990년대부터는 자연스럽게 해당분야 전문가에 의한 번역으로 바뀌어진다. 난해한 고전 작품을 원문에 입각하여 충실히 번역해야 된다는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일본에서 해당분야를 정식으로 공부한 세대들이 고전번역 작업에 뛰어들게 된 것임을 의미한다. 이들 고전 번역출판이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는 유학 2세대가 귀국하여 완전히 자리를 잡은 21세기에 들어서서이다. 매년 조금씩 편차가 보이기는 하지만, 특히 2004년 이후부터는 일본고전이 매년 간행되고 있고 다양한 분야로 그 종류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여, 한국에서 고전번역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감을 엿볼 수 있다.

장르별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먼저 산문이 압도적으로 많다. 역사서로 유명한 나라시대의 『고사기』, 『일본서기』, 『풍토기』, 그 후의 『속일본기』(부분 번역), 중세의 『신황정통기(神皇正統記)』 등 5편이 번역되었다. 헤이안시대 모노가타리로는 고전의 최고봉으로 평가받은 『겐지 이야기(源氏物語)』를 비롯하여, 『이세모노가타리(伊勢物語)』, 『쓰쓰미추나곤 모노가타리(堤十納言物語)』, 『오치쿠보 이야기(落窪物語)』, 중세 군기 모노가타리의 대표인 『헤이케 이야기(平家物語)』, 단편이야기집인 『오토기소시슈(御伽草子集)』가 있고, 그리고 근세소설로는 일본최초의 괴담소설집인 『오토기보코(御伽婢子)』, 우키요조시(浮世草子)의 대표작인 『일본영대장(日本永代藏)』와 『호색일대담(好色一代男)』, 요미혼(読本)의 대표작인 『우게쓰 이야기(雨月物語)』와 『하루사메

62) 그 동안 여러 번 번역된 작품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간행연도는 초판 출판년만 표기함)

- \* 『古事記』: 노성환역 『고사기 상』(예전사 1987), 『고사기 상하』(예전사 1999), 『고사기 상하』(민속원, 2009), 권오엽역 『고사기 상중하』(충남대출판부 2000), 권오엽·권정역 『고사기 상중하』(고즈원 2007), 박창기역 『일본신화 고사기』(제이앤씨 2006), 강용자역 『고사기』(지만지 2008)
- \* 『日本書紀』: 성은구역 『일본서기』(정음사 1987), 전용신역 『완역 일본서기』(일지사 1989)
- \* 『万葉集』: 김사엽역 『韓譯 万葉集』(成申書房 1984<일본>), 박상현역 『만엽집』(제이앤씨 2006), 고용환·강용자역 『만엽집』(지만지 2009)
- \* 『源氏物語』: 유정역 『겐지 이야기』(을유문화사 1975), 전용신역 『겐지 이야기』(나남출판 1999), 김난주역 『겐지 이야기』(한길사 2007), 김종덕역 『겐지 이야기』(지만지 2008)
- \* 『徒然草』: 송숙경역 『도연초』(을유문화사 1996), 채혜숙역 『도연초』(바다출판사 2001), 정장식역 『도연초·호조기』(을유문화사 2004), 김충영·엄인경역 『쓰레즈레구사』(도서출판 문 2010)
- \* 『風姿花伝』: 김학현역 『能의 고전 風姿花傳』(열화당 1991), 김효자역 『風姿花傳, 花鏡, 申楽談義』(시사일본어사 1993), 오현열역 『풍자화전』(한림대출판부 2002), 김충영역 『풍자화전』(지만지 2008)
- \* 『俳句』: 유옥희역 『마츠오 바쇼오의 하이쿠』(민음사 1998), 김정래역 『바쇼의 하이쿠 기행1』(바다출판사 1998), 최충희역 『열일곱자로 된 시 하이쿠』(박이정 2000), 박소현역 『하이쿠, 조용한 매미의 울음소리』(북코리아 2008)

모노가타리(春雨物語), 곱케이본(滑稽本)의 대표작인 『도카이도쥬 히자구리게(東海道中膝栗毛)』, 닌조본(人情本)의 대표작인 『춘색 매화 달력(春色梅児誉美)』 등이 번역되었다. 수필에는 헤이안시대 수필을 대표하는 『마쿠라노소시(枕草子)』, 중세수필문학의 백미인 『쓰레즈레구사(徒然草)』와 『호조키(方丈記)』가 나왔다. 일본적 특색을 보이는 일기문학에는 『청명일기(蜻蛉日記)』와 『무라사키시키후 일기(紫式部日記)』가 있고, 다도 관련으로는 중세의 『꼭다양생기(喫茶養生記)』와 근세의 『남방록(南方録)』이 번역되었다.

설화집 계통으로는 『삼보에(三宝絵)』, 『모래와 돌(砂石集)』, 『탄이초(歎異抄)』와 류큐설화집인 『유로설전(遺老説傳)』이 있고, 노(能) 이론서로서 『풍자화전(風姿花伝)』, 『화경(花鏡)』, 『사루가쿠단기(申楽談儀)』가 있다. 그 외에 미야모토 무사시(宮本武蔵)가 쓴 『오륜서(五輪書)』와 가이바라 에키켄(貝原益軒)의 지혜가 담긴 『양생훈(養生訓)』 등이 번역되었다.

운문에는 헤이안시대 대표 와카집인 『고금와카집(古今和歌集)』, 100인의 와카 1수 씩을 모은 『백인일수(百人一首)』가 있고, 근세 하이쿠(俳句)집으로 마쓰오 바쇼(松尾芭蕉)의 『오쿠로 가는 작은 길(奥の細道)』, 『노자라시 기행(野ざらし紀行)』 이외에. 요사 부촌(与謝蕪村)와 고바야시 잇사(小林一茶)의 중요 하이쿠가 번역되었다.

극문학에는 분라쿠(文楽), 가부키(歌舞伎)의 대표작인 『47인의 사무라이(仮名手本忠臣蔵)』와 『소네자키슈의 정사(曽根崎心中)』 두 편만이 번역되어 있을 뿐이다.

하지만 불과 10년여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전 번역의 불모지와 같은 현실에서 이 정도로 많은 작품이 번역된 점은 평가받을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문학사나 문화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작품의 수나 양에 비하면, 아직도 번역이 안 된 작품이 많이 남아있음은 물론이다. 예를 들어 만엽집의 시가, 와카, 렌가 등 운문 작품, 노, 분라쿠, 가부키 등의 극작품, 중근세의 설화나 수필, 각종 모노가타리나 근세소설, 각종 사상서 등은 여전히 미번역인 채로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 작품은 복수의 역자에 의한 중복간행이 행해지고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완성도가 높은 번역으로 나아가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미번역된 중요 작품에 대한 작업이 급선무인 점을 생각한다면, 한국연구재단의 명저번역사업, 지만지의 세계 각국 고전의 번역 출판, 도서출판 문의 일본고전문학작품서의 발간 등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고전번역이란 그 과정이 힘들고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운 길인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한 번 제대로 번역되고 나면 고전의 생명력과 같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한일관계의 역사적 특수성, 글로벌시대의 인접국 이해라는 보편성의 양 측면에서 향후 한국에서 일본고전 번역은 일본문화 이해의 기반이 되는 만큼 지속적인 번역 성과물이 나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윤상인 외 『일본문학 번역 60년 현황과 분석』 (소명출판, 2008.7)  
 정형 「韓国における日本近世古典人文学資料の翻訳出版および研究の動向」 『2011年度日本近世文学会秋季大会資料集』 (日本近世文学会, 2011.9)  
 최관 「일본고전문학연구의 현황과 과제」 『일본학보』 제62집(한국일본학회, 2005.2)  
 최관, 「韓国における日本文学研究の近況」 『文学語学』 190号(全国大学国語国文学会, 2008.3)

## 제6장 한국의 일본근현대문학연구 현황과 과제

최재철 (한국외국어대학교)

### 1. 2005년 한국의 일본근현대문학 연구 동향 개관

#### 1.1. 일본문학의 연구 동향 -2005년 현재-

먼저, 2005년에 조사한 한국의 일본문학 연구동향을 개괄해보고, 2012년의 일본근현대문학 연구 현황과 비교해보기로 한다. 1960년대의 일본문학 관련 논문은 7편, 1970년대 131편, 1980년대 이후 매년 증가하여 총 890편이었다. 이 중, 일본근대·현대 문학논문이 580 여편(약 65%)이고, 일본문학 연구자 총 630 여명 중 근현대문학 분야의 연구자수는 320 여명으로 50% 이상이였다.<sup>63)</sup>

근대 작가로는 소오세키(漱石)·아쿠타가와(芥川)·오오가이(鷗外)·토오송(藤村)·다자이(太宰)·카와바타(川端) 등에 관한 연구 논문이 많았으며, 국내 주요 6개 학회의 일본근대문학 논문 총 280편중, 위 상위 5명의 작가 관련 논문이 40%를 차지하고 있다(2000년 5월)<sup>64)</sup>. 문학사에서 지명도가 높은 작가에 대한 연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04년말까지 오오가이 연구의 경우에 연구논문은 50 여편, 연구자는 20명 정도이고, 소오세키 연구논문은 260 여편(논문 1편 이상 집필자 130 여명), 단행본은 11권이다. 카와바타 연구는 일반논문 150 여편, 석사논문은 65편으로, 작품론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의 통계 가운데, 근대 시가문학이나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동안 프로문학의 연구가 적었던 것은 한국의 남북문제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아쿠타가와 류우노스케와 시마자키 토오송, 아리시마 타케오(有島武郎), 엔도오 슈우사쿠(遠藤周作)에 관한 논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 기독교 인구가 많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문학 연구를 문화론과 관련짓는 방향의 연구가 늘어나고 있고 연구 방법론 등이 유학 출신대학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또한,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이지만 카와바타에 비해 오오에 겐자부로의 연구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것은 수상이후 시간이 많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것과 읽기 쉽지 않은 문장 때문일 것이다. 근대 시가문학 분야의 연구가 타쿠보쿠를 제외하면 수가 적은 가운데, 하기와라 사쿠타로(萩原朔太郎)·타카무라 코오타로(高村光太郎)·미요시 타츠지(三好達治)·미야자와 겐지(宮澤賢治)·마사오카 시키(正岡子規) 등의 시가문학 관련 논문이 서서히 늘어가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학회 편찬 일본문학 관련서적으로는 한국일본학회의 『일본연구총서』(전10권, 2001년) 중 「신 일본문학의 이해」 1권과 한국국어일본학회의 『일본문화총서』(전6권, 2003년)중 일본문학 분야 2권(고전, 근현대 편) 등이 있다. 그리고 각 학회에서 주제별 연구로 기획도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63) 통계는 조사시기, 방법, 범위 선택 기준에 의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하 동일.

64) 다른 조사 통계는 소오세키, 아쿠타가와, 토오송, 카와바타, 다자이, 타쿠보쿠(啄木), 오오가이 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겠다(예, ‘일본문학 속의 여성’, ‘일본근현대문학과 연애’ 등).

이 밖에도 각 학회별로 총서 등을 간행하고 있는 바, 박사학위 논문을 단행본 형식으로 단순 제작하는 경우가 보이는데 학위논문과 단행본 저작은 성격이 다르므로 간행할 때는 그 체제 내용을 재정리하여 단행본으로서의 완성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일본에서 일본어로 쓴 학위논문을 그대로 한국에서 일본어로 출판하는 것은 너무 안이하고 의미가 반감되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한국어로 번역하여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 후 간행할 일이다.

전문 분야별·장르별 학회나 연구회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한국일본근대학회’가 설립(1999년)되어, 전문분야의 학술지로서는 처음으로 『일본근대문학-연구와 비평-』을 2002년 창간하여 연간으로 2005년에 제4호를 간행하였다. 그리고 주제별 학술세미나를 열고 특집(예, 일본근현대문학 속의 연애, 또는 가족 등)을 엮은 후 총서 출간을 기획하고 있다. 작가별 연구회로는 ‘나츠메 소오세키 문학 연구회’가 학술발표회와 단행본 간행(『나츠메 소오세키 문학연구』 창간호, 2001) 등의 실적이 있는 정도이며 그밖에는 아직 미미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움직임은 자연히 증가할 것이다. 한편, 주제별 연구회로는 ‘일본기독교문학연구회’가 활동 중에 있으며 단행본을 간행한 바 있다.

비교문학 분야에는 신화·설화나 고대가요, 근세소설의 한중일 비교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격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의 지속이 기대되며, 근대문학의 한일비교연구에 대해서는 이미 김윤식의 『한일문학의 관련양상』(1972) 이래, 소오세키와 이광수, 아리시마 타케오와 김동인 또는 염상섭과의 영향관계의 비교문화적 연구나 대조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또한, 일본문학 속의 한국(인)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도 늘어나고 있고, 재일 한국인 문학, ‘일본어문학(日本語文學)’ 등에 관한 관심도 높아져 여러 연구 업적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분야의 연구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1.2. 일본문학 연구의 과제와 전망 -2005년 현재-

한국의 일본(문학)관련 학회로 대표적인 것은 한국일어일문학회와 한국일본학회 등이 있는데, 회원은 각각 약 1,000 여명씩(중복 다수)이다. 이 밖에도 일본관련 학회가 각 지역 또는 연고를 중심으로 하여 20여개 정도로 각기 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다. 대개 일본어 일본문학 일본학 연구가 중심이며, 그 체제와 목적이 대동소이한 이들 일본 관련 학회가 난립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일본관련 학회를 일본학(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일어일문학(일본어학 일본문학), 일본어교육, 일본사 등 3-4개 전공별로 통합하고 각 분야별, 각 지역별 지회(지부)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전공 분야별로 학회가 전문화되어 연구를 더욱 집중하고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예: 한국일본근대학회 등). 유사한 학회의 난립은 회원(임원) 및 학회경비(회비) 중복은 물론, 학술발표회 개최 및 학술지의 기획 주제 상호 반복 등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경비, 인적 물적 정신적 부담으로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하여 해결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한국의 일본문학연구는 일본의 경우와 비슷하게, 연구자가 일본문학사의 각 시대별 연구로 나뉘어 있고, 장르별 작가별로 연구자를 구별하려는 의식이 강하다. 연구방법도 문헌학적·주석학적·실증적 방법론이 주로 동원되고 있다. 일본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연구자는 연구 자료나 참고문헌의 부족 등 국내의 미비한 연구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일본고전문학 분야는 연구를 공유할 수 있는 일반 독자

와 학생이 적기 때문에, 일본의 연구방법론만으로는 쉽사리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국의 실정에 알맞은 방향을 설정하고 한국인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여, 텍스트 분석에 중점을 두면서도 각 시대와 장르 작가에 공통되는 주제의 연구 등이 필요하다. 특히 연구를 널리 공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전 작품명의 알기 쉬운 한글 번역 표기는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인명과 지명 연호 직제 문화어(의식주) 등 고유명사의 한글 표기와 원어에 근접하면서도 한국의 경우에 가장 잘 대응되는 적절한 번역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한국의 일본문학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내의 선행연구를 인지하고 섭렵하여 적절히 인용 및 비평을 할 필요성이 있다. 대표적인 일본 고전 및 명작을 전문 연구자가 적절한 주석과 해설을 완비하여 번역하는 것도 과제중 하나이며, 기존 번역에 대한 평가와 오역 점검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문학을 번역할 때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정형 시가문학 즉, 하이쿠(俳句) 등 단시형 문학의 경우에, 5·7·5의 음수율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연구 논문을 일본어로 쓰는 경우는 일본어학 분야(50% 점유)와 일본고전문학 분야에 특히 많은데, 부분적인 이유는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일본연구의 일반화와 독자성을 늦추는 결과가 되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되도록 한국어로 논문을 써야 한다고 본다. 미국이나 중국에서 과연 일본어로 쓰는 일본연구 논문이 얼마나 되는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로 인식하여 학문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에 대해 생각해볼 일이다. 한국어로 논문을 쓸 경우 일본어의 표기법, 특히 문학 작품명 등의 한글 번역 표기가 제각각인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두음 표기시 원음의 구별이 안 되고 장단음을 구별하지 않는 등, 오래전에 제정하여 실정에 맞지 않는 현행 교과부 교과서 편수자료의 '일본어가나의 한글표기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 학회와 우리 전공자들이 먼저 협의하여 유관 기관에 대해 표기법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일본문학 논문은 작품론이 중심으로, 앞으로는 각 공통 주제별 통시적 또는 공시적 연구의 필요성이 있고, 한일문학의 관련양상이나 비교연구의 계속 추구하고 학제적 연구에도 착안해야 하겠다. 일본 전후문학의 연구는 점차 증가 추세이나 근현대 시가문학과 희곡의 연구는 여전히 적다. 또한, 대중문학 연구도 본격 착수해야 한다고 본다.

국내의 일본문학 연구에 독자적인 발전을 꾀하는 한편, 국제적인 학술교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일본문학 연구가, 감성에 직접 호소하며 인간 이해의 기본인 문학이라는 효과적인 소재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등 타분야에서 생길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한일 상호이해를 심화시키며 선린우호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 2. 2012년 한국의 일본근현대문학 연구 현황

우선, 2012년에 조사한 한국의 일본근현대문학 연구의 현황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일본문학 연구 관련 학술지 총 18개(등재지 16개, 등재후보지 2개)에 7년간(2005~2011년) 게재된 논문을 조사한 결과, 아래 <표 VI-1>과 <표 V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근현대문학 연구자(논문 집필자)수는 총 493명(한국인 439명, 일본인 외 54명)으로, 게재 논문은 총 1,614편(한국인 1,502편, 일본인 외 112편)이다.

〈표 VI-1〉 일본근현대문학 논문 편수 연도별 통계 (2005~2011)

연도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논문 합계
논문수	228	229	237	231	226	226	237	1,614 편

위 <표 VI-1>에서, 연도별로 보면 연평균 231편 게재로 대개 비슷한 수치인데, 2007년과 2011년에 게재 논문이 약간 더 많은 편이다.

〈표 VI-2〉 내외국인별 논문 통계 (2005~2011)

내/외국인수	논문 편수
한국인 / 439명	1,502
일본인(외) / 54명	112
총 493명	1,614

위 <표 VI-2>를 보면 7년간 493명이 평균 각 3.3편의 논문을 집필, 게재한 셈이다.

\* 7년간 논문 다수 집필자 통계는 아래와 같다.<sup>65)</sup>

29편(연 평균 4편) 집필자 1명(일본인)

21편(연 평균 3편) 집필자 1명(한국인)

17~14편(연 평균 2편 이상) 집필자 7명

13~ 7편(연 평균 1편 이상) 집필자 60명 (외국인 2명 포함) 등,

이를 종합하면, 일본근현대문학 논문을 매년 1편 이상 집필한 연구자는 총 69명으로, 이 69명이 한국의 일본근현대문학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구, 지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1. 학술지별 게재 논문수/ 연도별 통계 (2005~2011년)

총 18개의 일본문학 관련 학회 및 대학교 연구소 학술지에 7년 동안(2005~2011년) 게재된 연구자 총 493명의 일본근현대문학 관련 논문 1,614편의 학술지별 연도별 통계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1개 학회, 7개 연구소 학술지 = 총 18 개

연구자 = 총 493 명 (한국인 1인당/ 3.4 편, 일본인 1인당/ 2.1 편,

내외국인 포함, 1인당/ 3.3 편)

논 문 = 총 1,614 편 (7년간, 연 평균: 231 편)

학회지 : 1,305 편 (연 평균 186 편)

연구소 : 309 편 (연 평균 44 편)

65) 공저자는 주저자 편수에 포함. 이하 동일.

-주요 9개 학회 (연구재단등재) 학술지 논문 : 1,291 편 (1개 학회 평균/ 약 143편, 연 평균/ 184편)

-주요 4개 연구소 (연구재단등재) 학술지 논문 : 270 편 (1개 연구소 평균/ 약 68편, 연 평균/ 39편)

이 통계를 통해, 연구소보다 학회지에 4배 이상의 논문이 게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주요 학회·연구소 학술지별 일본근현대문학 연구 논문수

학 회 = 『일어일문학연구』 (한국일어일문학회) : 218 편

『일본학보』 (한국일본학회) : 194 편

『일본어문학』 (일본어문학회) : 179 편

『일본문화연구』 (동아시아일본학회) : 168 편

『일본어문학』 (한국일본어문학회) : 125 편

『일본문화학보』 (한국일본문화학회) : 117 편

『일어일문학』 (대한일어일문학회) : 113 편

『일본언어문화』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 82 편

『일본근대학연구』 (한국일본근대학회) : 67 편 등.

연구소 = 『일본학연구』 (단국대 일본연구소) : 83 편

『일본연구』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 78 편

『일본연구』 (중앙대 일본연구소) : 56 편

『일본연구』 (고려대 일본연구센터) : 53 편 등.

〈표 VI-3〉 일본근현대문학 논문 게재 〈학술지별/ 연도별 통계〉 (2005~2011)

학 회 / 연구소	등재여부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학	일어일문학연구	등재	33	32	28	<b>38</b>	31	29	27	<b>218</b>
학	일본학보	등재	28	39	24	<b>40</b>	25	16	22	194
학	일본어문학	등재	29	<b>36</b>	27	19	23	21	24	179
학	일본문화연구	등재	<b>34</b>	15	23	20	27	29	20	168
학	(한국) 일본어문학	등재	22	20	16	6	21	<b>27</b>	13	125
학	일본문화학보	등재	14	21	<b>21</b>	21	16	9	15	117
학	(대한) 일어일문학	등재	14	11	<b>23</b>	16	13	20	16	113
학	일본언어문화	등재	10	16	9	7	7	13	<b>20</b>	82
학	일본근대학연구	등재	7	13	10	8	8	8	<b>13</b>	67
학	세계문학비교연구	등재	4	2	6	1	5	3	<b>7</b>	28
학	비교문학	등재	<b>5</b>	2	2	1	1	2	1	14
연	(단대) 일본학연구	등재	6	4	12	14	17	11	<b>19</b>	83
연	(외대) 일본연구	등재	6	9	12	16	<b>16</b>	11	8	78
연	(중대) 일본연구	등재	9	2	3	12	7	11	<b>12</b>	56
연	(고대) 일본연구	등재	2	6	<b>17</b>	5	5	8	10	53
연	(외대)외국문학연구	등재	4	1	4	4	2	4	<b>4</b>	23
연	(동국대) 일본학	등재후보	0	0	0	3	2	1	<b>3</b>	9
연	(한림대)한림일본학	등재후보	0	0	0	0	1	3	<b>3</b>	7
<b>합 계</b>			227	229	<b>237</b>	231	227	226	<b>237</b>	<b>1,614</b>

\* 한국일본근현대문학회, 『일본근대문학-연구와 비평-』 제4~6호(2005~2009년): 논문 합계 40편 별도

위 통계 <표 V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 일본근현대문학 연구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학술지는 한국일어일문학회의 『일어일문학연구』로, 지난 7년간 218편(연 평균 31편/ 연 4회 발간, 매호 평균 8편)을 게재하였다. 그 다음이 『일본학보』(194편), 『일본어문학』(179편), 『일본문화연구』(168편) 순이다.

## 2.2. 일본근현대문학 <작가별> 연구 통계

게재 논문의 연구 대상 일본인 작가 수는 총 184명으로 이들 관련 논문은 합계 1,266편이고, 한국인과 재일 작가(일본어소설), 비교 대상 작가와 서양인 등 60여명 관련 논문이 160여편이며, 나머지는 기타 주제 관련 논문 등이다. 일본 작가 중에서 1.5편<sup>66)</sup> 이상 게재 논문의 연구대상이 된 93명의 작가를 논문 편수 순으로 배열하면 다음 <표 VI-4>와 같다.

<표 VI-4> 일본근현대문학 <작가별> 연구 논문 통계 (2005~2011)

논문 10편이상 작가 30명: 총 973편			논문 3~9편 작가 33명: 총 153편		논문 1.5~2편 작가 30명: 총 57편		
1. 芥川龍之介	131.5	11. 三島由紀夫	30.5	31. 司馬遼太郎	9	64. 坪内逍遙	2
2. 夏目漱石	112	12. 宮澤賢治	28	中野重治	8.5	与謝野晶子	2
3. 大江健三郎	58.6	13. 萩原朔太郎	27.5	堀辰雄	8	幸田露伴	2
4. 川端康成	57	14. 逸藤周作	26	開高健	7.3	室生犀星	2
5. 村上春樹	53.5	15. 有島武郎	24	小林秀雄	7	内田百閒	2
6. 太宰治	49.8	16. 井伏鱒二	20	安倍能成	7	木下尚江	2
7. 島崎藤村	49.3	17. 森鷗外	19	内村鑑三	6	高見順	2
8. 谷崎潤一郎	48.8	18. 横光利一	18	坂口安吾	6	71. 小島信夫	2
9. 志賀直哉	40	19. 田村俊子	16.5	金子光晴	5.5	内田魯庵	2
10. 北村透谷	31	20. 三好達治	14	田山花袋	5.5	小杉未醒	2
		21. 石川啄木	13.3	41. 大岡昇平	5	古山高麗雄	2
		22. 宮本百合子	13	永井荷風	5	安岡章太郎	2
		22. 安部公房	13	吉本ばなな	5	巖谷小波	2
		24. 佐多稻子	12.5	葛西善藏	4.5	日野啓三	2
		25. 高村光太郎	12	梶井基次郎	4.5	宇野千代	2
		25. 樋口一葉	12	国木田独步	4	江国香織	2
		27. 林芙美子	10.5	柳宗悦	4	田宮虎彦	2
		27. 北原白秋	10.5	泉鏡花	4	81. 織田作之助	2
		27. 田中英光	10.5	村上 龍	4	淺川巧	2
		30. 正岡子規	9.5	徳富蘆花	3.5	湯淺克衛	2
				51. 伊藤整	3.5	西脇順三郎	2
				岩野泡鳴	3.3	小林勝	2
				尾崎紅葉	3	夢野久作	2
				森田草平	3	宮本輝	1.5
				小林多喜二	3	平塚らいてう	1.5
				中島敦	3	依方智	1.5
				中原中也	3	梶山季之	1.5
				八木重吉	3	鮎川信夫	1.5
				江戸川亂歩	3	厨川白村	1.5
				桐山肇	3	93. 榎本楠郎	1.5
				61. 武者小路実篤	2.5		
				三木露風	2.5		
				三浦綾子	2.5		

\* 소수점 아래는 복수의 작가 관련 논문일 경우에 작가수로 나눈 수치임.

66) 복수의 작가 관련 논문일 경우 작가수로 나눈 수치임. 이하 동일.



상위 10명(각 31편 이상)의 작가 관련 논문이 총 633 편으로 전체 논문수의 약 40%를 차지한다. 순위는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관련 논문이 132편으로 가장 많고, 두 번째가 나즈메 소오세키 112편으로 100 편 이상 작가가 2명이다. 2005년 조사에서는 소오세키 관련 논문이 가장 많았는데 문하생 아쿠타가와에게 1위 자리를 내주고 2위로 물러나게 된 셈이다. 그 다음 3위부터가 오오에 켄자부로, 카와바타 야스나리, 무라카미 하루키, 다자이 오사무 순으로 각 59~50편이다.

카와바타와 다자이는 2005년 조사와 비슷한 순위인데, 하루키 관련 논문이 인기도를 반영하듯 증대하였고, 오오에에 대한 연구가 노벨문학상 수상(1994년)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 시마자키 토오송(49편) 순위는 이전과 비슷하다고 보며, 타니자키 준이치로(49편)가 토오송 바로 다음 순위인 8위로 뛰어오른 것은 의외인데, 타니자키 전공 교수가 집중적으로 후진을 배출하고 있는데 연유하고 있다고 본다. 9위는 시가 나오야이며, 키타무라 토오코쿠가 10위(31편)로 급부상한 것은 토오코쿠 전공 교수(일본인) 1인이 지난 7년간 29편(연 평균 4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였기 때문이다.

연구 논문 편수 11~20위(관련논문 30~14편) 작가순은 미시마 유키오, 미야자와 켄지, 하기와라 사쿠타로, 엔도 슈우사쿠, 아리시마 타케오, 이부세 마사지, 모리 오오가이, 요코미즈 리이치, 타무라 토시코, 미요시 타츠지 순이다. 그리고, 이시카와 타쿠보쿠부터 미야모토 유리코, 아베 코오보, 사타 이네코, 타카무라 코오타로, 히쿠치 이치요(관련 논문 13~12편)까지가 21~26 순위이다.

장르별로는 여전히 소설 연구가 압도적이며, 시(詩歌)문학 연구는 소수이다. 특히, 주요 작가 관련 연구(상위 10위)가 여전히 강세로 아쿠타가와, 소오세키 연구 논문(합계 235 편)이 압도적 다수고, 오오에, 하루키, 타니자키, 시가(志賀) 연구 논문의 증가 추세가 현저하며, 카와바타, 다자이, 토오송 연구는 꾸준한 편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토오송(8위)과 켄지(12위), 그리고 사쿠타로(13위)·미요시(20위)·타쿠보쿠(21위) 등의 시가문학 관련 연구가 8~21위에 들어있는 것은 전공 연구자들의 노력의 결과로서 연구의 다변화를 추구하는 일이며 지속적으로 시가문학 연구가 확산되기를 기대해볼만하다.

지난 7년간 10편 이상의 논문 주제 관련 작가는 30명이며 논문 총수는 973편이다. 결과적으로 이 30명의 작가 관련 논문이 전체(1,614 편)의 60%(위 <표 VI-4>의 10위 까지 약 40%, 11~30위 까지 약 20%)를 차지하는 인기 작가라고 할 수 있다. 9~3편 작가는 33명(논문 총 153편), 2~1.5편 작가가 30명(논문 총 57편) 등으로, 1.5편 이상 논문 관련 작가는 계 93 명이다. 그리고 위 <표 VI-4>에는 넣지 않았는데, 1편의 논문 관련 작가는 73 명, 1편 미만의 논문 관련 작가가 18명이다. 결론적으로, 연구 대상 일본인 작가수는 모두 184명(논문 총 1,266편)으로 웬만한 일본의 근현대 작가가 거의 다 망라되어 한국에서 연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위 작가별 논문 통계표를 보면서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는 작가 시인 그룹에 대해 덧붙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 근대문학사적으로 알아야할 부분이 많은 모리 오오가이(森鷗外) 관련 논문이 19편(19위)이라는 것은 미진한 편이므로 더 연구해야할 것이다. 또한, 타야마 카타이(5.5편)와 나가이 카후(5), 이즈미 료오카(4), 쿠니키다 독보(4), 토쿠토미 로카(3.5), 츠보우치 쇼오오(2), 오자키 코오오(2), 코오다 로향(2), 히라즈카 라이쵸(1.5편) 등 문학사에서 각 문예사조상 어느 정도 비중 있는 작가들에 대한 연구도 저조한 편이어서 전공자들의 관심이 더 필요한 분야라고 본다.

또 한편으로, 한국의 독자들에게 인기 있는 현대작가 요시모토 바나나(5편)가 연구 대상 논문 편수

면에서 하루키에 비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도 음미해볼만한 점인데, 여류작가 작품의 단순함 때문인지 예상했던 것보다는 연구가 적은 편이라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증감 폭을 눈여겨볼 부분이다. 무라카미 류(4편)가 관심을 그다지 끌지 못하는 것도 문체와 작품의 어려움 때문일지 모르겠다. 그리고 시가문학에서는 요사노 아키코(2편), 나카하라 츄우야(3), 미키 로후(2.5), 무로오 사이세이(2), 니시와키 준자부로(2) 등도 연구가 더 진척되어야 할 분야라고 하겠다. 현대 하이쿠(俳句)나 단가(短歌)에 대한 연구와 미야모토 테루나 타니카와 슌타로 같은 현대 작가 시인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롭게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 2.3. 일본근현대문학 <주제/ 소재 방법별> 연구 통계

‘일본근현대문학 연구 주제/ 소재 방법별 논문 통계’(아래 <표 IV-5>)를 조사해보니, 주제별로는 <사회>, <고뇌>, <남녀> 주제가 다수이며, <종교(구원)>, <가족> 주제가 그 다음 순위이다. 소재면에서는 <표현>, 방법적으로는 <비교>론이 다수이고, 소재면에서 <재일작가/일본어작품>론이 다음으로 많은 편이며, <총론>과 <한국(인)상>이 뒤를 따르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사회>(300편 이상)와 <표현>, <고뇌>(각 200편 이상) 관련 논문이 844편으로 전체의 과반수(52%)를 차지한다. 이어서 <비교>, <남녀>, <재일작가/일본어작품>, <총론>(각 100편 이상) 등 관련 논문이 550편(34%)으로, 이상의 합계는 1,394편이며 전체의 86%를 점하고 있다.

<표 VI-5> 일본근현대문학 연구 <주제/ 소재 방법별> 논문 통계 (2005~2011)

주 제	주 제 별							소 재/ 방 법 별						합 계
	사회	고뇌	남녀	종교(구원)	가족	자연	문화	표현	비교	재일작가/일본어작품	총론	한국(인)상	기타	
논문 편수	333	240	148	62	33	14	7	271	170	126	106	63	41	1,614

\* 분류기준, 범위에 따라 통계 수치는 달라질 수 있음.

전반적으로 연구 논문 편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사회> 관련 주제 연구가 333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표현>관련 연구가 271편으로 많은 편인데 이는 일본문학의 특징을 ‘표현’ 면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한일 비교문학 관련 논문과 재일작가·일본어작품론, 한국(인)상 등에 관한 연구가 많은 것은 한국의 일본연구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당연한 일이며, 이와 함께 기독교문학과 같은 종교(구원) 주제 연구 증가 등은 한국 연구자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는 2005년 조사 시의 증가 예상 전망과 일치한다. 또한, 구체적인 연구 주제가 다양화되었으며 연구 내용의 분화가 이루어졌다. 개별 연구가 증대되는 한편으로, 재일한국인문학연구, 기독교문학연구, 식민지시기 일본교과서 연구 등의 공동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밖에, ‘주제별 기획특집’을 구성한 한국일본근현대문학회 학술지 『일본근현대문학-연구와 비평-』(제 4~6호, 2005~2009년, 논문 40편 게재)과 동 학회 편 <기획총서1> 『일본근현대문학 속의 연애』(2008년, 논문 15편 수록)를 비롯하여, 한국일본기독교문학회 편 『일본문학 속의 기독교』 제3~8권(2005~2011년, 논문 66편 게재, 주로 아쿠타가와와 엔도오, 다자이 관련 논문과 토오송, 우치무라, 토오코쿠,

미우라 관련 논문 등 포함) 등은 위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등재 학술지 이외의 논문을 포함시키면 주제·소재 방법별 논문 통계 수치가 더욱 늘어나는 것은 자명하다.

2005년 조사에 비해, 연구자와 연구 논문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한 것은, 자연 증가분을 포함하여 연구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많은 부분, 학술지 등재제도의 도입과 각 대학의 교원 업적 평가(채용, 재임용, 승진, 인센티브 등)의 기준이 논문 실적 위주의 정량 평가가 기본이기 때문에 논문의 양산 체제에 돌입하게 된 결과라고 하겠다.

#### 2.4. 단행본 연구저술 조사

일본근현대문학 관련 단행본 저술 출판은 7년간 총 129권(연 평균 18권)인데, 이 중에서 일본의 연구자 저서의 역서(23권)와 소개·감상·입문서(27권), 총론·문학사(25권) 등을 제하면 연구서는 54권이 며, 이 중에도 공저와 편저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표 VI-6> 일본근현대문학 관련 <단행본 전체> 통계 (2005~2011)

분류	연구	소개·감상	총론·문학사	연구서 역서	합계
단행본 수	54	27	25	23	129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서 기준.

위 <표 VI-6>의 통계에는, 역서 23권 외에 공저 및 편저가 28권 포함되어 있어, 단독 저서는 78권이다.

주요 단행본을 주제별, 작가별로 재분류하면 다음 <표 VI-7>과 같다.

<표 VI-7> 일본근현대문학 관련 <단행본 주제/ 작가별> 통계 (2005~2011)

주제 작가	주제별							작가별						
	재일작품	종교 (기독교)	일본어작품/식민지문학론	여성	연애	번역	기타	春樹	川端	芥川	漱石	安部	藤村	小林 多喜二
단행본 수	7 (1) (편5)	6 (편6)	5 (1) (편2)	5 (2)	4 (1) (편1)	2	2	7 (5)	4	3	3 (1)	2	2	2 (1)

\*( )내의 숫자는 역서 권수, (편 )내의 숫자는 공저·편자의 권수.

주제별 단행본의 분포는 논문의 주제별 편수 통계의 일부분과 대체적으로 유사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재일작가작품’이나 ‘기독교문학론’, ‘일본어작품/식민지문학론’, ‘여성’, ‘연애’ 등으로 축적된 결과를 출판하였다. 작가별 단행본 분포 면에서도 관련 논문 편수와 대개 유사한 비율인데, 카와바타(4권)와 아쿠타가와(3권) 관련 단독 연구서가 많은 편이며, 그 다음으로 소오세키와 아베, 토오송 연구 단독 저서가 각2권이며, 하루키 관련 단행본은 주로 일본의 번역서 5권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 중

서 아베 코오보(安部公房, 2권)와 코바야시 타키지(小林多喜二, 2권/역서 1권 포함) 관련 연구서가 복수로 출간된 것은 논문 편수 통계 순위보다 높은 비율이다.

이밖에, 주제별로는 ‘사소설’ ‘아동’ ‘모더니즘’ ‘문체’ 기타 관련 등의 출판이 있고, 작가론으로는 오오가이(森鷗外)와 이치요(樋口一葉), 시가(志賀直哉), 타카무라(高村光太郎), 타니자키(谷崎潤一郎), 나카노(中野重治), 다자이(太宰治), 엔도오(遠藤周作), 사타(佐多稻子), 타나카(田中英光) 관련 등의 저서가 각 1권이다. 일본의 단행본 연구서의 번역 23권은 주로 총론·문학사(11권), 하루키론(5권), 일문서 등이다.

주제별 단행본에는 편저(공저 포함)가 14권을 차지하고 있어, 하나의 주제에 대한 다수의 공동연구를 모아 출판한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명의 작가 연구 단행본이 총 26권으로 출판이 증가한 것은 각 작가 전공 연구자의 활발한 저술과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재정리하여 발표한 논문을 모아 단행본으로 출판한 경우 등이다. 한편으로 이렇게 작가 연구 단행본 간행이 증가한 것은 학위논문의 자비출판 등이 용이해진 데 따른 부수적인 효과라고도 볼 수 있다.

## 2.5. 작품 번역서 조사

일본근현대문학 작품의 번역 조사 통계는 다종다양해서 모두 다루기 어렵고 고전 번역과 달리, ‘라이트노블’, ‘로만스’, ‘대중·추리소설’ 등 범위가 광범위하여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 번역을 예로 들어보기로 한다.

무라카미 하루키 관련 연구논문이 지난 7년간 54편(연 평균 7.7편)이 발표된 것은 하루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작품 번역이 계속적으로 늘어난 것과 비례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루키 작품 번역은, 1988부터 2004년까지 17년간 73권(연 평균 4.3권)이 간행되었고, 2005부터 2011년까지 7년 동안에는 42권(연 평균 6권)이 간행되어 동일 작품 중복번역 출판 포함 총 115권(연 평균 4.8권)이 출간되었다. 한 작가의 작품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번역 간행된 유례는 이제까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외국문학 번역 중에서 일본 현대작가 하루키 번역의 편중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국내에 하루키 고정 독자가 확보되어 있다는 반증이다.

한편, 한국 문학 작품의 일본 수출의 미미한 실적에 비해 문학 번역 부문에서도 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있지 않은가 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 한국 소설의 일본어 번역 예로,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母をお願い)』(集英社, 2011) 등을 들 수 있다. 소위 ‘한류’와 더불어 한국문학의 일본어번역은 서서히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하루키처럼 일본에서 한국 작가의 작품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경우는 아직 없는 형편이다. 이는 작품에 대한 흥미와 관심 방향과 관련되며, 일찍이 근대화 초기 이래로 일본인들이 서양 문화와 문학에 관심이 쏠려있다는 것과 근대 한일관계의 역사적인 맥락에서 그 연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는 이웃나라에 보다 긍정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3. 일본 근현대문학 연구의 과제와 전망

앞서 기술한 ‘2005년 연구조사의 과제와 전망’ 부분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2012년 연구조사 결과를 보아도 여전히 유효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장르별로는 전과 별다른 없이 소설 연구가 압도적이어서 시가문학 연구가 위축된 감이 있다. 연구의 다변화를 꾀하여 시가문학과 희곡관련 연구가 보다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현대문학과 대중문학에도 연구자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이다.

작가별 논문 통계표를 보면 일본 근대문학사상 중요도에 따라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는 작가로 모리 오오가이(森鷗外)를 비롯하여, 카타이와 카후, 교오카, 쇼오요, 코오요 등이 있다. 그리고 시가문학에서는 아키코, 츠우야, 사이세이 등과 현대 하이쿠·단가도 더 연구할만한 분야라고 본다. 앞으로 현대 작가 시인들 예컨대 미야모토 테루나 타니카와 순타로 등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단행본 저술도 이런 작가 시인들 관련 연구가 축적되고 편중 현상이 해소되어 다양한 작가론과 주제별 연구서가 출판되어야 할 것이다.

단행본 연구서의 간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연구자 확충과 연구 실적의 축적으로 인한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하겠다. 학위논문의 출판이 용이해졌다고 해서 일본의 대학에 제출한 학위논문을 그대로 한국에서 안일하게 출판한다든지, 내용과 체제의 별 수정 보완 없이 서둘러 출판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문장 표현, 내용의 질적 심화의 확보가 관건일 터이다. 이제 한국의 일본문학 연구의 독자적인 방향을 모색하여 창의적인 내용을 담은 본격적인 연구서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작품 번역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연구재단과 대산문화재단 등의 고전 명작 번역 사업에 진척이 있으며, 각 출판사의 명작 번역시리즈(지식을만드는지식(지만지))가 간행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런데, 일본의 대표적인 고전 및 명작을 전문 연구자가 적절한 주석과 해설을 완비하여 번역하는 것은 지속적인 과제이다. 또한, 문학 작품명 번역의 일관성과 통일이 필요하며, 기존의 번역 평가와 오역 점검도 여전히 남은 과제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논문은 일본어보다 되도록 한국어로 쓰고, 일본어나 영어로 요지문과 주제어(키워드)를 달면 해외의 전공자들에게도 통용될 것이다. 또한, 현행 ‘일본어가나의 한글표기법’의 합리적인 개정을 위해 관련 학회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논문 과다 생산은 현실적으로 평가제도에도 문제가 있는데, 연구 내용의 심화와 주제 소재의 개발과 다변화 추구, 질적 향상이 요구된다. 그러나, 각 분야의 연구자 축적과 학회의 활성화는 고무적인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여전히 일어일문학 일본학 관련 유사 학회, 연구소 학술지의 중복 난립의 문제 해결은 당면 과제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2012년 8월 17일 한국일어일문학회가 우선 일어일문학 관련 12개 학회에 송부한 e-메일 서신 「학술지 연계 발간을 위한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며」에 대한 각 관련 학회의 긍정적인 답신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시점이다.

### 4. 맺음 말

2012년의 일본근현대문학 연구 조사를 통해 연구자와 연구논문이 격증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11개 학회의 등재학술지와 7개 대학교 연구소의 등재학술지(등재후보 2개 포함) 총 18개 학술지를 조사

한 결과, 지난 7년(2005~2011) 동안 일본근현대문학 연구자수는 2005년 조사 대비 320 여명에서 490 여명으로 170 여명(약 50%) 증가했으며, 논문도 580 여편(조사 방식에 따라 수치 다를 수 있음)에서 1,614 여편으로 약 1,000 여편 증가하였다. 7년간 매년 평균 230 여편씩(1인 평균 3.3편) 논문이 게재된 셈이다. 일본근현대문학 연구가 가장 활발한 학술지는 『일어일문학연구』(한국어일문학회)이고, 매년 1편 이상 논문을 집필한 69명이 한국의 일본근현대문학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작가별 연구 논문 편수는 상위 10위 이내의 주요 작가 연구가 강세로, 아쿠타가와와 소오세키 연구 논문이 절대 다수이며, 오오에, 하루키 등 현대작가 연구 논문의 증가 추세가 현저하다. 연구 대상 일본인 작가수는 총 184명(논문 총 1,266편)으로 일본의 근현대 작가가 거의 다 망라되어 한국에서 연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별로는 ‘사회’ 관련 주제가 가장 많고 이어서 ‘고뇌’와 ‘남녀’, 그리고 ‘종교’, ‘가족’ 순이다. 소재 방법면에서는 ‘표현’ 관련 논문이 가장 많다. 또한, ‘비교’ ‘재일작가/일본어작품’ ‘한국(인)상’ 관련 연구 등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2005년에 예상했던 대로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근현대문학 관련 단행본 저술 출판은 7년간 총 129권(연 평균 18권)인데, 이 중에서 연구서는 54 권이며, 소개·감상·입문서(27권)와 총론·문학사(25권), 그리고 일본의 연구자 저서의 역서(23권) 등이다. 연구서 중에도 공저와 편저 등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 재일작가작품론과 기독교문학론 등 주제별 단행본에는 다수의 공동 연구를 모은 편저·공저(14권)가 많은 편이다. 카와바타와 아쿠타가와 등 17명의 작가 연구 단행본이 26권으로 증가한 것은 각 작가 전공 연구자의 활발한 저술과 박사학위 논문의 출판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통계조사를 참고로 하여, 앞으로 한국의 일본근현대문학에 대한 연구 방향을 전망하고 연구 대상 작가와 주제, 소재, 방법 면에서 새로움을 추구하여, 국내의 일본연구의 수준을 심화 발전시키고 정립시켜나가야 하겠다.

현재의 상황 아래서, 연구자의 증가와 업적 평가에 따른 연구의 증가는 학회 연구 활동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단순히 실적에 연연하여 논문을 양산하는 현상은 재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반성의 기운이 무르익어 연구자 모두가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일본연구 각 분야 중에서 일어일문학 관련 연구자와 논문의 과잉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동안 일본연구의 저변 확대에 기여한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어느 시점에서 자연히 조절 기능이 작동되리라고 본다. 학문 연구가 오로지 지(知)의 탐구라는 자체 목적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좋아서 문학을 읽고 연구하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긍정 위에 대내외의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일어일문학 일본학 연구 관련 학회가 서로 내실 있게 통합을 지향하며 우선 학술지의 연계발간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적극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본다. 또 한편으로 국내의 문학 역사 철학 등 인문학분야 27개 학회가 참여하여 2012년 10월 26일 ‘한국인문학총연합회’(약칭, ‘인문총: H.A.K.)가 출범하였다. 이러한 국내 인문학 전체의 흐름에 발맞추어, 연구의 정량 평가의 굴레에서 벗어나 질적인 심화를 추구하는 학문 연구 동기의 자발성에 따라, 진정 스스로 만족스런 좋은 연구를 도출하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연구를 생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주제와 소재 발굴, 다양한 개별 창

의·공동 연구 추진 등으로 향후의 실적이 기대되며, 타 학문분야와 교류 융합하는 학제적 연구와 한일, 동아시아 상호, 동서양 사이의 비교 연구의 활성화, 그리고 일본 등 외국의 연구자, 학회와 적극적인 학술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한일 관계가 때로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 일시적 부분적으로 침체가 있을지라도 상호협력의 기반이 축적되어 있고 이웃나라와 교류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회복될 것이다. 대내외적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때나 상식이며, 아무리 한일 간의 현안에 따라 크고 작은 마찰이 있더라도 상호 간의 문학을 연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학은 우리 삶의 표현이며 히로애락의 노래는 인간의 삶 그 자체이기도 하다. 러일전쟁 때조차 일본인들은 한쪽에서 러시아어를 배우고 투르게네프나 토스토예프스키 같은 러시아문학을 읽고 연구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한국문학을 읽는 독자와 연구자가 일본에서도 더욱 증가하기를 기대한다는 점이다. 인문학의 중심인 언어 문학이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효용성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마음·정신의 이해를 지향한다는 것은 어느 시대나 참이며 강점이라고 하겠다.

## 참고문헌

- 이한섭, 「한국 일어일문학 연구문헌 검색시스템에 대하여」, 『일어일문학연구』(25), 한국일어일문학회, 1994.4.
- 권혁진, 「한국의 일본문학연구 현상」, 『日本學年報』(6), 일본문화연구회, 1994.12.
- 최재철, 「한국에 있어서의 외국문학 연구-특히 일본문학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학과 생활문화』, 경기대, 1996. 9.
- 한국일어일문학회, 『한국의 일본어교육 실태-일본어교육기관조사 1998-1999년』, 1999.2.
- 최재철, 「일본문학 번역과 표기의 제문제」, 『일어일문학연구』(34), 한국일어일문학회, 1999.6.
- 김종덕, 「한국의 일본문학연구의 현황과 전망」, 『日語日文學研究』(45), 한국일어일문학회, 2003. 5.
- 유옥희 (외), 기획테마 「한국에서의 일본문학연구 성과와 과제 조명」, 『2004년도 합동학술대회Proceeding』, 한국일본학회, 2004. 11.
- 최재철, 「韓國における日本文學研究の狀況と展望」, 『論究日本文學』(81), 立命館大學 日本文學會, 2005.2.
- 최재철, 「한국의 일본문학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 일본학의 현황과 과제』(2005년 일본연구조사, 세종연구소 주관), 한울아카데미, 2007.
- 최재철, 『일본근대문학-연구와 비평-』, 한국일본근대문학회, 2005년~2009년.
- 한국일본기독교문학회 편, 『일본문학 속의 기독교』, 2005년~2011년.
- 최재철 (외), 『일본의 번역출판사업 연구 - 일본문학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번역원, 2006.12.
- 최재철,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 문학과 한국-텍스트와 번역·수용」, 『일본연구』 제34호,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2007.12.

## 제7장 한국에서의 일본어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강민 (한양대학교)

### 1. 머리말

이 글은 일본국제교류기금과 세종연구소의 주관으로 실시된 2012년도 일본연구조사의 일환으로 한국에서의 일본어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전망해보고자 준비된 것이다.

한국에서의 일본어 연구를 각각의 시기에 따라 구분해본다면 국어학자나 언어학자에 의해 일본어 관련 연구논문이 발표되던 5-60년대, 한국일본학회와 일어일문학회가 설립되어 학회를 중심으로 연구 활동이 시작된 70년대, 전국의 각 대학에 일어일문학과가 본격적으로 설립됨에 따라 연구자의 수적 증가와 함께 연구 논문이 증가되어갔던 8-90년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90년대 중반부터는 대학의 연구 환경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일본 관련 학회가 전국 각지에 연이어 만들어졌으며 이에 따른 연구 논문의 양적 팽창은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2005년 이후에 전개된 한국에서의 일본어 연구 동향을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다. 조사의 대상을 2005년 이후로 설정하게 된 것은 2000년대 전반기(2000-2004)의 일본어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실시된 한국에서의 일본연구조사의 일환으로 조사된 바가 있기 때문이다.<sup>67)</sup> 따라서 이번 조사는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것으로서 여기에서는 2000년대 후반기(2005-2011년)의 연구 동향을 2000년대 전반기의 동향과 상호비교적인 시점에서 기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논술의 순서 상 초창기의 일본어 연구에 대한 동향도 제시해둘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일본어 연구의 과거와 현재를 거시적인 시점에서 비교해보면서 최근의 미시적인 변화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한국의 일본어 연구의 현황을 이해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하 먼저 초창기 한국에서의 일본어 연구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본 후, 본문에서는 2000년대 후반기(2005-2011년)에 파악된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현황 및 분야 별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기술해나가기로 한다.

### 2. 초창기 일본어 연구의 개관

한국에서의 일본어 연구는 다른 외국어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특수한 상황 속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해방 후 국내에서는 일본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인력

67) 2005년도에 실시된 한국에서의 일본연구조사에 대해서는 『한국 일본학의 현황과 과제』(2007. 한울아카데미) 참조.



이 극도로 부족했다. 그것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어 사용을 강요 받기는 했으나 일본어 연구에 흥미를 느꼈던 한국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일본어 연구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초창기(1945-1970년대)의 일본어 연구는 국어학자와 언어학자의 간헐적인 연구 논문에 의해 그 명맥이 유지되어 왔다.

이와 같은 초창기의 연구 동향을 엿볼 수 있는 유력한 자료로서 우리는 1988년에 간행된 『日本學報』 제20집을 주목할 수 있을 듯하다. 여기에는 한국일본학회 창립 15주년의 기획 테마로서 국내의 일본어 연구 동향을 특집<sup>68)</sup>으로서 게재하고 있는데 그 조사 범위가 해방 후로부터 1980년대 중반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日本學報』 제20집의 기획 테마는 국내의 일본어 연구 동향을 조사한 것으로서는 한국 최초로 시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나 당시의 각 대학에서 발간된 논문집, 국어학과 언어학 관련 학술지를 총괄하여 면밀하게 조사·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창기 일본어 연구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기획 테마인 연구 동향의 부록으로 첨부된 297편의 「언어학 관련 논문목록」을 바탕으로 당시의 연구 실태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표 VII-1〉 1945-1987 논문 게재 현황

연도	논문 수	연도	논문 수
1955년	1	1977년	7(1)
1957년	1	1978년	6
1962년	1	1979년	11(2)
1965년	1	1980년	10(2)
1966년	1	1981년	14(3)
1969년	1	1982년	22(6)
1970년	1	1983년	24(2)
1973년	4(1)	1984년	52(17)
1974년	3(1)	1985년	45(13)
1975년	7(1)	1986년	51(19)
1976년	3(1)	1987년	31(19)

\* ( )는 일본 관련 전문학술지의 게재 논문 수

위의 표에 보이는 연도 별 논문 수는 해당 연도의 대학논총 및 각종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합계로서 해방 후로부터 1980년대의 연구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1973년부터 보이는 괄호 안의 수치는 그 중 일본 관련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편수로, 구체적으로는 1973년에 창간된 『日本學報』와 1979년에 창간된 『日語日文學研究』에 게재된 논문을 말한다.

위의 표에서 볼 때, 한국의 일본어 관련 연구 논문은 1955년에 최초로 등장했으며 이 후 1970년까지는 비정기적으로 극소수의 논문만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논문이 복수로 등장하게 된 것은 학회가 등장한 1973년 이후이며 그 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1984년에 이르러 논문의 수가 한 단계

68) 『日本學報』(제20집, 1988.5)의 특집은 「한국에서의 일본연구 -회고와 전망-」으로 기획되었으며 일본어학(이봉희), 일본문학(황석승), 일본민속(최길성), 일본교육(김용숙)으로 분류되는 4개 분야의 연구 동향을 게재하고 있다.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1950년대에 최초로 등장한 일본어 관련 논문과 『日本學報』 및 『日語日文學研究』가 창간된 시기에 게재된 논문을 각각 아래에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李崇寧 「韓日兩國의 語彙 比較 試考 -糞尿語를 중심으로 하여-」 『학술원회보』, 1955

金完鎭 「捷解新語에서의 日本語 轉寫에 대하여」 『서울대 문리대학보』 5-2, 1957

宋敏 「古代日本語에 미친 韓語의 影響」 『日本學報』 제1집, 1973

宋敏 「最近의 日本語 系統論에 대하여」 『日本學報』 제2집, 1974

高祿植 「韓·日 漢字語의 音韻比較 -朝鮮(中古)漢字音을 中心으로-」 『日本學報』 제5집, 1977

金公七 「Ainu어 명사의 형태에 대하여 -한일어와의 비교연구에 관련하여-」 『日語日文學研究』 제1집, 1979

李昌雨 「韓日 양국어의 닿소리 체계의 차이점과 음성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

『日語日文學研究』 제1집, 1979

辛容泰 「한국어 일본어의 공통조어연구-Swadesh 기초어휘에 의해서-」 『日語日文學研究』 제3집, 1982

위에 제시한 논문들의 저자의 소속을 열거해보면 이승녕(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김완진(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송민(국민대 국어국문학과), 고창식(서울대 국어교육과), 김공철(제주대 일어일문학과), 이창우(인천대 일어일문학과), 신용태(동국대 일어일문학과)와 같이 확인된다. 즉 위와 같은 사실에서 초창기 한국의 일본어 연구는 국어학 연구자에 의해 주로 한국어와 일본어의 계통론적인 관련성을 추구하는 통시적인 연구가 주종을 이루어왔으며 70년대 후반에 이르러 나타나기 시작하는 초창기 일본어 연구자 역시 이와 같은 조류에 영향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어교육적인 측면에서 현대일본어에 대한 분석이 시도되는 것은 학회가 설립된 70년대 이후의 일로 파악되고 있으며, 『日語日文學研究』의 경우, 초기 단계에 이미 일본어로 기술된 논문이 게재되고 있음도 언급해둘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이와 같은 초창기 일본어 연구의 모습은 최근의 변화된 연구 동향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3. 2000년 이후의 현황

여기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초창기 일본어 연구 동향을 되짚어보면서 2000년 이후 최근 10년 사이에 전개된 일본어 연구의 주된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sup>69)</sup> 이를 위해 먼저 현재의 국내 연구기관 및 연구자 현황을 살펴본 후, 논문 게재 현황과 주제 별 연구 내용을 2000년대의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상호 비교적인 시점에서 그 변화된 모습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69) 국내의 일본어 연구는 1994년에 이르러 또 하나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 시기에 대학의 연구 환경이 업적 평가 위주로 바뀌에 따라 새로운 일본 관련 학회가 다수 출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구 논문 수도 80년대에 비해 크게 증가하게 되나 이에 대해서는 이강민 「韓國에 있어서의 日本語 研究(1994-1996)」 (『漢陽日本學』 제8집, 2000.2) 참조.

### 3.1. 연구기관 및 연구자 현황

국내 대학에서 일본 관련 학과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61년에 한국외국어대학에 일본어과가 개설되면서부터이다. 이어서 1962년에는 국제대학(지금의 서경대학교)의 일어일문학과, 1973년에는 당시 상명여자사범대학(지금의 상명대학교) 외국어교육과에 일어교육전공이 개설되었는데 초창기의 일본 관련 학과가 공통적으로 ‘일본어’를 표방하고 있었음이 주목된다. 이후 80년대에는 전국 각 대학에 일어일문학과가 개설되어 비약적인 양적 증가를 가져왔으며 90년대에 접어들면 일본학과의 명칭으로 학과 개설을 시도하는 대학들이 등장하게 된다. 현재 국내의 대학에 개설된 일본 관련 학과의 현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VII-2〉 일본 관련 학과 개설 대학 수

	서울·京畿	江原	忠清	嶺南	湖南	濟州	계
4年制	39校	4校	19校	25校	11校	1校	99校
2·3年制	11校	1校	2校	10校	2校	3校	29校
通譯 大學院	3校		1校	1校		1校	6校
계	53校	5校	22校	36校	13校	5校	134校

국내 대학에 개설된 일본 관련 학과는 4년제의 경우 99개교, 2·3년제의 경우 29개에 이르며 여기에 6개의 통번역대학원에서 일본어통역과를 개설하고 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학과명으로서 크게 보아 ‘일본어과’→‘일어일문학과’→‘일본학과’와 같은 흐름을 확인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개설된 학과명을 살펴보면 일어일문학과, 일본어과, 일본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또는 전공), 일어교육과, 일어일본학과, 일본어문학과 등의 명칭을 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2·3년제의 경우에는 관광일본어과, 일본어과, 관광통역과, 일본어통번역과, 호텔관광과, 산업일본어과, 국제통상일본어과 등과 같이 일본어와 관광 및 통역을 연계시킨 학과명을 취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의 수도권과 부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이 전체 개설 대학의 66%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의 일본어 연구는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아울러 제주의 경우, 모든 대학에 일본 관련 학과를 가지고 있다는 지역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일본어 연구자의 수는 어느 정도일까.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일본어 연구자의 현황을 아래에 표로 제시해 보기로 한다.

〈표 VII-3〉 일본어 연구자(전임교원)의 수 ( )는 일본인 교수 수

	서울·京畿	江原	忠清	嶺南	湖南	濟州	계
4年制	88(64)명	3(5)명	28(40)명	60(49)명	25(17)명	2(1)명	206(176)명
2·3年制	19(12)명	3명	3(4)명	10(6)명	2명	3(2)명	40(24)명
通譯 大學院	7명		4(1)명	1(1)명		1(1)명	13(3)명
계	114(76)명	6(5)명	35(45)명	71(56)명	27(17)명	6(4)명	259(203)명

<표 VII-3>은 국내 일본어 연구자(전임교수)의 지역별 분포도이다.<sup>70)</sup> 이 표에 의하면 국내에서 대학 전임으로 활동 중인 한국인 일본어 연구자는 도합 259명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아직 시간강사의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의 존재를 생각하면 실제 활동 중인 일본어 연구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상정해야 할 것이다. 표3의 대학전임 수와 표2의 학과 개설 대학 수를 연계시킨다면 현재 한국의 4년제 대학에서는 학과 당 일본어학(일본어교육 포함) 전공 전임교수를 평균 2명 정도, 2·3년제에서는 평균 1.4명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 계산이 된다.

또한 지역별 분포도에서는 4년제의 경우 개설 대학의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원도의 연구자가 적으며, 2·3년제에서는 역시 개설 대학의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남권의 연구자가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전임교수의 비율에서는 서울·경기의 수도권과 영남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71%에 이르고 있어 학과 개설 비율(66%)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전임교수의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대학의 일본인 교수 또한 전체적으로 200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4년제 대학에서는 학과 당 평균 1.8명 정도, 2·3년제에서는 평균 0.8명 정도의 일본인 교수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 된다. 다만 국내 대학의 일본인 교수의 경우, 그 자격이 각각 다른 경우가 있어 실제 일본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의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 대학에서 기초일본어나 교양일본어 과정을 담당하는 일본인 교수의 경우 연구 업적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국내에서 연구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일본인 교원의 수는 전체의 1/2 정도에 해당하는 40명 안팎으로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sup>71)</sup>

이와 같이 볼 때, 현재 국내에서는 전국에 분포하는 134개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최소한 300여명의 전임교수(한국인 260, 일본인 40)에 더하여 시간강사 및 대학원생(박사과정) 등이 일본어 연구자로서 활동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 3.2. 연도 별 논문 게재 현황

국내 일본어 연구의 초창기에 해당하는 5-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는 연도 별 논문 게재 현황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여기에서는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12년간에 걸쳐 7개 학술지<sup>72)</sup>에 게재된 연도 별 게재 논문 수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

70) 표3의 서울·경기 지역은 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자 1명이 포함된 수치이며, 일본인 교원의 경우에는 홍익대 34명(서울21, 조치원13)을 포함시키지 않은 수치이다.

71) 이와 같은 추정은 후술할 표5에 보이는 일본인 게재 논문 수에 비추어 보아도 어느 정도 그 타당성은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72) 조사 대상의 7개 학술지(창립연도 순)는 다음과 같다. 『日本學報』(한국일본학회), 『日語日文學研究』(한국일어일문학회), 『日語日文學』(대한일어일문학회), 『日本語文學(1)』(일본어문학회), 『日本語文學(2)』(한국일본어문학회), 『日本文化學報』(한국일본문화학회), 『日本語學研究』(한국일본어학회).

〈표 VII-4〉 2000년 이후 일본어 관련 7개 학술지의 논문 게재 현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40편	162편	188편	223편	277편	290편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64편	297편	288편	291편	285편	294편

표4는 최근 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본어 연구의 양적 증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2000년 이후 12년간의 연평균 게재 논문 수는 250편에 이르는데 이것은 대략 30편 정도의 연평균 논문 수를 기록했던 80년대에 비하면 최소한 8배 이상 증가된 논문이 현재 발표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2004년 이후에는 양적인 증가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2000년대에 접어들어 신설된 일본 관련 학과가 극소수에 불과하여 새로운 신진 연구자의 유입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과 함께 기존 연구자들의 중심 연령이 40대에서 50대로 이행된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의 움직임을 보다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이와 같은 연도 별 게재 논문 수를 바탕으로 2005년 이후에 전개된 논문 게재 내역을 각 학술지 별로 다시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은 표를 얻을 수 있다.

〈표 VII-5〉 일본어 관련 7개 학술지 연도별 논문 게재 수 ( )는 일본인 논문 수

학술지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日本學報	51(5)	34(6.5)	44(8.5)	43(9.5)	36(1.5)	39(4)	28(3)	275 (38)
日語日文學 研究	72(7)	69(4)	75(11)	69(14.5)	74(23)	73(16)	76(25)	508 (100.5)
日語日文學	36(1)	36(3)	40(1.5)	36(3.5)	44(6.5)	46(9.5)	37(8)	275 (33)
日本語文學(1)	37(1.5)	27(1)	33(0)	37(2.5)	41(2)	36(2)	32(4)	243 (13)
日本語文學(2)	38(1.5)	43(0.5)	36(3)	33(3)	27(3.5)	23(0)	30(6)	230 (17.5)
日本文化學報	24(0)	27(2)	32(7)	22(2)	20(1)	23(1)	29(7.5)	177 (20.5)
日本語學研究	32(4.5)	28(5)	37(8.5)	48(10)	49(8)	45(5)	62(16)	301 (57)
합계	290 (20.5)	264 (22)	297 (39.5)	288 (39.5)	291 (45.5)	285 (37.5)	294 (69.5)	

위의 표를 유심히 살펴보면 『日本學報』에서는 일본어 관련 논문 수가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日語日文學研究』와 『日本語學研究』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과 관련하여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인 논문 수<sup>73)</sup>의 증가 추세이다. 즉 2005년 이후 일본인 논문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2011년도의 논문 수는 2005년에 비해 3배

이상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 일본인 논문은 상대적으로 『日語日文學研究』와 『日本語學研究』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2011년도의 경우, 『日語日文學研究』와 『日本語學研究』에서 일본인 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3%와 26%에 이르고 있어 국내 일본인의 연구 활동이 집단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는 앞으로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국내의 학술지에 보이는 일본인 연구 논문 수의 증가 추세는 후술할 연구 주제의 분포 경향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리 언급해둘 필요가 있을 듯하다.

### 3.3 연구 주제 및 연구 내용

여기에서는 먼저 표4에 근거한 2000년 이후 12년간의 게재 논문을 주제 별로 재분류하여 그 분포도를 2000년대 전반기(2000-2004)와 후반기(2005-2011)로 나누어 아래에 제시하기로 한다<sup>74)</sup>. 특히 2000년대 전반기의 분포도는 2005년에 실시된 첫 번째 일본연구조사에서 조사되었던 것으로 이것을 다시 이번 조사된 후반기와 상호 비교해 보고자 함에 두 표를 제시하는 목적이 있다.

〈표 VII-6〉 연구 논문(2000-2004)의 주제 별 분포

總論	文字·表記	音聲·音韻	文法	語彙	日本語史	日本語教育	社會言語學	其他	계
4편	9편	34편	369편	88편	229편	167편	79편	11편	990편
0.5%	1%	3.5%	37%	9%	23%	17%	8%	1%	100%

〈표 VII-7〉 연구 논문(2005-2011)의 주제 별 분포

總論	文字·表記	音聲·音韻	文法	語彙	日本語史	日本語教育	社會言語學	其他	계
11편	34편	65편	614편	248편	315편	467편	165편	90편	2,009편
0.5%	1.7%	3.2%	30.6%	12.3%	15.7%	23.3%	8.2%	4.5%	100%

먼저 위의 두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국내의 일본어 연구에서는 문법 연구의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 약간 감소 추세에 있긴 하지만 국내의 일본어 연구자 가운데  $\frac{1}{3}$  이상은 문법 연구를 지향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어사와 일본어교육 분야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들 세 분야가 전체의 70%에 육박한다는 점을 감안하

73) 여기에서의 논문 수는 일본인 단독 저술을 1로 하고 한국인과 일본인의 공동 저술을 0.5로 계산한 결과이다.

74) 개별 논문의 주제 별 분류에는 분류자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를 수 있다. 특히 국내의 일본어 논문의 경우, 일본어교육과 사회언어학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적지 않다. 여기에서는 2005년의 일본연구조사에서 분류한 방법에 근거하여 2000년대 후반부의 논문의 주제 별 분포도를 작성하여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는 점을 밝혀둔다.

면 한국에서의 일본어 연구는 문법, 일본어사, 일본어교육의 세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어휘와 사회언어학 분야도 꾸준히 일정 부분의 연구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위의 두 표 사이에 보이는 흐름을 비교할 때 주목되는 것은 2000년대 후반기에서 일본어사와 일본어교육의 비중이 역전되었다는 점과 기타 분야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어 일본어교육 분야가 일본어사 분야를 크게 추월하여 현저한 양적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일본인 논문 수의 증가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일본어사 분야의 논문이 감소한 것은 연구 분야의 성격 상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소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과 신진 연구자의 유입이 감소한 점에서 그 원인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기타 분야의 증가 추세는 연구 테마가 다변화되어 가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다음과 같은 통번역 관련 논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흐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기능주의 관점에서 본 필백 <대지> 번역」
- 「일본어 발화의 애매성이 통역결과물에 미치는 영향: 일한 동시통역을 중심으로」
- 「한국어 추량계 부사의 일본어 번역례 연구」
- 「학습자의 니즈 중심의 통역교육: 대학의 통역교육 현황 분석을 토대로」
- 「日韓映像翻訳の字幕についての一考察-映画とテレビニュースを中心に」

아울러 다음과 같은 논문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일본어교육의 틀에서 벗어난 논문 테마로 일정 부분 일본어교육 분야의 증가와 연구 테마의 다변화 현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할 수 있을 듯하다.

- 「韓国における日本語ネイティブ教師の韓国と韓国人に対する意識に関する調査」
- 「JFL環境における韓国人学習者の日本語教師イメージ:比喩生成課題による調査」
- 「継承語教育における父親の役割-韓国における大学日本語教員を対象に-」
- 「일본문화 태도교육의 이론과 실제」
- 「얼굴 인식 기반 일본어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방안」

이와 같이 볼 때, 최근에 보이는 연구 테마의 다변화는 기존의 연구방법론이나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논문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 내용의 질적 향상과는 거리가 있는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2005년 이후에 발간된 일본어 관련 연구서(일본어교재 제외)의 주제 별 분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여준다.

〈표 VII-8〉 연구 저서(2005-2011)의 주제 별 분포

	音聲・音韻	文法	語彙	日本語史	日本語教育	社會言語學	其他	계
2005년	1	9	1		2		1	14
2006년		7		3	4			14
2007년	1	2	4	1	2	1	1	12
2008년	1	4		3	6	1	1	16
2009년		5	2		3	1		11
2010년		2			4	1		7
2011년		2	3	1	6			12
계	3 (3.5%)	31 (36%)	10 (11.6%)	8 (9.3%)	27 (31.4%)	4 (4.7%)	3 (3.5%)	86 (100%)

위의 표는 장원재 『현대한일어휘와 그 형성에 관한 대조연구』(2009, 태학사)를 비롯하여 해당 기간에 간행된 86권의 저서를 연구 주제 별로 분류한 것인데 문법과 일본어교육 분야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같은 기간의 연구 논문의 주제 별 분포와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저서 쪽에서는 연구 논문에 비해 어휘 분야의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었음은 지적할 수 있을 듯하다.

아울러 국내의 일본어 관련 연구서의 출판사로서 J&C, 한국문화사, 한국학술정보, 어문학사, 보고서, 역락, 대학서림, 박문사 등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음은 기록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최근 전개되고 있는 연구 동향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연구 비중이 높은 분야의 연구 내용을 약술해 두고자 한다.

먼저 연구 비중이 가장 높은 문법 분야에서는 전 시기(2000-2004)에 이어서 보이스(voice)와 모달리티(modality), 텐스(tense)·어스펙트(aspect)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구문론(통사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연구 테마로 특히 보이스와 관련해서는 한일 양국어의 한어동사와 연계하여 새로운 논의를 모색해나가고 있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 또한 문법 연구의 키워드로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작성동사(作成動詞), 탈착동사(脫着動詞) 등의 용어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도 흥미롭다. 이들은 중간구문에 대한 인지언어학적인 접근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국내의 문법 연구도 일본 내의 연구 동향과 보조를 같이하여 인지언어학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활발히 시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어교육 분야에서는 전 시기에 활발히 전개되었던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연구는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업활동에 관련된 다양한 접근이나 오용분석과 담화분석 등은 꾸준히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JSL/JFL<sup>75)</sup>의 차이점과 이에 따른 일본어교육에의 응용, 여기에 계승어교육<sup>76)</sup>의 개념을 도입하는 등 국내의 일본어교육 분야에서도 일본의 연구 동향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모습이 엿보인다.

75) JSL(Japanese as Second Language, 제2언어로서의 일본어), JFL(Japanese as Foreign Language, 외국어로서의 일본어).

76) Heritage Language의 번역어, Community Language의 번역어로서도 사용됨.



일본어사의 경우는 조선자료(朝鮮資料)로 통칭되는 한국 측 일본어자료와 일본 측 한국어자료로서의 『交隣須知』, 그리고 개화기 한국어 학습서와 관련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2000-2004년에 이어서 한국의 석독구결(釋讀口訣)과 일본의 훈점자료(訓点資料)의 대조연구, 여기에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등장하는 한국계 고유명사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은 이 시기의 일본어사 연구의 특징으로서 지적할 수 있을 듯하다. 이와 같이 한국어나 한국 측 자료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염두에 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한국에서의 일본어사 분야는 일본어연구가 가지는 한국적인 특징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된다.

어휘 분야에서는 유의어(類義語)와 코퍼스(corpus) 연구가 연구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의 어휘 연구는 IT기술의 진전과 함께 코퍼스 연구에 치중되고 있는 듯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현재의 코퍼스 연구는 단순한 용례 검색을 넘어서는 연구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방향 전환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아울러 한국어에 유입된 일본한자어의 도입 과정이나 전문용어의 어휘적 특성과 체계화에 관련된 논의도 이 시기에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지적해두고 싶다.

사회언어학 분야에서는 언어행동과 비언어행동, 신조어와 유행어, 직장 내의 호칭 등에 관련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 이루어진 연구의 키워드로서 커뮤니케이션 전략(communication strategy)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아울러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언어경관(言語景観)<sup>77)</sup>과 같은 키워드는 국내의 사회언어학 연구가 일본의 연구 동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로서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 4. 과제와 전망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일본어 연구는 5-60년대의 초창기, 80년대의 성장기, 그리고 90년대의 비약적인 팽창기를 거쳐 오늘날에 이른 것으로 생각된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연평균 30편에 불과했던 연구 논문 수는 현재에 이르러서는 연평균 300편 이상의 양적 팽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양적 팽창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2000년 이후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2004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일본어 연구는 ‘안정된 정체기’에 들어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34개 학과(2·3년제 대학과 통역대학원 포함)에서 259명의 전임교원(한국인)이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2000년 이후에 신설된 학과는 극소수에 불과하여 신진 연구자의 유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2005년 이후 국내에서 활동하는 일본인 연구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움직임은 일본어교육 분야에서 논문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된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와 같은 현상이 연구 내용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국내 일본어 연구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고 할 것

77) 다문화사회에 기반을 둔 문화지리적인 용어. 주로 시각적인 표시에 의해 명시된 언어경관을 의미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청각적인 요소를 가미한 음성경관을 포함한다.

이다.

분야 별 연구 내용에 있어서는 문법, 일본어교육, 사회언어학 분야에서 비교적 일본 국내의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국어나 한국 측 자료와 밀접히 연계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어사 분야의 경우, 일본어 연구의 한국적인 특징이 비교적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에서의 일본어의 위치는 90년대를 기점으로 ‘실용어’에서 ‘문화어’로 이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듯하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외국어로서의 일본어는 일정 부분 직접적으로 취업에 연계된 실용어의 위치에 있었으나 9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세계화의 여파와 함께 그 실용성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갔다. 그 대신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한 일본대중문화의 유행과 함께 중·고등학교의 제2외국어로서의 일본어 학습은 증가되어 갔으며 청소년기에 일본어를 접한 세대가 성장하여 일본이나 일본문화를 직접 체험하기 위한 교양으로서의 일본어 학습은 확대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에서의 일본어의 위치는 ‘실용어’에서 ‘문화어’로 이행되었으며 여기에는 한국인에게 배우기 쉬운 일본어의 구조적인 유사성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작년의 3.11 대지진과 원전의 방사능 유출 사고는 한국의 일본어 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듯하다. 특히 일반 사회의 일본어 학습자는 작년의 대지진 이후 급격히 감소했으며 아직도 원상 복구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문화어적인 일본어의 위상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단기적으로는 중·고등학교의 제2외국어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행 중·고등학교의 제2외국어 교육은 과거 독일어나 프랑스어에서 일본어로 바뀌어가는 흐름이 있었으나 이것이 다시 일본어에서 중국어로의 선택을 촉진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것은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의 일본어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의 일본어 연구는 현재 상황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완만한 하강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일본어 연구는 연구의 양적인 면보다는 내용면에 있어서 어떻게 새로운 어젠다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돌이켜보면 과거 한국의 일본어 연구에서는 몇몇 연구 어젠다가 설정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60년대의 계통론적인 연구나 80년대의 일본한자어를 중심으로 한 어휘 연구, 90년대의 조선자료(朝鮮資料)와 관련된 다양한 접근은 하나의 한국적인 연구 어젠다로 형성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국내 일본어 연구의 의미 있는 어젠다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연구 동력을 서서히 상실해간 경위가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냉정히 되돌아보면서 향후의 연구 어젠다를 발굴해나가는 데 연구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할 때, 향후 한국에서의 일본어 연구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향에서 접근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먼저 첫째로 언어학적 연구로서의 일본어 연구의 심화이다. 이것은 일본어 과학으로서의 일본어 연구의 체계화를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어 자체의 분석능력을 향상시켜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일본어 연구와 한국어 연구를 연계시켜 나가는 방향이다. 종래의 표면적인 대조연구가

아니라 언어의 심층구조의 이해에 기반을 둔 대조연구를 다방면에 걸쳐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의 축적은 향후 범위를 확대한 언어유형론적인 대조연구를 가능케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로는 일본어 연구와 일본어교육의 연계이다. 이것은 2009년도 세계일본어교육대회에서 채택된 심포지엄의 어젠다이기도 하다. 일본어학의 연구 결과를 어떻게 일본어교육에 적용시켜 나갈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은 양 분야 공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내 일본어교육의 상승세는 이와 같은 연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내에 증가하고 있는 일본어 전공의 중국인 유학생의 교육에 대해서도 국내의 일본어 학계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일본어 연구와 일본문화를 연계시켜 나가는 방향이다. 근대 이후의 언어 연구가 언어는 문화의 독립변수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져 왔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일본문화의 근원은 일본어에서 출발한다는 점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국내의 일본어 연구에서 전개되고 있는 연구 주제의 다변화 현상에는 일본어 연구에 문화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4가지 방향은 개별 연구자의 문제의식에 따라 그 중요도를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국의 일본어 연구는 이 4가지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인식하고 이 같은 틀 속에서 새로운 연구 어젠다를 모색해보는 것은 현 시점의 연구자들에게 부여된 당면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 참고문헌

- 이강민(2002)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어 연구(1999-2000)」 『日本學報』 제52집  
 이강민(2003)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어 연구(2001-2002)」 『日本學報』 제55집  
 이강민(2005)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어 연구(2003-2004)」 『日本學報』 제64집  
 이강민(2008)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어 연구(2005-2006)」 『日本學報』 제74집  
 이봉희(1988) 「한국에서의 일본연구(일본어학) -회고와 전망」 『日本學報』 제20집  
 진창수 외(2007) 『한국 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2007.6, 한울아카데미)

## 제8장 한국에서의 일본 사회문화 분야 연구 동향

한 영 혜 (서울대학교)

###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이 연구는 2005년 이후 한국 일본학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학제적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2006-20011년에 이루어진 일본 사회문화 관련 연구의 현황과 특징을 고찰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한국에서 일본학의 발전은 크게 세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는 많은 대학에 일어일본학과가 신설되었고, 1990년대에는 지역학(지역연구)으로서의 일본연구가 대두함과 더불어 대학에 일본(지역)학과들이 신설되었다. 90년대에는 세계화의 흐름을 배경으로 해외지역연구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특정 분과학문을 넘어서는 지역연구로서의 일본연구의 성장과 제도화에 기여했다. 일본에 유학한 연구자들이 귀국하여 학계에 자리를 잡고 활동하게 된 것도 이 시기 일본 연구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학과 설립 외에 일본 전문 학회, 학술지, 연구기관 등 일본연구의 제도화가 진전되었다.

2000년대에는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형 학술지원 프로그램에 힘입어 한국의 일본 연구가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다. 인문사회기초연구지원, 중점연구소지원, 2단계연구중심대학(BK21)육성사업, 인문한국(HK)지원, 한국사회과학연구(SSK)지원 등 한국연구재단의 대형 사업들은 대학에 일본에 관한 교육 거점 외에 연구 거점이 설립되는 데 기여했으며, 이런 사업들을 통해 학제적인 일본연구와 국제학술교류가 증대한 것도 중요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한편, 2000년대에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발전과 더불어 한일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났으며, 특히 2002년 한일월드컵공동개최를 계기로 민간 교류가 현저히 증대했다. 학계, 문화계, 시민사회, 일반시민 등 다양한 층에서 교류의 증대와 다양화가 이루어졌고, 이런 변화를 배경으로 2000년대 한국의 일본연구는 90년대와는 또 다른 발전을 하게 되었다. 2000년대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다. 지역연구는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발전했으며, 이는 일본 연구에도 영향을 끼쳤다. 적어도 1990년대까지 인문사회학계에서는 주로 일본 전문 연구자들이 일본 연구를 했으나, 2000년대에는 일본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에서 한국과 일본, 또는 동아시아 국가들, 나아가서는 글로벌한 차원에서 공유하는 문제들에 대한 학문적 대응으로서의 일본연구가 대두했고, 이른바 비일본전문가에 의한 일본연구도 증대했다. 영어를 매개로 한 학문적 교류와 학술활동도 현저히 증대하였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한일 양편에서 이를 촉진하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2000년대 일본연구의 맥락은 90년대까지와는 다르며,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인 2000년대 후반에 더 현저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사회문화 분야 연구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이러한 맥락에 놓인 한국 일본연구의 현황과 특징, 그리고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 2.1 분석 대상 학술지와 선정 기준

본 연구에서는 일본관련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했다. 일본에 관한 연구 성과는 주로 논문이나 저서의 형태로 발표되며, 논문의 경우 일본관련 전문학술지뿐 아니라 동아시아 또는 좀더 포괄적인 지역연구 관련 학술지, 나아가 다양한 전공 분야의 분과학문 학술지에도 발표된다. 우선 ‘일본전문가’ 또는 ‘일본연구자’의 학술활동이 일본지역연구와 분과학문 양편에 걸쳐 있는 만큼 논문을 발표하는 학술지의 범위도 일본 전문학술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최근에는 이른바 ‘일본전문가’가 아닌, 즉 일본지역 연구자로 범주화되지 않는 연구자들이 지역연구가 아닌 분과학문의 이론적 관심에 따라 일본을 사례로 연구하거나, 국제비교의 일환으로 일본을 연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일본연구의 현황과 특징을 좀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연구로서의 일본학이라는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와 분과학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본지역연구의 제도화와 양적 성장의 양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동향을 고찰하는 것을 과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 대상을 일본관련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한정하고, 필요한 경우 분과학문 영역의 학술지를 참조하는 정도로 한다.

일본관련 전문학술지는 그 수가 상당하여,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하는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만 해도 20종이 넘는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총 12개 학술지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첫째, 2011년 이전에 창간된 일본관련 학술지 중 종합적·학제적인 일본연구를 표방하는 학술지. 둘째, 학회와 대학부설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셋째, 발간기관이 어문학 기반을 갖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가능한 한 같은 비중으로 고찰하였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종합적인 일본학을 표방하는 학술지들 가운데서도 특정 분과학문이 발간 주체를 주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라도, 분과학문을 넘어서는 종합적인 일본연구 학술지를 지향하고 이를 표방하는 학술지는 분석 대상으로 고려하였다.

두 번째로 발간기관과 관련해서는 학회와 연구소가 함께 들어가도록 하였다. 학회는 본래 회원들의 학술활동과 학술교류의 장으로서, 주요 학회들의 학술지가 학문적 담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왔다. 대학 연구소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곳도 있지만, 학회에 비해 학술지의 학계 내에서의 위상과 존재감은 약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연구재단의 비교적 규모가 큰 연구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연구성과를 내거나 하는 경우, 연구거점으로서의 기반구축을 위해 학술지의 위상 강화에 힘쓰는 경우가 증대했다. 따라서, 학회와 연구소가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지면서도 일본에 관한 학문적 담론을 주도하는 양론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함께 고찰해보기로 하였다.

세 번째로 학술지를 발간기관의 성격에 따라 어문계와 비어문계로 나누어 이 두 범주가 가능한 한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여기서 ‘어문계’, ‘비어문계’라 함은 학술지가 어문학 분야 논문을 주로 게재하는가 여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분석 대상 학술지는 ‘종합적·학제적인 일본지역연구’를 표방하는 학술지이나, 발간기관의 성격에 따라 이를 어문계와 비어문계로 구분하였다. 학회의 경우, 어문학 분야가 중요한 부분을 점하고 있는가 여부에 따라 어문계와 비어문계로 구분했다. 학회 활동에서 어문학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가 여부는 각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연혁과

학술활동 정보, 학회 이사나 임원진 경력 등을 토대로 해서 판단했다. 대학 연구소의 경우는 일어일문학과 기반에서 출발한 연구소를 어문계, 학과 기반이 없거나 비어문계 학과를 기반으로 한 경우를 비어문계로 분류했다.

이렇게 발간기관의 성격에 기초해서 ‘어문계’와 ‘비어문계’를 고르게 선정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하나는, 일본연구·교육의 제도화 과정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 한국은 대학 내에 일어일문학과가 설립되면서 일본연구의 제도적·인적 기반이 어문학 쪽에서 먼저 만들어졌고, 이후 비어문학계의 일본 지역학 또는 국제학 관련 학과가 설립되면서 학회 활동이나 인적 기반 면에서 별도의 영역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사회문화’ 분야의 폭이 너무 넓어서 같은 사회문화 분야라 해도 이 두 영역 사이에 논문의 경향이나 저자 풀 등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문계와 비어문계 학술지를 고르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본 연구의 기저에 있는 문제의식, 즉 한국에서의 일본연구의 제도화의 성격과 일본학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에 비추어 비어문계와 어문계로 분류해서 양자의 관계를 보는 것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기준에 따라 <표 VIII-1>과 같이 5개 학회와 7개 연구소의 총 12개 기관에서 발간되는 학술지 12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표 VIII-1> 분석대상 학술지 총괄

학회지명	창간연도	발간기관	등재연도
일본학보	1973	한국일본학회	2002 등재
일본문화학보	1996	한국일본문화학회	2004 등재
일본근대학연구	1999	한국일본근대학회	2009 등재
일본연구	1985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06 등재
일본연구	2000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2010 등재
일본학연구	1995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07 등재
일본연구논총	2000	현대일본학회	2006 등재
한일민족문제연구	2001	한일민족문제학회	2007 등재
한림일본학	1995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2 등재
국제지역연구	1993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4 등재
일본공간	2007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미등재
일본비평	2009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미등재

우선, 학회 학술지는 『일본학보』(한국일본학회), 『일본문화학보』(한국일본문화학회), 『일본근대학연구』(일본근대학회), 『일본연구논총』(현대일본학회) 그리고 『한일민족문제연구』(한일민족문제학회) 등 5종이다. 앞에서 제시한 어문계/비어문계 분류 기준에 따르면, 『일본학보』, 『일본문화학보』, 『일본근대학연구』는 어문계 즉 일본어문학 분야가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학회들이 발간하는 학술지이며, 『일본연구논총』과 『한일민족문제연구』는 비어문계 학술지로 분류된다. 어문계로 분류된 『일본학보』, 『일본문화학보』, 『일본근대학연구』 중 『일본문화학보』와 『일본근대학연구』는 당초 어문학 중심 학술지로 출발했다가 종합적인 일본학 학술지로 성격을 바꾼 경우다. 반면

『일본학보』는 처음부터 게재 논문이 일본어문학에 국한되지 않았다.

비어문계에 속하는 『일본연구논총』의 발행기관인 현대일본학회는 사회과학을 기반으로 하며, 정치학자들이 학회 활동의 주축인 만큼 일본 정치 분야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에 비해 『한일민족문제연구』를 발행하는 한일민족문제학회는 역사학 연구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두 학술지 게재 논문도 정치학, 역사학 분야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종합적·학제적인 성격을 표방하고 있다. 『한일민족문제연구』는 한일관계, 민족 문제에 특화된 학회, 학술지라는 점에서 ‘종합적인 일본연구’라는 첫 번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으나, 민족, 디아스포라 등의 주제는 사회문화 분야의 중요한 주제이며, 이에 대한 특정 분과학문을 넘어서는 학제적 접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반면, 예컨대 일본사학회나 한일경상학회, 그 외의 일본 전문인 동시에 특정 분과학문을 표방하는 학회의 학술지는 사회문화 관련 논문이 실릴 가능성이 있더라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대학 연구소 학술지로서는 『일본연구』(한국외국어대 일본연구소), 『일본연구』(고려대 일본연구센터), 『한림일본학』(한림대 일본학연구소), 『일본학연구』(단국대 일본연구소), 『일본공간』(국민대 일본학연구소), 『일본비평』(서울대 일본연구소) 등 6개 일본연구기관의 학술지와 일본에 특화되지 않은 지역연구소 학술지로서 『국제지역연구』(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이상 총 7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외대, 고대, 단국대의 연구소들은 이 논문의 분류 기준에 의한 어문계와 비어문계 중 전자에 해당하며 한림대, 국민대, 서울대의 연구소들은 후자에 해당한다. 『일본연구』(외대), 『일본연구』(고대), 『일본학연구』(단국대)는 어문학 중심 학술지로 출발했다가, 중간에 범위를 확장하여 종합적인 학술지로 성격을 전환하였으며, 『한림일본학』, 『일본공간』, 『일본비평』, 『국제지역연구』는 처음부터 지역연구 학술지로 출발했다.

어문학 기반이 있는 연구소의 학술지는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등재학술지 가운데서 등재 시기와 발간기관인 연구소의 연구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했다<sup>78)</sup>. 비어문계 일본연구소의 학술지는 수도 적고, 상대적으로 창간 시기가 늦어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가 된 경우가 적다. 따라서, 등재 여부보다는 독자적인 연구역량과 연구 기반을 갖추고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는가 여부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국제지역연구』는 일본에 특화된 학술지는 아니지만, 1990년대 초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의 학술지로 창간되어 『일본학보』와 더불어 지역연구로서의 일본 연구 논문이 발표되는 장으로서 기능했다. 현재 발행기관인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의 전신은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이며, 서울대 일본연구소는 이 지역종합연구소 일본연구실에서 출발한 것으로, 그런 점에서 『국제지역연구』는 한국의 일본연구 동향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sup>79)</sup>.

78) 일어일본학과를 기반으로 한 대학 일본연구소로서 한국연구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일본학외)를 갖고 있는 곳은 상기 3개 기관 외에도 중앙대, 동국대, 한양대 등 여러 곳이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상기 3개 학술지로 한정해도 연구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비어문계와의 비율을 고려하여 3개만을 선정하였다.

79) 한림대와 국민대는 각각 학부에 비어문학 계열인 일본학과와 국제학부 일본학전공이 있으며, 이들은 일본연구기관과 관련이 있기는 하나, 한림대 일본학연구소의 경우 일본학과를 기반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과는 별도로 한림과학원에 설립,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학과로부터 독립적인 연구소로 출발한 경우다. 국민대 일본연구소는 국

## 2.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06년-2011년의 연구 동향의 특징을 1990년대 이후 일본연구의 흐름 속에 자리매김 하여 파악하고자 했다. 1990-2011년 사이에 상기 12개 학술지에 발표된 사회문화 분야의 논문의 양적 추이와 다뤄진 주제의 빈도 등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1990년대, 2000년대 전반(2000-2005년), 2000년대 후반(2006-2011년)의 시기별 추이를 통해 2006년 이후 최근 6년간의 특징을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시계열적 분석과 더불어 12개 학술지를 앞에서 밝힌 기준에 따라 어문계와 비어문계로 구분하여 두 그룹의 추이를 비교·고찰하였다.

사회문화 분야 논문의 양적 추이와 연구 주제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석 대상인 12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사회문화와 관련된 주제의 논문을 추려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12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어문학 분야 논문을 추려내고, 그 나머지 논문들을 정치, 경제, 역사, 사상, 사회문화로 분류하였다. 이 모든 논문을 읽고 내용에 의거해서 분류하는 것은 한정된 기간의 연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필자의 역량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논문 제목의 주제어에 기초해서 분류하였다.

전체 논문을 분야별로 분류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난점들이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논문의 주제에 의거해서 분류하였으나, 사회적 함의가 큰 주제나 보편성이 있는 주제들의 경우 여러 분야에서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우선 어문학과 비어문학의 분류에서도 예컨대 사회현상으로서의 언어, 언어 정책 등을 다루거나 사회적 쟁점이나 사회문제를 문학 텍스트를 통해 논하는 경우 등은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공동연구팀 내에 어학, 문학 분야를 별도로 두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어문학으로 처리하였다. 신화를 다룬 논문도 애매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문학적 텍스트로 간주하여 어문학으로 분류하였다.

1차 분류를 통해 추려낸 비어문학계 논문을 다시 정치, 경제, 역사, 사상, 사회문화 등 5개 분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도 논문의 주제가 복수의 분야에 걸쳐 있는 경우를 다수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노동, 사회보장, 고령화 등의 주제는 사회와 경제 양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거버넌스, 시민사회, 지방자치 등은 사회와 정치 양 분야에서 다뤄지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사학회는 사회학에서 출범한 한국사회학회의 분과학회이지만 다양한 전공자들이 활동하는 학제적인 성격을 지니며, 사회사 분야의 연구도 사회, 역사, 사상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일제시기 도시에 대한 연구나 이주, 또는 지식에 관한 연구가 그 예다. 이러한 현상은 각 분과학문에서 다루는 주제의 범위가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또한, 최근에는 사회적 함의가 큰 주요 주제들에 관해서는 학제적 연구 또는 융·복합적 연구들이 증대하고 있는 점도 분류의 어려움을 더하는 요인이다.

---

제학부를 기반으로 설립되었으며 정치, 국제관계를 주축으로 출발하여 사회과학의 성격을 띤다. 서울대에는 학부에 일본 관련 학과가 없고, 국제대학원에 소규모의 교육 기반이 있으며 일본연구소는 이와 관련이 있으나, 국제대학원 일본 전공을 기반으로 해서 설립된 것은 아니다. 서울대 일본연구소는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일본연구실에서 출발하여 지역종합연구소가 국제대학원과 국제학연구소로 재편되는 과정을 거쳐 국제학연구소 산하 연구센터에서 독자적인 연구소로 독립한 것으로, 그 출발점은 교육 기관보다 앞선다. 분석 대상 학술지로서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의 『국제지역연구』를 포함시킨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 3. 양적 추이

이상과 같이 분류해본 결과, 1990-2011년에 12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비어문학 논문은 총 1,455편이었다. 그리고 비어문학 논문 중 사회문화 분야는 622편으로 전체의 약 43%를 차지하였다. <표 VIII-2>는 1990-2011년에 출판된 비어문학 분야 전체의 논문 편수를 연도별·학술지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VIII-2> 1990-2011년 12개 일본전문 학술지 비어문학 논문 양적 추이

	일본학보	일본문화학보	일본근대학연구	일본연구논총	한일민족문제연구	한림일본학	국제지역연구	일본연구(외)	일본연구(고)	일본학연구	일본공간	일본비평	계
1990	5	0	0	0	0	0	0	0	0	0	0	0	5
1991	4	0	0	0	0	0	0	0	0	0	0	0	4
1992	5	0	0	0	0	0	0	0	0	0	0	0	5
1993	17	0	0	0	0	0	13	0	0	0	0	0	30
1994	0	0	0	0	0	0	8	0	0	0	0	0	8
1995	10	0	0	0	0	0	7	0	0	0	0	0	17
1996	9	4	0	0	0	4	2	0	0	0	0	0	19
1997	8	0	0	0	0	3	7	0	0	0	0	0	18
1998	7	2	0	0	0	9	6	0	0	0	0	0	24
1999	10	0	0	0	0	10	2	0	0	0	0	0	22
2000	14	2	0	7	0	10	3	3	0	0	0	0	39
2001	14	5	0	16	3	8	5	4	0	0	0	0	55
2002	20	11	0	13	4	0	6	0	0	0	0	0	54
2003	23	12	0	20	7	4	5	5	0	0	0	0	76
2004	35	12	0	19	10	1	4	6	0	1	0	0	88
2005	23	11	15	20	10	7	4	6	0	0	0	0	96
2006	7	9	18	20	5	6	0	11	5	9	0	0	90
2007	19	11	27	20	17	4	0	6	0	12	14	0	130
2008	20	19	26	19	10	0	3	7	5	11	10	0	130
2009	13	19	24	19	1	7	1	16	20	20	11	9	160
2010	19	24	36	17	4	12	3	14	7	6	16	24	182
2011	22	15	51	20	7	11	7	16	15	9	14	16	203
계	304	156	197	210	78	96	86	94	52	68	65	49	1455

그에 의하면,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00년대 들어 그 증가 폭이 현저히 커졌다. 같은 기간 사회문화 논문 편수를 역시 연도별 학술지별로 정리한 <표 VIII-3>을 보면, 비어문학 분야 전체 논문과 비슷한 양상임을 알 수 있다.

〈표 VIII-3〉 1990-2011년 12개 일본전문 학술지 사회문화 분야 논문 양적 추이

	일본학보	일본문화 학보	일본근대 학연구	일본연구 논총	한일민족 문제연구	한일 일본학	국제지역 연구	일본연구 (외)	일본연구 (고)	일본학 연구	일본공간	일본비평	계
1990	1												1
1991	0												0
1992	4												4
1993	5						9						14
1994	0						5						5
1995	7						4						11
1996	3	2				0	0						5
1997	1	0				1	6						8
1998	2	1				5	5						13
1999	5	0				4	1						10
2000	3	1		0		6	0	1					11
2001	4	3		4	2	2	2	1					18
2002	6	4	0	1	1	0	2	0	0	0	0	0	14
2003	12	6	0	6	6	2	4	3	0	0	0	0	39
2004	13	7	0	4	4	1	1	3	0	1	0	0	34
2005	12	4	5	1	2	2	0	3	0	0	0	0	29
2006	2	7	8	1	3	6	0	4	3	6	0	0	40
2007	11	7	14	3	7	3	0	4	0	6	5	0	60
2008	8	13	19	1	8	0	1	2	1	8	6	0	67
2009	7	10	11	3	1	4	0	8	5	4	2	4	59
2010	8	13	15	2	2	5	2	7	6	1	3	17	81
2011	8	7	32	3	6	6	1	10	5	5	0	16	99
계	122	85	104	29	42	47	43	46	20	31	16	37	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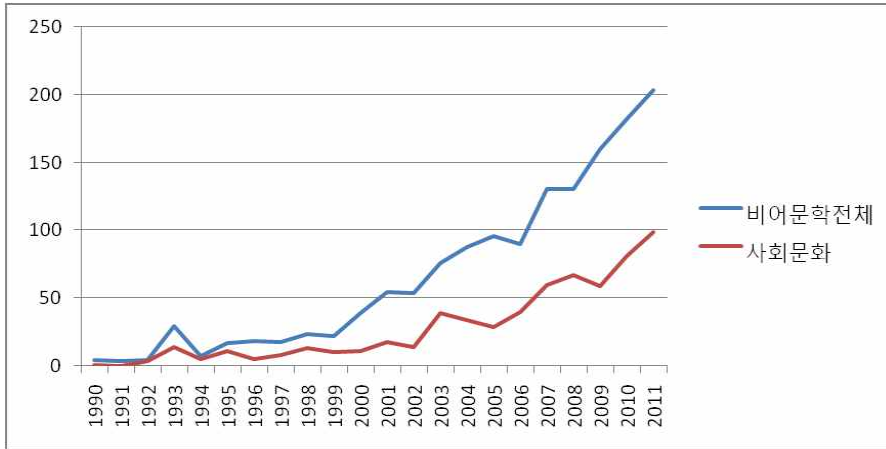
이를 <표 VIII-4>와 같이 시기별로 나누어보면, 1990년대에 발표된 비어문학 전체 논문은 152편으로 10.5%에 해당하며, 전체 논문의 약 90%인 1,303편이 2000년대에 출판되었다. 특히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 간의 연구 성과는 895편으로 그 이전 6년 동안의 성과인 408편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와 관련된 논문도 총 622편 중 88.6%가 2000년대에 나왔으며, 특히 2006년대 후반에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10년간 71편에 불과하던 일본의 사회문화와 관련된 논문은 2000-2005년에 145편으로 늘었고, 2006-2011년에는 그 2.8배에 해당하는 405편이 출판되어 같은 시기 비어문학 전체에 비해 좀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1990-2011년에 출판된 논문 중 2006-2011년의 업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어문학 전체가 약 61.5%, 사회문화 분야가 63.5%에 이른다.

〈표 VIII-4〉 비어문학 전체와 사회문화 논문 양적 추이(1990-2011)

	비어문학전체	사회문화
1990	5	1
1991	4	0
1992	5	4
1993	30	14
1994	8	5
1995	17	11
1996	19	5
1997	18	8
1998	24	13
1999	22	10
2000	39	11
2001	55	18
2002	54	14
2003	76	39
2004	88	34
2005	96	29
2006	90	40
2007	130	60
2008	130	67
2009	160	59
2010	182	81
2011	203	99
계	1455	622

<그림 VIII-1>은 이상의 추이를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이 그래프는 비어문학 논문 전체에서 사회문화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2000년대 전반에 비해 후반에는 사회문화 분야의 논문은 절대량이 커졌을 뿐 아니라, 비어문학 논문 전체에서 사회문화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시기별로 사회문화 논문의 비율을 보면 1990년대에는 비어문학 논문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7%였다가 2000-2005년에 35.5%로 떨어졌다. 즉, 2000년대 전반에는 사회문화 분야의 논문의 절대량은 2배 정도 증가했지만, 비어문학 분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낮아졌다. 이는 정치, 경제, 역사, 사상 등 다른 범주의 논문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양적 성장을 이루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2006-2011년에는 사회문화 분야의 논문의 비율이 약 45.3%로 10% 이상 성장하여 1990년대 수준을 회복하였다. 즉, 2006년부터 최근 6년간 한국의 일본의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연구는 그 이전 시기에 비해 현저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그 성장 폭은 일본연구 전반에 비추어볼 때 상대적으로 더 컸다고 하겠다.

〈그림 VIII-1〉 비어문학 전체 논문과 사회문화 논문 양적 추이 비교(1990-2011)



한편,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12개의 일본관련 전문학술지 가운데서도 어문계와 비어문계는 증가 양상에 차이를 보였다. <표 VI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2011년에 발표된 622편의 사회문화 분야의 논문은 비어문계 학술지에 214편, 어문계 학술지에 408편이 게재되었다. 논문의 절대수뿐 아니라 증가 폭 역시 어문계 학술지 쪽이 크다. 2006-2011년에 게재된 사회문화 분야의 논문은 비어문계 학술지가 121편, 어문계 학술지가 285편으로, 각각 사회문화 논문 전체의 56.5%와 68.6%에 해당하는 편수다. 이 1999-2011년에 출판된 사회문화 분야의 논문을 시기별로 보면, 비어문계 학술지의 경우 90년대 18.7%, 2000-2005년 24.8%, 2006-2011년 56.5%인 데 비해, 어문계 학술지는 1990년대 7.6%, 2000-2006년 22.5%, 2006-2011년 69.9%를 차지하여, 2000년대 들어 어문계 학술지 쪽의 성장이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I-5〉 사회문화논문 편수 어문계/비어문계 시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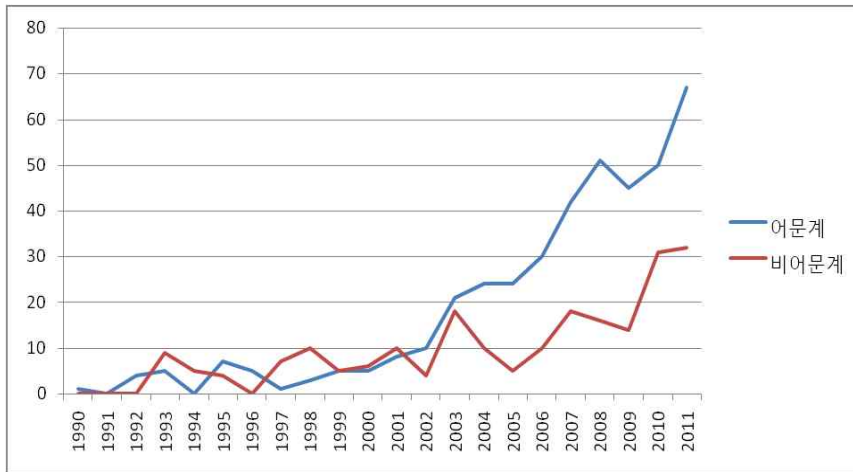
시기	어문계	비어문계
1990-1999	31	40
	7.6%	18.7%
2000-2005	92	53
	22.5%	24.8%
2006-2011	285	121
	69.9%	56.5%
계	408	214

어문계 학술지는 6개 모두 2000년대 초반 이전부터 있었던 데 비해, 비어문계 학술지는 2000년대 후반에 2개가 창간되었다. 그런데도 2006년 이후 사회문화 분야의 논문의 증가폭은 어문계 학술지가 더 컸다. 이런 현상은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일까? <부표 1>에 의하면, 『일본학보』만 2000-2005년 50편에서 2006-2011년 44편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일본문화학보』에 게재된 논문은 25편에서 57편

으로, 『일본근대학연구』는 5편에서 99편으로, 『일본연구』(외대)가 11편에서 35편, 『일본연구』(고대)는 0편에서 20편, 『일본학연구』는 1편에서 30편으로 늘었다. 반면, 비어문계의 『일본연구논총』은 16편에서 13편으로, 『국제지역연구』는 9편에서 4편으로 감소했고, 『한림일본학』과 『한일민족문제연구』가 각각 13편에서 24편, 15편에서 27편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2007년, 2009년에 『일본공간』과 『일본비평』이 창간되어 각각 16편, 37편의 사회문화와 관련된 논문을 실었다.

이렇게 학술지별로 보면, 어문계는 거의 모든 학술지에서 2006년 이후 사회문화 관련 논문편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 이 시기 논문 급증의 주된 원인인데 비해, 비어문계는 새로운 학술지의 창간이 논문 급증에 크게 기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본근대학연구』, 『일본연구』(고대), 『일본학연구』 등 3개의 학술지는 문학 분야 학술지로 출발했다가 종합적인 학술지로 방침을 전환하여 비어문학 논문을 실게 되었는데<sup>80)</sup>. 그 시점은 각각 2000, 2004, 2005년이다. <그림 VI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문계 학술지의 사회문화 논문은 이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급속히 증가한 데 비해, 비어문계 학술지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일본연구논총』과 『한일민족문제연구』 창간 이후 약간의 증가를 보이고는 증감의 변화가 있다가 2000년대 후반 새로운 학술지의 창간과 더불어 다시 가파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림 VIII-2> 어문계 / 비어문계 학술지 사회문화 논문 편수 추이(1999-2011)



#### 4. 저자의 확산: 1편 저자의 증가

세종연구소에서 작성한 2012년도 일본연구자 데이터는 총 1,114명의 일본연구자를 전공 분야별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사회·문화 분야의 연구자로 분류된 사람은 불과 39명에 불과하다. 본 연구에서 사회문화 분야에 포함시키고 있는 교육 연구자는 39명이나 대부분이 일본어교육이어서 사회

80) 단국대 일본연구소의 『일본학연구』는 본래 『일어일본연구』였다가 『일본의 언어와 문학』을 거쳐,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고 계재 논문에 대한 방침도 변경되었다. 『일본근대학연구』는 한일근대학회가 2000년에 한국일본근대학회로 개칭한 이후 학술지 방침이 바뀐 것이다. 고려대 일본연구센터의 『일본연구』는 발간 주체와 명칭은 그대로 이면서 계재 논문의 범주가 확장된 경우다.

문화 전공자는 극히 미미하다. 그리고, 기타가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농학, 공학 등 자연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전공들이 속해 있으며, 그 중 사회문화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자는 매우 소수다<sup>81)</sup>. 그렇다면, 1990-2011년에 12개 학술지에 게재된 622편의 사회문화 논문을 쓴 저자들은 누구일까? 분석 결과 622편의 사회문화 분야의 논문의 저자 수는 총 39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1편만 발표한 사람이 309명(77.6%)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달리 말하자면, 622편의 논문 중 절반에 해당하는 309편은 같은 기간 동안 1편만 발표한 저자에 의해 씌어진 것이다. 이어서 2편의 저자가 40명, 3편, 4편, 5편, 6편이 각각 15, 16명, 8명, 4명이며, 7, 8편은 각 2명, 그리고 9편이 1명이다. 같은 기간 동안 10편 이상을 발표한 저자는 단 1명인데 21편이라는 압도적인 논문 편수를 기록했다.

〈표 Ⅷ-6〉 1인당 논문편수별 저자 및 논문수(1990-2011)

1인당편수	저자수	총 저자중 비율	논문수	총 논문중 비율
1편	309	77.6%	309	49.7%
2편	40	10.1%	80	12.9%
3편	15	3.8%	45	7.2%
4편	16	4.0%	64	10.3%
5편	8	2.0%	40	6.4%
6편	4	1.0%	24	3.9%
7편	2	0.5%	14	2.3%
8편	2	0.5%	16	2.6%
9편	1	0.3%	9	1.4%
21편	1	0.3%	21	3.4%
계	398	100.0%	622	100.0%

1990-2011년이라는 기간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논문 편수는 매우 적은 양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수치는 12개의 일본관련 전문학술지에 실린 사회문화 분야의 논문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저자들이 같은 학술지에 다른 분야 논문을 썼거나, 다른 일본 관련 학술지 또는 분과학문 학술지 등에 일본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일본 사회문화 전문가’로 간주되는 연구자의 수와 12개의 주요 일본관련 전문학술지에 사회문화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의 수는 너무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1편 게재 저자의 수만 해도 ‘사회문화 전문가’의 10배에 가깝다.

저자 분석을 통해 발견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1편만 발표한 저자의 수와 비중이 2006-2011년에 급증했다는 것이다. 시기별로 1편의 저자를 계산할 경우 특정 시기에는 1편만 쓴 저자가 다른 시기에도 논문을 발표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1990-2011년 전 기간을 통해 1편만 게재한 저자를 추출하여 이를 시기별로 나누어 분석해보았다. 1990-1999년에 23명이던 1편 발표자는 2000-2005년에 61명으로 증가했고, 2006-2011년에는 227명으로 급증하였다. 즉, 1990-2011년의 1편 저자 총 311명의 73%가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는 일본 사회문화 분야의 논문과 이를 포함한 비어문학 논문 전체의 양도 현저히 증가했는데, 논문 편수의 증가보다 1편 저자의 증가폭이 더 컸

81) 세종연구소 「2012년 한국 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연구자 데이터. 2012년

다. 즉, 각 시기에 발표된 전체 논문 중 1편 저자에 의한 논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셈이다. 각 시기에 발표된 사회문화 관련 논문 가운데 1편만 쓴 저자에 의한 것은 90년대에 32.4%, 2000-2005년에 42.1%, 2006-2011년에 56.0%로 나타나 그런 추세가 분명히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어문계 학술지와 비어문계 학술지를 비교해보니, <표 VIII-7>과 같이 비어문계에 비해 어문계 학술지에서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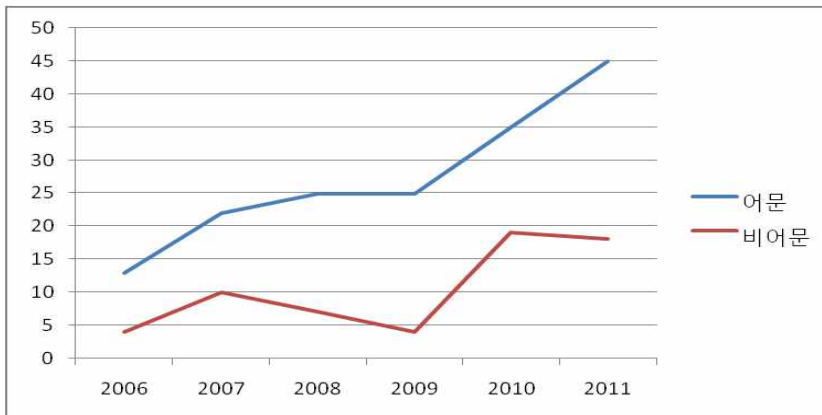
<표 VIII-7> 1편 저자 시기별 어문계/비어문계 비율

시기	어문계	비어문계	총계	비율
1990-1999	12	12	24	7.8%
2000-2005	36	26	62	20.1%
2006-2011	162	61	223	72.2%
계	210	99	309	100.0%

1편만 발표한 저자 수는 1990년대에는 각각 12명, 11명으로 거의 동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전반에는 36명, 25명으로 어문계가 비어문계의 1.4배로 늘었고, 2000년대 후반에는 168명, 59명으로 어문계가 비어문계의 2.8배에 이르렀다. 2000년대 후반의 사회문화 논문편수 비율은 어문계 209편, 비어문계 136편으로 어문계가 비어문계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논문을 게재했다. 즉, 2006-2011년에 어문계 학술지가 비어문계보다 논문은 약 1.5배 더 많이 게재했으나, 1편 저자에 의한 논문은 2.8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편 저자 총수에서 2006년-2011년의 1편 저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어문계 학술지가 61.6%인 데 비해 어문계는 77.1%이었다.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일본(지역)학을 추구하는 일본관련 전문학술지 12개의 사회문화 분야 연구에 한정해서 볼 때, 특히 어문계 학술지를 중심으로 1편의 논문만을 발표한 저자의 팽창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2006-2011년의 연구 성과의 비약적인 양적 성장에서의 특징적인 현상으로 들 수 있다.

<그림 VIII-3>은 2000년대 후반 어문계와 비어문계 학술지의 1편 저자 수 연도별 추이를 비교해본 것이다.

<그림 VIII-3> 1편 저자 연도별 추이(2006-2011)



어문계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되 2008, 2009년에 정체되었다가 이후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비어문계는 2007, 2010년 두 번에 걸쳐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굴곡을 보였다. 2010-2011년만을 보면 어문계와 비어문계가 공통적으로 가파른 증가를 보이지만, 학술지별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이 두 증가의 성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어문계 학술지의 1편 저자 수 증가는 새로운 학술지의 창간에 의한 것인 데 비해, 어문계 학술지의 경우는 기존의 학술지에 발표 논문 수가 증가한 데 기인한다.

한편, 1990-2011년에 분석 대상 12개의 학술지에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사람은 21편을 발표하였다. 같은 기간에 5편 이상 발표한 저자가 5편 8명, 6편 4명, 7편 2명, 8편 2명, 9편 1명인 점에 비추어볼 때, 21편은 압도적인 논문 편수라 하겠다. 특징적인 것은 이 경우 21편 모두를 어문계에 속하는 1개 학술지에만 발표했다는 점이다. 이를 제외한 5편 이상 발표자 17명의 발표 학술지를 보면, 뚜렷이 어문계와 비어문계로 나뉜다. 17명 중 양편 모두에 발표한 사람은 단 1명인데, 이 경우도 6편 중 5편을 어문계 학술지에 실었다. 나머지 16명은 모두 어문계나 비어문계 어느 한쪽에만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명 중 어문계 학술지에만 발표한 저자는 8명, 비어문계에만 발표한 저자는 8명으로 비슷한 수다. 5편 이상의 저자들은 대개 연구 경력이 상대적으로 긴 편으로, 12개의 분석 대상 학술지 이외의 다양한 지면에도 논문을 발표해왔다. 그런 점에 비추어볼 때, 이렇게 12개의 학술지 중 논문 발표의 장이 어문계와 비어문계로 확연히 갈리는 것은 일본학계가 크게 둘로 분절되어 있고, 상호 소통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한편, 1편 저자 309명 가운데서는 어문계는 210명, 비어문계는 99명으로 어문계가 68%를 차지한다. 이 중 2000년대 후반에는 각각 162명, 61명으로 어문계가 72.6%에 해당한다. 즉, 12개 학술지에 사회문화 논문을 1편 발표한 저자들 중 어문계에 발표한 사람이 비어문계의 2.1배, 2006-2011년에는 2.7배에 이른다.

같은 일본 전문 학술지에서도 어문계와 비어문계 사이에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어문계 학술지와 비어문계 학술지를 비교해보면, 한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어문계 학술지 6개는 모두 등재학술지인 데 비해, 비어문계 학술지 6개 중 3개가 등재, 1개가 등재후보지이며 2개는 미등재지라는 점이다. 어문계 학술지들이 등재후보를 거쳐 등재지가 된 시점은 『일본학보』 2002년, 『일본문화학보』 2004년, 『일본근대학연구』 2009년, 외대 『일본연구』 2006년, 『일본학연구』 2007년, 고대 『일본연구』 2010년이다. 비어문계에서는 『일본연구논총』이 2006년, 『국제지역연구』가 2004년, 『한일민족문제연구』가 2007년, 『한림일본학』이 2012년이다. 일본공간과 일본비평은 미등재다. 학술지의 등재지 선정 여부는 연구자의 업적 평가와 직결되어 등재지를 찾아 투고하는 경향이 점차 강화되었는데, 이런 경향이 1편 저자의 증가에 영향을 끼친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된다. 특히, 공동연구나 연구기관에 대한 학술지원사업이 증대함에 따라 그 참여자들이 지원받은 연구사업의 성과를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할 필요성이 커진 것도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본다.



## 5. 연구 주제의 동향

### 5.1. 주제 도출과 분류 방식에 대해

1990-2011년에 발표된 622편의 사회문화 분야의 논문 제목을 토대로 어떤 주제들이 다루어졌는지 살펴보았다. 그 동안 매우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5편 이상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22개로 나왔다. 이 22개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주제로서 5편 미만의 소수인 경우는 모두 기타로 분류하였다. 기타를 제외한 22개 주제는 교육, 지역, 사회운동/시민사회, 인구/고령화, 노동, 복지, 여성, 이주/다문화, 재일조선인, 관광, 미디어/정보, 문화/병리, 사회의식, 대중문화, 종교, 민속/전통, 문화론, 문화정책/문화교류, 예술/예능, 기억, 사회사, 한일관계 등이다.

사회문화 분야의 논문을 주제별로 분류하는 데도 여러 가지 난점이 있었다. 우선은 분류의 수준을 정하는 문제다. 다양한 주제들을 어느 정도까지 세분화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예컨대 ‘문화정책/문화교류’와 같은 경우, 문화정책과 문화교류라는 두 범주 사이에 공통되는 점이 있는가 하면 이질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 둘을 별도의 범주로 두는 것보다는 이질성을 내포하면서도 하나의 범주로 묶는 것이 분석의 편의에 좋고, 연구 동향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어 하나의 범주로 만들었다. 하나의 범주이면서 두 개의 주제어를 병기한 경우는 모두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또 다른 예로 ‘이주/다문화’와 ‘재일조선인’은 이주 또는 디아스포라로 함께 묶을 수도 있다. 최근 이주, 디아스포라는 분과학문에서 중요한 테마이므로 재일조선인에 관한 연구도 한일관계의 특수한 문제로서가 아니라 보편적인 이론적 관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 점에서도 두 주제를 하나의 범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재일조선인은 일본 사회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한국사회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 주제가 일본 연구에서 어떤 형태로 발견되고 추구되었는가 하는 것은 한국의 일본연구의 특성을 보여주는 면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일본연구의 성격을 좀더 섬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일조선인을 별도의 주제로 뽑아내서 고찰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이주/다문화’는 일본의 다민족, 다문화화와 관련된 논문과 해방 후 귀환한 재조일본인에 관한 논문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 재조일본인은 관점에 따라서는 재일조선인과 함께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이주라는 주제로 묶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재일조선인을 별도로 뽑고, 그 외의 일본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논문은 ‘이주/다문화’에 포함시켰다. 재조일본인에 관한 논문 중에서도 해방 이전 시기를 다룬 것은 사회문화가 아닌 역사 분야로 분류하거나 사회문화 중 사회사 분야로 분류하고, 해방 후 귀환한 일본인에 관한 것은 ‘이주/다문화’로 분류하였다.

사회사는 당초 비어문학 논문을 정치, 경제, 역사, 사상, 사회문화로 분류할 때 역사와 사회문화 중 어느 쪽으로 분류해야 할지 애매했던 논문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문화 분야로 분류한 것 중 시기적으로 해방 이전 또는 일본의 전전에 해당하는 논문은 주제에 상관없이 모두 사회사로 분류하였다. 이는 사회사의 방법론이나 엄밀한 학문적 정의에 비추어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사회사학회 학술활동이 다양성과 개방성을 중요한 특징으로 하여 다양한 주제와 학문 영역을 포괄해 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대 이전에 관해 다른 것을 사회사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예컨대 종교, 여성, 교육 등의 주제를 현대 이전의 일본에 관해 다룬 경우는 사회사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사회사 분야를 설정하는 것은 다른 한편 일본 사회문화 분야 연구 방법과 관련한 경향과 특징을 보여줄 수 있

다는 이점도 있다. 즉, 일본의 사회문화 관련 주제를 역사적 방법에 의해 탐구하는 것이 중요한 흐름으로 대두하였음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다.

끝으로 ‘한일관계’는 당초 기본적으로 정치 분야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 글의 고찰 대상 12개 학술지에 게재된 한일관계 논문은 대개 정치 분야로 분류되었으나, 명백히 정치 보다는 사회문화 쪽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들은 사회문화 분야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일관계 논문은 12개 학술지 전체의 아주 일부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두고자 한다.

### 5.2. 주제의 추이: 1990-2011년 전 기간

<표 VIII-8>은 622편의 사회문화 논문을 주제별·연도별로 정리한 표다. 전체 논문 중 기타로 분류된 39편을 제외하고, 나머지 583편이 22개 주제군으로 범주화되어 있다.

<표 VIII-8> 사회문화 주제별 연도별 논문편수 추이(1990-2011)

	교육	지역	시민 사회/ 사회 운동	인구/ 고령화	노동	복지	여성	이주/ 다문화	재일 조선민	관광	미디어 /정보	문화/ 평리	사회 의식	대중 문화	종교	민속/ 전통	문화론	문화 교류/ 정책	예술/ 예능	기억	사회사	한일 관계	기타	계
199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1	
199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99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2	0	0	0	0	4	
1993	0	9	0	0	0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3	14	
1994	0	3	1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	
1995	4	1	0	2	1	0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0	11	
1996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3	5	
1997	0	2	0	0	1	0	0	0	0	3	0	0	0	0	1	0	0	0	0	0	0	1	8	
1998	1	3	4	0	1	0	0	0	0	1	0	0	0	0	0	0	0	2	0	0	0	0	13	
1999	0	3	1	0	0	0	0	0	1	0	0	0	0	0	0	0	1	3	0	0	1	0	10	
2000	0	3	2	1	1	0	0	0	0	0	0	0	0	0	1	1	0	2	0	0	0	0	11	
2001	4	2	1	0	0	3	1	0	3	0	0	0	0	0	1	1	1	0	0	0	0	0	18	
2002	4	1	1	1	0	0	0	0	1	0	0	0	0	1	0	2	1	1	0	0	1	0	14	
2003	2	3	3	1	1	0	1	1	11	0	0	1	1	0	0	1	5	1	0	0	4	4	42	
2004	5	0	2	1	1	2	0	2	5	1	2	0	2	4	2	2	0	0	0	0	2	0	34	
2005	2	0	0	0	0	2	1	2	2	0	5	0	0	4	3	0	0	1	2	0	1	1	29	
2006	1	0	3	2	3	1	0	1	5	1	3	0	0	2	1	4	0	2	1	0	5	2	40	
2007	3	1	5	0	3	1	5	2	8	2	1	1	1	13	3	3	1	2	0	0	3	2	60	
2008	6	4	0	3	1	3	1	2	9	3	0	0	1	7	3	3	2	0	2	2	10	0	66	
2009	1	1	0	0	1	0	3	5	10	2	4	0	1	7	3	3	0	1	3	1	6	2	59	
2010	3	1	2	1	2	1	3	3	9	5	3	0	0	6	2	4	6	3	0	8	12	0	78	
2011	5	3	3	1	3	3	2	3	13	7	3	5	1	7	3	5	2	2	3	0	15	3	100	
계	42	40	28	13	19	17	17	23	77	25	21	7	7	51	23	32	20	22	13	11	60	15	39	622

1990-2011년의 전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다뤄진 주제는 ‘재일조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일조선인에 관한 논문은 77편으로 전체의 12.4%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사회사 60편(9.6%), 대중문화 51편(8.2%), 교육 42편(6.8%), 지역 40편(6.4%) 등이 상위 5개 주제에 포함된다. 그런데, <표 VIII-9>와 같이 시기별로 나누어서 보면, 이 상위 5개 주제들 사이에도 중대한 차이점이 나타난다. 1-3위인 재일조선인, 사회사, 대중문화는 2006-2011년에 논문이 집중적으로 발표된 데 비해 4, 5위인 교육과 지역은 상대적으로 분산된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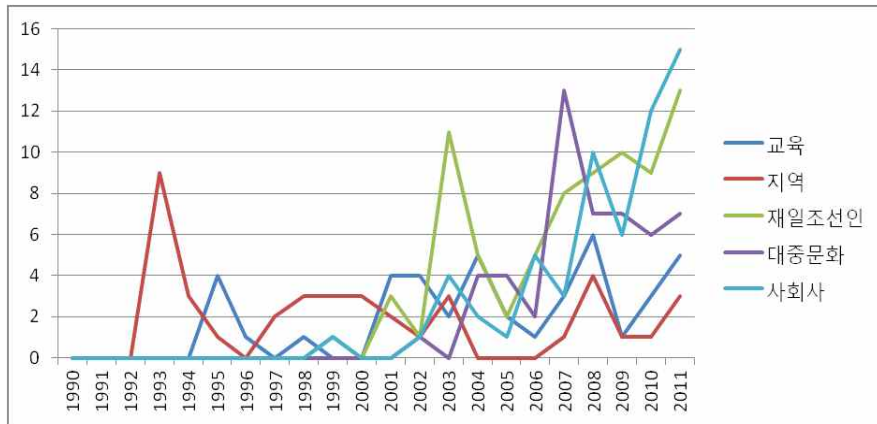
<표 VIII-9> 사회문화 논문 주제별 논문편수 추이

	교육	지역	시민 사회/ 사회운동	인구/ 고령화	노동	복지	여성	이주/ 다문화	재일 조선인	관광	미디어/ 정보	문화/ 평리	사회 의식	대중 문화	종교	민속/ 전통	문화 론	문화 교류/ 정책	예술/ 애능	지역	사회 사	한일 관계	기타	계
1990-1999	7	20	6	2	3	1	0	2	1	4	0	0	0	0	1	3	2	7	2	0	1	1	8	71
2000-2005	17	9	9	4	3	7	3	5	22	1	7	1	3	9	7	7	7	5	2	0	8	5	7	148
2006-2011	19	10	13	7	13	9	14	16	54	20	14	6	4	42	15	22	11	10	9	11	51	9	24	403
계	43	39	28	13	19	17	17	23	77	25	21	7	7	51	23	32	20	22	13	11	60	15	39	622

재일조선인에 관한 논문은 전체의 70.1%에 해당하는 54편이 2006-2011년에 발표되었다. 1990년대에는 단 1편뿐이던 재일조선인 관련 논문은 2000-2005년에 22편(28.6%)으로 크게 늘었고, 그 후 6년간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2, 3위를 기록한 사회사와 대중문화는 2000년대 후반의 논문 집중도가 더 높다. 사회사는 51편(85%), 대중문화는 42편(82%)으로 압도적 다수가 2006-2011년에 출판되었다. 대중문화를 다룬 논문은 1990년대에는 전혀 없다가 2000-2005년에 9편(17.6%)이 발표되었을 뿐이며, 사회사 논문은 1990년대에 1편, 2000-2005년에 8편(13.3%)에 불과했다. 즉, 이들 상위 3개 주제는 1990년대에는 논문이 거의 없다가 2000년대에 들어 급증한 경우이며, 특히 2000년대 전반에 비해서 후반에 사회사는 6.4배, 대중문화는 4.7배, 재일조선인은 2.5배로 증가한 것이다.

5위에 오른 지역은 이와 대조적인 추이를 보여준다. 22개 주제 중 ‘지역’은 유일하게 1990년대에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고, 이후 감소한 경우다. 지역에 관한 논문은 모두 39편인데 그 중 절반이 넘는 20편이 90년대에 출판되었다. 이는 1990년대에 발표된 논문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다. 2000년대 전반에는 9편으로 현저히 줄었지만 재일조선인, 교육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0대 후반 들어서는 다른 주제들의 논문이 급속히 증가한 반면 지역 관련 논문은 거의 변함이 없어 2006-2011년에 국한시켜 보면 16위로 현저히 낮아지게 되었다.

〈그림 VIII-4〉 1990-2011년 상위 5개 주제의 논문편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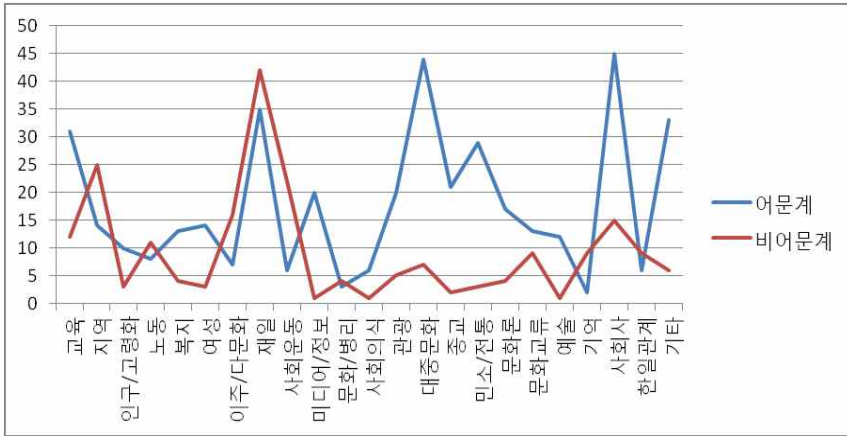
지역 관련 논문이 1990년대에 가장 많이 발표된 데는 교육부(현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외지역연구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역에 관한 논문을 가장 많이 게재한 것은 15편이 실린 『국제지역연구』이며, 그 다음이 8편의 『한림일본학』인데, 이 두 학술지에 발표된 지역 관련 논문들은 주로 정부의 해외지역 연구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일본현지조사연구의 성과들이다. 1993-1995년에는 사회학·인류학 연구자 9명으로 이루어진 공동연구팀이 3년간 가와사키 지역에 대한 집중 연구를 했다. 이 연구는 정부의 세계화 정책에 따라 교육부가 주관하고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가 관리한 해외지역연구를 위한 연구비지원사업에 의해 이루어졌으며<sup>82)</sup>, 그 성과들은 상당수가 지역종합연구소가 발간하는 『국제지역연구』에 게재되었다. 한편, 1996년 교육부의 해외지역연구 중점연구소로 지정된 한림대 일본학연구소는 1997-1999년에 일본의 3개 지방도시(金沢, 山形, 大分)에 대한 공동 현지조사 연구를 수행했고, 그 성과들은 대개 『한림일본학연구』(현재의 『한림일본학』)에 게재되었다. 90년대 지역 관련 논문 20편 중 이 두 공동연구에 의한 논문이 15편에 달한다. 이 두 연구 성과로 출판된 논문은 그보다 많은 수지만, 지역이 아닌 다른 주제로 분류되었거나,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아닌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들이 있다.

2000년대 들어 지역 관련 논문이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지역 연구 자체의 감소 때문이라기 보다는 게재 학술지의 다양화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일본지역연구가 아닌 분과학문의 학술지들까지 함께 검토해보면 좀더 풍부한 연구 성과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90-2011년에 12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주제별 양적 추이를 어문계와 비어문계 학술지로 구분해서 비교해보면 <그림 VIII-5>와 같다. 어문계 학술지의 총 논문편수가 2배 가까이 많은 가운데 지역, 이주, 재일조선인, 노동, 사회운동 등은 비어문계가 더 많이 다룬 주제이며, 관광, 대중문화, 종교, 민속, 사회사 등은 어문계 쪽이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82) 이시게 외 『일본의 도시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x xii

〈그림 VIII-5〉 1990-2011년 논문의 주제별 양적 추이 어문계/비어문계 비교



### 5.3. 2006-2011년의 연구 동향

기타를 제외한 22개 주제 가운데서 2006-2011년에 많이 다뤄진 주제들을 꼽아보면 제일조선인, 사회사, 대중문화, 민속, 관광이 1-5위에 해당한다. 이 중 2000년대 전반에도 5위 이내에 들어있던 것은 제일조선인(1위), 대중문화(3위) 뿐이다. 이 상위 5개 주제들 가운데서 관광을 제외한 다른 4개 주제들은 1990년대에 논문이 전혀 없거나 겨우 1편 있는 정도였다가 2000년대 들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 2000년대 전반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후반에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사회사·대중문화는 2006-2011년에 80%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관광도 총 25편 중 20편이 2006-2011년에 발표되어 이 시기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나, 90년대에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가 2000년대 전반에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이다.

위와 같이 상위에 오르지는 않은 주제들 중에도 2006-2011년에 80% 이상이 발표되는 높은 집중도를 보인 주제들이 있다. 그것은 여성, 문화/병리, 기억 등이다. 여성과 문화/병리는 2000년대 전반에 처음 등장했지만 아주 소수였고, 2000년대 후반에 비로소 많이 다뤄졌다. 기억은 2006년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한 주제다. 미디어/정보와 사회의식도 2000년대에 처음으로 등장한 주제인데, 이들은 2000년대 전반에도 어느 정도 다뤄졌기 때문에 2000년대 후반의 논문 집중도는 여성이나 문화/병리보다 많이 낮은 편이다.

반면, 사회운동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전반 모두 5위 이내에 들었으나, 2000년대 후반에는 10위 정도로 떨어졌고, 문화정책도 1990년대에는 3위를 기록했으나 2000년대에는 10위 밖으로 밀렸다.

이러한 현상들은 어떤 함의를 갖는 것일까? 일반적으로는 논문 편수가 많을수록 그 주제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 나아가 사회의 관심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양적 추이도 학문적·사회적 관심을 일정 정도는 반영하고 있지만, 논문 편수의 많고 적음이 그대로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어떤 주제에 대한 논문의 편수는 많아도 특정 학술지 또는 특정 학술지의 특정 호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는 그 주제에 관한 특집이 기획된 경우다. 즉, 특정 학술 집단에서 선도적으로 이 주제를 다루거나, 특정 집단에서만 이 문제를 천착하는 경우에도 양

적 지표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억’이라는 주제는 사회적 기억의 형성에 관한 것으로 22개 주제 중에서 유일하게 2000년대 후반에 처음 등장한 주제다. 게재된 논문은 총11편인데 그 중 9편이 『일본비평』의 한 호에 집중되어 있다. <표 VIII-10>

<표 VIII-10> 사회문화 주제별 학술지별 논문편수(1990-2011)

	일본연구 논총	한일민족 문제연구	국제지역 연구	한림 일본학	일본공간	일본비평	일본학보	일본문화 학보	일본근대 학연구	일본연구 (외)	일본연구 (고)	일본학 연구	총계
교육	3	2	2	0	4	0	18	3	6	2	1	1	42
지역	0	0	16	8	1	1	7	4	0	1	1	1	40
인구/고령화	0	0	2	1	0	0	3	2	0	3	1	1	13
노동	0	0	3	5	2	1	2	1	5	0	0	0	19
복지	2	0	0	0	1	1	6	1	5	0	1	0	17
여성	1	0	0	2	0	0	4	3	4	1	1	1	17
이주/다문화	5	9	1	0	0	1	3	1	1	0	2	0	23
재일	1	28	5	1	2	5	6	16	7	3	3	0	77
사회운동	9	0	6	6	0	1	4	0	1	0	1	0	28
미디어/정보	0	0	0	1	0	0	7	0	4	8	1	0	21
문화/병리	0	0	0	0	0	4	0	2	1	0	0	0	7
사회 의식	0	0	1	0	0	0	2	1	1	1	0	1	7
관광	0	0	4	0	1	0	1	0	18	0	1	0	25
대중문화	1	0	0	2	2	2	17	7	9	4	0	7	51
종교	0	0	0	0	0	2	3	8	9	1	0	0	23
민소/전통	0	0	0	1	1	1	12	6	3	3	0	5	32
문화론	0	0	1	1	1	1	5	4	2	4	0	1	21
문화교류	2	0	0	7	0	0	5	0	3	1	4	0	22
예술	0	0	0	1	0	0	2	3	2	2	2	1	13
기억	1	0	0	0	0	8	1	1	0	0	0	0	11
사회사	1	1	1	6	0	6	2	15	11	7	1	9	60
한일관계	3	1	0	4	1	0	1	0	0	4	0	1	15
기타	0	1	1	1	0	3	11	7	12	1	0	2	39
계	29	42	43	47	16	37	122	85	104	46	20	31	622

재일조선인이 2000년대 전·후반에 걸쳐 모두 1위를 기록한 것은 한국사회에서 재일조선인을 연구 주제로 설정할만한 학문적·사회적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한일민족문제 연구』가 분석 대상 학술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2001년에 창간된 『한일민족문제연구』는 민족문제에 특화된 학술지인만큼 다른 학술지들에 비해 재일조선인을 집중적으로 다룬만한 성격을 지닌다. 실제로 재일조선인에 대한 연구는 처음에는 이 잡지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12개 학술지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2000년대 전반에 재일조선

인이 1위를 차지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당시 한국의 일본학계에서 이 주제가 보편적인 혹은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재일조선인에 관한 연구는 양적으로도 급성장을 했을 뿐 아니라 게재 학술지도 『한일민족문제연구』의 집중도가 낮아지고 여러 학술지로 분포가 확산되었다. 재일조선인에 관한 논문은 『한일민족문제연구』에 실린 것이 전체의 34.6%를 차지하는데, 2000년대 전반 45.5%(22편 중 10편)에서 후반에는 33.3%(54편 중 18편)로 저하되었다. 이는 2006년 이후에는 재일조선인에 관한 논문의 게재 학술지가 다양화되고 증가했음을 뜻한다.

이는 2000년대 전반에 재일조선인에 대한 연구는 일정한 학술지 또는 그 학술지의 발간 주체를 중심으로 한 선도적 그룹에 의해 학문적 담론의 장에 올려졌고, 2000년대 후반에 관심이 확산되어 이를 다룬 연구자가 증대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동시에 재일조선인이라는 주제에 대한 관심의 맥락도 다양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즉, 식민지 지배의 역사 또는 한일관계라는 맥락, 조국적 이주라는 맥락, 또는 국민국가와 시민권, 다문화정책이라는 맥락 등 다양한 관심에서 재일조선인을 주제로 다루게 되었을 것이다.

한편, 한국의 정치적·사회적 변화도 2000년대 재일조선인 연구의 확대에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민주화 이전에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터뷰 조사 등은 정치적·심리적 부담이 있었고, 따라서 경험적 연구는 상당히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었다. 민주화 이후, 특히 1990년대 후반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의한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재일조선인 사회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덜어졌고, 재일조선인의 한국 방문도 증대했다. 2000년대에는 중국 조선족의 입국이 급증하는 가운데 재외동포법 등 본국에서의 재외한인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정책 동향 등도 더해져서 재외한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했다. 재일조선인은 이러한 재외한인 연구의 일환으로서 새롭게 자리매김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사회의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화 문제, 다문화정책, 다문화주의 등에 대한 관심은 일본의 비슷한 현상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그런 맥락에서 재일조선인 문제를 바라보는 경우도 등장하였다. 물론 일본 내에서 재일조선인의 참정권 운동, 국적 문제 등도 배경이 되었고, 특히 민족학교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미디어의 영향이 컸다.

사실 재일조선인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초 재외한인학회로 거슬러올라간다. 그러나, 이는 일본학계가 아닌 분과학문 영역의 학회로 인류학, 사회학 등이 중심이 되었다. 재일조선인 연구는 일본학계 외에 분과학문 쪽의 사회사 분야에서도 다루어졌다. 한국사회사학회는 식민지 시기, 근대 문제 등을 주요한 주제로 다루었고, 일본이나 한일관계에 대한 연구도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과학문 영역에서의 흐름과 더불어서 볼 때 2000년대, 특히 2000년대 후반 재일조선인 연구의 증가는 보편적인 맥락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는 교과서 문제, 역사인식 문제, 전후처리 문제가 새롭게 쟁점화된 가운데,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나 시민적 권리 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재조명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탈냉전·글로벌화의 흐름을 배경으로 본국과 재일조선인의 관계에 대한 조명도 이루어졌다.

사회사가 2위를 차지한 것도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른 21개 주제들과 달리 사회사는 주제라기보다 분야 또는 방법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사를 주제의 하나로 설정한 것은 사회학이나 인류학, 그 외 다른 분야에서도 연구자들의 연구 관심이 현대를 넘어서서 식민지시대 혹은 근대로 확장되거나(현대와의 연관성 속에서), 주제 자체가 역사적 고찰을 필요로 하는 경

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비록 역사적 접근 방법을 취한 논문이라도 역사 분야로 분류해 버리면 사회문화 분야 연구 동향에서 중요한 특징, 즉 역사적 접근의 증가를 포착해낼 수가 없다. 일단 사회문화 분야로 분류된 논문들 가운데서 현대 이전 시기를 다룬 논문이 2000년대 후반에 두드러지게 증가했다는 것은 사회문화 관련 주제들의 연구의 심화 내지는 확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현상은 식민지 시기나 근대에 대한 관심의 증폭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2006-2011년에 각각 3, 5위에 오른 대중문화와 관광은 둘 다 이 시기에 80% 이상의 논문이 집중되었다. 대중문화는 총 51편 중 42편이 이 시기에 발표되었는데, 그 중 거의 1/3에 해당하는 13편이 한류에 관한 논문이라는 점이 무엇보다도 두드러진 특징이라 하겠다. 한류에 관한 글은 모두 14편으로 대부분이 2006년 이후에 나왔고, 나머지 1편은 2005년에 게재되었다. 2000-2005년에는 일본영화에 대한 논문이 5편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만화에 관한 글이 2편, 한국의 일본 대중문화 수용태도에 관한 글이 1편, 그리고 일본의 한류에 관한 글이 1편이다. 대중문화 개방이 중요한 이슈였던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전반은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었던 시기다. 그에 비해 2000년대 후반은 역으로 한국 대중문화의 일본 진출이 중대한 관심사가 되어 일본 사회 내지는 대중문화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2000년대 전반에는 일본 영화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았는데, 5편의 논문 모두를 1명의 연구자가 쓴 것이고 게재 학술지도 『일본학보』 하나에 집중되어 있어 일본영화에 대한 관심의 증대 또는 학문적 담론의 확산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2006-2011년에 한류 다음으로 많이 다뤄진 주제는 12편의 논문이 발표된 애니메이션이다. 이 경우도 12편 중 8편이 영화와 마찬가지로 1명의 저자에 의한 것이며 이 글들은 모두 같은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한류, 애니메이션 외에 영화에 관한 것이 4편, 만화, 한국의 일본대중문화 수용에 관한 글 등이 있다.

관광에 대한 논문도 총 25편 중 80%인 20편이 2006-2011년에 발표되었는데, 20편 중 18편이 『근대일본학연구』에 게재되어 학술지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에도 관광 논문이 4편으로 당시 다뤄진 주제들 중 4위에 올랐는데, 그 때의 논문들은 모두 『국제지역연구』에 게재되었다. 1990년대의 4편과 2000년대 전반에 『일본학보』에 게재된 1편 등 2000년대 전반까지의 관광에 관한 논문과 2006년 이후의 관광 관련 논문은 이렇게 학술지 면에서 뚜렷이 나눌 뿐 아니라 성격 면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2006년 이전의 관광 관련 논문은 모두 인류학자들의 연구 성과로, 일본의 관광의 역사나 사회조직, 문화 등을 다루었다. 그에 비해 2006년 이후의 관광 논문은 20편 중 7편이 한국 방문 일본 관광객에 대한 연구(부산, 제주도 등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이며, 대개 사회문화적 성격의 고찰이라기보다는 관광 사업에 참고가 될만한 세부적이고 실용적인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외에는 관광 정책 및 법제도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2006년 이후의 관광 연구는 주로 관광 사업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와 2006년 이후의 관광 연구는 학문적인 연계성이 적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6. 결론

이상 1990-2011년에 12개 일본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2006-2011년의 일본 사회문



화 분야의 연구의 동향과 특징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연구 방법과 관련된 문제로서 일본연구 가운데서 어문학과 비어문학으로, 비어문학 논문을 다시 하위 범주로, 여기서 사회문화 분야로 분류된 논문을 주제별로 분류하는 각 단계마다 경계 설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학문 분류 체계(학진 분류)에 잘 맞지 않는 논문이 크게 증가했음을 뜻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학제적 연구와 융·복합적 연구의 증가, 각 학문 영역에서 주제의 확장 또는 새로운 관점의 도입 등 학계의 새로운 추세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전문가’의 정체성을 갖지 않는 연구자들에 의한 일본 연구 논문의 증가로도 나타났다. 즉, 연구 주제나 저자 등 여러 면에서 일본연구의 ‘탈경계화’가 급속히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분류상의 어려움은 이번 연구와 같은 일본연구의 동향에 관한 연구가 분석 대상 연구 성과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떻게 범주화하는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해석을 낳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2006-2011년의 6년간 사회문화 분야의 일본관련 연구 논문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1990년 이래 발표된 사회문화 분야의 논문의 65.2%가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2000년대 전반에 비해서도 약 3배에 가까운 수치다. 그 가운데서도 최근 3년간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어문학 전문 학술지로 출발했거나 발간 기관이 어문학 기반을 갖고 있는 학술지를 어문계,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어문계로 구분하여 사회문화 논문의 양적 추이를 비교해보면, 어문계 학술지 쪽의 증가 폭이 더 크다. 1990년대에는 비어문계 학술지의 사회문화 논문이 어문계 학술지 보다 많았는데, 2000년대 전반에 어문계 쪽이 비어문계의 1.7배 정도로 역전되었고, 2006년 이후에는 그 차가 좀더 벌어져 2배 가까이에 이르렀다.

셋째, 비어문학 논문을 게재하는 일본관련 전문학술지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이후 한편으로는 새로운 학술지들이 창간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문학 중심이던 기존의 학술지들이 ‘일본학’을 포괄하는 종합적 학술지로 방향 전환을 함으로써 사회문화 논문이 실리는 지면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2000년대 후반에는 비어문계 학술지 2종이 창간되기도 했지만, 이 시기 사회문화 논문의 비약적인 증가에는 종합적인 일본학 학술지로 성격을 바꾼 어문계 학술지들의 영향력이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3개 학술지가 2000년대 중반에 방향을 바꾼 것이 2006년 이후 지면 확대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연도별 게재 논문 편수가 비어문계는 대체로 일정 수준을 유지한 데 비해 어문계의 경우 특히 2007년 경부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 학술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넷째, 1990-2011년에 12개 학술지에 사회문화 분야 논문을 발표한 저자 수가 약 400명에 이르러 예상 보다 훨씬 많으며, 그 중 78%가 1편만 쓴 저자들이라는 점이다. 이는 일본학 조사(세종연구소)에서 조사된 분야별 일본전문가에 대한 조사 결과와 큰 격차를 보인다. 이는 일본 사회문화 분야의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연구자 외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회문화와 관련된 논문을 써서 발표했음을 뜻한다. 물론 이 가운데는 아직 경력이 짧은 신진 연구자들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비일본전문가’에 의한 글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1990-2011년에 12개 일본 전문 학술지 게재 논문에서 다뤄진 사회문화 관련 주제는 ‘기타’를 제외하고도 22개 주제로 분류될 만큼 매우 다양한데, 이러한 주제의 다양화는 2000년대에 진전되었고, 특히 2006-2011년에 더욱 진전되었다는 점이다. 다뤄진 주제들은 분류 기준에 따라서는 본 연구

보다 더 세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제들의 수나 다양성 면에서 본 연구보다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 1990-2011년간의 논문 편수 면에서 1-5위에 해당하는 주제들은 재일조선인, 사회사, 대중문화, 교육, 지역이며, 2006-2011년에는 재일조선인, 사회사, 대중문화, 민속/전통, 관광 등이 1-5위를 기록했다. 이들 중 특히 재일조선인, 사회사, 대중문화 등은 2006-2011년에 논문이 집중되었다.

여섯째, 일본연구의 성장·발전은 정부의 학술지원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일본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미국 등 해외의 일본연구도 침체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2000년대 후반 한국의 일본연구는 크게 성장했다. 이것은 학술지원정책의 긍정적인 면이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학술지원사업에 대해 획일적으로 일정한 양적 기준을 부과하고, 등재후보지 이상에 게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큰 폭의 양적 성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등재학술지를 갖고자 하는 연구기관 또는 학회의 필요와 등재지 게재 업적을 원하는 연구자의 필요가 합쳐져서, 질적인 수준이 담보되지 않는 단편적인 성과들의 양산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시점이다.

저자 분석에서 명확하게 분석을 해내지는 못했으나 중요한 시사점을 얻은 것은 12개 학술지에 사회문화 분야의 논문을 발표한 저자들이 어문계 학술지와 비어문계 학술지 사이에 분절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같은 범주의 주제에 관한 논문이라도 주로 어문계 학술지에 내거나 반대로 비어문계 학술지에만 집중적으로 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두 개의 흐름이 상호 소통이 부재한 가운데 병존하는 것이 향후 일본연구의 질적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세종연구소 「2012년 일본학조사 연구자 데이터」 2012년  
 이시재 외 『일본의 도시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한영혜 「동아시아지역연구의 제도화와 새로운 딜레마: 일본연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동북아 리뷰』 3집3호, 2011

\*이상의 문헌 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12개 학술지들과 각 발간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음.

# 부 록

부록 1. 통계자료

부록 2. 일본학 조사 설문지

부록 3. 일본연구기관 주소록

## 부록 1. 통계자료

- (1) 일본연구자 통계
- (2) 일본연구기관 통계
- (3) 일본연구자 학위논문 업적 통계

## I. 일본연구자

### 1. 연구 목적

#### 1) 2012년 조사 목표

- ① 2005년과 2012년의 일본학 조사 비교 분석을 통한 일본연구 흐름의 변화를 연구함
- ② 각 분야별 집필은 통계를 통한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
- ③ 한국의 일본학 발전 방향을 제시

#### 2) 2005년 조사와의 차이점

- ① 한국의 일본학에 관한 각 분야간 소통과 홍보를 중시
- ② 세계의 일본 연구자들의 교류를 통한 한국의 일본학의 상황을 파악

### 2.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개인 연구자, 연구기관, 개인연구자 논문업적조사

#### 2) 연구조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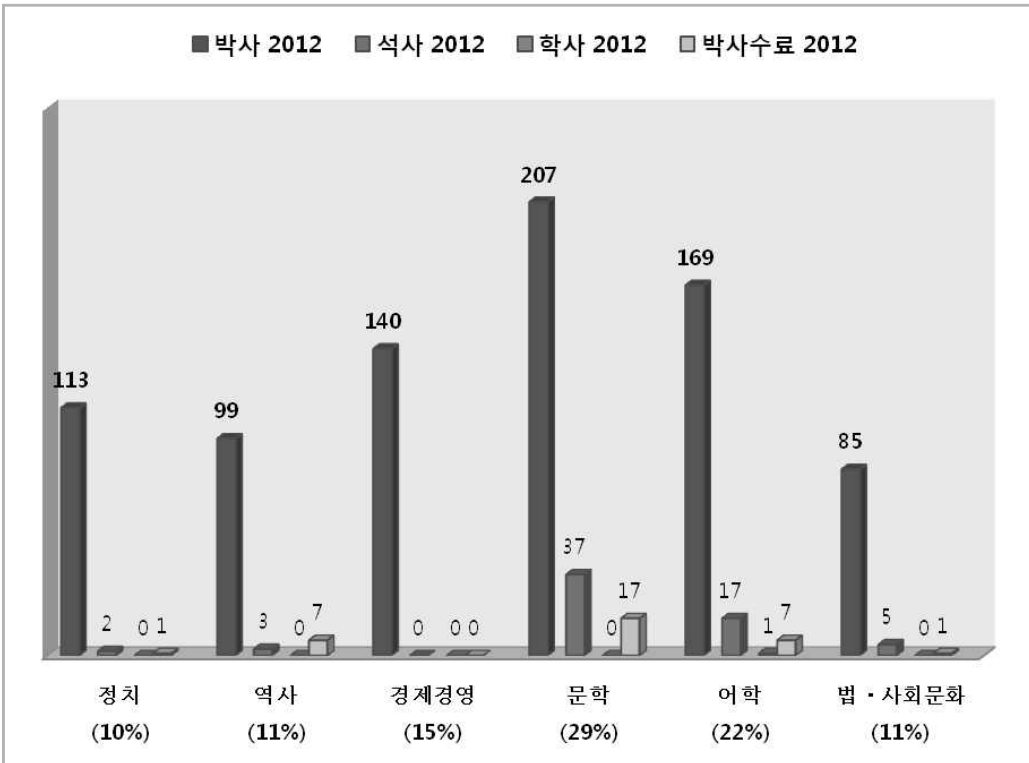
- ① 직접 설문 (연구자 · 연구기관)
  - 설문지 우편발송
  - 설문지 직접 배송 (학교 및 연구기관)
  - 설문지 전화 인터뷰
- ② 한국연구재단의 데이터베이스 자료 분석
  -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의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orean Researcher Information) 에 등록된 연구자들의 개인 프로필과 연구업적들을 토대로 조사

### 3. 2005-2012년 일본학 조사 데이터 베이스 총괄 분석 (개인연구자)

일본연구자	2005	2012
모집단 데이터 수	1019	1077
직접설문 회신수	308	169
직접설문 회신율 (%)	30%	16%
학진설문 회신수	424	908
학진설문 회신율 (%)	42%	84%
총 조사대상자 수	732	1077
총 조사대상기관수 표본데이터대비 %	7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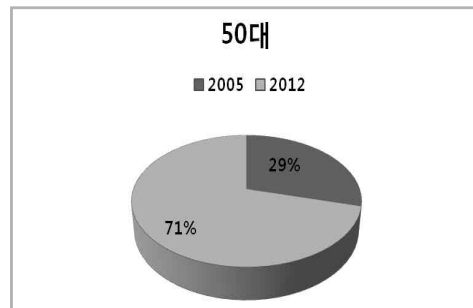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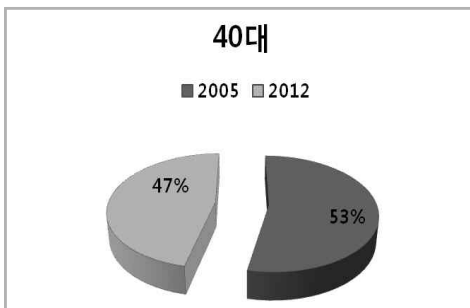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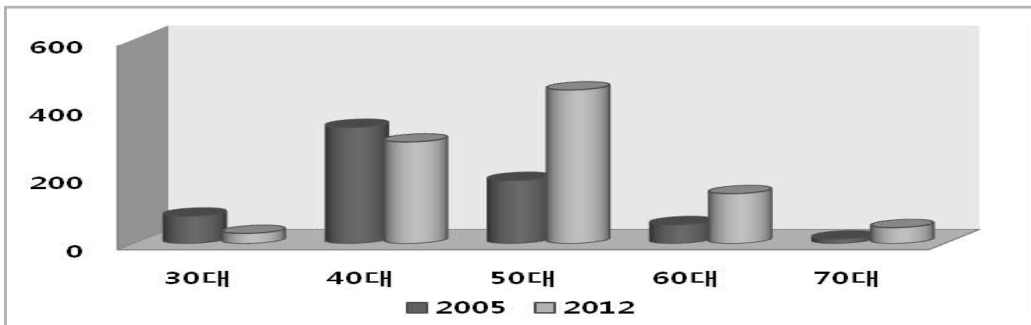
4. 학위분석

		정치 (1)	역사 (2)	경제경영 (3)	문학 (4)	어학 (5)	기타				총
							법, 행정 (6a)	사회문화 (6b)	교육 (6c)	기타 (6d)	
박사	2005	102	57	130	134	139	40				602
	2012	113	99	140	207 ( <small>207(고)146(교)61</small> )	169	85				813
석사	2005	1	3	2	39	37	1				83
	2012	2	3	0	37 ( <small>37(고)29(교)8</small> )	17	5				64
학사	2005	0	0	2	0	0	0				2
	2012	0	0	0	0	1	0				1
박사수료	2005	0	0	0	0	0	0				0
	2012	1	7	0	17 ( <small>17(고)15(교)3</small> )	7	1				33
N/A	2005	2	7	6	21	8	1				45
	2012	16	9	20	51 ( <small>51(고)39(교)11</small> )	42	28				166
총	2005	105	67	140	194	184	42				732
	2012	132	118	160	312 ( <small>312(고)229(교)83</small> )	236	119				1077



5. 연령대 분석

		정치 (1)	역사 (2)	경제경영 (3)	문학 (4)	어학 (5)	기타				총
							법행정 (6a)	사회문화 (6b)	교육 (6c)	기타 (6d)	
20대	2005	0	0	0	0	0	0				0
	2012	0	0	0	0	0	0	0	1	0	1
30대	2005	6	10	8	41	16	0				81
	2012	1	3	1	6	11	0	2	4	2	30
40대	2005	57	37	48	79	95	26				342
	2012	32	49	37	99	60	3	5	8	6	299
50대	2005	15	10	51	44	53	13				186
	2012	59	50	59	132	126	7	10	3	6	452
60대	2005	13	4	20	13	5	1				56
	2012	14	10	50	37	20	2	5	8	1	147
70대	2005	6	0	2	4	0	2				14
	2012	14	1	13	9	3	3	2	0	1	46
80대	2005	1	0	0	1	0	0				2
	2012	3	0	0	6	0	6	0	0	1	16
N/A	2005	7	6	11	12	15	0				51
	2012	9	5	0	23	16	1	15	15	2	86
총	2005	105	67	140	194	184	42				732
	2012	132	118	160	312	236	22	39	39	19	10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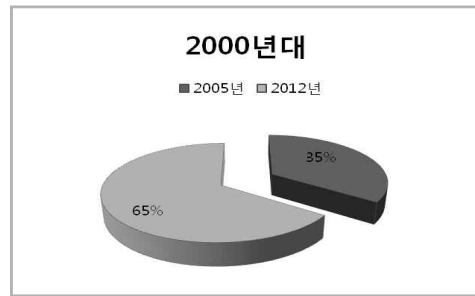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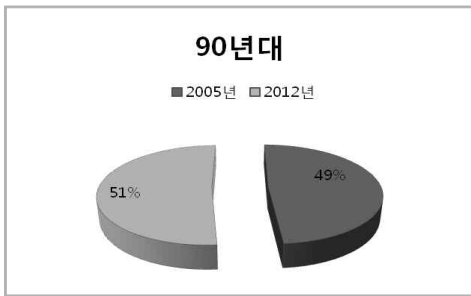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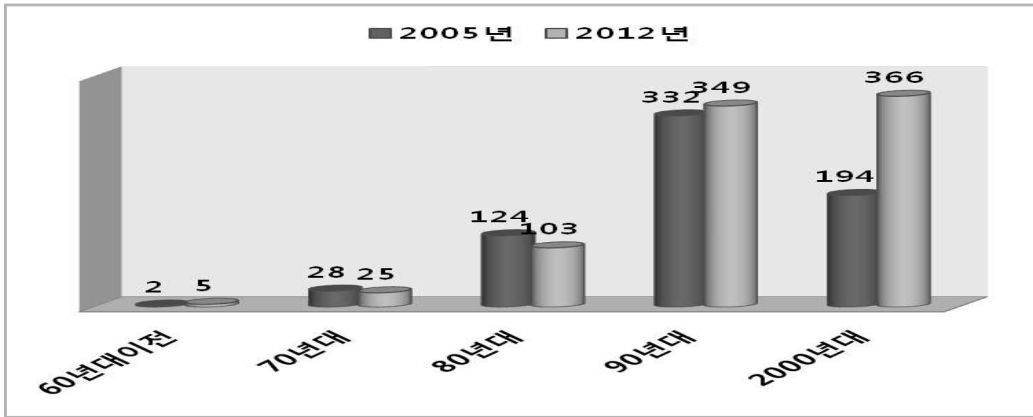


6. 취득년도 분석

			50s	60s	70s	80s	90s	00s	N/A <sup>83)</sup>	총		
정치 (1)	2005	석사/박사수로	1	0	0	0	0	0	0	1	105	
		박사	0	1	14	16	56	15	2	104		
	2012	석사/박사수로	1	0	0	1	1	0	16	19	132	
		박사	0	0	12	17	59	23	2	113		
역사 (2)	2005	석사/박사수로	0	0	0	1	2	0	0	3	67	
		박사	0	0	0	5	36	15	8	64		
	2012	석사/박사수로	0	0	0	0	6	4	0	10	118	
		박사	0	3	0	9	45	42	9	108		
경제 경영 (3)	2005	학사	0	0	1	1	0	0	0	2	140	
		석사/박사수로	0	0	2	0	0	0	0	2		
		박사	0	0	6	44	60	18	8	136		
	2012	N/A	0	0	0	0	0	0	20	20	160	
박사		0	0	5	43	58	32	2	140			
문학 (4)	2005	석사/박사수로	0	0	2	10	20	5	0	37	194	
		박사	0	0	0	6	56	70	25	157		
	2012	석사/박사수로	0	0	0	0	6	6	93	105	312	
		박사	0	0	1	4	66	133	3	207		
어학 (5)	2005	석사/박사수로	0	0	2	22	12	1	0	37	184	
		박사	0	0	1	8	62	68	8	147		
	2012	석사/박사수로	0	0	1	7	14	3	42	67	236	
		박사	0	0	1	7	63	94	4	169		
기타 (6)	2005	석사/박사수로	0	0	0	1	0	0	0	1	42	
		박사	0	0	0	10	28	2	1	41		
	2012	법·행정 (6a)	석사/박사수로	0	0	0	0	0	0	2	2	22
			박사	0	1	2	5	8	1	3	20	
		사회문화 (6b)	석사/박사수로	0	0	0	1	1	0	7	9	39
			박사	0	0	2	7	13	7	1	30	
		교육 (6c)	석사/박사수로	0	0	0	0	0	0	13	13	39
			박사	0	0	0	2	7	15	2	26	
		기타 (6d)	석사/박사수로	0	0	0	0	0	0	10	10	19
			박사	0	0	1	0	2	6	0	9	
총	2005		1	1	28	124	332	194	52	732	732	
	2012		1	4	25	103	349	366	229	1077	1077	

83) \* 최종학위 취득국가 N/A의 경우 석, 박사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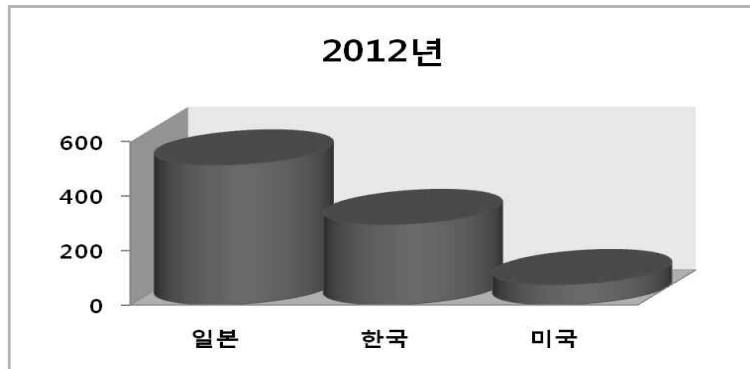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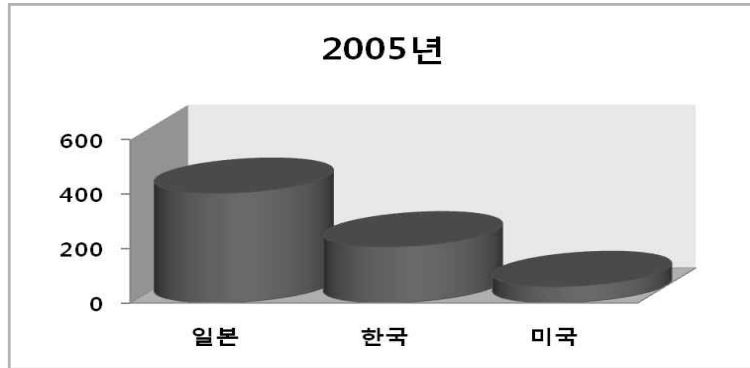




### 7. 최종학위 취득국가

분야	연도	학위종류	일본	한국	미국	기타국가	N/A <sup>84)</sup>	총
정치 (1)	2005	석사/박사수료	0	1	0	0	0	1
		박사	43	23	35	1	2	104
	2012	석사/박사수료	1	2	0	0	16	19
		박사	43	27	36	4 <sup>85)</sup>	3	113
역사 (2)	2005	석사/박사수료	2	1	0	0	0	3
		박사	38	13	5	1	7	64
	2012	석사/박사수료	5	5	0	0	0	10
		박사	71	20	9	0	8	108
경제·경영 (3)	2005	학사	0	2	0	0	0	2
		석사/박사수료	1	1	0	0	0	2
	2012	박사	74	36	15	5	6	136
		석사/박사수료	0	0	0	0	20	20
문화 (4)	2005	박사	58	54	21	3 <sup>86)</sup>	4	140
		석사/박사수료	15	22	0	0	0	37
	2012	박사	101	33	0	0	23	157
		석사/박사수료	25	29	0	0	51	105
여학 (5)	2005	박사	132	70	1	1 <sup>87)</sup>	3	207
		석사/박사수료	17	18	0	0	0	35
	2012	박사	86	51	0	0	12	149
		학사/석사/박사수료	11	13	1	0	42	67
		박사	107	57	0	0	5	169

			일본	한국	미국	기타국가	N/A <sup>84)</sup>	총		
기타 (6)	2005	석사/박사수료	0	1	0	0	0	1	42	
		박사	27	5	6	2	1	41		
	2012	법행정 (6a)	석사/박사수료	0	0	0	0	0	0	22
			박사	9	10	0	1	2	22	
		사회문화 (6b)	석사/박사수료	2	0	0	0	7	9	39
			박사	19	2	7	1 <sup>88)</sup>	1	30	
		교육 (6c)	석사/박사수료	4	0	0	0	9	13	39
			박사	20	4	0	0	2	26	
		기타 (6d)	석사/박사수료	0	0	0	0	0	0	19
			박사	8	3	0	0	8	19	
총	2005		404	207	61	9	51	732	732	
	2012		515	296	75	10	181	1077	1077	



84) 최종학위 취득국가 N/A의 경우 석, 박사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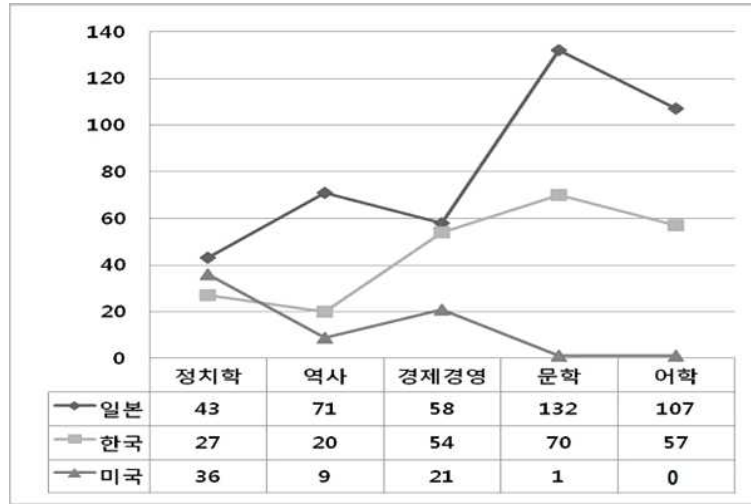
85) \* 정치학분야 학위취득 기타국가: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86) \* 경제경영분야 학위취득 기타국가: 영국,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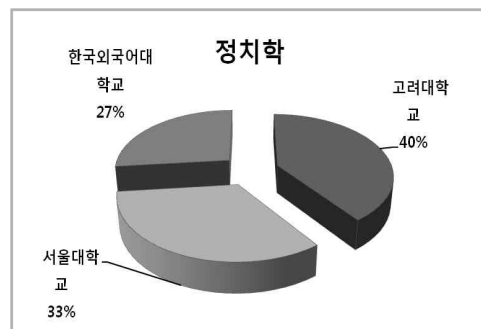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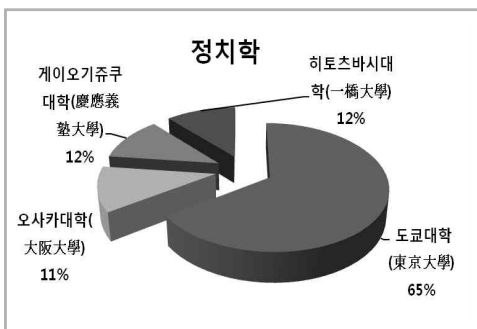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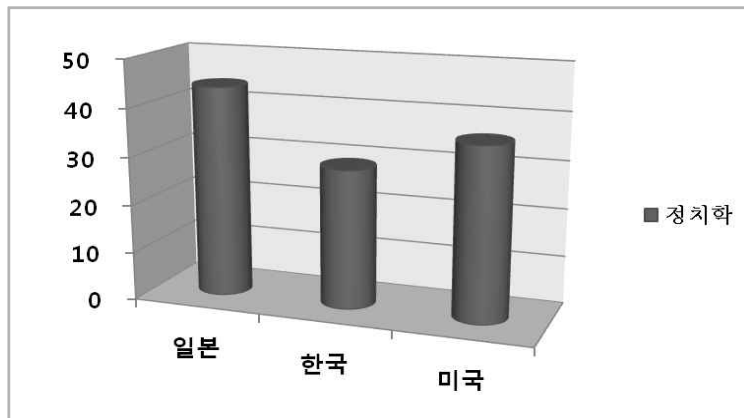
87) \* 문학분야 학위취득 기타국가: 스페인

88) \* 기타 (사회문화)분야 학위취득 기타국가: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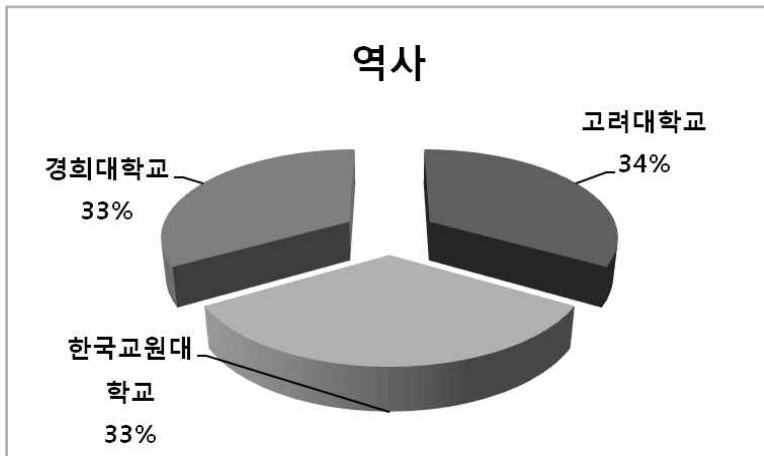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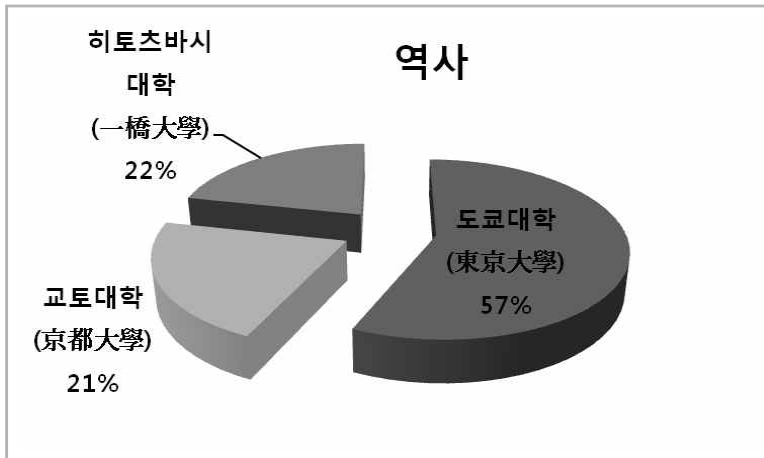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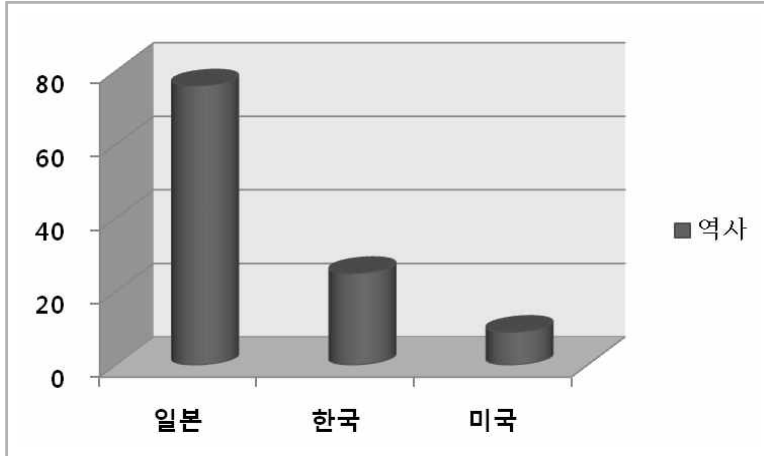
7-1. 2012년 분야별 취득학위국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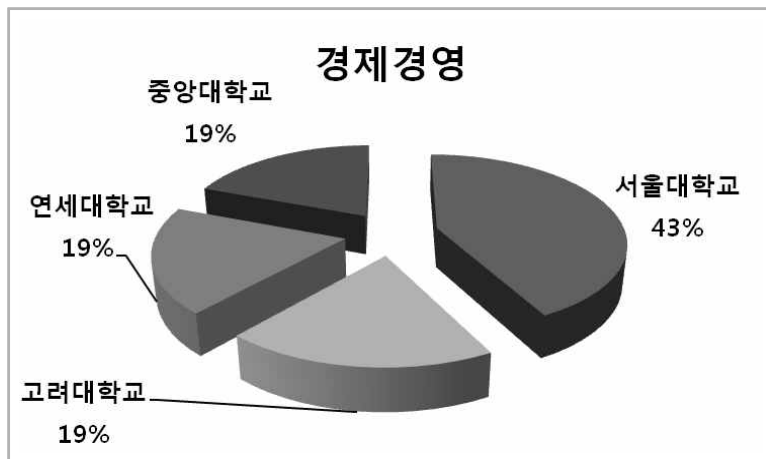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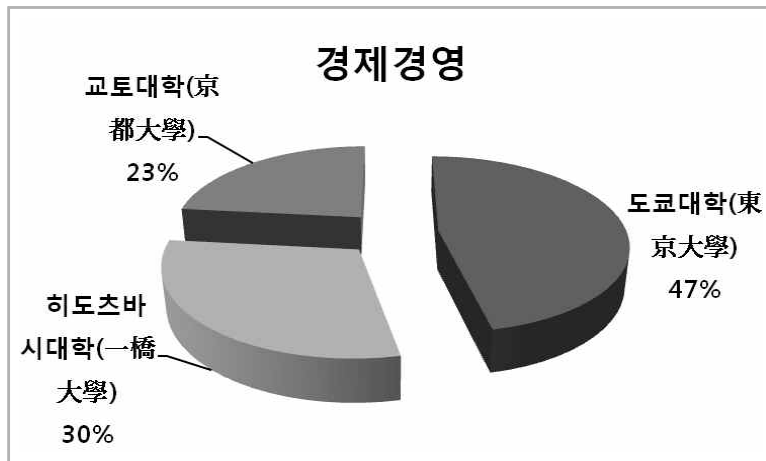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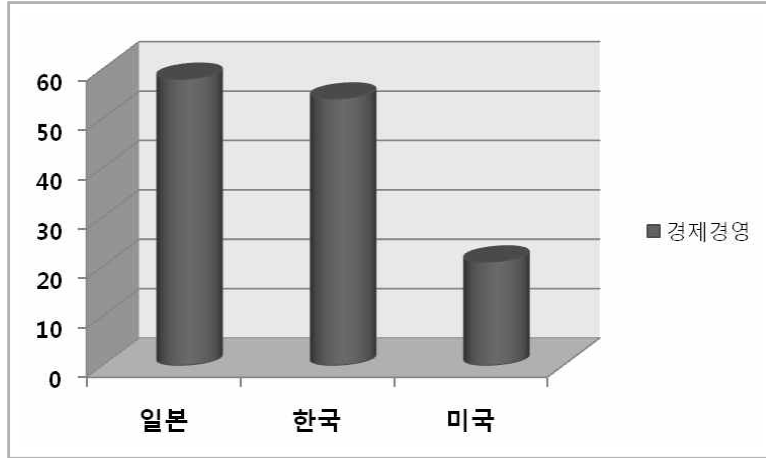
7-2. 2012년 정치학분야 취득학위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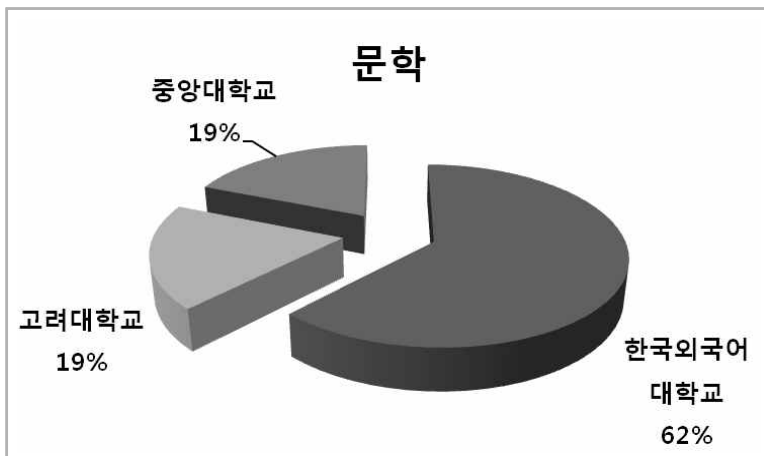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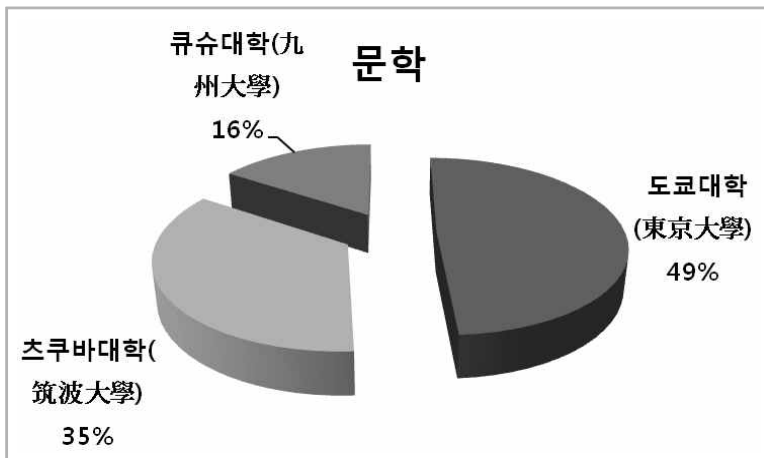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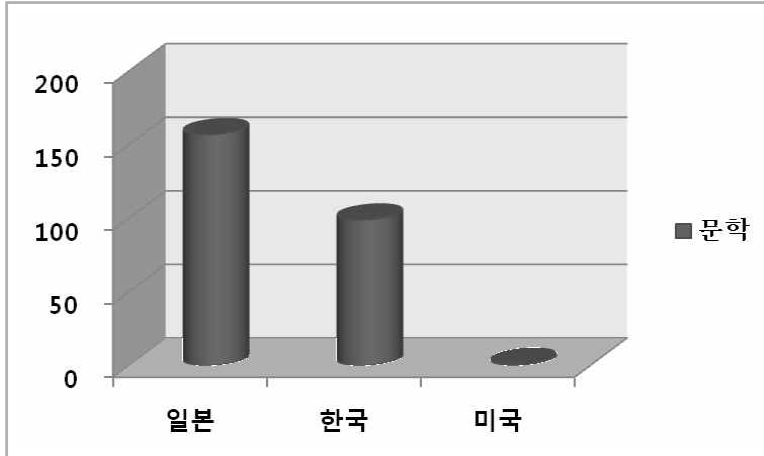
7-3. 2012년 역사분야 취득학위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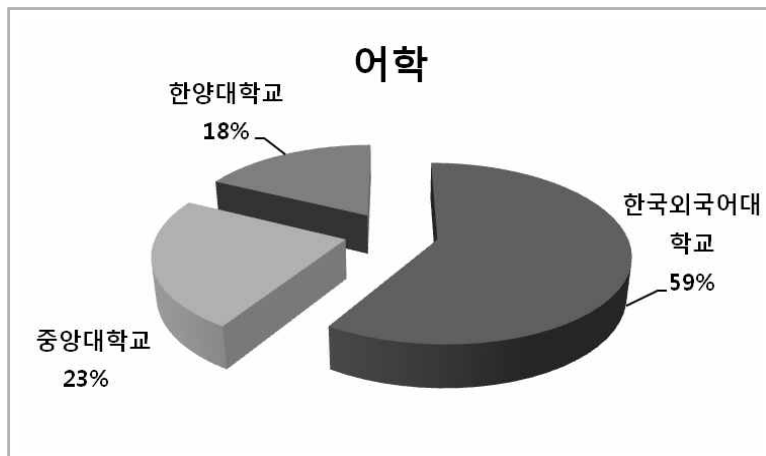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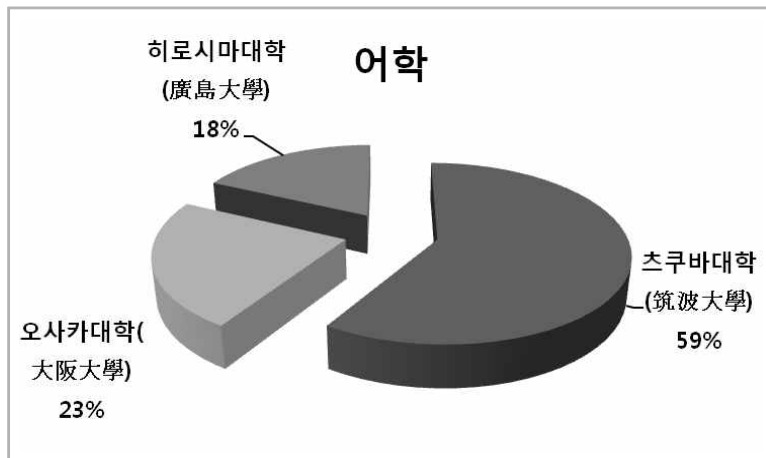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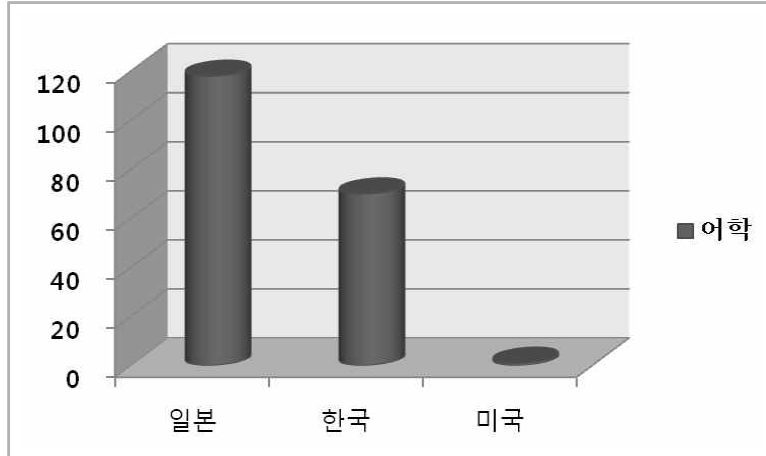
7-4. 2012년 경제경영분야: 취득학위 국가



7-5. 2012년 문학분야 취득학위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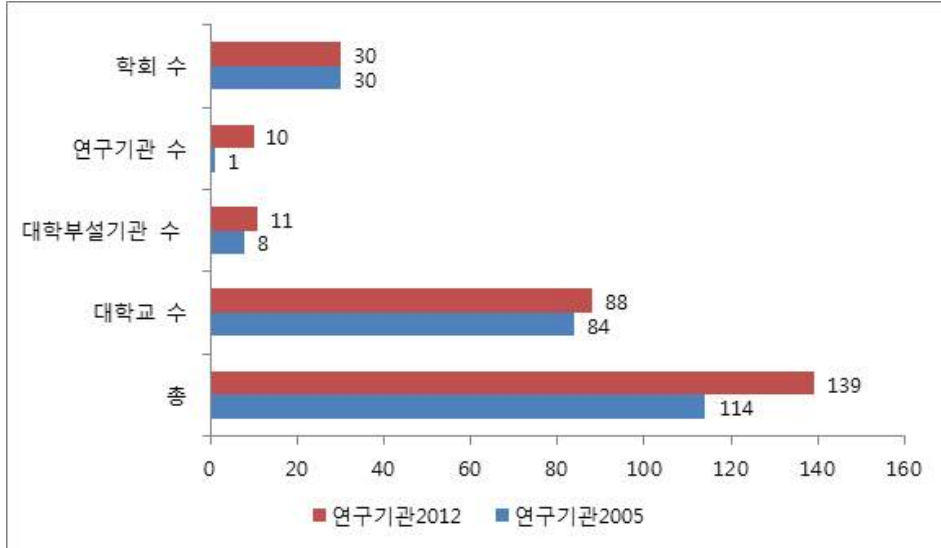


7-6. 2012년 어학분야 취득학위 국가



## II. 연구기관

### 1. 2005-2012년 일본학 조사 데이터 베이스 총괄 분석 (연구기관)



		2005	2012	
모집단 데이터 수		123	141	
모 집 단 구 분	대학교 수	84	88	폐과 8개 <sup>89)</sup> , 신규 13개 <sup>90)</sup>
	대학부설기관 수	8	11	신규 5개 <sup>91)</sup>
	연구기관 수	1	10	신규 9개 <sup>92)</sup>
	학회 수	30	30	.
직접설문 회신수		18	20	
직접설문 회신율 (%)		15%	15%	
전화홈페이지 설문 회신수		96	121	
전화홈페이지 설문 회신율 (%)		78%	86%	
총 조사대상 기관 수		114	139	
총 조사대상기관수 모집단데이터 대비 %		93%	100%	

89) 2011년 조사 대비 2005년 일본학관련 폐과 혹은 통폐합된 학교는 계명대학교, 광운대학교, 대구대 교육대학원, 여주대학교, 천안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호원대학교 총 8개 학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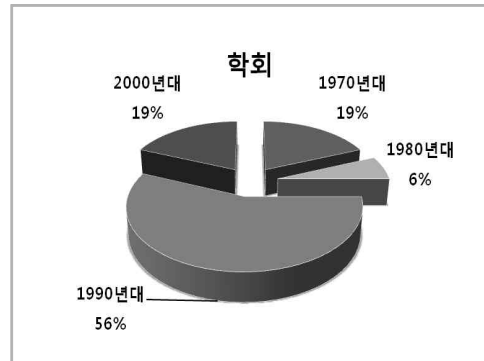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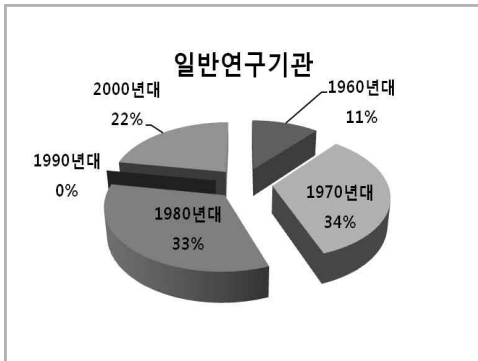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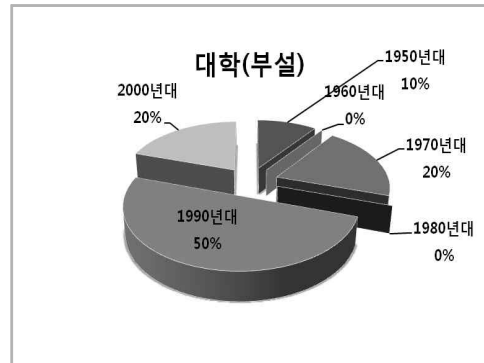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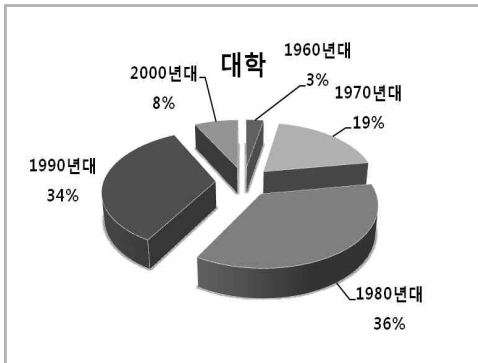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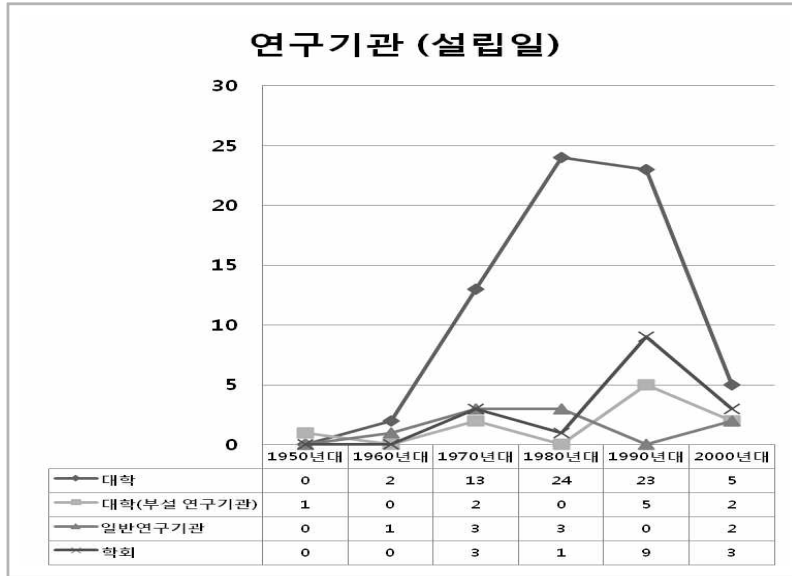
90) 2011년 조사에서 일본학관련 학과가 추가된 학교는 강릉원주대학, 경상대학교, 경일대학교, 대구의국어대학교, 명지대학교, 백석대학교, 삼육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결대학교, 세명대학교, 영산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총 12개 학교이다.

91) 2011년 조사에서 일본학관련 신규연구기관 중 대학부설기관은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소,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소,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총 5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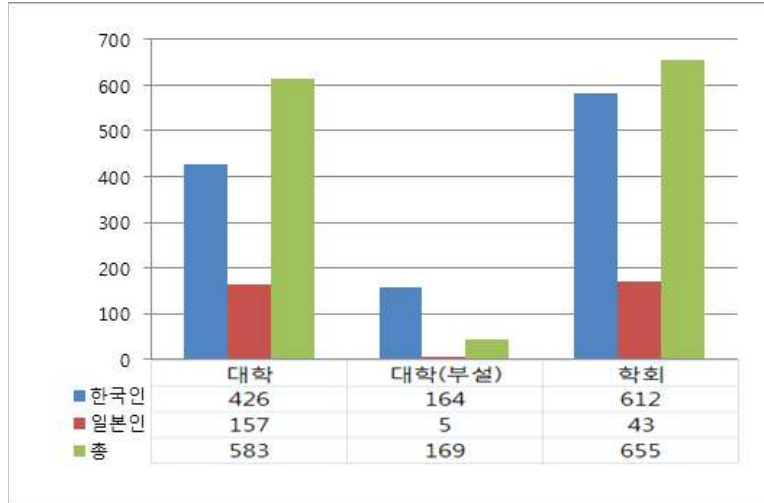
92) 2011년 조사에서 일본학관련 신규연구기관 중 연구기관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동아시아연구원, 산업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외교안보연구원, 제주평화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전략문제연구소, LG 경제연구원 총 9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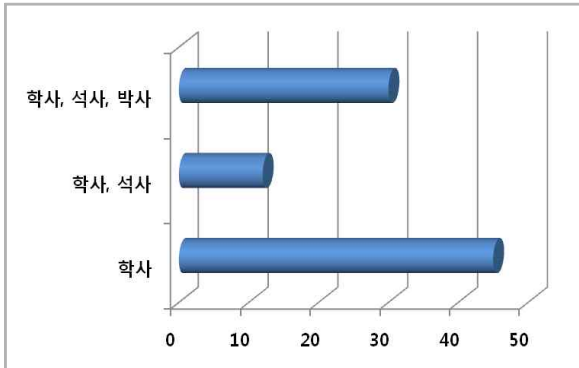
## 2. 일본연구기관 설립일 분석



### 3. 일본학관련 연구자 수 (연구기관: 한국인, 일본인)



### 4. 대학 개설과정(학위수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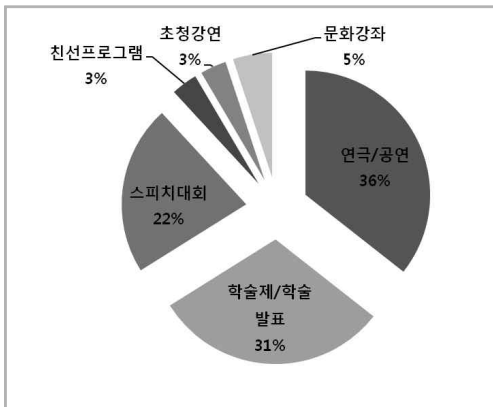


학위과정 개설	학교 수
학사	45
학사, 석사	12
학사, 석사, 박사	30
N/A	1
총	88

## 5. 대학 전공명 현황 분석

Category (1) 어학관련	일어전공/일본어전공/일본학과/일어일본학과/일본어학과/일본어과/일본어학부
Category (2) 문학관련	일본어문학과/ 일어일본학과
Category (3) 교육관련	일어교육과
Category (4) 통번역관련	일본어통번역학과
Category (5) 언어 +문화	일본언어문화학과/일어일본문화전공/일본어일본문화학과/일어일본문화전공
Category (6) 비즈니스 + 국제화	비즈니스외국어학부/국제비즈니스어학부 일본어전공
Category (7) 관광관련	관광일본어학과

## 6. 대학의 일본학관련 대중 프로그램 현황 분석



연극/공연	21
학술제/학술발표	18
스피치대회	13
친선프로그램	2
초청강연	2
문화강좌	3

## 7. 대학부설연구기관의 주요 연구분야 분석

-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일본의 <문학·문화>, <어학 교육>, <역사>, <사상·종교>, <역사·종교>, <정치·경제>, <재일코리안 재한일본인>등 제 분야
- **고려대학교 아시아 문제연구소:** 현대일본 및 동아시아 지역 속의 일본에 관한 연구테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동연구 프로젝트 등을 통해 연구 성과를 축적해 나가고자 함.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일본 한국간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데이터 베이스 구축
- **단국대 일본연구소:** 일본문화의 각 영역을 아우르는 인문, 사회 과학의 제 분야에서 학제간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종합적인 일본연구를 일본문화의 정체성과 경쟁력에 관한 연구, 문화정책관련 연구, 한일비교문화연구 등으로 확대.
-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연구조사활동 (한·일 산학협동 사업/ 한·일 지역협력 사업/ 한·일 공동학회 개최)
- **서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일본연구소:** 연구활동에 있어서 일본의 과거 보다는 현재에 비중을 두어 역사적인 것과 동시대적인 것이 연결될 수 있는 다학제적 연구 지향.
-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일본연구센터:** 1. 사회과학 제반 분야의 이론 및 방법론 연구 2. 도시생태계 및 환경문제 연구 3. 국내 및 국제정치, 통일문제 연구 4. 행정자치 및 지역개발 연구.
-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소는 일본의 어학, 문학, 문화, 역사, 사회, 정치, 경제,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함.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카프카스, 북한, 미국, 일본, APEC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 국가들에 관련된 연구, 정보제공과 교육지원, 출판 및 국내외 학술교류.
-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일본 문화 교류 분야의 개척을 통한 다각적 문화 현상 연구.
- **한림대학교 일본학 연구소:** 일본학연구소는 국내의 일본학의 기초를 확립하고 이를 선도함. 일본학도서관과 일본학DB를 구축.

## 8. 대학부설연구기관의 주요 간행물 현황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일본연구』, 『일본학 총서』, 『일본명작총서』, 『현대일본총서』, 『일본연감』, 『일본문화사전』
고려대학교 아시아 문제연구소	아세아연구, 아연동북아총서, 민주주의총서, 한일공동연구총서, 중국연구총서, 동아시아연구총서, 자료총서 워킹페이퍼, 동북아리뷰, 뉴스레터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일본공간 -박정희 시대 한일관계의 재조명, 21세기 한일관계와 동북아시아 새로운 비전, 21세기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과제와 전망, 글로벌화 시대의 일본 (부제) 한국에서의 함의, 일본학총서1 일본은 한국에게 무엇인가, 변용하는 일본형 시스템 현장보고, 일본형 시스템 위기와 변화
단국대 일본연구소	정기간행물 - 일본학연구 / 총서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일본연구센터 정기 연구회,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논문집, 동아시아종교문화연구
서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일본연구소	현대일본생활세계총서, SNU일본연구총서, Reading Japan , 말과 돈의 미래형, 러일전쟁과 대한제국, 착한 일본인의 탄생, 봉인된 디아스포라(기획특별강연에 발표된 해외석학의 연구를 사회적으로 유통 공유하기위한 단행본), 나치독일의 일본 프로타간다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연구소의 다양한 연구결과물을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발신), 중일전쟁과 화북교통, 오키나와 문화론 : 미군기지와 촌락공동체 ,日朝冷戦構造の誕生 1945-1965 : 封印された外交史 ,도요타 DNA,일본사회개설
송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사회과학논총』, 『사회과학연구』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연구』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JES(Journal of Eurasian Studies), e- Eurasia, 유라시아 헤드라인, 아태동향, JAPA (Journal of Asia-Pacific Affairs), 亞太쟁점과 연구, 러시아인의 삶, 농노의 수기로 읽다 , 유라시아 권위주의, 러시아의 생활양식과 정체성, 현대 러시아 대중문화의 양상과 전망, 범흑해지역의 정체성과 지역주의, 유토피아의 환영, 유라시아지역의 국가·민족정체성, 유라시아의 지역주의적 재편성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비교일본학
한림대학교 일본학 연구소	일본학 총서, 일본현대문학대표작선, 테마연구 한국.일본, 일본학연구총서, 일본학신총서, 한림일본학

9. 대학부설연구기관의 주요 연구프로그램 현황

<p>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p>	<p>일본번역원이 중심이 된 (Transference Humanities: 인문학 자료 정보의 번역·처리·이동 과정)를 통해 일본 관련 자료(고전, 근현대작품, 전문서적, 신문 등)를 한국어로 번역</p>
<p>고려대학교 아시아 문재연구소</p>	<p>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에 관한 일본 외교문서를 수집, 정리하여 이를 기초로 자료집을 제작하고, 독도문제를 비롯한 현안에 대한 일본 측의 입장을 다각적으로 고찰하여 정책적 대응을 모색.</p>
<p>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p>	<p>일본형 시스템에 대한 과거와 현재를 학제적인 방법은 동원하여 다각적으로 분석, 검토/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에 관한 일본 외교문서를 수집, 정리하여 이를 기초로 자료집을 제작하고, 독도문제를 비롯한 현안에 대한 일본 측의 입장을 다각적으로 고찰하여</p>
<p>단국대 일본연구소</p>	<p>일본학의 연구범위를 크게 3분야로 분류하여 2003년부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일본학 연구를 지향. 각 연구회는 교수급, 박사급연구원, 대학원생으로 구성.  <b>동태연구회</b>                  현대와 전통, 기층과 표층 등 이른바 통시성과 공시성을 논의의 중심축으로 삼아 일본의 정치 형태, 경제 활동, 문화 양상 등의 시대적 변천 내지 변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  <b>구조연구회</b>                  자연과 인간, 사회구성원, 풍토, 지리적 조건 등 사회형성에 있어 비교적 지속성을 유지하는 기본시스템에 대한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  <b>비교연구회</b>                  한국을 비롯한 외국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일본의 의식주, 종교, 예술 등의 분야에 대한 각각의 정체성 혹은 유대관계를 조명하는 연구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p>
<p>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p>	<p>차세대인문사회연구와 동아시아종교문화 연구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폭넓고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서 민간교류 및 산학협력활동을 촉진.</p>
<p>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일본연구소</p>	<p>〈현대 일본 생활세계 연구의 세계적 거점〉을 수행하기 위한 1단계 HK기획연구가 2009년 8월 1일 발족                  1단계 - 전후일본의 지식형성 / 현대일본의 전문문화와 예술/ 현대일본의 사회변동과 지역/ 전후일본의 생활세계와 동아시아/ 일본노사관계의 변동과 형성                  2단계 - 지방의 구조변동: 오사카를 중심으로 / 생활세계의 구조변동과 사상문화담론의 변동 / 생활평화주의자와 포스트 3.11 정치/ 전후일본경제의 부흥성장과 생활양식의 변화                  3단계 - 현대일본 사회의 대 전환과 생활세계의 재편                  장기지역사례연구 - 동일본 대진재와 사회변동킴</p>
<p>충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일본연구센터</p>	<p>사회과학제반이론 연구 및 학술회의/ 사회발전과 환경문제에 대한 연구 및 발표/ 정치체제와 통일문제에 대한 연구 및 발표/ 국가와 정부정책에 대한 연구 및 발표/ 사이버공간과 미디어에 대한 연구 및 발표</p>
<p>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p>	<p>아젠다 명 &lt;유라시아의 정체성과 문명공존: 유라시아학 체계정립과 지역종합정보시스템 구축&gt; 유라시아 지역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현상적 고찰(1단계)로부터, 그러한 현상을 촉발한 역사적, 문화적 요인에 대한 탐구(2단계),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가능한 새로운 소통과 공존의 공간으로서의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3단계)로 나아간다.                  1단계 연구에서는 유라시아의 전환의 상황에 대한 총체적 서술을 위해 소비에트/포스트 소비에트의 일상사(역사영역), 다양한 문화적 양상(문화영역), 국가정체성(사회영역)의 문제를 탐구한다.                  2단계 연구에서는 유라시아의 역사적 전개로서의 팽창과 저항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제국주의와 민족주의(역사영역, 사회영역), 제국 개념의 변화와 근대적 유라시아 문화공간의 탄생(역사영역, 문화영역), 소비에트 제국의 문화정책과 민족주의(문화영역, 사회영역)의 문제를 고찰한다.                  3단계 연구에서는 유라시아의 소통과 공존이라는 미래적 전망 속에서 유라시아를 구성하는 각각의 소지역들의 역사와 일상(역사영역), 문화(문화영역)와 국가성의 문제(사회영역)를 조망한다.</p>
<p>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p>	<p>네트워킹을 통한 다원적 일본문화 연구 특성화 사업</p>
<p>한림대학교 일본학 연구소</p>	<p>〈근대 조선 지식인의 民族我 형성에 관한 연구〉(1995~2001), 〈일본의 지방과 지방 도시에 관한 종합적 연구〉(1996~2001), 〈일본 식민지 통치의 종언과 대한민국 건국에 관한 조사연구〉 등에 대표되는 연구교류사업을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로 &lt;제국일본의 문화권력 : 학지(學知)와 문화메체〉를 수행하고 있다</p>

## 10. 학회의 주요 연구분야 분석

대한일어일문학회	일본어학 / 일본어교육학/ 일본문학/ 일본학
동아시아일본학회	일본어학, 일본문학.
일본사학회	일본사연구
일본어문학회	일본어학, 일본문학, 일본어교육학, 일본학 분야의 연구
일본언어문화학회	본 학회는 일본어학 및 일본문학은 물론,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의 일본학 전반에 걸친 연구 및 일본의 언어, 문화를 매체로 한 한국과의 비교 연구
한국일본교육학회	일본교육학분야
한국일본근대학회	일본의 어학, 문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일본관련 인 문사회과학에 대한연구
한국일본문화학회	일본문학, 일본문화등 일본에 관련된 모든 분야
한국일본사상사학회	일본사상연구
한국일본어교육학회	일본어교육
한국일본어학회	일본어
한국일어교육학회	일본어교육
한국일어일문학회	일본어학, 일본문학을 비롯하여 일본학, 일본어교육을 연구
한일경상학회	일본경제· 기업경영, 한일경제관계 등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
현대일본학회	현대일본에 대한 연구

## 11. 학회의 주요 간행물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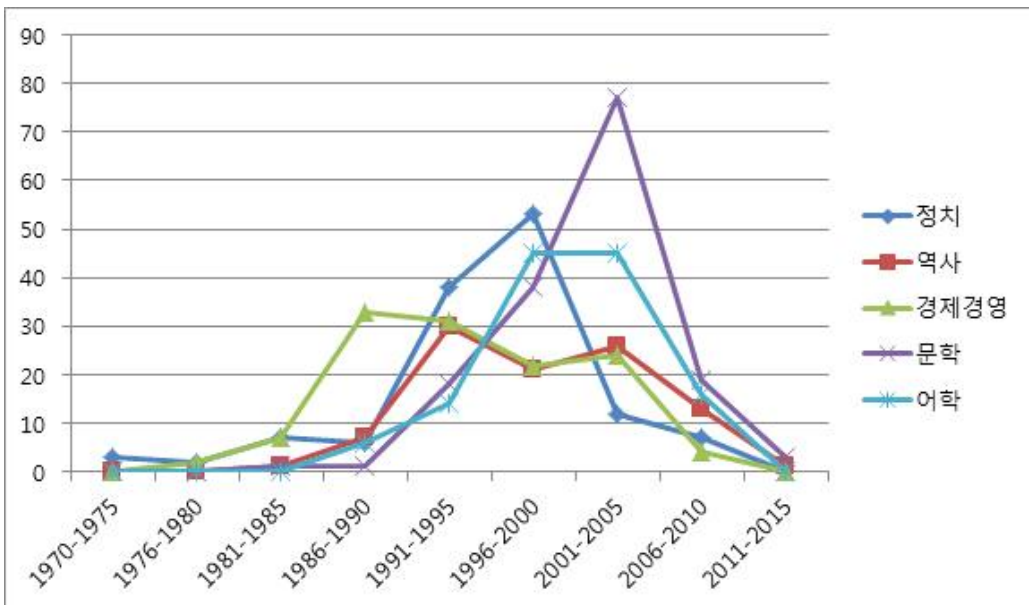
대한일어일문학회	대한일어일문학회지
동아시아일본학회	학회지
일본사학회	학회지 『日本歴史研究』 단행본- 아틀라스 일본사 - 함께읽는 동아시아 근대사
일본어문학회	학회지 『日本語文學』
일본언어문화학회	학회지 『日本言語文化』
한국일본교육학회	『한국일본교육학연구』 연구지 발간
한국일본근대학회	『한국일본근대학회 발간』
한국일본문화학회	논문학술지(일본문화학보)를 발행
한국일본사상사학회	일본사상 학회지 발간, 단행본 - 『논쟁을 통해 본 일본사상』
한국일본어학회	일본어학연구 발행
한국일어교육학회	학술지 『日本語教育研究』
한국일어일문학회	학회지: 『일어일문학연구』 정기 간행물: 『한국에 있어서 일본어교육 실태』
한일경상학회	『한일경상논집』
현대일본학회	학회지 발간

### III. 일본연구자 학위 논문업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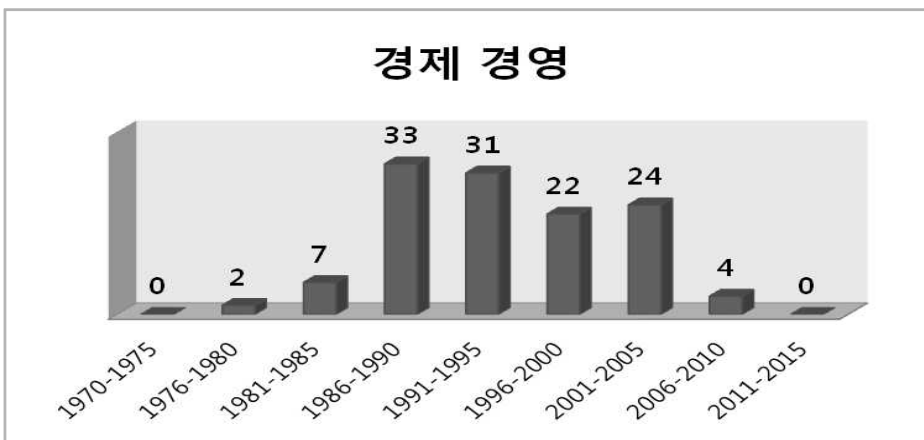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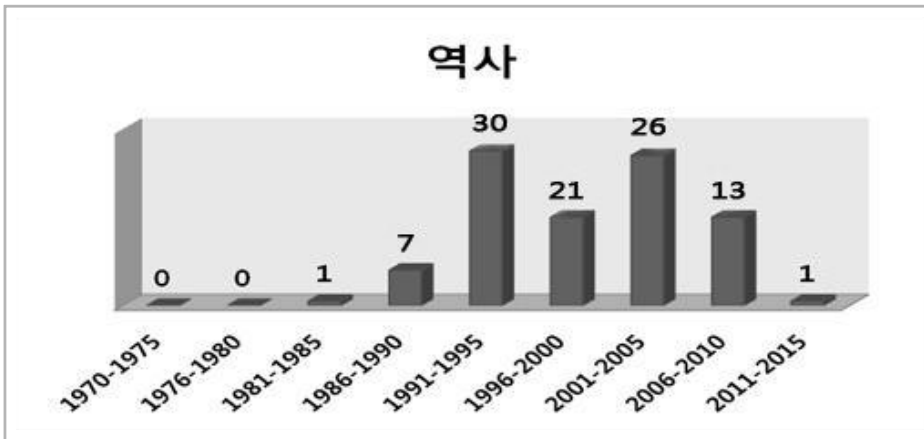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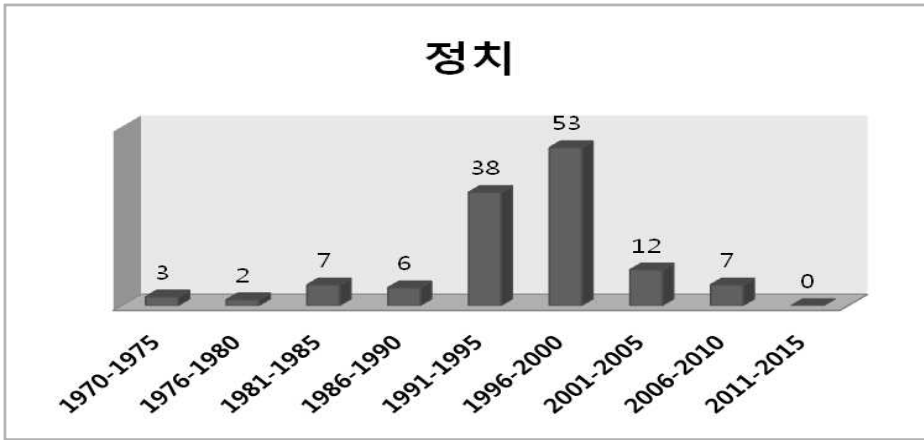
#### 1. 2012년 일본연구자 박사학위논문 연구동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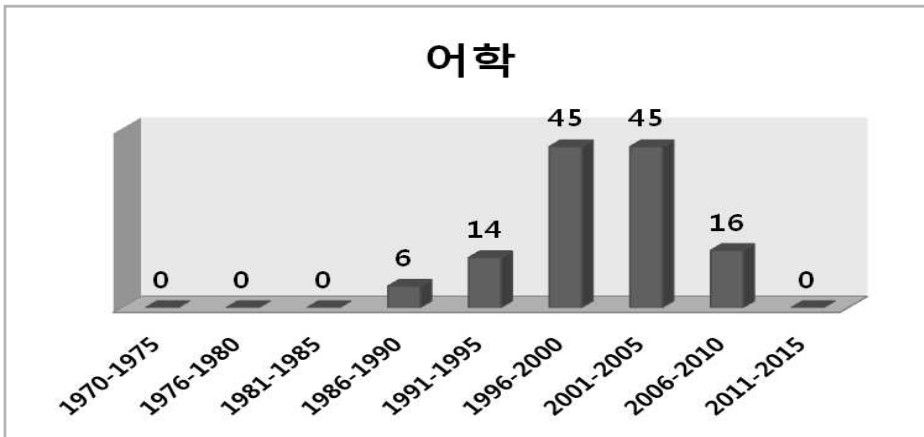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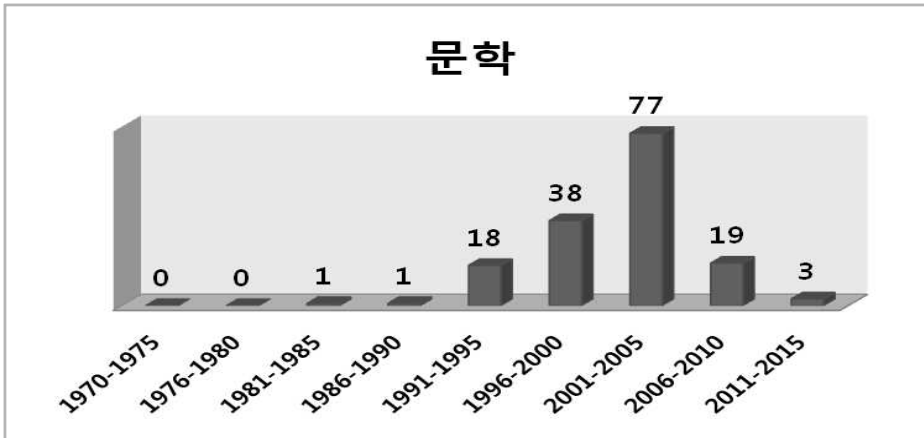
- 2012년 ‘한국 일본학의 현황과 과제’에서 학진 1114명의 연구자들 중 박사학위 논문 633편을 분야별, 전공별, 세부전공으로 분석하여 연구의 동향을 파악.

	정치	역사	경제경영	문학	어학	총
1970-1975	3	0	0	0	0	3
1976-1980	2	0	2	0	0	4
1981-1985	7	1	7	1	0	16
1986-1990	6	7	33	1	6	53
1991-1995	38	30	31	18	14	131
1996-2000	53	21	22	38	45	179
2001-2005	12	26	24	77	45	184
2006-2010	7	13	4	19	16	59
2011-2015	0	1	0	3	0	4
총	128	99	123	157	126	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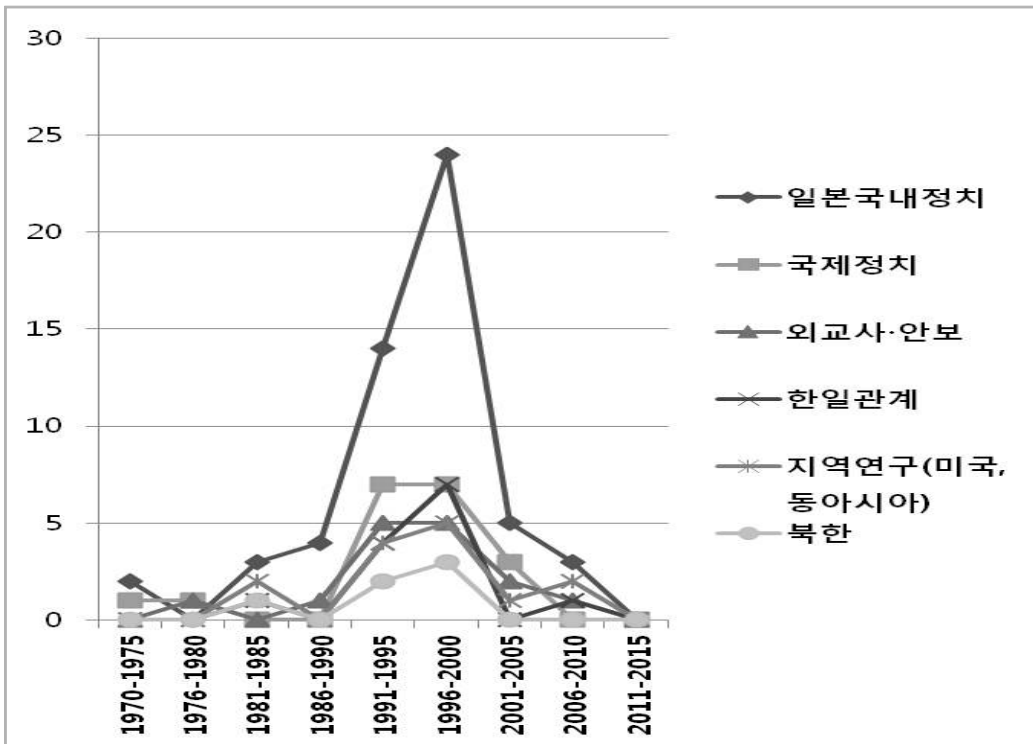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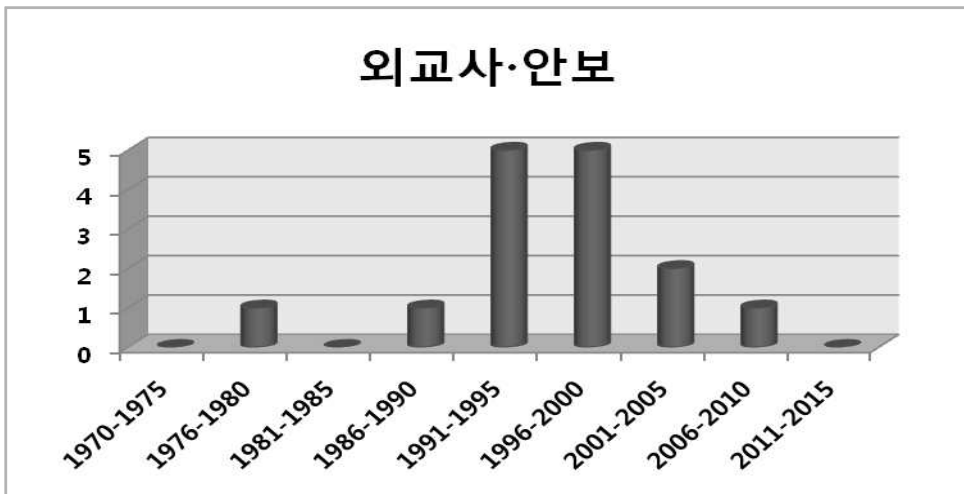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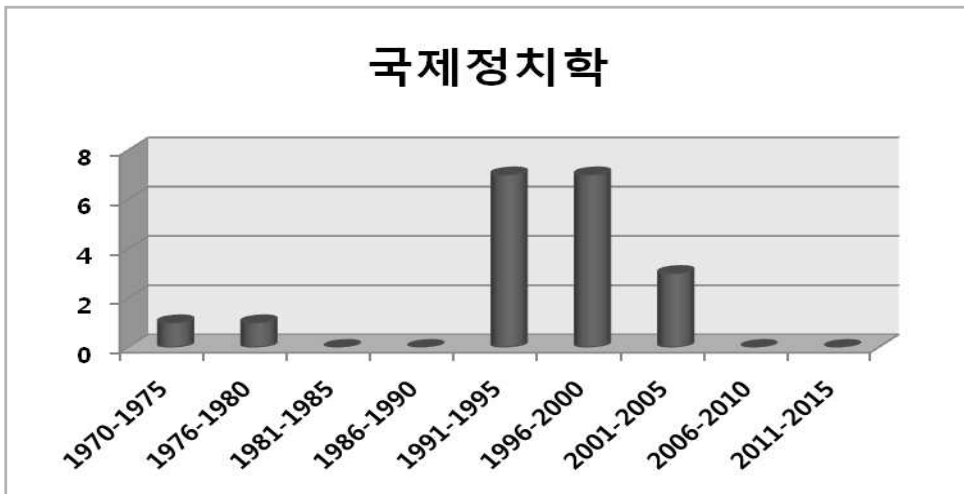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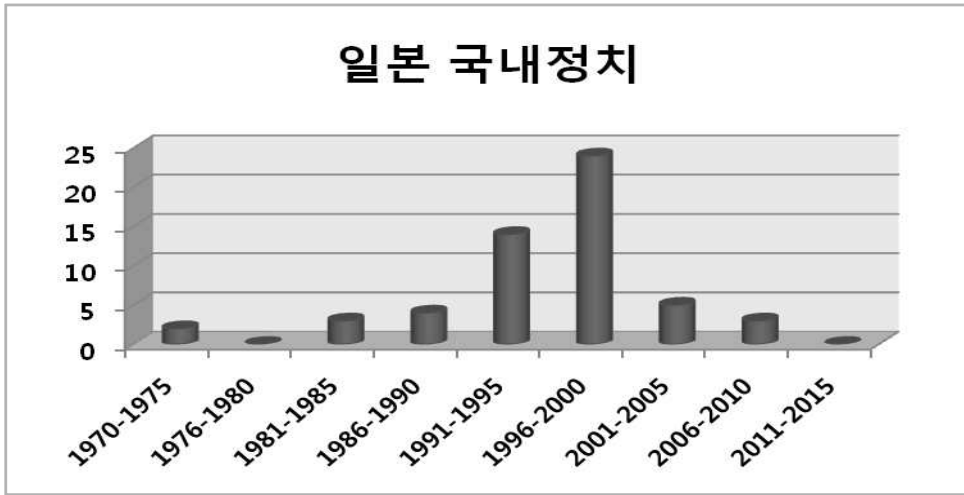
2.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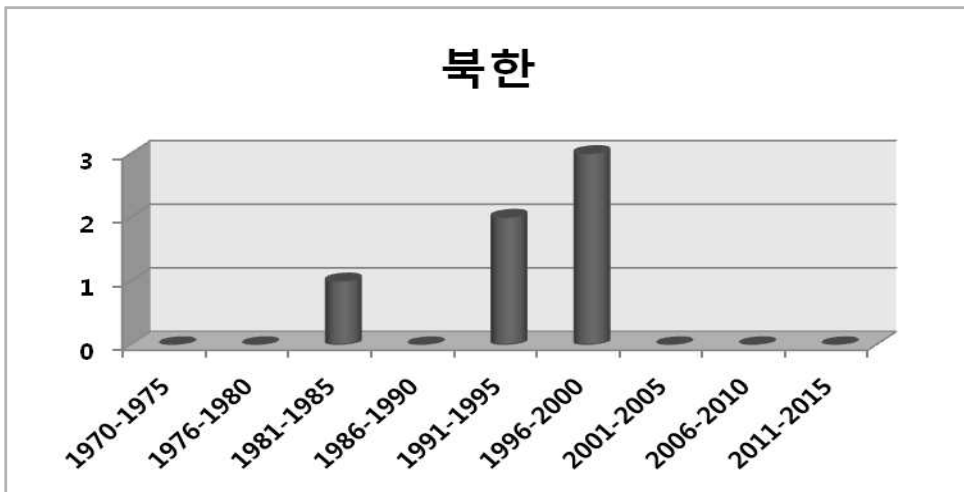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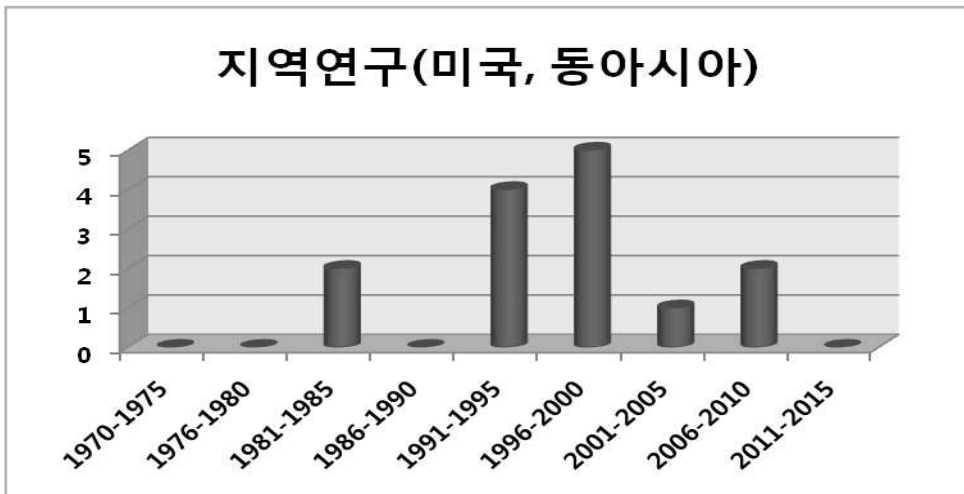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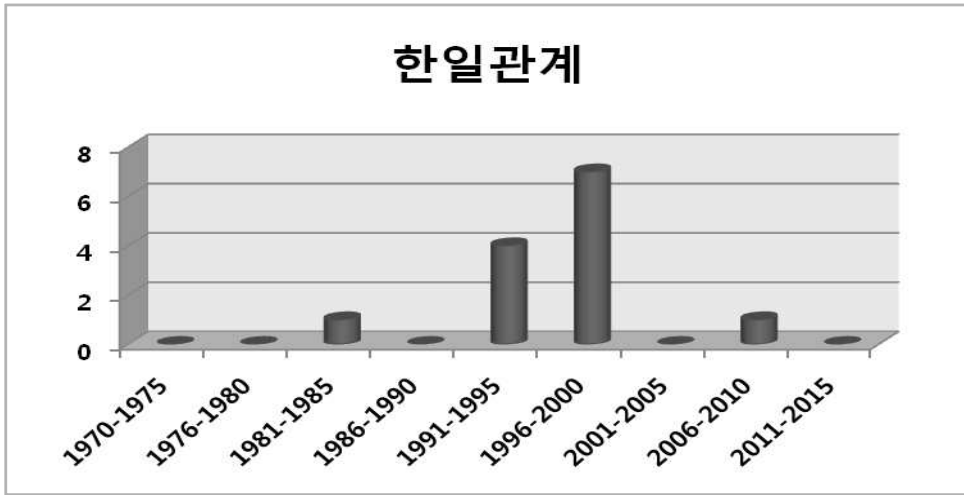
- 정치학

총 연구자: 1114명	정치학 분야 연구자: 132명
박사학위논문 소지자 86명	* 참고사항: 세부전공 연구동향 분석과 관련하여 최대 2개 중복 체크가 가능함.

	일본국내정치	국제정치	외교사안보	한일관계	지역연구 (미국, 동아시아)	북한	기타 (사회,문화,과학, 미디어)	총
1970-1975	2	1	0	0	0	0	0	3
1976-1980	0	1	1	0	0	0	0	2
1981-1985	3	0	0	1	2	1	0	7
1986-1990	4	0	1	0	0	0	1	6
1991-1995	14	7	5	4	4	2	2	38
1996-2000	24	7	5	7	5	3	2	53
2001-2005	5	3	2	0	1	0	1	12
2006-2010	3	0	1	1	2	0	0	7
2011-2015	0	0	0	0	0	0	0	0
총	55	19	15	13	14	6	6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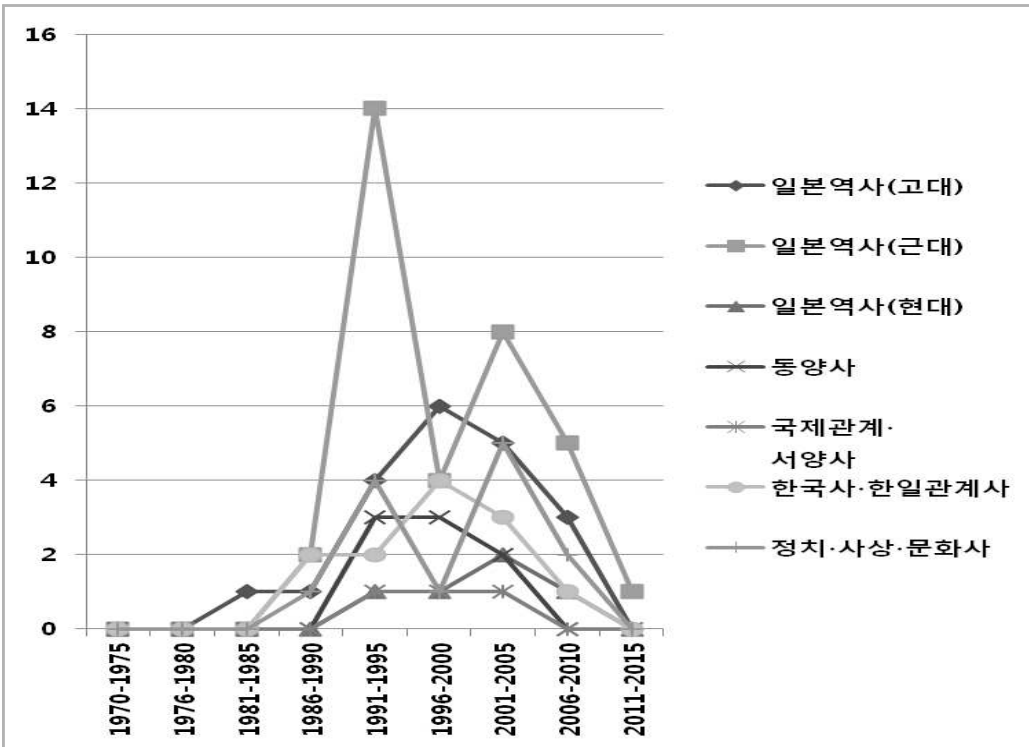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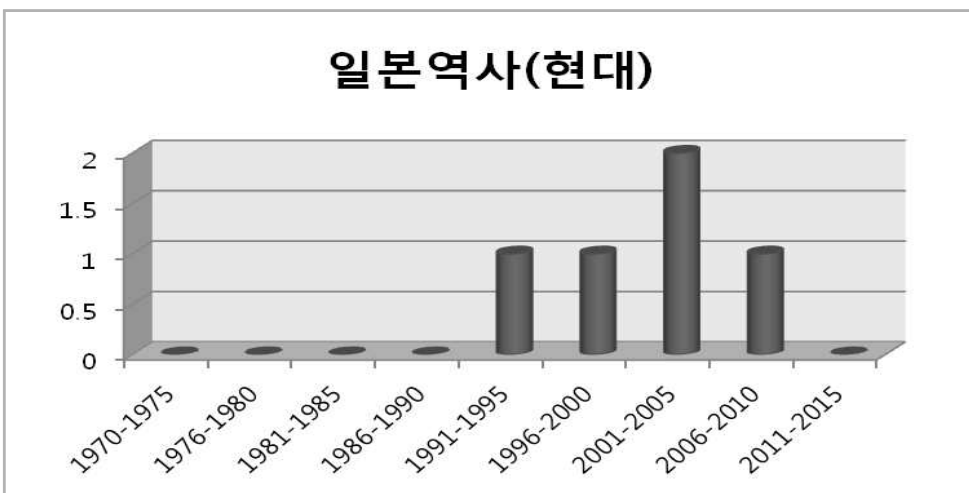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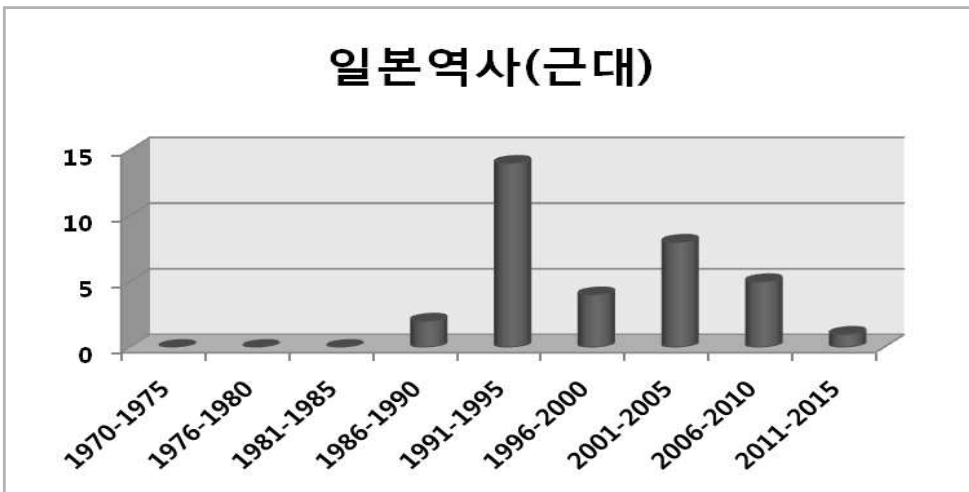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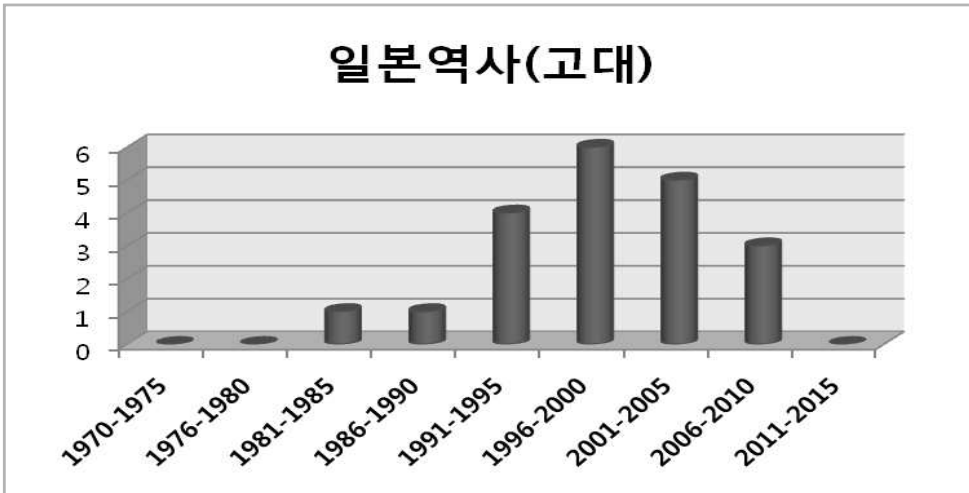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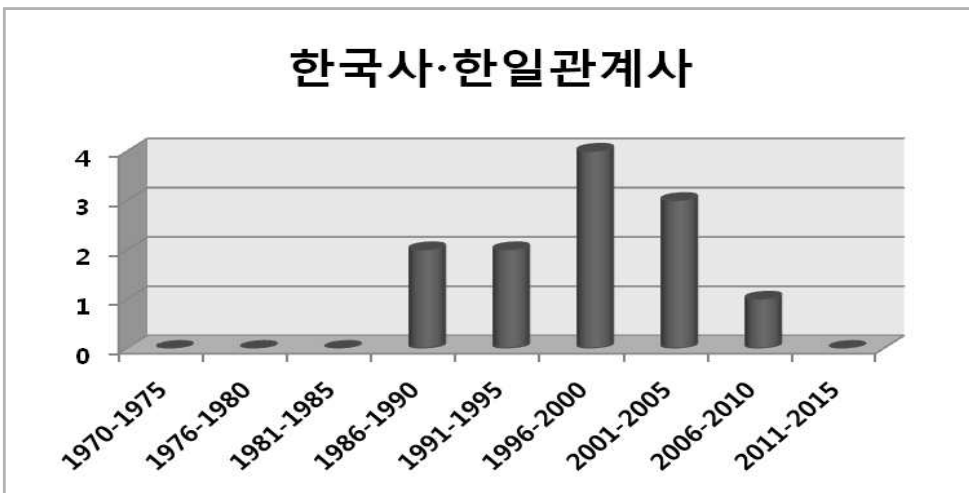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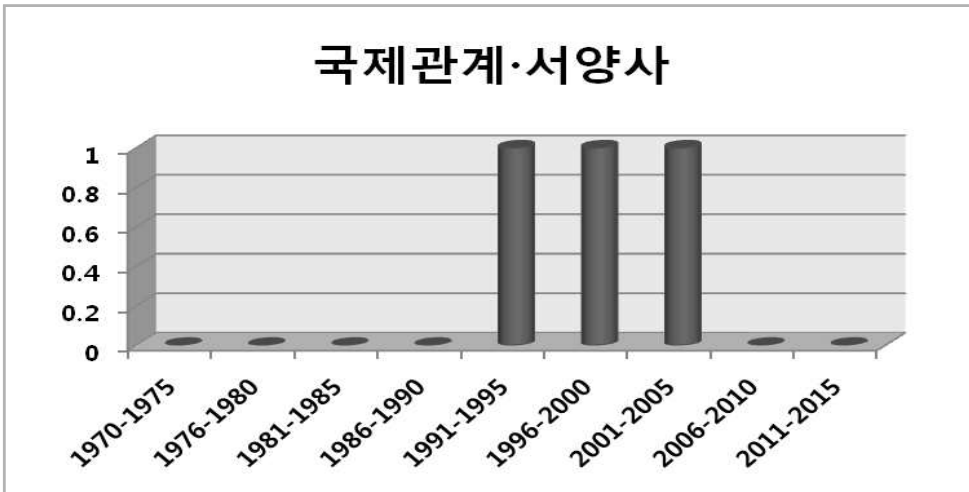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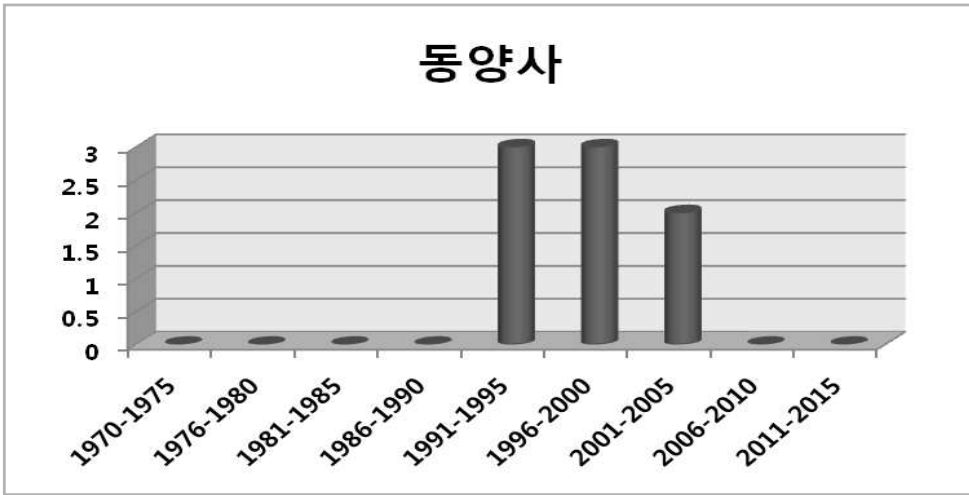
• 역사

총 연구자: 1114명	역사분야 연구자: 118명
박사학위논문 소지자 95명	* 참고사항: 세부전공 연구동향 분석과 관련해서 최대 2개 중복 체크가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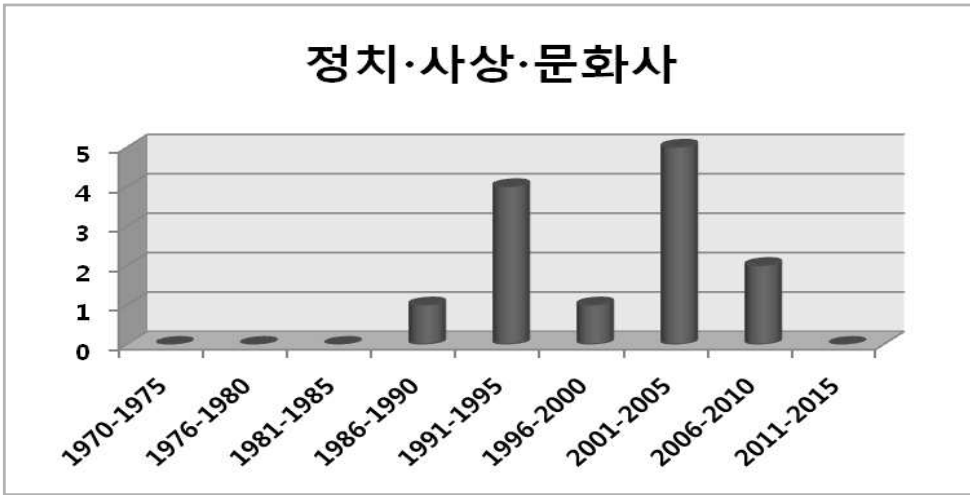
	일본역사 (고대)	일본역사 (근대)	일본역사 (현대)	동양사	국제관계 서양사	한국사 한일관계사	정치사상문화 사	기타	총
1970-1975	0	0	0	0	0	0	0	0	0
1976-1980	0	0	0	0	0	0	0	0	0
1981-1985	1	0	0	0	0	0	0	0	1
1986-1990	1	2	0	0	0	2	1	1	7
1991-1995	4	14	1	3	1	2	4	1	30
1996-2000	6	4	1	3	1	4	1	1	21
2001-2005	5	8	2	2	1	3	5	0	26
2006-2010	3	5	1	0	0	1	2	1	13
2011-2015	0	1	0	0	0	0	0	0	1
총	20	34	5	8	3	12	13	4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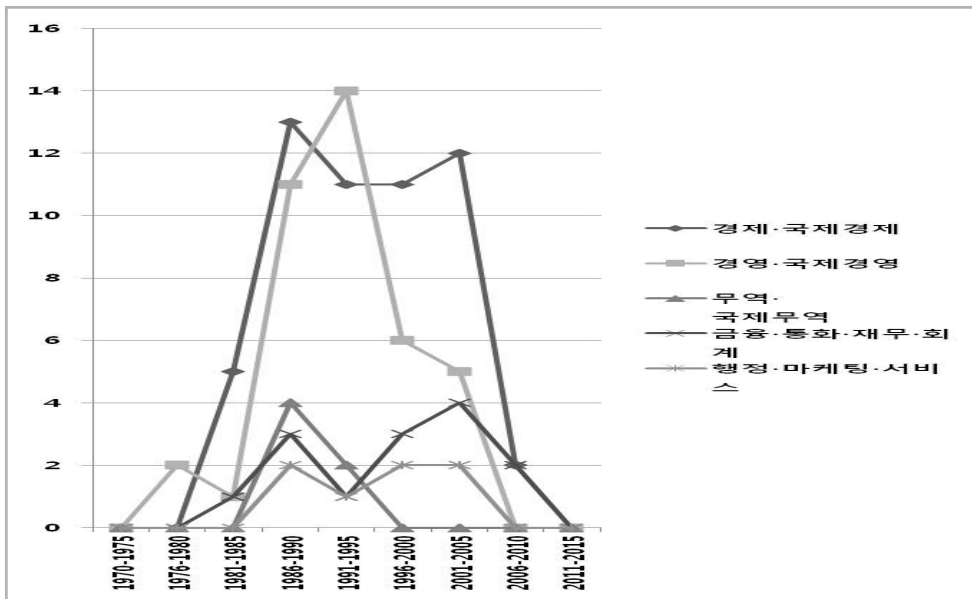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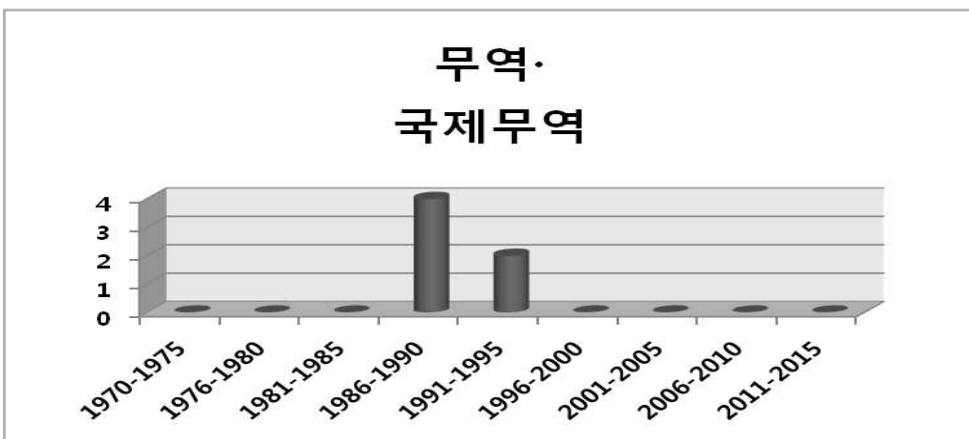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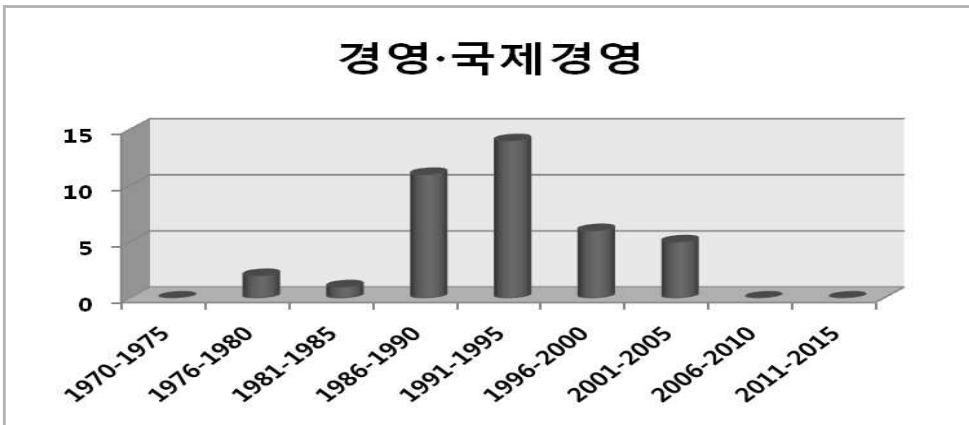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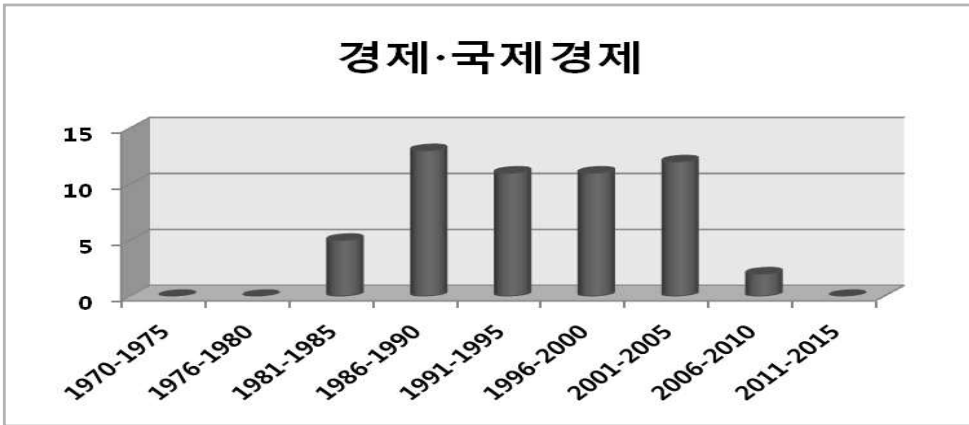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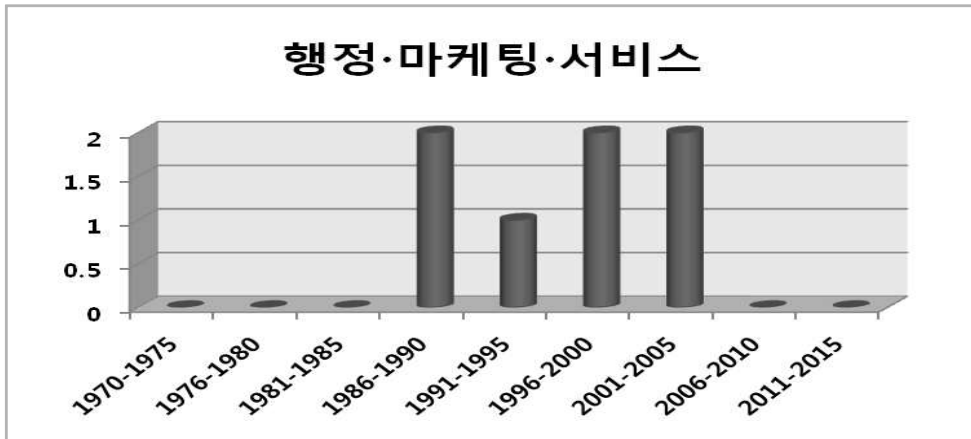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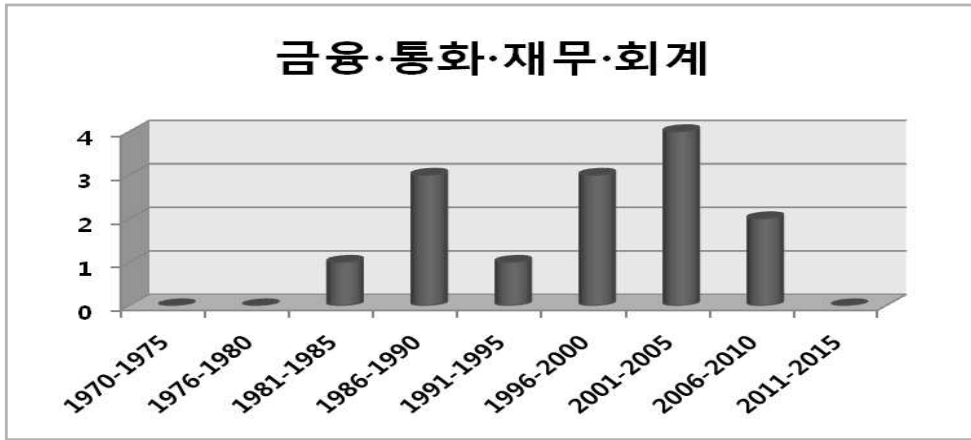
• 경제경영

총 연구자: 1114명	경제경영분야 연구자: 160명
박사학위논문 소지자 106명	* 참고사항: 세부전공 연구동향 분석과 관련해서 최대 2개 중복 체크가 가능함.

	경제 국제경제	경영 국제경영	무역 국제무역	금융통화 재무회계	행정·마케팅· 서비스	기타 (보험, 산업, 노동, IT)	총
1970-1975	0	0	0	0	0	0	0
1976-1980	0	2	0	0	0	0	2
1981-1985	5	1	0	1	0	0	7
1986-1990	13	11	4	3	2	0	33
1991-1995	11	14	2	1	1	2	31
1996-2000	11	6	0	3	2	0	22
2001-2005	12	5	0	4	2	1	24
2006-2010	2	0	0	2	0	0	4
2011-2015	0	0	0	0	0	0	0
총	54	39	6	14	7	3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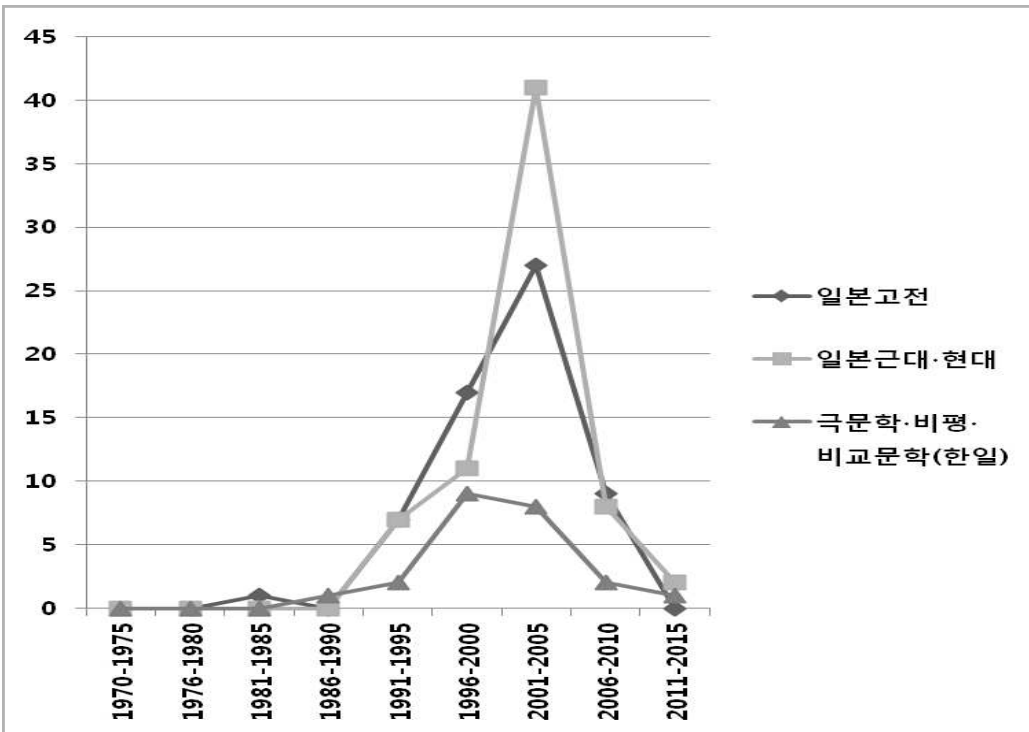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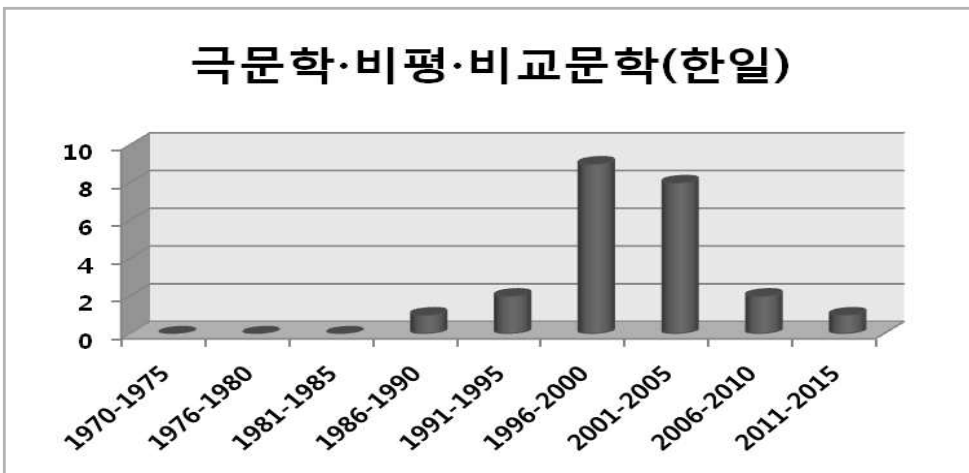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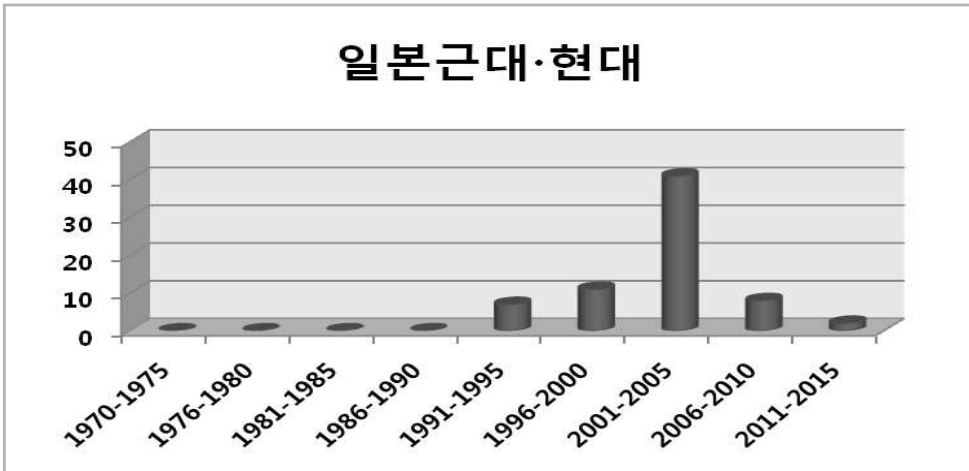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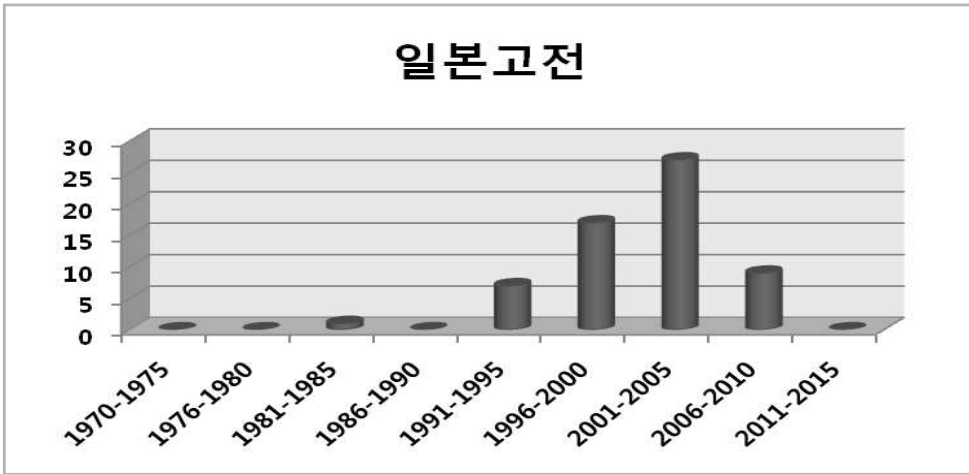


• 문학

총 연구자: 1114명 박사학위논문 소지자 157명	문학분야 연구자: 312명 * 참고사항: 세부전공 연구동향 분석과 관련하여 최대 2개 중복 체크가 가능함.
---------------------------------	---

	일본고전	일본근대현대	극문학비평 비교문학(한일)	기타	총
1970-1975	0	0	0	0	0
1976-1980	0	0	0	0	0
1981-1985	1	0	0	0	1
1986-1990	0	0	1	0	1
1991-1995	7	7	2	2	18
1996-2000	17	11	9	1	38
2001-2005	27	41	8	1	77
2006-2010	9	8	2	0	19
2011-2015	0	2	1	0	3
총	61	69	23	4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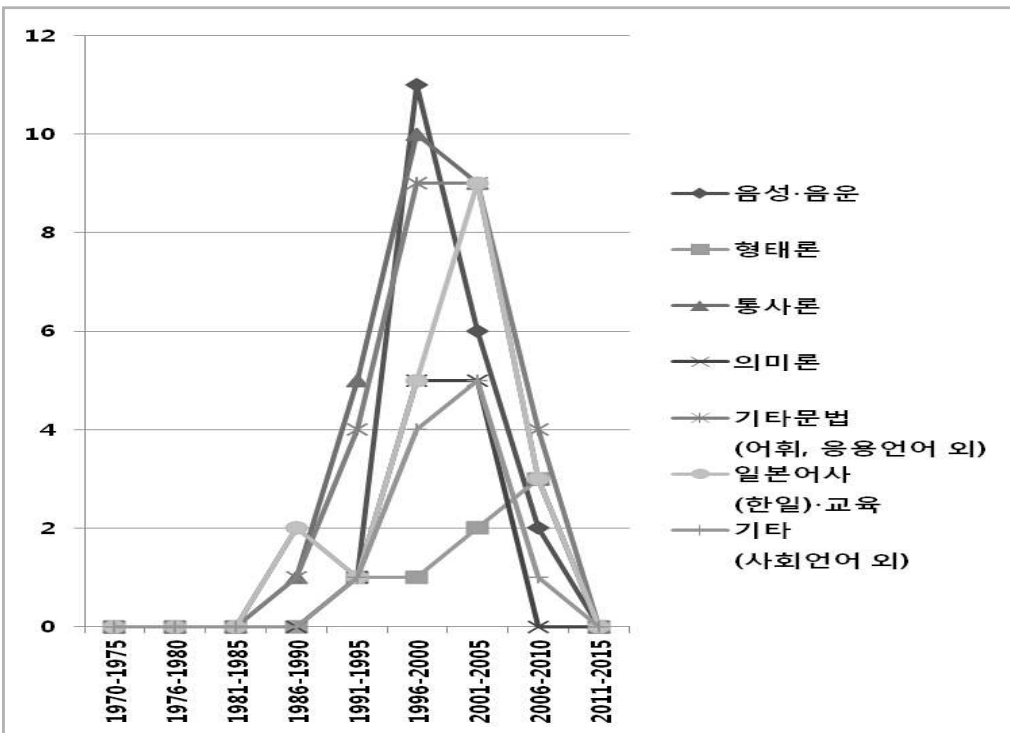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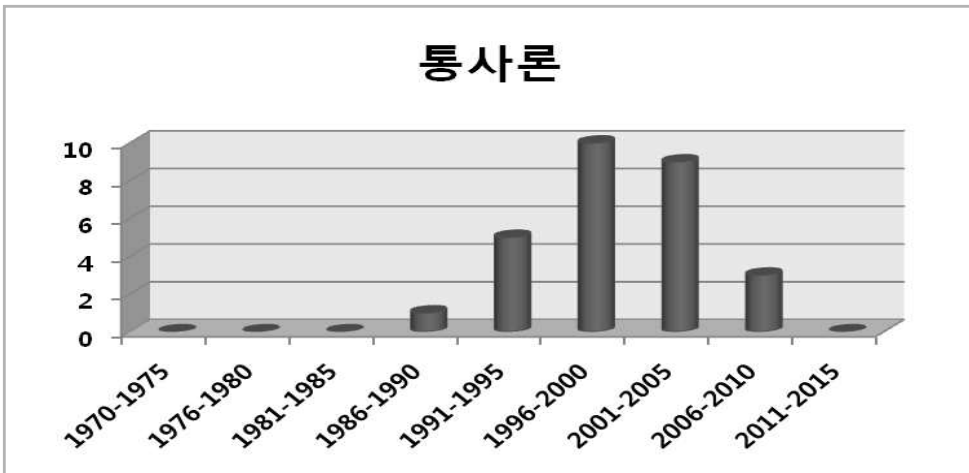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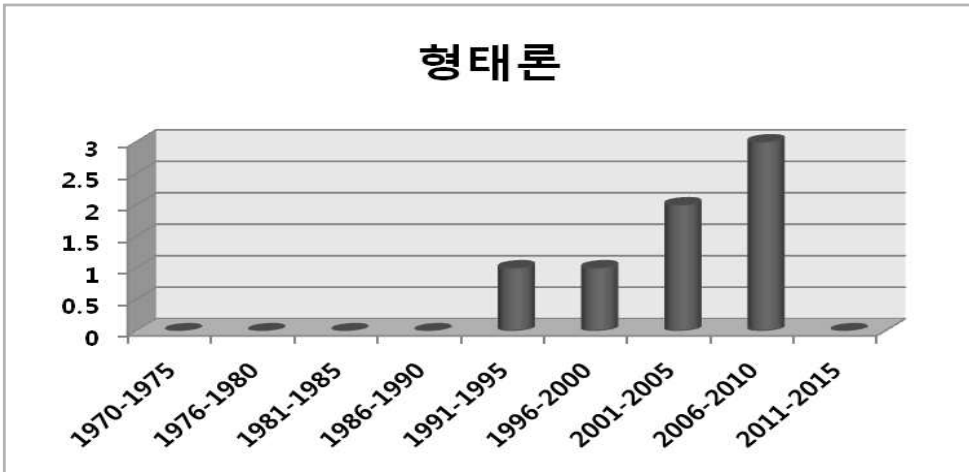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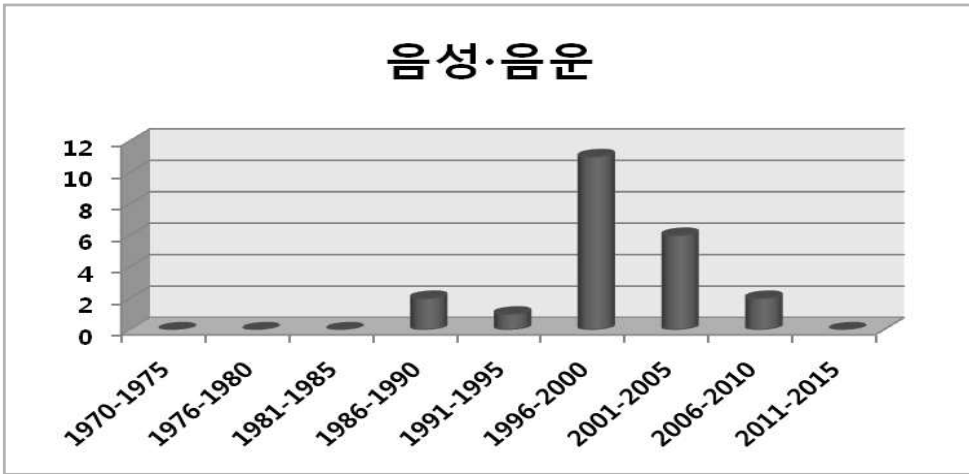


• 어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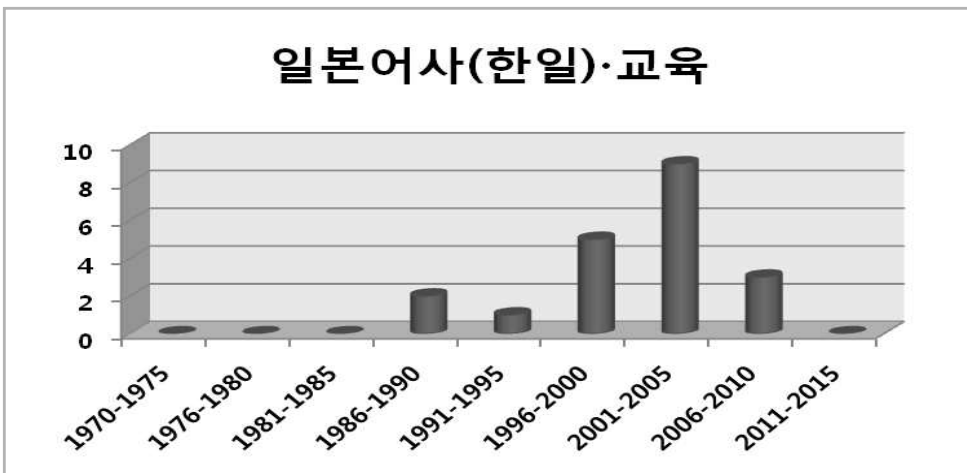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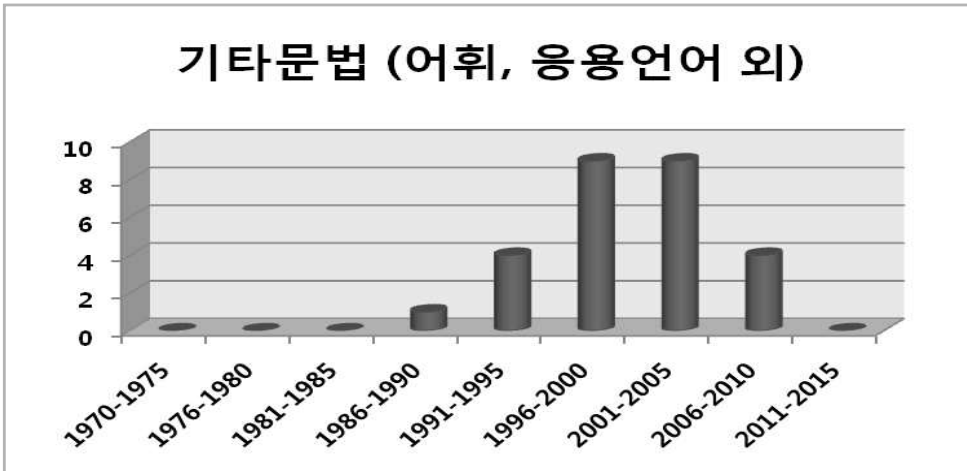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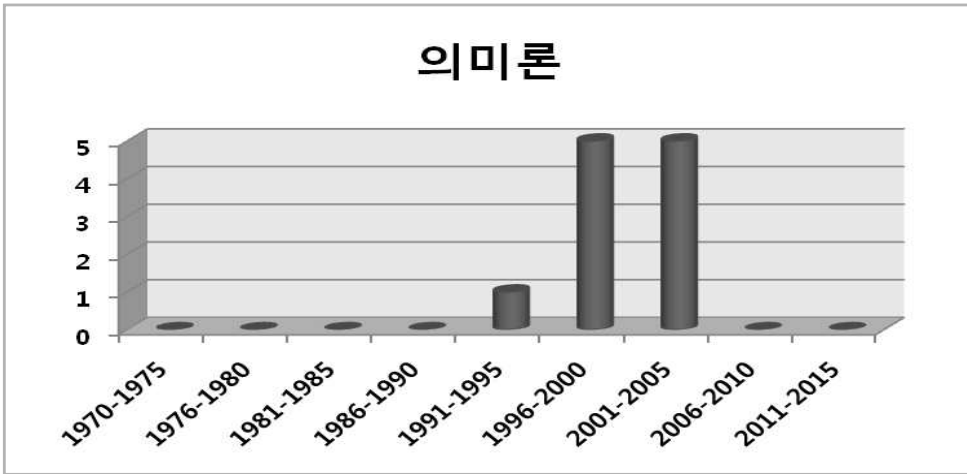
총 연구자: 1114명	어학분야 연구자: 236명
박사학위논문 소지자 126명	* 참고사항: 세부전공 연구동향 분석과 관련해서 최대 2개 중복 체크가 가능함.

	음성음운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기타문법 (어휘, 응용언어 외)	일본어사 (한일)·교육	기타 (사회언어 외)	총
1970-1975	0	0	0	0	0	0	0	0
1976-1980	0	0	0	0	0	0	0	0
1981-1985	0	0	0	0	0	0	0	0
1986-1990	2	0	1	0	1	2	0	6
1991-1995	1	1	5	1	4	1	1	14
1996-2000	11	1	10	5	9	5	4	45
2001-2005	6	2	9	5	9	9	5	45
2006-2010	2	3	3	0	4	3	1	16
2011-2015	0	0	0	0	0	0	0	0
총	22	7	28	11	27	20	11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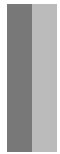








## 부록 2. 일본학 조사 설문지



## 일본연구자 조사표

### Questionnaire On Japan-Related Researcher

다음의 질문에 답해주십시오. □가 있는 질문은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해당되는 것을 하나 선택하시고, □에 체크해주십시오. 디렉터리에 게재하고 싶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게재불가에 체크해주십시오. 게재 가능 혹은 불가의 어느 쪽에도 체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디렉터리에 게재됩니다.

You are kindly requested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Please remember to mark, in the box provided. Only mark one box unless otherwise specified. If you do not want any responses to be included in our Directory, please mark in the appropriate box. Failure to mark either box will result in responses being included

#### 1. 성명 Name

성 Surname 0101\_명 Given Name(s) 0102

칭칭 Title 0103  1. Mr.  2. Ms  3. Dr.  4. Professor  5 Other\_0104

#### 2. 연락처 Mailing Address

Y 게재 가능 For Inclusion  N 게재 불가 Not for Inclusion 0200

부서명/기관명 Section/Organization of Institution 0201 \_\_\_\_\_

주소 Address 0202 \_\_\_\_\_

국명 Country 0203 \_\_\_\_\_

TEL 0204 \_\_\_\_\_

FAX 0205 \_\_\_\_\_

E-mail 0206 \_\_\_\_\_

#### 3. 일본연구와의 관계 Concerning Your Research on Japan

Y 게재 가능 For Inclusion  N 게재불가 Not for Inclusion 0300

일본연구와의 관계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Please select whichever of the following relates most closely to your research on Japan. 0301

1 일본에 관한 논문이 있다

I have written research papers concerned with Japan.

2 비교연구의 대상으로 일본을 다룬 논문이 있다

I have written comparative research papers bearing on Japan.

3 아시아연구자로 일본도 그 일부로서 다룬 논문이 있다

As a specialist on Asia, I have written research paper including a section/sections on Japan.

4 아직 논문을 준비 중이지만, 연구의 대부분이 일본에 관한 것이다

I have yet to publish any papers, but my research in large part concerned with Japan.

5 일본어 교사를 하고 있지만, 일본에 관한 연구는 하지 않았다

I have served as a Japanese Teacher, but I am not involved in any research on Japan.

6 일본에 관한 어떠한 연구도 하고 있지 않다

I am not involved in any research on Japan.

기입일 Date of entry            일 Day 0302\_\_\_\_\_월 Month\_\_\_\_\_년 Year 0304

1~4를 체크하신 분 중, 일본연구자 디렉터리에 게재해도 상관없으신 분은 이하의 질문에 답해주십시오.

Respondents who marked boxes 1~4, and who do not object to the inclusion of their date in our Database and Directory, are requested to complete the remaining questions below.

5, 6에 체크하신 분은 더 이상 기입하지 마시고, 동봉된 답신용 봉투로 반송해주시기 바랍니다.

Respondents who marked boxes 5, 6 are kindly requested to return the above questionnaire in the envelope provided.

#### 4. 국적 Nationality / Citizenship

Y 게재 가능 For Inclusion    N 게재 불가 Not for Inclusion 0400

\_\_\_\_\_0401

#### 5. 생년 Year of Birth

Y 게재 가능 For Inclusion    N 게재 불가 Not for Inclusion 0500

\_\_\_\_\_0501

#### 6. 성별 Sex

Y 게재 가능 For Inclusion    N 게재 불가 Not for Inclusion 0600

1 남 Male    2 여 Female 0601

#### 7. 직종 Occupation

Y 게재 가능 For Inclusion    N 게재 불가 Not for Inclusion 0700

주요 직종을 아래 중에서 하나 선택해주시시오.

Please select your primary occupation from the list below(Choose one). 0701

1 학자, 연구원, 교육자 Scholar, Researcher, Educator

2 미술관 및 박물관 학예원, 도서관 사서 Museum Staff, Librarian

3 예술가 Artist(Including Visual, Musical and Performance Arts)

4 번역가 Translator, Interpreter

5 프리랜서 연구원, 작가(Freelance Researcher, Writer)

6 미디어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Researcher belonging in the Media(Journalism, Publishing, Television, etc.)

7 행정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Government of Public Authority Researcher

8 기업, 공익단체에 소속된 연구원 Researcher in a Private Business Company or Non-profit Organization

9 기타(구체적으로) Other(Please specify) 0702 \_\_\_\_\_

### 8. 소속 Affiliation

주요 소속기관에 대해 기입해주시요.

Please indicate the name of the main organization or institution to which you are principally associated

(1) 기관명 Name 0801 \_\_\_\_\_

부서명 Section 0802 \_\_\_\_\_

직위 Position 0803  1 교수 Professor

2 부교수/조교수 Associate/Assistant Professor

3 강사 Lecturer

4 기타 Other 0804 \_\_\_\_\_

그 밖에 소속된 곳이 있으면 기입해주시요.

Please indicate the name of any other organization or institution to which you are affiliated.

(2) 기관명 Name 0805 \_\_\_\_\_

부서명 Section 0806 \_\_\_\_\_

직위 Position 0807  1 교수

2 부교수/조교수 Associate/Assistant Professor

3 강사 Lecturer

4 기타 Other 0808 \_\_\_\_\_

### 9. 주요 분야 Discipline

Y 게재 가능 For Inclusion  N 게재 불가 Not for Inclusion 0900

당신의 주요 연구 분야 및 이와 관련된 것을 **각각 한 개씩** 대답해주시요. 경제사와 미술사 등, 당신의 연구가 역사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경우, 경제학과 미학 등과 같은 원래의 연구 분야로 답해주시요.

Please indicate your primary and secondary discipline. If your approach is historical, please select **the overall** discipline.

(e.g. Economic History → Economics, Art History → Art)

(주요 학문 분야)

Primary Discipline 0901

- 1 철학 · 사상 · 윤리 Philosophy, Thought, Ethics
- 2 종교 Religion
- 3 고고학 Archaeology
- 4 일반 역사 History in General
- 5 고대사(~1185 년) Ancient History(Pre-History), Yamamoto, Asuka, Nara, Heian)
- 6 중세사(1185~1600 년) Medieval History(Kamakura, Ashikaga, Sengoku, Azuchi-Momoyama)
- 7 근세사(1600~1868 년) Pre-Modern History(Tokugawa)
- 8 근현대사(1868 년~) Modern/Contemporary History (Meiji, Taisho, Showa, Heisei)
- 9 언어학 · 일본어학 · 일본어교육학 Linguistics, Japanese Language Studies, Japanese Language Education
- 10 고대문학(~1185 년) Classical Literature(Nara, Heian)
- 11 중세문학(1185~1600 년) Medieval Literature(Kamakura, Ashikaga, Sengoku, Azuchi-Momoyama)
- 12 근세문학(1600~1868 년) Pre-Modern Literature(Tokugawa)
- 13 근현대문학(1868~) Modern Contemporary Literature(Meiji, Taisho, Showa, Heisei)
- 14 사회학 Sociology
- 15 민속학 · 민족학 · 문화인류학 Folklore, Ethnology, Cultural Anthropology
- 16 심리학 Psychology
- 17 교육학 Education
- 18 인문지리학 Human Geography
- 19 경영학 Business Administration
- 20 경제학 · 경제정책학 Economics, Economic Policy
- 21 정치학 Political Science
- 22 법학 Law
- 23 국제관계 · 외교 International Relations, Diplomacy

(두 번째 학문 분야)

Secondary Discipline 0902

- 1 철학 · 사상 · 윤리 Philosophy, Thought, Ethics
- 2 종교 Religion
- 3 고고학 Archaeology
- 4 일반 역사 History in General
- 5 고대사(~1185 년) Ancient History(Pre-History), Yamamoto, Asuka, Nara, Heian)
- 6 중세사(1185~1600 년) Medieval History(Kamakura, Ashikaga, Sengoku, Azuchi-Momoyama)
- 7 근세사(1600~1868 년) Pre-Modern History(Tokugawa)
- 8 근현대사(1868 년~) Modern/Contemporary History (Meiji, Taisho, Showa, Heisei)
- 9 언어학 · 일본어학 · 일본어교육학 Linguistics, Japanese Language Studies, Japanese Language Education
- 10 고대문학(~1185 년) Classical Literature(Nara, Heian)
- 11 중세문학(1185~1600 년) Medieval Literature(Kamakura, Ashikaga, Sengoku, Azuchi-Momoyama)
- 12 근세문학(1600~1868 년) Pre-Modern Literature(Tokugawa)
- 13 근현대문학(1868~) Modern Contemporary Literature(Meiji, Taisho, Showa, Heisei)
- 14 사회학 Sociology
- 15 민속학 · 민족학 · 문화인류학 Folklore, Ethnology, Cultural Anthropology
- 16 심리학 Psychology
- 17 교육학 Education
- 18 인문지리학 Human Geography
- 19 경영학 Business Administration
- 20 경제학 · 경제정책학 Economics, Economic Policy
- 21 정치학 Political Science
- 22 법학 Law
- 23 국제관계 · 외교 International Relations, Diplomacy

- |  |  |
|--|--|
| <input type="checkbox"/> 24 젠더 스터디 Gender Study  | <input type="checkbox"/> 24 젠더 스터디 Gender Study  |
| <input type="checkbox"/> 25 그 밖의 인문·사회과학 Other Human and Social Science                          | <input type="checkbox"/> 25 그 밖의 인문·사회과학 Other Human and Social Science                          |
| <input type="checkbox"/> 26 미술·공예 Art, Industrial Arts   | <input type="checkbox"/> 26 미술·공예 Art, Industrial Arts   |
| <input type="checkbox"/> 27 예능·음악·연극·영화 Performing Arts, Music, Theater, Film                    | <input type="checkbox"/> 27 예능·음악·연극·영화 Performing Arts, Music, Theater, Film                    |
| <input type="checkbox"/> 28 건축·조원 Architecture, Landscape Gardening                              | <input type="checkbox"/> 28 건축·조원 Architecture, Landscape Gardening                              |
| <input type="checkbox"/> 29 생물학·환경학·농학·임학 Biological Science, Environment, Agriculture, Forestry | <input type="checkbox"/> 29 생물학·환경학·농학·임학 Biological Science, Environment, Agriculture, Forestry |
| <input type="checkbox"/> 30 의학·가정학 Medicine, Pharmacology  | <input type="checkbox"/> 30 의학·가정학 Medicine, Pharmacology  |
| <input type="checkbox"/> 31 가정학 Home Economics   | <input type="checkbox"/> 31 가정학 Home Economics   |
| <input type="checkbox"/> 32 공학 Engineering   | <input type="checkbox"/> 32 공학 Engineering   |
| <input type="checkbox"/> 33 그 밖의 자연과학 Other Natural Sciences                                     | <input type="checkbox"/> 33 그 밖의 자연과학 Other Natural Sciences                                     |
| <input type="checkbox"/> 34 도서관학·정보학 Library Science, Information Studies                        | <input type="checkbox"/> 34 도서관학·정보학 Library Science, Information Studies                        |

#### 10. 관심 있는 연구주제 Research Interest(s)

Y 게재 가능 For Inclusion  N 게재 불가 Not for Inclusion 1000

현재 관심 있는 연구주제에 대해 영어(7자 이내)로 기입해주시시오.

Please describe your present research interest(s) in English(Maximum 7Words).

1001

#### 11. 저작 Publications

Y 게재 가능 For Inclusion  N 게재 불가 Not for Inclusion 1100

주요 저작물은 2개까지 기입해주시시오.

Please indicate your **2 most important published works** relating to Japan.

(1) 타이틀(원어) Original Title(Roman alphabet) 1101 \_\_\_\_\_

타이틀(영어) English Title 1102 \_\_\_\_\_

형태 Form 1103  1 단행본 Book  2 잡지기사 Article

3 책의 1장 Chapter of a Book

공동저자 Co-author 1104 \_\_\_\_\_

편집자 Editor 1105 \_\_\_\_\_

위의 질문 중 2, 3에 체크한 경우 If you checked 2 or 3 above

수록된 서적 명·게재지 명 Title of book or periodical in which your article or chapter was included

1106

출판사 Publisher 1107 \_\_\_\_\_

출판지 Place of Publication 1108 \_\_\_\_\_

발행년도 Year of Publication 1109 \_\_\_\_\_

사용언어 Language Used 1110 \_\_\_\_\_

**12. 소속 학회 Learned Associations to which you are a affiliated**

Y 게재 가능 For Inclusion  N 게재 불가 Not for Inclusion 1200

소속되어 있는 학회를 **3개까지** 기입해 주십시오.

Please indicate **up to 3 learned associations** to which you are affiliated.

(1) 명칭 Name(Roman Alphabet) 1201 \_\_\_\_\_

1 국제학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2 국내학회 Domestic Association 1202

(2) 명칭 Name(Roman Alphabet) 1203 \_\_\_\_\_

1 국제학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2 국내학회 Domestic Association 1204

(3) 명칭 Name(Roman Alphabet) 1205 \_\_\_\_\_

1 국제학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2 국내학회 Domestic Association 1206

**13. 학위 Degrees**

Y 게재 가능 For Inclusion  N 게재 불가 Not for Inclusion 1300

최종학위에 대해 기입해 주십시오.

Please indicate the institution from which your highest degree was awarded

학위 Degree 1301

1 학사 Bachelor's Degree  2 석사 Master's Degree  3 박사 Doctor's Degree

취득해 Year of Award 1302 \_\_\_\_\_

수여기관명 Name of Awarding Institution 1304 \_\_\_\_\_

전문분야 Speciality 1305 \_\_\_\_\_

**14. 직업경력 Position held**

Y 게재 가능 For Inclusion  N 게재 불가 Not for Inclusion 1400

현재 지위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직업을 최근 순으로 **3개까지** 기입해주십시오.

Please indicate **the 3 most recent posts** held prior to your present position, in reverse chronological order.

(1) 기관·분야 명 Name of Organization or Institution, Section 1401

기간 Period \_\_\_\_\_ 1402 ~ \_\_\_\_\_ 1403

직위 Position 1409  1 교수 Professor

2 부교수/조교수 Associate / Assistant Professor

3 강사 Lecturer

4 기타 Other 1415 \_\_\_\_\_



## (2) 기관·분야 명 Name of Organization or Institution, Section 1406

기간 Period \_\_\_\_\_ 1407~ \_\_\_\_\_ 1408

직위 Position 1409  1 교수 Professor 2 부교수/조교수 Associate / Assistant Professor 3 강사 Lecturer 4 기타 Other 1410 \_\_\_\_\_

## (3) 기관·분야 명 Name of Organization or Institution, Section 1411

기간 Period \_\_\_\_\_ 1412~ \_\_\_\_\_ 1413

직위 Position 1414  1 교수 Professor 2 부교수/조교수 Associate / Assistant Professor 3 강사 Lecturer 4 기타 Other 1415 \_\_\_\_\_

## 15. 일본체류 경험 Experience of Studying / Teaching in Japan

 Y 게재 가능 For Inclusion  N 게재 불가 Not for Inclusion 15001개월 이상의 일본체재 경험이 있는 경우, 주요한 것을 **3개까지** 기입해 주십시오.If you have pent periods of over one month in Japan for studying or teaching, please indicate the **3 that are most important.**

(1) 방문해 Year of Visit 1501 \_\_\_\_\_

기간 Duration 1502 \_\_\_\_\_ 개월 Months

해당 기관 Name of Sponsoring 1503 \_\_\_\_\_

(2) 방문해 Year of Visit 1504 \_\_\_\_\_

기간 Duration 1505 \_\_\_\_\_ 개월 Months

해당 기관 Name of Sponsoring 1506 \_\_\_\_\_

(3) 방문해 Year of Visit 1507 \_\_\_\_\_

기간 Duration 1508 \_\_\_\_\_ 개월 Months

해당 기관 Name of Sponsoring 1509 \_\_\_\_\_

## 16. 사용언어 Language Competence

 Y 게재 가능 For Inclusion  N 게재 불가 Not for Inclusion 1600일본연구에 대한 연구토의에서 참여 가능한 언어를 아래에서 **4개까지** 선택해주시십시오.Please select up to **4 languages** from the list below which you are able to participate in academic discussions related to Japan. 1601 1602 1603 1604 1 일본어 Japanese 2 영어 English 3 프랑스어 French 4 독일어 German

- 5 스페인어 Spanish
- 6 중국어 Chinese
- 7 한국어 Korean
- 8 기타 Other 1605

**17. 코멘트 Comments 1701**

이 조사에 유용한 코멘트가 있으면 기입해주시오(디렉터리에는 게재하지 않습니다).

If you have any comments about this questionnaire, please note them below

(Comments will not be recorded in the Directory)

## 일본연구기관 조사표

### Questionnaire On Japan-Related Research Unit

다음 질문에 답해주십시오. □(네모 칸)에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설문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만** 선택하여 □에 체크해주십시오.

You are kindly requested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Please remember to mark, in the box provided. Only mark **one** box unless otherwise specified.

#### 1. 기관명 Name of Unit

일본 연구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Please indicate the unit where research on Japan is actually being undertaken

- (1) 명칭 Name 0101 \_\_\_\_\_  
 (2) 상위기관명(귀 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상위조직) Umbrella Organization (if any) 0102 \_\_\_\_\_

#### (3) 기관의 위치 Position of Unit 0103

- 1 특정 대학으로부터 독립해 있는 연구소  
 Independent Research Institute  
 2 대학의 부속연구소  
 University-Affiliated Research Institute  
 3 대학원의 학부·학과  
 Graduate School Department / Faculty  
 4 대학원의 연구과  
 Graduate School Department  
 5 학부·학과의 부속연구소  
 Department / Faculty-Affiliated Research Center  
 6 미술관·박물관·도서관  
 Museum, Library  
 7 정부기관  
 Government Organization  
 8 기타  
 Other 0104 \_\_\_\_\_

#### (4) 기관의 교육·연구형태 Function of Unit 0105

- 1 연구만 수행하고 있다  
 Involved in research only  
 2 연구와 대학원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Involved in research and postgraduate education  
 3 연구와 학부교육(어학 중심)을 수행하고 있다  
 Involved in research and undergraduate educatio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primarily)

4 연구와 학부교육(어학 이외의 일본연관교육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다

Involved in research and undergraduate education

(Non-language education primarily)

**2. 기입자 Name of Person Completing Questionnaire**

성 Surname 0201 \_\_\_\_\_ 명 Given Name(s) 0202 \_\_\_\_\_

칭칭 Title 0203 \_\_\_\_\_

소속 Department / Institution 0204 \_\_\_\_\_

직위 Position 0205  1 기관장 Director

2 부기관장 Vice-Director

3 비서·사무원 Secretary, Clerical Assistant

4 기타 Other 0207

주소 Address 0207 \_\_\_\_\_

국명 Country 0208 \_\_\_\_\_

전화 TEL 0209 \_\_\_\_\_ 팩스 FAX 0210 \_\_\_\_\_

E-mail 0211 \_\_\_\_\_

기입연월일 Date 0212 \_\_\_\_\_

**3. 연락처 Contact Address**

일본연구에 관해 문의할 경우 책임자의 성함을 기입해주시시오(기입자와 동일하다면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Please enter the name of the person who should be contacted regarding any inquiries about your unit's research(If different from above).

성 Surname 0301 \_\_\_\_\_ 명 Given Name(s) 0302 \_\_\_\_\_

칭칭 Title 0303  1 Mr.  2 Ms.  3 Dr.  4 Prof.  5 Other 0204

직위 Position 0305  1 기관장 Director

2 부기관장 Vice-Director

3 비서·사무원 Secretary, Clerical Assistant

4 기타 Other 0306

부서명 Department 0307 \_\_\_\_\_

기관명 Institution 0308 \_\_\_\_\_

주소 Address 0309 \_\_\_\_\_

국명 Country 0310 \_\_\_\_\_

전화 TEL 0311 \_\_\_\_\_ 팩스 FAX 0312 \_\_\_\_\_

E-mail 0313 \_\_\_\_\_

**4. 주요 연구 분야 Principal Areas of Research**

귀 기관에서는 일본에 관한 어떠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분야를 **3개까지** 선

택하여 답해주십시오.

Which areas do your unit research focus on? Please select **up to 3 item** from the list of research areas.  
0401

- 1 철학 · 사상 · 윤리 Philosophy, Thought, Ethics
- 2 종교 Religion
- 3 고고학 Archaeology
- 4 역사일반 History in General
- 5 고대사(~1185년) Ancient History(Pre-history, Yamato, Asuka, Nara, Heian)
- 6 중세사(1185~1600년) Medieval History(Kamakura, Ashikaga, Sengoku, Azuchi-Momoyama)
- 7 근세사(1600~1868년) Pre-Modern History(Tokugawa)
- 8 근현대사(1868년~) Modern / Contemporary History(Meiji, Taisho, Showa, Heisei)
- 9 언어학 · 일본어학 · 일본어교육학 Linguistics, Japanese Language Studies, Japanese Language Education
- 10 고대문학(~1185년) Classical Literature(Nara, Heian)
- 11 중세문학(1185~1600년) Medieval Literature(Kamakura, Ashikaga, Sengoku, Azuchi-Momoyama)
- 12 근세문학(1600~1868년) Pre-Modern Literature(Tokugawa)
- 13 근현대문학(1868~) Modern / Contemporary Literature(Meiji, Taisho, Showa, Heisei)
- 14 사회학 Sociology
- 15 민속학 · 민족학 · 문화인류학 Folklore, Ethnology, Cultural Anthropology
- 16 심리학 Psychology
- 17 교육학 Education
- 18 인문지리학 Human Geography
- 19 경영학 Business Administration
- 20 경제학 · 경제정책학 Economics, Economic Policy
- 21 정치학 Political Science
- 22 법학 Law
- 23 국제관계 · 외교 International Relations, Diplomacy
- 24 젠더 스테디 Gender Study
- 25 그 밖의 인문 · 사회과학 Other Human and Social Science
- 26 미술 · 공예 Art, Industrial Arts
- 27 예능 · 음악 · 연극 · 영화 Performing Arts, Music, Theater, Film
- 28 건축 · 조원 Architecture, Landscape Gardening
- 29 생물학 · 환경학 · 농학 · 임학 Biological Sciences, Environment, Agriculture, Forestry
- 30 의학 · 가정학 Medicine, Pharmacology
- 31 가정학 Home Economics
- 32 공학 Engineering
- 33 그 밖의 자연과학 Other Natural Sciences
- 34 도서관학 · 정보학 Library Science, Information Studies

### 5. 연구 프로그램 Research Program

최근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일본연구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Does your unit carry out an organized program of research on Japan, especially which is recently given high priority?

있다 Yes  없다 No 0501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시오. 위의 연구 분야 리스트의 해당하는 분야를 **3개까지** 답해주십시오. If yes, please enter their details, by selecting up to 3 items from the list of research areas.

- (1) 프로그램명 Program Title 0502 \_\_\_\_\_  
 사업책임자 Program Coordinator 0503 \_\_\_\_\_  
 기간 duration \_\_\_\_\_ 0504 ~ \_\_\_\_\_ 0505  
 연구 분야 Research Areas 1 \_\_\_\_\_ 0506 2 \_\_\_\_\_ 0507 3 \_\_\_\_\_ 0508
- (2) 프로그램명 Program Title 0509 \_\_\_\_\_  
 사업책임자 Program Coordinator 0510 \_\_\_\_\_  
 기간 duration \_\_\_\_\_ 0511 ~ \_\_\_\_\_ 0512  
 연구 분야 Research Areas 1 \_\_\_\_\_ 0513 2 \_\_\_\_\_ 0514 3 \_\_\_\_\_ 0515
- (3) 프로그램명 Program Title 0516 \_\_\_\_\_  
 사업책임자 Program Coordinator 0517 \_\_\_\_\_  
 기간 duration \_\_\_\_\_ 0518 ~ \_\_\_\_\_ 0519  
 연구 분야 Research Areas 1 \_\_\_\_\_ 0520 2 \_\_\_\_\_ 0521 3 \_\_\_\_\_ 0522

### 6. 일본연구 정기간행물 Japanese Studies-Related Periodical Publications

일본연구에 관한 잡지와 간행물, 논문 시리즈 등을 발행하고 있다면 그 발행 횟수, 발행 부수를 기입해 주세요.

Do you issue any periodical publications (newsletter, journal) or research paper series related to Japan? If yes, please enter the frequency of publication and number of issues.

- (1) 뉴스레터 Newsletter  Y 발행하고 있다 Issued  
 N 발행하고 있지 않다 Not issued 0601  
 횟수 Frequency of Publication 0602 연 \_\_\_\_\_ 회 / per year  
 발행 부수 Number of Issues Published 0603 \_\_\_\_\_  
 사용언어 Language to be used 0604  1 일본어 Japanese  
 2 영어 English  
 3 한국 Korean  
 4 일본어 · 영어 Japanese and English  
 5 일본어 · 한국어 Japanese and Korean  
 6 영어 · 한국어 English and Korean  
 7 기타 Other 0605
- (2) 연구잡지 Journal  Y 발행하고 있다 Issued  N 발행하고 있지 않다 Not issued 0606

횟수 Frequency of Publication 0607 연 \_\_\_\_\_ 회 / per year

발행 부수 Number of Issues Published 0608 \_\_\_\_\_

사용언어 Language to be used 0609  1 일본어 Japanese  
 2 영어 English  
 3 한국 Korean  
 4 일본어·영어 Japanese and English  
 5 일본어·한국어 Japanese and Korean  
 6 영어·한국어 English and Korean  
 7 기타 Other 0610 \_\_\_\_\_

(3) 논문 시리즈 Research Series  Y 발행하고 있다 Issued  
 N 발행하고 있지 않다 Not issued 0611

횟수 Frequency of Publication 0612 연 \_\_\_\_\_ 회 / per year

발행 부수 Number of Issues Published 0613 \_\_\_\_\_

사용언어 Language to be used 0614  1 일본어 Japanese  
 2 영어 English  
 3 한국 Korean  
 4 일본어·영어 Japanese and English  
 5 일본어·한국어 Japanese and Korean  
 6 영어·한국어 English and Korean  
 7 기타 Other 0615 \_\_\_\_\_

## 7. 학위 Degrees

귀 기관 또는 상위조직에서 일본연구에 관한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며 일본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학생에게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를 선택하여 답해주세요.

Does your unit or its umbrella organization award degrees for Japan-related research? If applicable, please indicate the types of degree awarded.

Y 수여하고 있다 Award  N 수여하고 있지 않다 Not award 0701

(1) 수여학위 Degrees Awarded 0702  1 학사 Bachelor  
 2 석사 Master  
 3 박사 이상 Doctor and higher Qualification

(2) 학위의 종류 Type of Degree

1 학사 Bachelor 0703

일본연구학위 Research on Japan

Y 수여하고 있다 Award  N 수여하고 있지 않다 Not award

아시아 연구 등의 지역연구 학위 Regional Research on Asia

Y 수여하고 있다 Award  N 수여하고 있지 않다 Not award

분야별 학위 Degree by discipline

Y 수여하고 있다 Award  N 수여하고 있지 않다 Not award

학제적인 지위 Interdisciplinary Degree

Y 수여하고 있다 Award  N 수여하고 있지 않다 Not award

2 석사 Master 0704

일본연구학회 Research on Japan

Y 수여하고 있다 Award  N 수여하고 있지 않다 Not award

아시아 연구 등의 지역연구 학위 Regional Research on Asia

Y 수여하고 있다 Award  N 수여하고 있지 않다 Not award

분야별 학위 Degree by Discipline

Y 수여하고 있다 Award  N 수여하고 있지 않다 Not award

학제적인 지위 Interdisciplinary Degree

Y 수여하고 있다 Award  N 수여하고 있지 않다 Not award

3 박사 이상 Doctor and higher Qualification 0705

일본연구학회 Research on Japan

Y 수여하고 있다 Award  N 수여하고 있지 않다 Not award

아시아 연구 등의 지역연구 학위 Regional Research on Asia

Y 수여하고 있다 Award  N 수여하고 있지 않다 Not award

분야별 학위 Degree by Discipline

Y 수여하고 있다 Award  N 수여하고 있지 않다 Not award

학제적인 지위 Interdisciplinary Degree

Y 수여하고 있다 Award  N 수여하고 있지 않다 Not award

8. 대중 교육활동 Outreach Activities

귀 기관에서 일본에 관한 일반적인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면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고 횟수를 기입해주시십시오.

Does your unit arrange any educational activities for the general public? if yes, please indicate the type of activity and enter th frequency of arrangement.

실시하고 있다. Yes  실시하고 있지 않다 No 0801

종류 Type 횟수 Frequency 0802

(1) 강연 Lectures 년 \_\_\_\_\_ 회

실시하고 있다. Yes  실시하고 있지 않다 No times / year 0804

(2) 영화상영, 일본문화공연 Film Shows, Japanese Cultural Performance 년 \_\_\_\_\_ 회

실시하고 있다. Yes  실시하고 있지 않다 No times / year 0805

(3) 교원 워크숍 Workshops for Teachers 년 \_\_\_\_\_ 회

실시하고 있다. Yes  실시하고 있지 않다 No times / year 0806

(4) 일본 방문자를 위한 워크숍 Workshops for Visitors to Japan 년 \_\_\_\_\_ 회

실시하고 있다. Yes  실시하고 있지 않다 No times / year 0807

(5) 전시회 Exhibitions 년 \_\_\_\_\_ 회



실시하고 있다. Yes  실시하고 있지 않다 No times / year 0808

(6) 기타 Others 0803 년 \_\_\_\_\_ 회

실시하고 있다. Yes  실시하고 있지 않다 No times / year 0809

### 9. 일본에 있는 기관과의 학술교류 Academic Exchanges with Academic Institution in Japan

일본의 학술기관과 학술교류 등의 공식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Does your unit maintain any formal academic exchanges, etc. with academic institution in Japan?

있다 Yes  없다 No 0901

학술교류 관계가 있다면 다음의 항목을 기입해주시시오.

If yes, please complete the following sections.

- (1) 프로그램의 종류  1 연구진의 교환 Exchange of Research Staff  
 Type of program 0902  2 학생의 교환 Exchange of Students  
 3 공동연구 Joint Research

일본측 기관명 \_\_\_\_\_

Name of Japanese Institution 0903

교류개시년 \_\_\_\_\_ 년

Year of Commencement of Exchange 0904

- (2) 프로그램의 종류  1 연구진의 교환 Exchange of Research Staff  
 Type of program 0905  2 학생의 교환 Exchange of Students  
 3 공동연구 Joint Research

일본 측 기관명 \_\_\_\_\_

Name of Japanese Institution 0906

교류개시년 \_\_\_\_\_ 년

Year of Commencement of Exchange 0907

- (3) 프로그램의 종류  1 연구진의 교환 Exchange of Research Staff  
 Type of program 0908  2 학생의 교환 Exchange of Students  
 3 공동연구 Joint Research

일본 측 기관명 \_\_\_\_\_

Name of Japanese Institution 0909

교류개시년 \_\_\_\_\_ 년

Year of Commencement of Exchange 0910

- (4) 프로그램의 종류  1 연구진의 교환 Exchange of Research Staff  
 Type of program 0911  2 학생의 교환 Exchange of Students  
 3 공동연구 Joint Research

일본 측 기관명 \_\_\_\_\_

Name of Japanese Institution 0912

교류개시년 \_\_\_\_\_ 년

Year of Commencement of Exchange 0913

#### 10. 일본 관련 도서 Japan-related Library Collection on Japan

귀 기관이 소장하는 일본 관련 도서의 수를 기입해주시시오.

How many publications (books and periodicals) on Japan does your unit have?

##### (1) 서적 Books on Japan

\* 일본어로 쓰인 일본 관계 서적 수 Books on Japan Printed in Japanese 1001

- 1 없음 None
- 2 100권 미만 From 1 to 99 books
- 3 1,000권 미만 From 100 to 999 books
- 4 5,000권 미만 From 1,000 to 4,999 books
- 5 10,000권 미만 From 5,000 to 9,999 books
- 6 10,000권 이상 10,000 + books

\*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쓰인 일본 관계 서적 수

Books written in languages other than Japanese 1002

- 1 없음 None
- 2 100권 미만 From 1 to 99 books
- 3 1,000권 미만 From 100 to 999 books
- 4 5,000권 미만 From 1,000 to 4,999 books
- 5 10,000권 미만 From 5,000 to 9,999 books
- 6 10,000권 이상 10,000 + books

##### (2) 잡지 Periodicals on Japan

\* 일본어로 쓰인 일본 관계 잡지 Periodicals on Japan in Japanese-Language 1003

- 1 없음 None
- 2 1~9권 From 1 to 99 periodicals
- 3 10~19권 From 10 to 19 periodicals
- 4 20권 이상 20 + periodicals

\*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쓰인 일본 관계 잡지

Periodicals on Japan in languages other than Japanese 1004

- 1 없음 None
- 2 1~9권 From 1 to 99 periodicals
- 3 10~19권 From 10 to 19 periodicals

4 20권 이상 20 + periodicals

### 11. 일본연구자 Researchers in Japanese Studies

귀 기간에 일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는 몇 명입니까?

(단지 일본어 교육만을 전문으로 하는 일본어 교사, 객원교수, 장학생은 제외)

How many Japanese Studies researchers are at present permanently attached to your unit? (Not including guest researchers, scholarship holders and those solely involved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_\_\_\_\_명 Person 1101

연구자 전원에 관해서 성명, 소속, 지위, 근무 형태를 기입해주시십시오. 6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기입하여 첨부해주시십시오.

For each researcher, please enter the department to which they are affiliated, their name and their position. Please also note whether the person is full-time or part-time.

If you have more than 6 researchers in your unit, please attach the information in a separate sheet.

(1) 성 Surname 1102 \_\_\_\_\_ 명 Given Name(s) 1103 \_\_\_\_\_

직위 Position 1104  1 교수 Professor

2 부교수 / 조교수 Associate / Assistant Professor

3 강사 Lecturer

4 기타 Other 1105

소속 Department 1106

근무형태 Working status 1107  1 상근 Full-time  2 비상근 Part-time

(2) 성 Surname 1108 \_\_\_\_\_ 명 Given Name(s) 1109 \_\_\_\_\_

직위 Position 1110  1 교수 Professor

2 부교수 / 조교수 Associate / Assistant Professor

3 강사 Lecturer

4 기타 Other 1111

소속 Department 1112

근무형태 Working status 1113  1 상근 Full-time  2 비상근 Part-time

(3) 성 Surname 1114 \_\_\_\_\_ 명 Given Name(s) 1115 \_\_\_\_\_

직위 Position 1116  1 교수 Professor

2 부교수 / 조교수 Associate / Assistant Professor

3 강사 Lecturer

4 기타 Other 1117

소속 Department 1118

근무형태 Working status 1119  1 상근 Full-time  2 비상근 Part-time

(4) 성 Surname 1120 \_\_\_\_\_ 명 Given Name(s) 1121 \_\_\_\_\_

직위 Position 1122  1 교수 Professor

2 부교수 / 조교수 Associate / Assistant Professor

3 강사 Lecturer

4 기타 Other 1123 \_\_\_\_\_

소속 Department 1124 \_\_\_\_\_

근무형태 Working status 1125  1 상근 Full-time  2 비상근 Part-time

(5) 성 Surname 1126 \_\_\_\_\_ 명 Given Name(s) 1127 \_\_\_\_\_

직위 Position 1128  1 교수 Professor

2 부교수 / 조교수 Associate / Assistant Professor

3 강사 Lecturer

4 기타 Other 1129 \_\_\_\_\_

소속 Department 1130 \_\_\_\_\_

근무형태 Working status 1131  1 상근 Full-time  2 비상근 Part-time

## 12. 코멘트

이 조사에 유용한 코멘트가 있다면 기입해주시시오(디렉터리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If you wish to make any comments about this questionnaire, please use the space below(Comments will be recorded in the Directory).

### 부록 3. 일본연구기관 주소록



일본학관련 연구기관 1. 대학 (총 88개 대학)

기관	기관명	설립일	회원수여 개설과정	전공명	지역 구분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대학	기톨릭대학교 일어일본문화전공 (Catholic University)	1998. 3	학사 석사	일어일본문화 전공	경기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산 43-1 기톨릭대학교 성심교정 다솔관 205 호	http://songsim.catholic.ac.kr/~cukjapan	T. 02-2164-4533
대학	강릉원주대학교 일본학과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1996. 3	학사	문학사	강원도	강원 강릉시 죽한길 7 강릉원주대학교 인문대학 128호 일본학과사무실 (210-702)	https://japan.gwnu.ac.kr/	T. 033-640-2155 F. 033-640-2155
대학	강원대학교 일본학과 (Kangwon National University)	1998. 3	학사	일본어학전공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일본학과 (200-701)	http://kw-japan.com/	T. 033-250-8250
대학	건국대학교 일어교육과 (Konkuk University)	1974	학사 석사 박사	일어교육과 전공	서울	서울특별시 관악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일어교육과 (143-701)	http://home.konkuk.ac.kr:8080/cms/Site/jsp/japan/index.jsp	T. 02-450-3114
대학	강양대학교 일본어문화학과 (Konyang University)	인급없음	학사	일본어문화학전공	충남	충남 논산시 내동 26번지 건양대학교 일본어문화학과 (320-711)	http://japanese.konyang.ac.kr/index.php	T. 041-730-5306
대학	경기대학교 일어일본문화전공 (kyonggi University)	1980	학사 석사 박사	일어학과 일본문학 전공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신로 154-42 (443-760)	http://www.kyonggi.ac.kr/kguSbjInfo.kg?mzcode=K00M010103&ongcd=K010207	T. 031-249-9115
대학	경북대학교 일어일본문화과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985. 3	학사 석사 박사	일어일본학 전공	대구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일어일본학과 (702-701)	http://japan.knu.ac.kr/	T. 053-950-6150
대학	경상대학교 일어교육과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1973. 3	학사 석사	일어교육전공	경남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일어교육과 (660-701)	http://edjapan.gnu.ac.kr/	T. 055-772-2200
대학	경상대학교 일어일본학과 (Kyungsaung University)	인급없음	학사	일어일본학 전공	부산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대연동) 경상대학교 일어일본학과 (608-736)	http://www.wdb2.ks.ac.kr:8000/japan/	T. 051-663-4255
대학	가천대학교 일본어문화과 (Gachon University)	인급없음	학사	일어일본학 전공	경기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461-701)	http://www.gachon.ac.kr/major/civilization/06/index.jsp	T. 031-750-5531

대학	경일대학교 외국어학부 (Kyungil University)	2005. 3	학사	일본어전공	경북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기미리길 50 비즈니스 외국어학부 학부사무실 5호관 408호(712-701)	http://fl.kiu.ac.kr/	T. 053-600-5140 F. 053-600-5159
대학	경주대학교 관광외국어학부 일어전공 (Gyeongju University)	1990.10.25	학사	일본문화·관광학 전공	경북	경상북도 경주시 호학동 산 42-1 경주대학교 관광대학 관광영어과 (780-712) *1990.10.25 교육부 관광영어과 신설하기 *1991. 3 첫 입학생 맞이. *1998. 10월 관광외국어학부 일어전공' 으로 개편	http://www.gju-japan.com/ T. 054-770-5145	
대학	경희대학교 일본어학과 (Kyunghee University)	1981. 3	학사 석사 박사	일본어전공	경기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208호 일본어학과 사무실	http://japanese.khu.ac.kr/ T. 031-201-2226	
대학	계명대학교 일본어학과 (Keimyung University)	1973	학사 석사 박사	일본어문학전공  교양대학원 - 일어교육전공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2800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영양관 202호 일본어문학과 *1973년 지방최초로 계명대학교에 일어교육학과가 설치된 후, 1982년 일어일본학과로 명칭을 변경 *1997년 학부제 실시와 함께 일본어문화과로 명칭 변경	http://home.kmu.ac.kr/~japanese/ T. 053-580-5786	
대학	고려대학교 일어일본학과 (Korea University)	1983. 3	학사 석사 박사	일어일본학전공	서울	서울특별시 상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일어일본학과 (136-701)	http://www.kuiap.com/ T. 02-3290-2140	
대학	관동대학교 일어일본학과 (Kwangdong University)	1973. 3. 2	학사	일어일본학전공	강원도	강원도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 관동대학교 청송관 427-2호 일어일본학과 (210-701)	http://cms.kd.ac.kr/user/japan/index.htm T. 033-649-7230	
대학	광주대학교 일본어학과 (Gwangju University)	1989	학사	일본어전공	광주	광주광역시 남구 호덕로 277 광주대학교 일본어학과 (503-703)	http://japan.gwangju.ac.kr/ T. 062-670-2096	
대학	군산대학교 일어일본학과 (Kunsan National University)	1988	학사 석사	일어학·일본학 전공	전북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88 군산대학교 일본대학 일어일본과 (573-701)	http://cms.kunsan.ac.kr/user/japan/ T. 063-469-4351	
대학	कु동대학교 일본어학과	2002.03	학사	일본어전공	충북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대학길 76-	http://japan.kdu.ac.kr/index.do T. 043-879-3572	

대학	(Far East University) 남서울대학교 일본어과 (Nanseoul University)	1994.03	학사	일본어전공	충남	32 극동대학교 일본어학과 (369-703)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대학로 91 번지 남서울대학교 일본어과 (330-707)	http://jp.nsu.ac.kr/	T. 041-580-2170
대학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일어일본학과 (Dankook University)	1980.03	학사	일어일본전공	경기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죽전동 126) (448-701)	http://homp.y.dankook.ac.kr/dk/japan/	T.031-8005-3050
대학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일본어과 (Dankook University)	1985.03	학사	일본어전공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인서동 산 29) (330-714)	http://homp.y.dankook.ac.kr/japanese/	T. 041-550-3190
대학	대구톨릭대학교 일어일본학과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1984.1	학사 석사	일어일본학전공	경북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1 리 330 대구톨릭대학교 중앙어문대학부 일어일본학과 (712-702)	http://myhome.cu.ac.kr/jap1/	T. 053-850-3396
대학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Daegu University)	1981.03	학사	일본어일본학 전공	경북	경상북도 경산시 진양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712-714)	http://japanese.daegu.ac.kr/	T. 053-850-6060
대학	대구외국어대학교 외국어학부 일본어 전공/일본어통번역전공 (Daegu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인접없음	학사	일본어전공/ 일본어통번역 전공	경북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남천로 730 (712-721)	http://japanese.dufs.ac.kr/	T. 053-810-7000 F. 053-811-0836
대학	대전대학교 일어일본학과 (Daejeon University)	1999.03	학사	일어일본학 전공	대전	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 62 대전대학교 일어일본학과 (300-716)	http://home.dju.ac.kr/japanese/	T. 042-280-2255
대학	대전대학교 일본학과 (Daejin University)	인접없음	학사	일본학전공	경기도	경기도 포천시 흥국로 1007 대전대학교 일본학과 (487-711)	http://japanese.daejin.ac.kr/japanese/ index.do	T. 031-539-1720
대학	덕성여자대학교 일어일본학과(Duksung Women's University)	1980. 10. 2	학사	일어일본학전공	서울	서울특별시 도봉구 신암로 144 길 33 덕성여자대학교 일어일본학과(132-714)	http://academy.duksung.ac.kr/japanese	T. 02-901-8221
대학	동국대학교 일어일본학과 (Dongguk University)	1980. 10	학사 석사 박사	일어일본학 전공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 길 30 동국대학교 일어일본학과 (100-715)	http://dj.dongguk.edu/	T. 02-2260-8710
대학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일어일본학과 (Dongguk University)	1979	학사 석사 박사	일어일본학 전공	경북	경상북도 경주시 석정동 707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일어일본학과 (780-714)	http://japan.dongguk.ac.kr/	T. 054-770-2114
대학	동덕여자대학교	1983	학사	일본어전공	서울	서울특별시 상북구 하월곡 2 동	http://japanese.dongduk.ac.kr/shop_ma	T. 02-940-4370



대학	일본어과(Dongduk Women's University)	언급없음	회사 박사	관광일본어학 전공	전남	동덕여자대학교 일본어과 (136-714)	in/main_body.htm	T. 061-330-3640
대학	동신대학교 관광일본어학과(Dongshin University)	1977.12	회사 박사	일본학전공	부산	전라남도 나주시 간재로 185 동신대학교 관광일본어학과	http://japan.dsu.ac.kr/	T. 051-200-8707
대학	동아대학교 일어일본학과(Dong A University)	1981	회사 박사	일어일본학 전공	부산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국제학관 (602-760)	http://japan.donga.ac.kr/	T. 051-890-1262
대학	동의대학교 일어일본학과(Dong-Eui University)	1990	회사 박사	일어일본학 전공	서울	부산광역시 진구 영광로 995 동의대학교 일어일본학과 (614-714)	http://japanese.deu.ac.kr/	T. 02-300-0560
대학	명지대학교 일어일본학과(Myoungji University)	언급없음	회사 박사	일어일본학 전공	전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복로길 34 본관 7 층 (120-728)	http://nihon.mju.ac.kr/user/nihon/index.action	T. 061-450-2160
대학	(국립)목포대학교 일어일본학과(Mokpo National University)	1993.03	회사 박사	일어일본학 전공	대전	전라남도 무안군 창계면 도림리 61 목포대학교 일어일본학과 (534-729)	http://dorim.mokpo.ac.kr/~japan/	T. 042-520-5114
대학	백석대학교 어문학부 일본어전공(The Paichai University of Korea)	언급없음	회사 박사	생활일본어전공 비즈니스일본어전공 관광일본어통역전공	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http://community.bu.ac.kr/language/index.jsp	T. 041-550-9148 F. 041-550-9054
대학	부경대학교 일어일본학부(Pukyong National University)	언급없음	회사 박사	일본어문학전공 일본학전공	부산	충청남도 천안시 인서동 115 본부동 3 층 이문학부 사무실 (530-704)	http://jp.ac.kr/	T. 051-629-5390
대학	부산대학교 일어일본학과(Pusan National University)	1980	회사	일어일본학전공	부산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 3 동 599-1 부경대학교 일어일본학부	http://home.pusan.ac.kr/~japan/	T. 051-510-1509
대학	부산외국어대학교 일어일본학과(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81.12	회사 박사	커뮤니케이션일본어 학 전공 비즈니스일본어학 전공	부산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항로 63 번길 2 부산대학교 일어일본학과 (609-735)	http://cms.pufs.ac.kr/krsna/html/mai n/default.aspx	T. 051-640-3018
대학	삼육대학교 일본어과(Sairmyook University)	2005.12	회사	일본어전공	서울	부산광역시 남구 서포로 15 부산외국어대학교 일어일본학과 (608-738)	http://www.syu.ac.kr/web/japanese/home	T. 02-3399-1549 F. 02-3399-1547
대학	상명대학교 일어문학과	1979.03	회사	일본어문학전공	충남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삼육대학교 비둘관 406 호 (139-742)	http://www.smmihongo.org/	T. 041-550-5127

대학	(Sangmyung University) 상명대학교 일어교육과 (Sangmyung University)	1973.12	회사 석사 박사	일어교육전공	서울	친인캠퍼스 일본어문학과 (330-720)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동 7 상명대학교 일어교육과 (110-743)	http://japed.smu.ac.kr/	T. 02-2287-5116
대학	서강대학교 국제언문학부 일본문화 (Sogang University)	2004	학사	일본문화전공	서울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정하상관 J614 호 (121-742)	http://liberalarts.sogang.ac.kr/	T. 02-705-8276
대학	서경대학교 국제비지 니스어학부 일어전공 (Seokyeong University)	1962	학사	일어학전공	서울	서울특별시 상북구 서경로 124 서경대학교 한림관 602 호 (136-704)	http://jp.skuniv.ac.kr/	T. 02-940-7545
대학	서울여자대학교 일어일본학과 (Seoul Women's University)	인접없음	학사	일어일본학전공	서울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23, 서울여자대학교 일어일본학전공 (139-774)	http://www.dodogirls.kr/sub/main.htm	T. 02-970-5481
대학	서울신학대학교 일본어과(Seoul Theological University)	인접없음	학사	일본어전공	경기도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 489 번길 52 (소사본동) (422-742)	http://www.stu.ac.kr/homepage/progr m/uni10_1.jsp	T. 032-340-9114 032-349-9400
대학	선문대학교 일어일본학과 (Sunmoon University)	1994	학사	일어일본학전공	충남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길산리 100 선문대학교 일어일본학과 (336-708)	http://japan.sunmoon.ac.kr/	T. 041-530-2406
대학	성결대학교 일어일본학과 (Sungkyul University)	1998	학사	일어일본학전공	경기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영암관 104 호	http://wiz.sungkyul.ac.kr/user/skiap/	T. 031 467-8943
대학	성공회대학교 일어일본학과 (SungKonghoe University)	1996.03	학사	일어일본학전공	서울	서울특별시 구로구 연동로 320 (152-716)	http://depis.skhu.ac.kr/	T. 02-2610-4806
대학	성신여자대학교 일어일본학과 (Sungshin Women's University)	1972	학사 석사	일어일본학전공	서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 3가 249-1 성신여자대학교 일어일본학과(136-742)	http://www.sungshin.ac.kr/japanese/ht ml/main/index.html	T. 02-920-7096
대학	세명대학교 일본어학과 (Semyung University)	1994년 이전	학사 석사	일본어전공 일어교육전공	충북	충청북도 제천시 세명로 65 세명대학교 일본어학과 (390-711)	http://smuiapan.cafe24.com/	T. 043-649-1763 F. 043-649-1763
대학	세종대학교 일어일본학과	인접없음	학사	일어일본학	서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98 세종대학교	http://cm.sejong.ac.kr/user/jpndpt/	T. 02-3408-3303

대학	(Sejong University)		석사 박사	전공		일어일본학과 (143-747)		http://swu.suwon.ac.kr/program/prog_m1_1_1.html	T. 031-220-2507
대학	수원대학교 일본학과 (Suwon University)	1992	학사 석사	일어일본학 전공	경기도	경기도 화성시 봉림읍 외우길 17 수원대학교 일본학과 (445-743)		http://japan.sookmyung.ac.kr/	T. 02-710-9885
대학	숙명여자대학교 일본학과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98	학사 석사	일본학전공	서울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피로 47 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일본학과 (140-742)		http://www.sunchon.ac.kr/web/japan/home	T. 061-750-3450
대학	순천대학교 일본어일본문화학과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1993.03	학사	일본어 일본문화학 전공	전남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55 순천대학교 일어일본학전공 (540-950)		http://japanstssu.ac.kr/web/japanstu	T. 02-820-0530
대학	숭실대학교 일어일본학과 (Soongsil University)	1995	학사	일어일본어학 전공	서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일본학과 (156-743)		http://japan.silla.ac.kr/	T. 051-999-5214
대학	신라대학교 일어일본학과 (Silla University)	1993	학사 석사 박사	일어일본학 전공	부산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700 길 140 신라대학교 일어일본학과 (617-736)		http://japan.yu.ac.kr/index.jsp	T. 053-810-3160
대학	영남대학교 일어일본학과 (Yeungnam University)	인접없음	학사 석사 박사	일어일본학 전공	경북	경상북도 경산시 대항로 280 영남대학교 일어일본학과 (712-749)		http://japan.youngdong.ac.kr/	T. 043-740-1250
대학	영동대학교 일본어과 (YeungdongUniversity)	인접없음	학사	일본어학 전공	충북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대항로 310 번지 영동대학교 일본어과 (370-701)		http://japan.yosu.ac.kr/	T. 051-540-7177 F. 051-540-7189
대학	영산대학교 부산캠퍼스 일어학과 (Yeongsan University)	1997	학사	일어학전공	부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순환로 142 (반송동) (612-743)		http://japan.woosuk.ac.kr/	T. 063-290-1340
대학	우석대학교 일본어과 (Woosuk University)	인접없음	학사	일본어과 전공	전북	전라북도 완주군 심례읍 심례로 443 우석대학교 일본어과 (565-701)		http://japan.ulsan.ac.kr/	T. 052-259-2540
대학	울산대학교 일본어 일본학과 (University of Ulsan)	1981	학사	일본어 일본학전공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대항로 102 울산대학교 14 호관 312 호		http://cms.wonkwang.ac.kr/japan/	T. 063-850-6520
대학	원광대학교 사범대 일어교육과 (WonkwangUniversity)	1974	학사 석사 박사	일어교육전공	전북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일어교육과 (570-749)		http://nihongo.uu.ac.kr/	T. 054-760-1530
대학	위덕대학교 일본어일본문화학과	1998. 3	학사	일본어일본문화학전공	경북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동해대로 261 위덕대학교 (780-713)			

대학	(Uiduk University) 인제대학교 일어일본학부 (Inje University)	1992	학사	일어일본학공	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아방동 607 인제대학교 일어일본학과 (621-749)	http://homepage.inje.ac.kr/~japan/	T. 055-320-3311
대학	인천대학교 일어일본학과 (University of Incheon)	1980.10.2	학사 석사	일어일본학공	인천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인천대학교 일어일본학과 (406-772)	http://uijapan.incheon.ac.kr/cis/class5/first.html	T. 032-835-8150
대학	인하대학교 일본어문화학과 (Inha University)	1980	학사 석사 박사	일어일본학공	인천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인하대학교 일본어문화과 (402-751)	http://japan.inha.ac.kr/	T. 032-860-8060
대학	전남대학교 일어일본학과 (Chonnam University)	1980.1	학사 석사 박사	일어일본학공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용현동 300 전남대학교 일어일본학과 (500-757)	http://nihon.jnu.ac.kr/home_page/japan/index.php	T. 062-530-3210
대학	전북대학교 일어일본학과 (Chonbuk National University)	1985	학사 석사 박사	일어일본학 전공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일어일본학과 (561-756)	http://home.jbnu.ac.kr/japan/index.htm	T. 063-270-3261
대학	전주대학교 일본어문화전공 (Jeonju University)	1988.1	학사	일본어문화학전공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경로 303 전주대학교 일본어문화전공(560-759)	http://human.j.ac.kr/japan/	T. 063-220-2311
대학	제주대학교 일어일본학과 (Cheju National University)	1997	학사 석사 박사	일어일본학 전공	제주시	제주도 제주시 제1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본학과 (690-756)	http://japanese.jeju.ac.kr/	T. 064-754-2760
대학	조선대학교 일본어과 (Chosun University)	1979	학사 석사 박사	일본어학 전공	광주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일본어과 (501-759)	http://www.chosun.ac.kr/~japanese/	T. 062-230-7550
대학	중앙대학교 아성캠퍼스 일어학과 (ChungAng University)	1981	학사 석사 박사	일어학전공	경기도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 중앙대학교 일어학과 (456-756)	http://www.cau.ac.kr/02_univ/university/before11year/ansong/foreignlanguage/foreignlanguage03.php	T. 031-670-3181
대학	중앙대학교 일어일본학과 (ChungAng University)	1980.1	학사 석사 박사	일본어문학 전공	서울	서울특별시 동진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서라벌길 517 호 일어일본학과 (156-756)	http://caji.net/caji_1/main.htm	T. 02-820-5118
대학	창원대학교 일어일본학과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1991.10.01	학사	일어일본학 전공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소나무 5 길 65 창원대학교 일어일본학과 (641-773)	http://portal.changwon.ac.kr/home/japan	T. 055-213-3150
대학	청주대학교 일어일본학과 (Chongju University)	1973	학사	일어일본학 전공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6 청주대학교 일어일본학과 (360-764)	http://www.ilmunlove.com/	T. 043-229-8339

대학	충남대학교 일어일본학과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1986. 11.	학사 석사 박사	일어일본학 전공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 충남대학교 일어일본학과 (305-764)	http://human.cnu.ac.kr/japanese/	T. 042-821-5371
대학	평택대학교 일본학과 (Pyeongtaek university)	인급없음	학사	일본학전공	경기도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3825 평택대학교 일본학과 (450-701)	http://www.ptu.ac.kr/korean/subject/s ubject14.jsp	T. 031-659-8114
대학	한국국제대학교 관광일어학과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인급없음	학사	관광일본어학 전공	경남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등부로 965 (660-759)	http://japan.iuk.ac.kr/main/main.php	T. 055-751-8260 F. 055-751-8269
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1997.07	학사	일본학전공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대방로 8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110-791)	http://jpn.knou.ac.kr/	T. 02-3668-4290
대학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대학 일본학부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61	학사 석사 박사	일본어학전공	서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대학	http://hufs.japan.ac.kr/	02-2173-2297
대학	한국외국어대학교 홍익캠퍼스 일본어통번역학과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08.03	학사 석사 박사	일본어통번역 전공	경기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산 89 아문관 221-1 호 일본어통번역학과 (449-791)	http://hufs.jp.zoa.to/	T. 031-330-4234
대학	한남대학교 일어일본학과 (Hannam University)	1973.12	학사 석사 박사	일어일본학 전공	대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133 한남대학교 일어일본학과	http://hnu.japan.com/	T. 042-629-7338
대학	한서대학교 일본학과 (Hanseong University)	1993.03.01	학사	일본어학전공	충남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한서1로 46 한서대학교 일본학과 (356-706)	http://home.hanseong.ac.kr/japan/	T. 041-660-1240
대학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일본어일본학과 (Hanyang University)	1979.09	학사 석사 박사	일본어일본학전공	경기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 1271 번지 한양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http://japan.hanyang.ac.kr/	T. 031-400-5330
대학	호남대학교 일본어학과 (Honam University)	인급없음	학사	일본어학전공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아등대로 417 호남대학교 일본어학과 (506-714)	http://japan.honam.ac.kr/japan/	T. 062-940-5217

일본학관련 연구기관 II. 대학부설기관 (13개 기관)

기관 구분	기관명	설립일	허위수여 개별과정	지역 구분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대학부설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Institute Of Japan Studies, Dongguk Univ.)	1979년 9월	無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100-715)	<a href="http://js.dongguk.edu/">http://js.dongguk.edu/</a>	T. 02-2260-3512
대학부설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The Japan Center. Dongseo Univ.)	설립일자 없음	無	부산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2동 산 69-1 동서대학교 국제협력관 8층 일본연구센터 (617-716)	<a href="http://japancenter.or.kr/">http://japancenter.or.kr/</a>	T.051-320-1900~1
대학부설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 연구소	언급없음	無	서울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7 대학원 519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홈페이지 폐쇄(2013/6/24)	
대학부설	단국대 일본연구소 (Institute of Janpanses Studies Dankook University)	2002년 10월 28	無	경기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6번지 인문관 326호 (448-701)	<a href="http://dkjapan.or.kr/">http://dkjapan.or.kr/</a>	T. 031-8005-2667
대학부설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Institute of Japan Studies)	1997.5.1	無	서울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133-791)	<a href="http://www.aprc.kr/aprc/index.asp">http://www.aprc.kr/aprc/index.asp</a>	T. 02-2220-1494
대학부설	한림대학교 일본학 연구소 (Institute of Janpanses Studies Hallym University)	1994년 03월	無	경기도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0-702)	<a href="http://japan.hallym.ac.kr/">http://japan.hallym.ac.kr/</a>	T. 031-248-3215
대학부설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2002년 9월 16일	無	서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861-1 국민대학교 북역관 11층 1107호 일본학연구소 (136-702)	<a href="http://www.ijs.or.kr">http://www.ijs.or.kr</a>	T. 02-910-4300

대학부설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Asiatic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1957.06.17	無	서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1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36-701)	<a href="http://www.asiaticresearch.org/">http://www.asiaticresearch.org/</a>	T. 02-3290-1600 F. 02-923-4661
대학부설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소 (Center for Japanese Studies)	1999.08.13	無	서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65 청산MK 문화관 일본연구소 (136-075)	<a href="http://www.kujic.kr/">http://www.kujic.kr/</a>	T. 02-3290-2592 F. 02-3290-2538
대학부설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SNU)	1991	無	서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104 동 403 호) (151-742) *1991년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내 일본연구소 개설 2004년 11월 국제학연구소 신하 일본연구소센터에서 일본연구소로 독립	<a href="http://ijs.snu.ac.kr/">http://ijs.snu.ac.kr/</a>	T. 02-880-8503
대학부설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일본연구소 (Soongsil Univ.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1995.11.1	無	서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커밍홀 110호 (156-743) *1995년 11월 1일, 숭실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소》와 《통일문제연구소》의 통합으로 《사회과학연구원》으로 개편. 이후, 숭실대학교의 연구소 체제편과정에서 1998년 4월 《사회과학연구소》로 재조정.	<a href="http://iss.ssu.ac.kr/modules/doc/index.php?doc=intro">http://iss.ssu.ac.kr/modules/doc/index.php?doc=intro</a>	T. 02-820-0844
대학부설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ChungAng Univ.)	1979.4.1.	無	서울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문과대 9층 일본연구소 (156-756)	<a href="http://web.cau.ac.kr/cajiso/intro03.htm">http://web.cau.ac.kr/cajiso/intro03.htm</a>	T. 02-820-5118
대학부설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소 일본연구소 (Institute Of Japan Studies)	1985	無	서울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본관 1005호	<a href="http://hufs-japan.com/">http://hufs-japan.com/</a>	T. 02-2173-3935

일본학관련 연구기관 III. 연구기관 (10개 기관)

기관구분	기관명	설립일	협약수여 (개설과정)	지역 구분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이메일
연구기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1972. 9. 1	無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번길 (삼정동) (110-230)	http://ifes.kyungnam.ac.kr/kr or /FES_main.aspx	T. 02- 3700-0700	
연구기관	동아시아연구원 (East Asian Studies)	2002. 5	無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 호 (을지로 4가 삼풍빌딩) (100-786)	http://www.eai.or.kr/korean/index.asp	T. 02-2277-1683 F. 02-2277-1684	eai@eai.or.kr
연구기관	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Economics & Trade)	1976	無	서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66 (130-742)	http://www.kiet.re.kr/	T. 02-3299-3114	
연구기관	삼성경제 연구소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1986	無	서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2 동 132가-15 번지 삼성생명 서초타워 28-31층	http://www.seri.org/_index_.html	T. 02- 3780-8000	
연구기관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Sejong Institute Japan Center)	1983. 10	無	경기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 번지 20 (461-370)	http://www.sejong.org/	T. 031-750-7500	jincs@sejong.org
연구기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1963	無	서울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행로 2572 (서초 2 동 1376-2) (137-863)	http://www.ifans.go.kr/index.html	T. 02-3497-7600	
연구기관	제주평화연구원 (Jeju Peace Institute)	2006	無	제주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120)	http://www.jpi.or.kr/	T. 062-735-6500	
연구기관	한국방위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1979.01	無	서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37 (130-871)	http://www.kida.re.kr/	T. 02- 967-4911	
연구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KIRS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Strategy)	1987. 10. 17	無	서울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39 빌딩 1815 호 (140-013)	http://www.kiris.or.kr/	T. 02-750-1301	
연구기관	LG 경제연구원 (L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1986	無	서울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LG트윈타워 동관 33층 (150-721)	http://www.lgeri.com/	T. 02-3777-0486	webmaster@lgeri.com



일본학관련 연구기관 VI. 학회 (30개 학회)									
기관 구분	기관명	설립일	학위수여 (개설과정)	지역 구분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이메일	
학회	고현일본근대문학회 (Goheon Association of Modern Japanese Literature)	홈페이지 없음	無	부산	부산광역시 사하구 허단 2 동 동아대학교 일어일본학과 정인문교수 연구실 (604-714)	無	T. 051-200-7001	goheon2002@hanmail.net	
학회	고현일본학회 (Goheon Association of apalology)	홈페이지 없음	無	부산	부산광역시 사하구 허단 2 동 동아대학교 일어일본학과 정인문교수 연구실 (604-714)	無	T. 051-200-7001	goheon2002@hanmail.net	
학회	대한일어일본학회 (The Japanese Association and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91.02.23	無	부산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3 동 1143-13 부산 YMCA 15 층 (601-837)	http://www.jalailika.org/	T. 010-3283-9994	jalailika@hanmail.net	
학회	동아시아일본학회 (The Association of Japanology in East-Asia)	1990	無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05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스마스관	http://www.dongasia.or.kr	T. 010-5104-8899	dongasia2013@naver.com	
학회	동덕어문학회 (Dongduk Association of Japanese Language(Dajal))	홈페이지 없음	無	서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 2 동 동아에코빌아파트 106-1804 (132-759)	無	T. 02-940-4373	ydg@inhac.ac.kr/ydg	
학회	일본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Japanese History)	1994	無	서울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일어교육과 (143-701)	http://www.japanhis.or.kr/	T. 02-450-3813	jphistorian07@gmail.com	
학회	일본사회민속학회	홈페이지없음	無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신당동 계명대학교 국제통상대학 일본학과 김도형교수 연구실 (704-701)	http://kuyyong.andong.ac.kr/%7Eilbon/11thaksul.htm	T. 053-580-5155	kim39@kim39.com	
학회	일본어문학회 (Journal of the Society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Japanology)	1992	無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 2 동 743-28 (700-813)	http://www.trijapan.co.kr/	T. 053-428-2375	japan92@hanmail.net	
학회	일본어어문학회 (Japanese Language and Culture Association of Korea)	2001	無	서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신본관 431 (130-791)	http://www.kojap.org	T. 02-2173-2369	jica@korea.com	

학회	일본연구학회 (The Society of Japanese Studies)	홈페이지없음	無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704-701)	無	T. 053-580-5155	bdy445@knu.ac.kr
학회	일본정경사학회	홈페이지없음	無	서울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일본학과	無		
학회	한국일본교육학회 (The Society of Korea and Japan Education)	1985. 1. 27.	無	서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1동 서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학과 (137-742)	http://www.skje.or.kr/	T. 02-3475-2436	khnam@ns.snue.ac.kr
학회	한국일본근대문학회 (Korea Association of Japanese Modern Literature)	홈페이지 없음	無	서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한국외대 최재철 연구실 (130-791)	無	T. 02-2173-3208	KJML99@yahoo.co.kr
학회	한국일본근대학회 (The Japanese Modern Association of Korea)	2000.01	無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광로 995 제2 인문관 한국일본근대학회 사무국 (614-714)	http://www.kjin2000.com/html/2_03.asp	T. 051-890-1264	kindai2000@hanmail.net
학회	한국일본문학회 (The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Association Of Korea)	인급없음	無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본학과 (500-757)	http://cafe.daum.net/kaja4ever	T. 062-530-3211	
학회	한국일본문화학회 (The Japanese Culture Association of Korea)(cak)	1993.10.30	無	대전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31-1 신영 BLD201 호 (300-150)	http://www.bunka.or.kr	T. 042-821-1350	jbunuka@hanbat.ac.kr
학회	한국일본사상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Japanese Thought)	홈페이지 오류	無	전북	전라북도 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전북대학교 인문학부 하유봉교수 연구실 (561-756)	http://www.kajt.or.kr	T. 061-270-3233	hwbon@chonbuk.ac.kr
학회	한국일본어교육연구회 (Korea Japanese Teacher's Association)	인급없음	無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43-8 방직빌딩 7층 (110-111)	http://www.kojata.or.kr	T. 02-722-1565	chahwan@chol.com
학회	한국일본어교육학회 (The Japanese Education Association of Korea)	1984. 7.	無	광주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외국어대학 3128호 (501-759)	http://www.jpedu.or.kr	T. 062-230-6855	jpedu@jpedu.or.kr
학회	한국일본어학회 (The Japanese Language Association Of Korea)	1999	無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 125 5층 한밭대학교 일본어과 조남성교수 연구실	http://cafe.daum.net/jiak/	T. 010-2054-6576	jiak123@hanmail.net

학회	한국일본학회 (Korea Association Of Japanology)	1973	無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수하동 40-2 우석빌딩 1002호 (100-210)	http://kaja.or.kr	T. 02-568-4662	jimu@kaja.or.kr ; augustine00@hanmail.net
학회	한국일어교육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Japanese Education )	1993.1	無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1길 34 배화여자대학교 일어통번역과 재경회교수 연구실 (110-735)	http://www.kaje.or.kr	T. 02-399-0797	chaekh@baewha.ac.kr
학회	한국일어일본학회 (The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Association Of Korea)	1978	無	인천	인천광역시 남구 인화로 인하대학교 5남 108호 교수관 교수 연구실 (402-751)	http://www.hanilhak.or.kr/main/index.php	T. 02-764-2533	hanilhak@hanmail.net
학회	한일관계학회 (The Korea-Japan Historical Society)	홈페이지 인원림	無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피아스호아파트 123-304 (138-050)	www.hanilhis.or.kr	T. 033-250-8219	msyeon21@korea.com
학회	한일경상학회 (The Korean-Japanese Economics & Management Association)	1983.1	無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인서동 산 29번지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사회과학관 103호(330-714)	http://www.kjem.or.kr	T. 041-550-3362	shyim310@dankook.ac.kr
학회	한일군사문화학회 (The Korea & Japanese Military Culture)	2001.12. 1	無	서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사서함 77-2 교수부 외국어학과 서형식 연구실 (139-799)	http://mckoja.org/main/	T. 02-2197-2762	yssik@kma.ac.kr
학회	한일민족문제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Japanese National Studies)	2000.06.03	無	서울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 1동 광운대학교 (139-701)	http://www.kjnation.org	T. 02-940-5486	kjnation@netian.com
학회	한일어일본학회 (The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Association Of Hanil)	홈페이지없음	無	부산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55-1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 (608-738)	無	T. 051-910-4300	4chang@puks.ac.kr
학회	한일협력위원회 (Korea-Japan Cooperation Council)	홈페이지없음	無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대한상공회의소	無	T. 02-755-0745	
학회	현대일본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Japanese Studies)	1978.09	無	서울	서울특별시 서초구 빈포동 590-55 301호	http://www.kajis.org/	T. 02-594-2850	webmaster@jis.or.kr

## 2012 한국 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

© 일본국제교류기금 /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역 은 이    진창수

발    행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펴    낸    곳    연이프린텍

발    행    일    2013년 10월 16일

Printede in Korea